

군선교 신학

13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8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 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12:1)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에 들어와 딱딱한 가슴속에, 갈급한 심령속에, 척박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군’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육적으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강군 및 모범 국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곳... 군선교 현장은 한국교회의 청년 전도의 마지막 보루이자, 무궁무진한 선교의 발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신학과 바른신앙을 통한 국가관과 사생관 확립 등 강한 군대 육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군’입니다. 특히 군종병과의 존재 목적이 국군장병들의 정신 전력 증대를 위하여 건강한 신앙생활과 바른신앙을 갖도록 권장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므로 병영생활을 즐겁고 따뜻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를 가질 자유도 중요하지만,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보장하라는 권고사항이 시행과정에서 굴절되어, 현재의 군내에서는 선교활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군은 생명존중과 보존을 위해서 더더욱 바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특수한 점을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는 ‘군인권과 선교활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군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인권 측면에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며, 또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와 교육이라는 주제도 발제가 됩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되는 연구위원들의 소중한 결과물이 부디 군선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군선교신학회에서 15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짐없이 심포지엄을 해 오는 걸 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임에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군선교연합회가 조직한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매년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선교신학 논문을 공모하는 등 군선교 신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군선교 사역의 확고한 기반 조성,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및 적용해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뜻 깊은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심오함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직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섬김을 다해 주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출판되도록 수고해 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본회 사무처 상근 사역자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군중목사,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에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제15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열었다.

군인이라는 특수 공동 집단 내에서 개인의 인권도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도 지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경계선과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신학적, 법학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터득하려는 시도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행하였다.

인권과 자유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책임적 사회에서 자유와 책임은 상호보충적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는 군 특수 윤리가 주장된다.

현대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주 원인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신빙성 또는 충분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임을 종교개혁자들이 간파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운동에서 교리개혁, 예배개혁, 생활개혁을 주장했듯이, 우리도 현대설교에서 강해설교를 회복시킴으로 예배를 성경이 제시한 대로 회복시키고 대대급교회가 소생해야 군선교의 풀뿌리가 살아난다고 본 것이다.

금번 신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해 주신 학자들과 군생활에 바쁜 일정 속에 계신 현역 군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독자와 함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넉넉히 넘고 이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도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장병 여러분의 무훈을 빌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건국70주년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우리 국군장병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2015년 10월 27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이종윤

「군선교신학」 논문집 편찬 일러두기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기준으로 하며, 공모 논문의 경우 15매 이내로 한다.
-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 문헌 (5) 영문초록 (6)주제어(key words):
-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 1저자 및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v2020.co.kr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 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¹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97.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57.

¹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 」으로, 논문집일 경우 「 」로 표기한다.

-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 N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2001), 22.
- B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2001.
-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화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 명」 권수(발간년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장절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1)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차 례

비전202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박선희 목사 ...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군선교신학」 논문집 편찬 일러두기 ... 7

17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 기초강연 | 이종윤

49 군 인권과 선교활동

- 발제 1 | 김일수

75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

- 발제 2 | 이규철

121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 논찬 2 | 이승구

124 성경에 나타난 군(軍) 지도자(指導者)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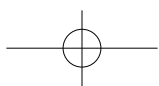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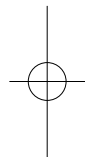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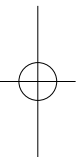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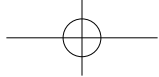
- 연구위원논문 | 강사문

152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代)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 연구위원논문 | 김진섭



- 190 개혁된 예배 - 연구위원논문 | 김성봉
- 209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 연구 - 연구위원논문 | 최석환
- 229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 연구위원논문 | 김동연
- 260 목회 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 연구 상담학회 | 이용락
- 300 대대급 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 제12회 공모논문 우수작 | 전요섭
- 320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 제12회 공모논문 장려작 | 신종훈
- 344 외상 상황(Traumatic Situation) 하에서의 군중상담 연구
- 제12회 공모논문 장려작 | 전석원 목사 외 2명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Human Rights of Soldiers and Evangelical Activity: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Reformation of Worship)

■ 이종윤 Lee, Jong Yun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 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교
 - 장로회 신학대학교(D. D.)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서울교회 원로목사



이 논문은 두 개의 주제를 해석하고 군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다.

I. 군인권과 선교활동

인권과 자유의 관계를 정립하고, 인권 강조라는 미명하에 군 내에서

종교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또한 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1. 인권은 신권(神權)이다.

기독교 문화에서 인권은 천부적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며, 인간이 만물과 같은 범신론적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으로 본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신적인 부여에 있다.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이 인간성 그 자체를 신적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해서 기독교 윤리는 인간성 자체를 신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본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기보다 신권(神權)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도구로 사용되거나 수단이 되어 제도에 속박될 수 없으며 철학자 칸트가 기독교적 영향으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한 것처럼 인간은 영육을 분리하지 않고 통일된 전체로 보아야 한다. 인간에게 있는 정서, 감정, 지성을 통합한 기독교적 전일주의(*Christian wholism*) 인간이해는 영의 실재나 실체성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견해를 거부하며, 몸의 실재와 의미성을 거부하는 신령주의나 신비주의를 거부한다. 기독교는 인간을 통일된 전체의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한다. 인권이란 단순히 몸이나 지성만이 아니라 정서에 이르기까지 존중되고 이 세 차원이 통일된 전체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서의 개인의 정체성

현대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칸트(I. Kant)와 밀(J. S. Mill)의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개

인의 사회성 혹은 공동체적 본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병폐와 관련,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한다.¹ 첫째, 자유주의에 내재된 개인 중심적 가치관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병폐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자유주의 이론이 사회적, 정치적 실재를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관점은 첫째 관점과 다른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이론이 사회적 관계들을 점점 더 원자화하고 고립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 점에서 첫째 관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마이클 샌델(M. Sandel)은 자유주의자들의 사회관 바탕에는 개인에 대한 추상적 이해, 곧 공동체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개인에 관한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인간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라고 공격한다.²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신체를 경계로 삼아 자아와 타자를 확연히 분리해 내고 그 분리 의식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반해 공동체주의자들은 특정한 문화적, 도덕적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만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은 언제나 그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은 독립적 개인으로보다는 어떤 가문, 어떤 지역, 어떤 종교, 어떤 민족, 어떤 국가의 일원이라는 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과 도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도덕적 특성을 해석해야 한다.³

군대라는 특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런 성취들이 개인의 자율적 행위에 의미

¹ 김비환,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병폐와 자유주의 사이의 연관성 비판, 현대사상 키워드 60,” 『신동아』 (1) (2004), 178-179.

² *Ibid.*, 179.

³ *Ibid.*, 181.

와 가치를 부여하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유리될 때에는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군인은 그가 속한 집단의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도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3. 책임적 사회(Responsible Society)와 자유

책임적 사회(Responsible Society)를 논할 때 자유와 책임의 균형 잡힌 조화를 추구한다.⁴ 책임적 사회는 휴머니즘과 인격주의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제도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기구와 제도가 자유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책임적 사회가 자유를 강조한다 해서 그 자유가 이기적 자아(ego)의 자유 곧 개인주의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타인에 대한 책임있게 행동하는 책임적 자유(Responsible freedom)를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적 사회에서 자유와 책임은 상호 보충적이다. 책임적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역설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적 자유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소중하듯 그 인권을 지킬 사회적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기독교에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한다. 여기서 진리는 보편타당성 있는 것이나 논리적인 것이 아닌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요 14:6). ‘알지니’(γινώσκω, ginōskō)는 1+2=3이 됨을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된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 1:34).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는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자유롭게 된다. ‘~로부터의 자유’(free from~)가 아니고 ‘~을 위한 자유’(free for~)가 주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

⁴ 고범서, 『기독교와 사회윤리』(서울: 범화사, 1983), 16.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국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대한 세계 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의 모체인 초기인권협약이 19세기에 노예교육의 금지와 오토만 제국 내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로 이루어졌다. 후자의 조약은 유럽의회를 구성한 국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는데 오토만 제국 내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외교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었다. 후에 국제연맹규약, 국제노동기구의 인권법과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네 가지 기본적 자유에 대한 기반을 둔 인권이 UN헌장의 기초가 되었다.⁵

4. 장병들의 사생관, 국가관, 인생관, 가치관 확립 차원에 비해 군중활동 저평가

1) 현 상황

그 가치관은 바른 신앙에서 가능함을 이스라엘 6일전쟁의 승리와 유물주의, 무신론자,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상황에서 1969년 9월 3일 1군사령관 한신 장군의 ‘전군신자화 운동’이 일어났고,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1인 1종교 갖기) 정책 등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가 되고 있음을 통해 이미 군대에서 군중활동과 역할의 중요성은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36대 육군참모총장 남재준의 ‘무종교도 종교’라는 비논리적 이론으로, 군대에서의 선교(포교)활동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와 기독교 군목단과 한국

⁵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세계인권선언”

군선교연합회는 초비상사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⁶

진정인 조모(22세) 씨는 ‘군복무 중 소속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있어 장병종교 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장병 종교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장병 종교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 결과(소속직할 부대장병 650명) 중 무작위 선정한 98명(이병 27명, 일병 32명, 상병 25명, 병장 14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 보유자 44명 무교가 45명)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왔다.

(1)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는가?

16명(16.3%)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간부들이 3대 종교 등을 택일해 믿도록 하고, 무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병 이하의 장병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간부들이 군에는 1인 1종교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이등병의 경우는 정서 안정을 위해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고 교육했다고 밝혔다.

⁶ 인권위, 군장병에게 무종교의 자유보장 등 권고 국방부장관에게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 관련 관행 개선 권고 보도자료 2010. 8. 12. 담당 정상영 조사국 조사총괄과.

(2) 특정 종교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

17명(1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종교행사 참여에 39명(39.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등병의 경우 전원 참석을 강요 받았고 종교행사 참석인원이 적은 경우 더욱 강요받았다고 답했다(이등병의 경우 53명(54%)이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3) 건의사항

자유 의견 제시 부분에서 당직사관, 소속 대대장이 종교행사 불참 시 TV시청 금지, 청소 및 작업지시 등 불이익을 준다. 1인 1종교를 택할 것과 전원 참석을 강요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해 달라 하면 ‘빠졌다’라고 징책을 받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4) 설문 결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의 보장 내용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있는 3대종교뿐 아니라 소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방장관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여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⁷

3) 평가

군에서 군종목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3대 종단의 종교 활동은 괄목할 만한 소정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1)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신앙자유로 해석한 인권위의 몰이해

상기한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의 모체인 초기 인권 협약은 오토만

⁷ Ibid.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였다.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권선언에서도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가 UN인권헌장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들은 신앙을 가진 이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유지 발전시킬 자유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지 인권위가 주장한 '종교를 갖지 않는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가령,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다. 거기에 국방의 의무를 갖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모순 논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2) 3대종교뿐 아니라 소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실질적인 종교 자유는 혼란만 야기한다.

개인의 종교생활은 당연히 보장되도록 군종업무 훈령 제3장 12조 3항에 명기되어 있다. "부대 내 종교시설이 없을 경우 종교 활동의 지원을 위해 군종장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부대 인근의 민간 성직자와 협조하여 이들의 종교시설을 이용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군인 개인의 인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군의 종교 활동은 신앙전력화라는 정신 전력 극대화에 기여됨이 간과될 수 없으며 소수 종교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단 사이버의 군내 침투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하므로 종교 소수인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현재 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들은 필요치 않다.

(3) 종교행사 불참 시 불이익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

군에서 종교행사에 참석을 권고하는 것은 휴식이나 오락시간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1인 1종교 갖기 운동은 장병의 신앙무장을 통해 무신론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국군의 신앙전력화를 위한 국가적 시책이다. 이를 개인의 종교 자유라는 논리를 앞세워 그 시간에 TV시청 금지, 청소 또는 작업 지시를 불이익으로 불평하는 병사는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무지와 책임적 사회의 일원임을 망각한 소치이다.

(4)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논리는 공산권 국가의 헌법과 방불

“국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으며, 무신론을 선포할 자유도 있다.” 중공(中共)의 헌법을 북경의 종교문제 사무소의 ‘호시아오 호시엔 파소장’이 다음과 같이 한 해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

사람은 믿는 것도 자유요, 내일 안 믿는 것도 자유며, 그 반대도 가하다.

종교 신자는 타국의 종교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자유가 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 즉 그들은 모든 혁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주의 재건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종교에 어떤 가치가 있거나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신론에 대한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 통제하에서 현대화 달성을 위하여 공산주의 혁명 대열에 종교인들의 참여를 회유하고, 외국인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자기 나라가 종교 자유가 있는 인권국가임을 과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이 자명하다.

1980년 12월에 발표된 중국교회 8가지 내부정책을 Ding Gwang Xun 감독이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18세 이하의 소년에게 종교적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다.

당원과 공무원은 종교 신앙을 갖는 것을 금한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 신앙 포기를 지연하면 당에서 추방한다.

⁸ Klaus Bockmuehl, 『마르크스주의의 도전과 크리스찬의 응전』, 이종윤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3), 231.

⁹ *Ibid.*, 232-234.

이상과 같은 종교법은 종교 자유를 위한 것이기보다 오히려 종교 신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1959년 북한노동당은 반종교활동의 지침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 종교는 과학과 진보의 적이며 우리 인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투쟁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다.……우리의 속에 남아 있는 비과학적인 종교·미신에 대한 잔재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또한 악질 종교인들이 종교적 간판 밑에서 반혁명적 행동을 포함하여 종교적 사상을 우리들 속에 부식시키려고 기도하므로 이것과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¹⁰

1972년 12월 27일 북한의 신헌법이 채택되었다. 그들의 신헌법 54조에 의하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법규가 공포되었다. 그 이전에도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종교인에 대한 차별대우(토지소유권, 사유재산권은 종교단체에게서 박탈)와 확대는 형언키 어려운 정도로 심했다. 소위 북한의 신헌법에서 ‘반종교 선언의 자유’라는 말이 북한에서 상식화됨으로 사실을 문서화시킨 것뿐이다.

(5) 신앙할 자유란 예배, 의식참여, 헌신 그리고 포교(전도)의 자유도 포함된다.

위의 인권위가 해당 부대원에게 조사한 설문 통계표가 보여주듯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한다가 16명(16.3%)이었다. 이등병의 경우 53명(54%)이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 강요를 받은 사실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가 군에서 기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점을 배제하고 개인의 종교 비수용적 태도를 인권이라는

¹⁰ *Ibid.*, 197.

우산 밑에 앉혀놓고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기상천외의 비논리를 일반화하려는 논법은 ‘쓴 약이라고 안 먹겠다고 뺏는 아이를 자유케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종교 신앙은 생명보다 귀하고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철학적 이데올로기나 신념과 같은 것에 비교하는 우를 더 이상 범치 않아야 한다. 무종교란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기를 믿거나 김일성 주체사상 같은 타 종교를 신봉하는 것인가? 검증되지 않은 이단과 사이비가 군대에서 종교라는 허울을 쓰고 싹트는 것은 군기강에 매우 유해한 독소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종교도 종교라는 비논리적 주장은 배제되어야 하고 묵살되어야 할 것이다.

(6) 동성애자들의 인권 주장은 비(非)성경, 반(反)성경, 탈(脫)성경적이다.

2002년 2011년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그 처벌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 외 국회의원 10명이 3월 18일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군대 내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의 부적절한 성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군대 내 동성애의 허용을 의미한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한 것으로 탈사회적 행위임을 본인은 지적한 바 있다.¹¹ 우리는 동성애가 반인권운동이기에 이를 배격한다.

(7) 선교의 대상: 이방인인가, 다른 민족인가?

예수는 12제자를 부르신 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 6)고 하셨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ethnē)으로 제자를 삼아 아

¹¹ 이종윤, “동성애는 반사회적 악마의 유혹,” 『미래한국』(504) (2015), 72-75.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복음대명(Great Commission)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ethnē(이방인, 또는 민족)을 위한 사도라 한다(롬 11:13; 15: 16, 18; 갈 2:8-9).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고전 9:20),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이라는 헬라어 ethnē와 히브리어 goyim은 민족(nations)을 뜻하기도 한다(롬 2:14; 3:29-30; 고전 1:23; 고후 11:26; 갈 2:12, 14-15).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밖의 세상 민족을 뜻하기도 했다(롬 2:24). 이처럼 바울은 ethnē를 민족으로도 읽고 있다(롬 4:18; 갈 3:8, 14) 따라서 ethnē는 이방민족이라 읽을 수 있다(롬 15:8-9).

바울은 그가 민족 중에서(en tois ethnesin)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갈 1:17) 수리아와 길리기아(갈 1:21)로 갔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동쪽 지방에서는(23절) 일할 곳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Spain)로 여행계획이 있다고 한다(23-28절).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서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만 자신을 생각했다면 수리아의 안디옥을 넘어 여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엔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¹²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에 있는 이방인만 전도하려 해도 그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방 민족의 사도로 북서쪽으로 여행을 한 것이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전하였다(갈 2:7, 8).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갈 2:8). 이것은 지리적

¹² Wayne A Meeks and Robert L. Wilken, “Jews and Christians in Antioch in the First Four Centuries of the common Era,” *SBL Sources for Biblical Study* (13), 8.

영토 구분이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알려진 세계에 이미 많이 흩어져 살았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함으로 유대인에게 전도했다(행 17:1). 그러나 바울은 경쟁하지 않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영역이 아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갈 1:16) 한 것으로 보아 바울의 소명은 구약 전승의 배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예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을 잃어버린 자로 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다. 오늘 우리의 전도대상은 부대, 직책, 계급, 사상, 종교, 교육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 이방 민족을 찾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복음 전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 인권 즉 신권을 세우는 일이며 헌신된 성도의 의무요 사명인 것이다.

II. 예배 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예수께서 수가 성에서 만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요 4:25)라고 했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생수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문제 그리고 예배에 관해 말씀하셨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영생의 물을 세상에 가져왔다는 교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도덕한 생활을 지적하셨다.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 산이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교리, 삶, 예배를 말씀하심으로써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교리, 예배 그리고 삶의 개혁을 개혁의 본질

로 삼았다.¹³

1. 현대예배가 흔들리고 있다.

현대문화는 민주화되고, 개인주의적이고, 반지성적인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시대와 실용주의와 낙천주의에 물들어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설교와 음악이 크게 변하고 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교회 건물에서 십자가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적 형상이나 상징물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했다. 그는 회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의식들과 행사를 없앴다. 그는 악기들을 제거하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노래하게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심오한 감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시켰다.¹⁴

하나님의 영적인 성격은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우상숭배를 피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가시적 형태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¹⁵ 칼빈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인용하면서, 예배(latria)는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숭배(dulia)는 형상들이나 성인들에게 드려지는 것이라 한 중세 신학자들이 만든 구별을 논박했다.¹⁶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

¹³ W. Robert Godfrey, "The Reformation of Worship," ed., James Boice and Benjamin E. Sasse, *Here we stand: A call from confessing Evangelical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57-158.

¹⁴ W. Robert Godfrey, "J. Calvin, worship and the sacraments(Inst. 4. 13-19)," ed.,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Phillipsburg, N. J.: P. & R. Publishing, 2008)

¹⁵ *Calvin's Institutes* 1, 3. 1

¹⁶ *Calvin's Institutes* 1, 12. 3.

없이 하나님을 형상들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위태롭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¹⁷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의 본성적 성격이 소위 끊임없는 우상의 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된 예배로부터 더하거나 빼려는 유혹들은 대단해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저항해야 한다.¹⁸ 교회는 하나님의 보증 없이 교회가 고안한 예배에 성도들의 양심을 묶을 권세가 없다고 칼빈은 강조한다.¹⁹ 성경의 하나님은 예배를 창조적으로 만들거나 혁신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레 10:1, 2).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진실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엘리야 때 바알의 제사장들이나 사마리아에서 여호와께 예배한 이들도 진실했으나 하나님은 제1, 2계명을 범한 예배였기 때문에 거절하셨다. 인간의 신실함이 거짓된 예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단순하고 영적인 예배는 훈련되고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격려할 것이다. “크리스천 예배는 인간 삶 속에서 the most momentous(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urgent(가장 긴급한 것), the most glorious(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정의한 칼 바르트(K. Barth)를 제임스 보이스(James Boice)는 그의 『요한복음 강해I』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같은 예배는 우리를 성경으로 돌아가 교리와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한다.

¹⁷ *Calvin's Institutes* 1, 11, 8.

¹⁸ *Calvin's Institutes* 4, 10.

¹⁹ *Calvin's Institutes* 4, 10, 27.

2. 예배와 집회는 구분되어야 한다.

기독교에는 크게 네 종류의 예배 형태가 있다.

첫째, 성례전(미사)적 예배(정교회).

둘째, 말씀과 성찬의 균형을 지키는 예배(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말씀을 회복한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셋째, 성례전을 연 2-4회 지키면서 설교 중심 예배(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넷째, 예배 격식이나 절차의 필요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예배(침례교, 오순절).

그런데 네 번째의 경우와 같은 축제적 예배형태는 실은 예배라기보다는 집회라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회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과 서부 개척기에 있었던 변방예배(Frontier worship)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1차 대각성운동)나 찰스 피니(Charles G. Finny, 1792-1875, 2차 대각성운동) 같은 이들이 중심이었다. 예배 전통 가운데 설교사역이 뜨거워지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지만 천막을 치고 야영 집회를 예배로 대치하는 것은 탈(脫)예전적인 것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다. 예배 분위기는 물론이고 기도, 찬양 심지어 성경봉독까지도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행위로 격하시키고 그 외 모든 것은 경험이나 회심의 황홀경을 함께하도록 강조하는 위험한 경지를 보편화시켰다. 그들의 관심은 예배보다 복음을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오지의 생명들이었다.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참석하고 경험했던 집회의 기도, 찬송, 성경봉독보다 설교가 전부라는 변방예배를 그대로 이 땅에 이식했다. 이 변방예배가 한국교회의 예배 모델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알고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처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배라는 말을 멀리했다.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읽혀진 개역성경(구약)에서 예배라

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배, 섬김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신약에서 겨우 14번 찾을 수 있다.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흠정역(KJV)에서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15회, 신약에 75회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배라는 이름을 난발하고 있다. 돌 예배, 생일예배, 회갑예배, 개업예배, 축하예배, 기공예배, 출판예배 등. 이런 것들은 예배에 대한 무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이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event)이다. 하나님의 창조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들이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나 예배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것이 현대인의 예배에서 종종 나타난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소리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또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라고 종종 기도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기도자가 축복의 근원자로 변신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봉헌 그리고 참회와 간구의 행동을 말씀을 받고 쏟아내는 참예배와 혼돈하고 있다. 그것을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이때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리면서 그분만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오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뿐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주장이나 설득은 있을 수 없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을 풀려는 행위도 개입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모든 응답행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주시는 성찬 예식에서 주님과 연합됨을 확인하고 새롭게 감격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1) 샤머니즘적 예배 형태는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종교 한복판에 심겨진 샤머니즘에는 정령(精靈)과 악령이 있어 그 정령이 자연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정령을 달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무당이 있었다. 그 무당은 가무(歌舞)를 통해 그리고 제물을 바침으로 정령의 노를 풀었다. 소원성취, 무병장수를 비는 무당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나 불교와는 다르다. 그 내용과 신앙 양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삶을 다짐한다. 자신의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는 샤머니즘과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을 미끼로 삼는 오늘날의 변형된 예배행위, 즉 집회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2)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 예배의 특성을 변경시켰다.

강단에서 성경봉독과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짧게 한다. 설교는 신학적 교리 설교나 주석적 강해설교보다는 심리적, 실제적 내용과 방법으로 한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시간과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주제가 설교에서 주를 이룬다. 성찬식은 새로운 축제나 상징성으로 대치하거나 생략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3. 사라져 가고 있는 강해설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우리 신앙의 전기를 마련해 준 종교개혁자

들에게 감사와 찬하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의 교회 강단(pulpit)을 특별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강해설교가 현대인의 강단에서 점차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한 신뢰가 침식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19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뿐 아니라 신약성경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역사비평주의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해 왔다. 그리스도의 비신화화(Demythologized Christ) 같은 신학이 성경을 거부하고 신뢰감을 상실케 했다. 그 결과 성경 주석의 불필요성이 교회 안팎에서 팽배해 갔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나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빠진 설교자는 강해설교를 기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 예언자적 말씀으로 강단을 채우고 있다. 심리적 강연이 성경강해보다 회중을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터득한 설교자는 성경을 맛보기로 읽은 후 심리치료에 전념한다. 이런 교회에서 강해설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강해설교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인의 관심의 중심은 경제, 정치, 행복 등에 있지 신학적, 영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설교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강단은 하나님보다 회중을 더 중요시하고, 회중에서부터 회중을 위한 설교를 한다.

오늘날 '역할모델'(Role models)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강해설교가 사라지는 이유가 된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희귀한 것도 사실이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하는 젊은 설교자는 난해한 강해설교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쉬운 길로 가도 설교를 할 수 있

²⁰ D. Martyn Lloyd-Jones, *The Sacred Anointing* (Wheaton: Crossway, 1994), 254, 267.

다고 생각한다. 성경본문의 섬에서 현대문화의 섬에 쓴 화살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듯 성경신학과 현대문화의 두 지평을 함께할 수 없으니 난해한 강해설교를 하기보다 현대문화의 옷을 입힌 설교가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강해설교는 생명이 없고 지루하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설교자들이 스스로 피하고 있다. 그러나 강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다. 설교자는 그 입이고 입술이다. 회중은 그 음성을 듣는 귀다.²¹

강해설교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결과는 참담하다. 무엇보다 교회 내에 혼란이 온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레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엇드러치는도다”(딤후 1:10, 11)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바울은 장로들의 책임을 제시한 것이다. 바울은 성령의 철저한 지식으로 거슬러 말하는 자를 치리할 것(9절)을 보여준다.

“미국 장로교회 분열의 책임은 그 당시 교회 장로들의 무지에 있다”고 말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폴 울리(Paul Woolly) 교수의 강의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2-5). 강해설교가 사라지면 교인들이 영양실조에 걸린다. 히브리서 5장 12-13절은 우리에게

²¹ Gustaq Wingren, *The Living Word* (London: SCM Press, 1960), 201.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같은 환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숙으로 이르게 하실 준비된 말씀을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먹이는 길 외엔 없다.

2) 강해설교가 오늘의 시대에 회복되거나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

(1) 강해설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시 138:2)라고 선언한다.

강해설교는 성경본문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그 안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동을 선포한다. 예배자의 중심과 초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어떤 관심과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가 청중의 관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강해설교는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깊이 있게 하게 한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도가 되게 한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 뿐 아니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가 필수적이다. 설교자가 청중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²²

²² 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 vol. 16 (Edinburgh and Carlisle: Banner of

(3) 강해설교는 회중을 돕는다.

강해설교는 회중에게 성경을 배우게 하고 매우 자연스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케 한다. 따라서 설교자가 회중의 성경 해석을 도울 수도 있지만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강해 설교자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강해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4) 강해설교는 성경 전체를 취급할 것을 요구받는다.

강해설교자는 성경의 난해구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속에서 사는 것로부터 피할 수 없다. 논쟁적인 동성연애나 자살문제 또는 종말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같은 이슈를 다룰 때 성경에서 언급된 것들을 모두 취급해야 한다.

(5) 강해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아 제공한다.

구약과 신약의 균형, 예언과 완성, 구원과 심판을 균형 있게 설교해야 한다.

어느 목사가 디모데전서를 시리즈로 설교했다. 어느 주일 3장 1-13절을 읽었다. 그 목사는 그날 설교 초두에 “처음 일곱 절은 오늘 그냥 지나가고 8절로 들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장로가 없기 때문에 집사에게 주는 말씀만 갖고 증거하겠다”는 의도였다.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의 우선권과 충분성을 주장한다.

(6) 토요일 밤의 고민을 없게 한다.

많은 설교자들은 토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설교 준비에 전전긍긍한다. 솔직히 나는 토요일엔 내 비서 출근도 금하고 홀로 하나님 면전에 엎드려 준비된 설교를 갖고 기도시간을 주로 갖는다. 설교의 충분한 아웃라인(outline)을 만들고 설교시간에 자유의 영을 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한다.

3) 현대인의 설교자 풍자

오늘날 강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설교자가 무대 위에서 있는 또는 대중 앞에서 있는 리더 아닌 리더처럼 풍자된다.²³

(1) 응원단장: 주일에 많이 모인 회중 앞에 서서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청중을 웃기고 끌고 가는 응원단장으로 풍자된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면전에서 겸손을 상실한 사람인지 거룩함이나 성경말씀은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 설교자의 책무를, 회중을 격양시키고 고무시키는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 슬프게도 회중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 채 허약해서 흠어지고 milk-shake 설교로 단맛만 빨다 간 어린아이들처럼 영혼은 굶주린 상태로 방치된다. 이런 설교자 때문에 교회엔 이단과 사이비가 자라나는 배양소로 변하고 있다.

(2) 마술사: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중은 감탄과 환호성을 치는 경우가 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복음이다. 상황 속에서 본문의 실제적 의미를 캐내는 난해한 작업을 거부한 설교자는 기가 막힌 최면술로 청중을 홀린다.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하에 청중을 속이는 마술사 역할을 담당한다.

(3) 얘기꾼: 청중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설교자는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풀어 설명한다. 성경강해의 어려운 작업을 피해 쉽게 일을 감당하려 한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의 의미를 세상적 이야기로 비유해서 주신 말씀이다. 오늘날 설교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세상적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4) 예능인: 강단 위의 설교자로 하여금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세

²³ Alistair Begg, *Preaching for God's Glory* (Wheaton: Crossway books, 1999), 13-17.

워놓은 예능인 정도로 풍자하는 경우도 있다. ‘진지하게 부른 찬송’²⁴과는 달리 예능인의 연기를 설교자에게서 보고 싶어한다.

(5) 체계를 세우는 사람: 설교자는 교리강좌의 배경막처럼 설교를 교리 설명으로 채우게 된다. 그에겐 본문을 통한 감성적 감화 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²⁵ 그 설교 후 신학적 교리는 알게 되나 결심이 생기거나 열정이 생기지 못한다.

(6) 심리학자: 비행기 내에 비치된 잡지를 읽으면서 가벼운 상식을 얻을 수 있으나 곧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려야 하듯, 현대 설교자를 통해 사이버 심리학자의 처방을 받은 회중은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도움보다는 쉽게 잊어버릴 가십과 같은 수준이다. “에스라에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책을 가져오라” 하듯 오늘도 회중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

(7) 별거벗은 설교자: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신의 허물과 약점 심지어 자신의 진실성을 보여주려는 허망한 표현들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인이나 경마 경주 놀이꾼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이런 모습으로 풍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것이다.

4.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란 무엇인가?

느헤미야 8장을 언급하지 않고 강해설교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24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들겠나이다. 오! 주여, 은혜로운 말씀을 높이신 이름으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이처럼 ‘진지하게 부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의 투사이다.

25 다음을 참고하라. Roy Clement, “Expository Preaching in a Postmodern World,” *The Cambridge papers* (September, 1998).

청하매……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²⁶

수문 앞 광장에 모인 회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면서 열정과 간절함으로 설교자 에스라에게 청했다. 이와 같은 높은 기대감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면서 모인 회중과 그렇지 못한 회중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칼빈은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죽어야 할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스런 권능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인간의 음성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기운나게 하고 양육시키시는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²⁷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잘 설명한다. 이것은 에스라나 그의 동료들이 한 강해설교와는 다르다. 경건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회중이 깨달을 수 있도록 숨은 뜻을 그들의 삶과 경험에 적용

²⁶ 느헤미야 8: 1, 3, 7-9

²⁷ John Calvin, *Ephesians* (Edinburgh and Carlisle: Banner of Truth, 1973), 42.

(implication)한다.

그렇다면 강해설교의 핵심원리는 무엇인가?

1) 성경본문과 함께 시작한다.

강해설교는 성경본문과 함께 항상 시작한다. 이 성경본문은 최근의 사건 또는 현대인의 음악 가사와 달리 설교의 내용이 되므로 상황(context)을 고려한 본문을 갖고,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강해 설교자는 성경 전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위대한 아이디어나 해설가가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본문을 찾아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한다. 우리 주님이 강해설교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고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강해설교는 ‘성경 중심의 설교’(Bible-centered preaching)다.²⁸ 존 스토틀(John Stott)는 “참된 신자의 설교는 강해설교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라고 한다.²⁹

강해설교를 주제설교(topical), 경건설교(devotional), 전도설교(evangelistic), 본문설교(textual), 변증설교(apologetic), 선지자적 설교(prophetic) 같은 설교 스타일(style)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강해설교는 성경이 어떻게(how)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what) 말하는냐를 찾는다(Preacher decides what to say, not how to say it.).³⁰

강해설교는 본문을 단순히 주석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 연결 없이 단어와 단어, 절과 절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주석과

²⁸ Merrill F. 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55), 33.; 로버트 갓프리(Robert Godfrey)는 “말씀 중심의 설교는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한다”(Word-centered preaching brings us to God)고 주장했다. Robert Godfrey, *Pleasing God in our worship* (Wheaton: Crossway Books, 1999), 31.

²⁹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82), 125.

³⁰ Ray Clement, *op. cit.*

논리적 순서의 배경 없이 구절에 관해 어물쩍 넘어가는 주해가 아니다. 주제와 전체 개요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Progressive Revelation)이 결여된 순수한 주해가 아니다. 가령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시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직화시킨 교리적 설교와 달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한 강해 설교자는 그 해석이 전혀 다르다. 구약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전자는 사랑의 표준이 자기 자신이지만, 후자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므로 강해 설교자는 성경을 점진적 계시의 입장에서 주석한다. 강해설교는 문장의 한 부분만을 사용하는 주제 설교가 아니다. 성경이 오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 적용(application)시킨다. 따라서 강해설교는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찾아 거기서부터 성경진리를 찾아 제시한다. 성령께서 설교자의 삶에 먼저 적용시키고 그 설교자를 통해 그의 회중에게 적용시킨다. 진정한 강해설교는 교리적 설교(Doctrinal preaching)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특정한 진리를 선포한다. 강해 설교자는 자기 연구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전달해 주는 대사로 메신저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31절에서 부자와 거지가 죽어 음부와 천국에 각각 가서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 달라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간청한다. 아브라함은 너와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 없다 하며 거절하였다. 그는 다시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선지자는 히브리어 ‘나비’(nabi)로 대언자를 가리킨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 입을 대신할 것이다’(출 4:15, 16; 헬라이어 προφήτης는 미래를 하나님 뜻대로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다. crier, proclaimer). 신약의 ‘사도’ 또는 ‘대사’라는 ‘아포스톨로스’(ἀπόστολος)는 보내심을 받은 자(요 13:16)이다. 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시대의 설교자도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2) 두 세계 사이에 서라(Stand Between Two Worlds).

강해설교의 정신은 두 개의 성경본문에서 예시된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느 8:8)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7) 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22절에 의하면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강해하셨고, 후엔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제로 해석해 주셨다(눅 24: 27, 32, 44-47). 사도행전 8장 27-35절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 7-8절을 강해했고, 스테반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적, 전기적 강해설교를 했다(행 7장). 이와 같은 강해설교는 성경본문과 현실세계의 두 지평의 융합(to fuse)을 찾는다.³¹

성경본문을 설교자의 경험 속에서 재번역(retranslate)해야 하는 과제가 강해 설교자에게 주어진다. 시대 상황에 따라 관심과 이슈와 문화

³¹ 성경본문과 현실세계의 두 지평의 융합 측면에서의 강해설교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y century*, D A. Carson ed., *The church in the Bible and the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의 스펙트럼(spectrum)이 다르다. 설교자는 성경의 세계와 청중이 살고 있는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선포하기 위해 그 의미와 함의를 찾아야 그 말씀을 적절하게 (relevance) 선포할 수 있다.

3) 적합성을 보여라(Show Relevance).

강해설교는 1세기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21세기에 서울에 살고 있는 회중에게 왜 적절한 말씀인지를 설명하여 청중을 격려한다. 강해 설교자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조화롭게 연결시킴으로 청중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 속에 성경을 어떻게 통합(integrate)하는지를 배우게 한다. 청중이 듣고 있는 말씀이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들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한 것(just for them)임을 확인시켜 주고, 즉각적으로 적용케 해야 한다. 이때 메시지가 부적합한 경우와 또는 즉시 적합한 경우가 있다.

설교자는 본문을 잘 주석하고 그 의미를 청중에게 잘 이해시킨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청중의 개인세계에 적합한 메시지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가령,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청중은 설교자가 성육신적 목회자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신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이 결여된 설교자는 강해 설교자가 될 수 없다.

반면에 청중이 즉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성경본문을 이해한 것에서부터 자기 개인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때에 청중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따라서 강해 설교자는 성경을 '깊이 그리고 신실하게' 연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전파해야 한다.

Westminster Dictionary of Public Worship이 강조한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라.

첫째, “성경의 일반교리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진리를 설교해야 한다”

(The matter we preach should be true, that is, in the light of general doctrines of scripture).

둘째, “설교자가 강해한 본문 속에 진리가 내포되어야 한다”(It should be the truth contained in the text or passage we are expounding).

셋째, “설교된 진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의 제약 아래 있어야 한다”(It should be the truth preached under the control of the rest of scripture).³²

5. 강해설교의 실제

설교자는 그들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설교자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이는 독특한 기억력을 갖고 준비하고 전달한다. 어떤 이는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대부분의 설교자는 텍스트를 준비한다. 이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다.

1) 빈 마음으로 묵상하라.

묵상은 기도와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한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한다.

2) 충분히 읽어라.

목사는 폭넓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유익한 책들을 독서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특히 설교자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 읽는 중에 가슴에 부딪히는 구절을 표시하고 혼자 주석도 하고 관련 주석책들을 찾아 연구하라.

3) 분명하게 기록해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본문을 선택하라. 강해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설교의 목표설정, 구조조직, 본문주석, 내용 채움, 서론준

³² Mark Dever, Sinclair B. Ferguson,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Spokane, WA: Christian Heritage, 2009)를 참조하라.

비)을 거쳐 설교를 기록하라.

4) 뜨겁게 기도로 익혀라.

강단이 얼음처럼 차가운데 회중이 불이 붙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설교자의 개인 기도와 간절함이 없이 강단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행 6:4) 한 것처럼 오늘의 설교자도 말씀을 기도와 분리시킬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³³

5) 자신이 설교한다는 것은 잊고 설교하라.

어떤 이의 설교를 닮으려 말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싶어하신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그러나 당신 자신임을 잊어버려라. 내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설교자는 연약하게, 당당하지 않게, 사려 없게, 가볍게 행동하는 자처럼 보이거나 그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운반될 때 청중은 놀라운 감동과 변화를 받게 만드는 것이 강해설교의 열매다.

6. 강해 설교자의 과업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지혜와 이해를 한 강해 설교자의 과업은 무엇인가? 우리가 선포한 진리의 권능을 스스로 체험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맡겨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그들 중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양들의 환경과 여건을 분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고, 인간 영혼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

강해 설교자는 두 가지 확신을 갖고 출발한다. 성경본문은 영감된

³³ John Shaw, *The Character of a Pastor According to God's Heart Considered* (Morgan: Soli Deo Gloria, 1992), 10.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의 모든 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현대인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두 가지 확신과 두 가지 의무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기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기대감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고후 2:16)라고 반문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할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소서.” 아멘.

군 인권과 선교활동

Human Rights for the Army and Mission-Activity

■ 김일수 Kim, Il Su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기독교 생명윤리운동연합회 공동대표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I. 서론

1976년 6월 26일 특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 전력화'라는 휘호를 당시 육군 군종실에 하사한 바 있다. 당시 육군 군종감이었던 문은식 목사님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제15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주제가 '군 인권과 선교활동'이다. 그 목적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① 장병들의 바른 사생관·국가관·인생관 확립을 기하고, ② 장병들의 신앙생활 보장, 정신전력 극대화, 자살예방을 도모하고, ③ 진중수세 신자의 자대정착과 건강한 신앙생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것은 이미 군선교가 신앙전력화를 통한 강군 육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기독교 군선교사역의 오래된 전통이요,

살아 있는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다원주의와 후기현대주의, 디지털문화, 세속주의와 향락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동에 따라 군인문화도 불가피하게 변모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X세대, N세대의 의식변화에 맞추어 병영문화도 과거 계급문화의 권위주의적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창하면서 집단적인 병영문화 속에도 어느새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식이 팽배해지고, 군 내부에서도 인권의식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국가권력의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와 같은 절차적 또는 규범적 권리²를 넘어서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일정한 질 보장과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³도 포함하며, 가장 최근에는 모든 권리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으로서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차별받지 않을 권리⁴에까지 미친다.

이처럼 인권개념의 폭이 증폭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활동영역이 확대됨으로써 군 내부에서도 군 인권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절차적 권리가 강조되면서 범죄혐의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적법한 절차의 범위 안에서만 정당화되듯

1 예컨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한다.

2 여기에는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 공정한 재판, 고문금지, 소급입법금지,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등이 있다.

3 예컨대 의식주의 보장, 근로조건의 보장,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4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사상, 신분, 성적 편향, 장애, 나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군의 전력 극대화나 군의 계급적 질서도 인권보장의 틀을 벗어나서는 정당화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5년 전 육군참모총장 남재준 대장의 “무종교도 종교”이므로 무신앙의 자유도 보장하라는 정책을 하달한 후 군 내의 종교활동은 위축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군에 권고한 이후로 실제 군선교 활동은 큰 틀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였다.

종래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어왔던 군선교 활동은 인권의식의 확산과 종교적 무관심과 무신앙 및 소비·향락 문화의 팽창으로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마치 영주의 종교에 따라 그 지역의 종교가 확정되었던 1648년 10월 24일자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같이 지휘관의 종교적 영향력이 휘하 군장병들의 신앙활동에 사실상의 영향을 끼쳐왔던 명령과 계급으로 질서 지워진 군의 특수한 선교환경이 인권 우위의 사고에 의해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분명히 사실상 강제적인 수단으로 믿음을 강요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를 내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 시대의 징조요 현 시대의 목소리이다. 군선교는 권력의 문제, 타율적인 명령의 차원이 아니라, 섬김과 호소, 자유로운 대화공간에서 의사소통의 방편을 통해 또는 모든 현존하는 교육과 의사전달 수단들을 통해 이해의 지평 위에서 자유로운 수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원래 인권사상은 인간 존재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투쟁 및 방어수단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⁵ 그러나 자유와

⁵ 김일수,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군선교신학』 2(2004), 169.

인권은 특히 오늘날 후기현대사회에 이르러 종종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을 하나님 노릇 하게 하고, 인간의 본원적인 존엄과 가치를 한낱 감성적 차원의 호불호의 차원으로까지 끌어내려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인권이 인간을 방종적인 무책임한 자유, 가치맹목적인 '세속적 중립성'⁶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 결과 인권옹호가 인권폭력 내지 인권테러화의 위험에 빠질 염려도 있고, 인권제국주의(human rights-imperialism)의 경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성의 자율적 조화와 진보는 하나의 낙관주의적인 환상의 측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현실에서는 실제 오류와 실패, 일탈과 치우침이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보장·인권옹호와 진정한 인간화의 지평, 그리고 종교적 자유와 종교적 무관심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여 접합점을 찾아갈 수 있느냐는 오늘날 변화된 군인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권사상의 재음미를 통해 그리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한계를 통해, 오늘날 척박해진 군선교 환경에서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인권의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적 시각에서 인권의 성경적 근거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⁷

첫째, 성약을 중심으로 한 근거지움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약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민족을 찾아가 만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연합된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특별한 방식이다. 예컨대

⁶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허성식 역 (서울: IVP, 1998), 360.

⁷ 이 부분은 김일수,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176쪽 이하를 다시 요약한 것이다.

노아와의 언약(창 9장), 아브라함과의 언약(창 15장), 모세 및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출 19장, 24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의 새 언약(마 26:28)을 들 수 있다.

성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세 전에 택하시고 고치시고 의롭게 하셔서 자녀와 친구가 되게 하셨다. 성약은 하나님이 상대방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뽑아내는 거룩한 행위이다. 비록 그것은 하나의 계약 형식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다. 시민법적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성약은 계약조건이 일방에 의해 규정되고, 타방은 단지 이에 부응할 것만 요구되는 일종의 부종계약인 셈이다. 성약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 대화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약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한다. 인권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끄 엘뤼(Jacques Ellul)는 『법의 신학적 기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의 관념은 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위에 의존한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약을 진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법적 지위에 놓음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인권은 하나님이 성약의 당사자인 인간에게 부여한 고유한 법적 지위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은 피로써 확증하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간됨의 권리를 향유하고 세상을 향해 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비기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

은 이 지위를 향유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권은 그리스도의 형제인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확립되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이후 범죄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오실 자, 즉 둘째 아담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롬 5:12-19).

둘째, 하나님과 동일형상을 중심으로 한 근거지움이다. 하나님과 동일형상(*Imago dei*) 이론은 성경의 기록과 중세 교부철학의 신학적·철학적 성찰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우선 성경 텍스트로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9장 6절(“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등을 든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과 동일형상이란 의미 속에는 피조된 인간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아담은 인류의 집합사이며, 하나님과 닮은 형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일형상은 인간의 신체와 신체의 일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화당사자로서 그의 영육 간의 인격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 및 그 밖에도 비록 하나님과 비견할만한 수준이 아닐지라도 제한된 이성능력, 창조력, 세상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배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역할과 기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인간 각자가 처분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지우는 하나의 축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인권의 신장에 정신적인 견인력이 된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있는 이 신인동일형상론(神人同一形像論)이 18세기 프랑스 인권운

동이나 그 이후의 인권문헌들에서 자연법과 이성의 자율성에 기초한 인간상에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8세기 서구 인권사상에서 읽을 수 있는 인간상은 “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문제는 근대 이후 이성 개념으로부터 인권을 근거지우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 정통신학에서 인권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부터 근거 지우는 일이 불충분한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과학교육에서 일반화된 진화론에 대해 창조론이나 지적 설계이론 등이 오히려 방어자세를 취해야 하는 궁색함과 유사하다. 물론 근자에도 인권을 자연법적 근거와 기독교적·구속사적 근거 위에 이중의 근거를 제시하는 가톨릭 쪽의 인권논증도 있고, 몰트만 류의 개신교적 인권론⁸도 나름 탄탄한 논증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근대 이후의 신학적 인권논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몇 가지 예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생명의 신성성이라는 관점이다. 정통신학의 전통이 인권문제에 분명한 접점을 보여주는 테마가 ‘생명의 신성성’(Heiligkeit des Lebens)이다. 거룩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생명적 연합관계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전하도록 책임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포괄적 선물인 생명보전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주제는 인권의 비중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중심에 세우고, 대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후순위에 세우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인권목록의 다양성과 제1, 2, 3, 4세대 인권으로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모자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인권은 신권이라는 관점이다.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인권의 보

⁸ J. Moltmann / E. Gieser, “Menschreite, Rechte der Menschheit und Rechte der Natur”, *Evang. Theol.*, 50.Jg., Heft 5, S.437-444.

편성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의 권리”에 인권을 근거 지을 필요성이 있다는 논증이다.⁹ 하나님의 성약은 모든 인간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불가양의 인권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이 논증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신학적 논거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성약 당사자로 선택한 것을 권리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계시신학적 근거지움으로써는 인권의 특별한 역사적·법적 체계와 그의 역사적 변형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인권의 기능적 역할의 관점이다.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권의 불가처분성에 대한 호소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칭의사상을 기능적으로 접목시키는 신학적 관점이다. 이 이론은 근대의 진리와 자유 의식의 지평 위에서 기독교신앙의 기능적 의미를 천착하는 작업을 통해 인권을 특별한 근대성의 의미에 접근시킨다.

그러나 문제는 근대 인권의식 속에 용해될 수 없는 기독교적 전승의 요소들이 주변영역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점이다. 유대·기독교적 전승의 비판적 잠재력들이 오늘날의 인권의식을 찾는 데 기능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진정한 인간해방과 진정한 인간구원의 요체가 여기에서 충분한 정도로 고려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관심사는 인권의 현대적 이해가 기독교적 선교의 지평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인권에 관한 여러 신학적 근거지움의 곤란성 때문에 최근에 인권의 근대성과 기독교신앙의 근본 사이를 유추적용해서 그 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입장은 인권을 신학적으로 연역해내려는 시도에 대응해서 인권의 세속적 성격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한편, 보편

⁹ 조남기, “교회선교와 인권,” 『역사와 인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272.

적 이성의 연원에서 인권을 자명한 것으로 도출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서는 이성만 가지고 보편적 인권을 근거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성의 불충분성”도 고려한다.

더 나아가 인권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여 인권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해석과 집단주의적·사회적 해석론의 논쟁 가운데서 공동체적 핵심을 추출하기도 한다. 즉 인권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관점으로부터 인권의 기본 형태는 자유와 평등과 참여라는 것이다. 이들 기본 형태는 일면 인권의 세속화된 특성일 뿐만 아니라 타면 기독교신앙의 근본적인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선물로 주어진 자유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평등 그리고 성령에 참여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틀이 잡힌 공동생활에의 적극적인 가담 능력이 자유·평등·참여라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에 세상의 법질서가 실현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언급해야 할 점은 현대 인권은 이미 고립된 개체로서의 추상적인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것이다. 한계 상황에 처한 구체적 인간에게 희망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과제가 바로 인권이란 주제이다. 이 희망의 지평은 진퇴양난의 곤궁 속에 처한 현실의 나약한 인간의 영육간의 삶 그리고 인격 전체에 미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으로의 해방이요, 바로 서서 당당히 걸어가는 인간의 정상성과 품위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신앙은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지평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실존조건을 개선을 통한 인간해방만으로써 그 의미가 끝나지 않는다. 현실을 초월하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보다 높은 지평을 지향하고 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간구원의 지평과 인권을 통한 인간해방의 지평 사이에 분명 메시지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인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공명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해야만 한다. 인권 메시지 속에서 복음의 이방인들도 인간을 위한 기독교신앙의 핵심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등, 평화와 박애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자유와 평등, 평화와 박애를 본질적으로 참되게 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은 현대적 인권이 지니는 새로운 선교의 차원이다.

현대의 인권목록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라 지칭한다면 그것은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의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즉 인간을 인간으로 존엄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양자됨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인간의 인격뿐이라는 관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불가처분성이 드러난다. 바로 그런 이유로 현실의 국가와 법,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인권의 보장 및 그 실현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것이다.

Ⅲ. 소수자 인권의 등장

현대 인권의 역사적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가 ‘소수자의 인권’ 문제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의 보편성의 구도가 특정 소수자의 인권의 보호를 위해 수정 내지 해체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후기현대주의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환기적인 정신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기의 정신적 상황이란 후기현대주의, 후기구조주의, 후기경험주의, 후기합리주의, 후기실용주의, 새로운 위협에 관한 인식의 확대에 의한 위험사회론, 불안사회론, 후기산업

사회론, 정보화사회론 등이 그것이다. 21세기에 진입한 지도 15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의 서구적 정신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성의 발달과 인간해방의 전망을 담은 유럽계몽주의의 근대성 프로젝트로부터 일종의 비합리적 색채를 띤 후기현대성 프로젝트에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¹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후기현대주의는 근대성 프로젝트가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 곤경에 처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는 사고유형으로서 결과적으로 단지 지식에 의한 지배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 결과 관료지배주의, 형식적 법률의 팽창, 근대사회와 경제의 각종 공식적인 제도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응하여 후기현대주의는 형식적·합리주의적 사유체계와 보편적·본질론적 사유체계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는 제도에 관한 새로운 변증론적 담론들이 전개되고 있고, 그것은 특히 경제적 분석, 페미니즘, 문예비평, 인종의식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 등에 의해 고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여러 가지 기본적 이슈들은 문화적·사회적 차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사회 속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고와 담론의 유형들을 생각해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¹¹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류가 점점 거세어지는 추세다. 전통적인 보편적 인권이론과 국지적인 인권쟁점 가운데 은폐되어 있는 모순과 역설을 들추어내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제도나 인권제도는 공식적으로 사회생활 규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이나 인권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

¹⁰ Arth, Kaufmann, *Rechtsphilosophie in der Nach-Neuzeit* (1990), S.4ff.

¹¹ G. Minda, *Postmodern Legal Movements: Law and Jurisprudence At Century's End* (New York: NYU Press, 1995), 189.

이다.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해체주의적 분석들이 “인권은 아무 것도 모른다”라는 비평으로 쉽게 전이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서는 법의 지배, 인권보장으로 대변되는 독자적이고 자기발전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전통적인 근대적 법이론과 보편적 인권이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현실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전승된 이론과 언어에 대한 신뢰를 거부한다. 형식적인 구호나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가 구현해내는 문화수준, 구체적인 현실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중요성을 포착하여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부분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의 개별특성에 맞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특히 인권과 같은 제도는 원래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상이한 문화 사이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제도적 표현 역시 사회 속에서 상이한 문화적 담론과 사상의 모형을 숙고하도록 고무시키는 문화적 차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와 인권, 노동과 인권, 여성과 인권, 아동과 인권, 노인과 인권, 인종과 인권, 난민과 인권, 성과 인권 등의 양태에 따라 보편적 인권개념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정의(Justice for all) 대신 특정부류 사람들의 정의(Justice for some)로, 보편적 인권(human rights for all)에서 소수자의 인권(human rights for some)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¹³

예컨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¹² J. Butler, *Dekonstruktion und die Möglichkeit der Gerechtigkeit: Weber vs. Cornell*, in: A. Haverkamp(Hrsg.), *Gewalt und Gerechtigkeit Derrida-Benjamin*, (1994), S.134ff.

¹³ G. P. Fletcher, *With Justice for Some: Victims' Rights In Criminal Trials*, (Boston: Addison Wesley, 1995), 9, 37, 69, 107.

살해하는 것은 어쨌든 옳은 일이며, 그것은 사회를 위한 어떤 봉사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가족과 가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게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게이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려는 제도적 힘에 대한 동력은 도처에서 약화되고 있고, 유엔인권이사회나 각국의 인권위원회도 그들을 차별대우하는 제도들을 걷어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도 게이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¹⁴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된 서구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제약하는 공식제도들 또는 양심에 따라 일하는 공식사회의 개별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일반인들까지도 이 법률의 제지를 받게 된다.

이제 다양한 인습과 언어·문화를 지닌 민족과 인종 간의 갈등이나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을 보편적인 제도의 관념만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던 전통적인 제도학의 방법론이 이제는 새로운 국지적 문제에 봉착하여 제도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보다 오히려 해체이론을 제도에 적용하여 새로운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판단의 최종근거는 근본원리에 있지 않고 역설(paradox)에 있다는 가설 아래 후기현대주의 이론은 그러한 모순과 역설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 때로는 실용주의, 때로는 냉소주의에 입각하여 언어와 담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려고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세속화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와 종교의 지나친 분리가 시행되어 오늘날 사회제도의 거룩성·경건성과 종교의 사회성이 모두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의 규범력을 높여

¹⁴ *Ibid.*, 9-36.

제도가 사람들의 자발적인 준수의 대상이 되자면 제도의 잃어버린 거룩성·경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새로운 시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문제는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제도를 어떻게 제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그로부터 그 규범적 임무들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제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인간이 제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한 현실이 되었다. 인간이 제도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도의 척도가 되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다. 근대성 프로젝트에서 바라본 자아중심의 이성적 인간이나 유물론과 실존철학에서 바라본 사회적 관계의 총화로서의 인간은 총체적인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의 일면만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 인간은 각자 관계 속의 인간이며 그 관계는 인간관계는 물론 인간의 주위환경이나 자연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다중적 관계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의 이 다중적 대화구조는 다 같이 생명적 연합관계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명적 연합관계를 깨뜨리는 인간의 억압과 착취와 파괴는 반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반자연적이고 반창조질서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범람하고 해체되는 제도의 흐름을 조절하여 제도 속 규범의 효력을 높이려면, 단순히 제도를 사회체계나 의사소통의 합리적 도구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정의로운 제도와 사회, 정의로운 제도와 경제, 정의로운 제도와 문화, 그리고 희망컨대 정의로운 제도와 사랑의 종교 등 제도의 근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고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¹⁶

우리의 제도학적 관심사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강성이냐 연성이냐

¹⁵ 해롤드 버만, 『종교와 제도』, 김철 역 (서울: 민영사, 1992), 51.

¹⁶ 김일수, 『법·인간·인권』 (서울: 박영사, 1999), 528.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현명한가 어리석은 것인가에 있다. 만약 어떤 제도와 정책이 시민의 이익(*utilitas civitas*)에 보다 잘 합치한다면 그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이 공통선(*bonum commune*)과도 합치한다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제도의 다양한 기능 중 가치중립성이나 도구적 성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반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은 제도에 사랑의 힘을 공급해 줌으로써 제도를 온전케 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제도에서 갈라놓지 않았고, 제도를 정의와 자비에서 갈라놓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인간에게 세워준 모든 제도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회복을 위한 제도의 정신과 목적의 빛, 즉 사랑의 빛 안에서 할 것을 주장했다. 많은 법률과 제도들은 외관상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호소하는 사랑의 계명을 표현하는 일반계시와 일반은총일 뿐이다. 법률과 제도들이 이 같은 근본목적과 관계없이 순전히 기계적·기술적인 체계로 돌아갈 때 제도 자체가 상처를 입는다. 인문주의의 입장에서도 인간관계의 총체성 속에 사랑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해 나가도록 돕는 것을 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IV. 군 인권의 이해

군 인권은 소수자의 인권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특정부류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소수자 인권의 지향점과 방향을 같이 하기도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은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경각심과 전투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다. 또한 지휘계통과 상하계급에 의한 위계질

서가 상존하는 계급·명령 조직이기도 하다. 유사시 작전수행에서 계급과 명령에의 복종은 군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처럼 조직과 계급·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군사회는 개인의 자율적 인격보다 계급과 명령에 따른 효율적 지배체계가 우선하는 특수사회이다.

특히 군은 유사시의 전쟁상황을 전제로 훈련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생사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의식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병들의 이 같은 군인정신은 사생관 확립을 전제하지 않고는 확립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군의 무형 전력극대화를 위해 종교와 신앙 활동까지 관리대상으로 고려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은 원칙적으로 특정종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종교다원주의의 특성도 갖고 있다. 다종교·다신앙들이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인과의 한마음을 이루어 전력극대화로 나아가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군장병들 가운데는 무종교·무신앙 상태에서 종교와 신앙활동에 무관심한 장병들도 있어, 이들과의 공동생활이 또한 평화와 질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 내부에서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종교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종교인들과도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활동은 군사회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칫 타종교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군내부에서 기독교선교가 무종교인들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에 대한 강요적 성격을 띠는 경우, 인권시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군 인권 문제는 바로 무종교·무신앙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의 일종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 2010년 2월 인권위원회는 부대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몇 개월간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국방부장관에게 개선권고를 시달했다. 즉,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들의 무종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군대에 전파하여 종교선택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었다.¹⁷

국가인권위는 종교와 관련된 군부대 내의 의무지시와 강요의 관행은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의 보장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기존의 3대 종교뿐만 아니라 소수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

¹⁷ 당시 국가인권위가 소속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결과’(소속 직할부대 장병 650명 중 무작위 선정한 98명: 이병 27명, 일병 32명, 상병 25명, 병장 14명,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신앙인 44명, 무종교 45명)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장병 16명(16.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 그 이유로 간부들이 3대 종교 등을 택일해 믿도록 하고, 무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병계급 이하의 장병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간부들이 군에는 1인 1종교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이등병의 경우에는 정서안정을 위해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고 교육했다고 밝힘.
- ② 특정종교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장병 17명(17%)이 그렇다고 응답, 또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장병 39명(39.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그 경위로는 이등병의 경우 전원참석을 강요받았고, 종교행사 참석인원이 적은 경우 참석을 더욱 강요받았다고 응답
- ③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대 종교 중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장병 53명(54%)이 그렇다고 응답
- ④ 당직사관, 소속 대대장 등이 종교행사 불참 시 TV시청을 금지, 청소 및 작업지시 등의 불이익을 주며, 이등병의 경우 1인 1종교를 택할 것과 전원참석을 강요했다고 밝힘.

교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육군참모총장 남재준 총장의 “무종교도 종교의 하나로 보장하라”는 정책(2005년)과 국가인권위의 “무종교의 자유보장” 권고사항(2010년)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군내의 선교활동에 새로운 과제를 물고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무종교의 자유도 인권으로 보장하라는 것인데, 종교의 자유 속에 포함된 종교활동의 자유, 즉 선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의 침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충돌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대답을 찾기에 앞서 먼저 특수인권으로서 군인권의 위상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논의이다.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별한 법적 원인(법률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거하여 성립하며, 일정한 공법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형자와 국가의 형벌집행권과 같은 공법상의 특별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종래 특별권력관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며, 여기에는 기본권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19세기 중엽에 형성된 이 이론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거쳐, 민주적 헌법의 기본권 시대에 들어와서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지만, 이후 점차 권위주의적인 “관헌국가의 잔재”라는 비판에 봉착했다. 1972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른바 「수형자 결정」에서 수형자의 기본권도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기초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그 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이 일반화되면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붕괴되었다.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 헤세(K. Hesse)는 과거처럼 지배주체로서 국가와 복종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권력관계는 오늘날

의 민주적 헌법질서에서는 더 이상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으며, 일반권력관계에 대응하는 특별권력관계도 그 존재 근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통상적 권리·의무 관계를 넘어 개인이 국가에 대해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특별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특별권리를 발생시키는 형태들은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 특수신분관계라는 말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 군인 신분, 수형자 신분 등의 본질은 권력에의 복종이라는 형식적 범주 속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각기 독특한 고유법칙성을 지닌 생활관계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별한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수한 신분·지위는 각각의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특수지위란 있을 수 없고, 항상 개개 지위의 특성에 맞는 다수의 다른 특수지위관계들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같은 특수 신분·지위 관계는 국가공동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하다. 이 특수생활관계에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이 아무 제한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이 특수지위관계는 그 설정된 특수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이 특수신분관계에서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제한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특수지위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오직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개별적으로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에 개별적인 법률유보를 정해놓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하에 법률로써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유보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경우라도 어떤 기본권이든지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

론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같은 제한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한다.¹⁸

더 나아가 특수신분·지위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위에 언급한 제한기준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실제적 조화 내지 '실천적 정합'(praktische Konkordanz)이라는 전문용어를 즐겨 쓴다. 즉 기본권은 특수지위관계에 의해 과도하게 희생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기본권보장이 특수지위관계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서도 안 되는 어떤 지점에서 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지위관계에서 기본권은 그 설정목적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고, 또한 기본권보장의 정신과 특수지위관계의 합목적성 모두가 최적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수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와 수단이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와 수단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는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른바 국가긴급사태의 경우,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특수지위·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감수해야만 한다. 기본권은 국가긴급사태 하에서는 정상적인 시민생활하에서 보다 더 많이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정상상태하에서 법치주의적인 절차적 기본권도 부분적으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76조에서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이에 관한 명령(제1항)과 긴급명령(제2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제77조)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¹⁸ 장영수, 『헌법학』 (서울: 홍문사, 2006), 519 참조.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헌법 제 77조 제3항).

이상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해 보면, 군대 내의 특수한 신분·지위는 종래의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 특수지위관계에 속한다. 특수지위관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히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군인복무규율이나 부대관리훈령, 지휘관의 지휘서신 등의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기준(비례성의 원칙, 최소희생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등)에 따라 실제적인 조화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의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열거된 기본권이지만, 타인으로부터 특정신앙이나 특정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nil nocere*)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보장된다.¹⁹ 그러므로 종래 관행으로 묵인되어 왔던 신앙전력극대화를 위한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나 이등병 전원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독려해 온 실례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V. 군 인권과 선교활동

창군 이래 권위주의 정부시대를 지나 문민화 시대에 이르면서 폐쇄된 군인사회도 서서히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호전적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NLL 경계선 등은 조금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한 경계태세를 필요로 한다. 그럴수록 군의 만반의 준비태세를 위해서 정신전력

¹⁹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37조 제1항).

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요구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나 군사사법 분야도 점점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 그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군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군 내부의 인권보호센터 등 제도도 종전 군 지휘관들의 군 인권 의식 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높아진 인권의식과 인권과 자유를 위한 법적 소란행위(legal noise)로 말미암아 전래되어 온 활발한 군 선교활동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등장하고, 종래 군 선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군 지휘관들의 신앙·양심상의 활동조차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사단 ○○○대대장은 독실한 기독교신앙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우교사활동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대대 장병 중 이등병 때는 예배에 잘 나오다 상병이 되고 나서 예배에 뜸한 장병을 보고 “요즘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교회 좀 잘 나와라”라는 말을 건넸는데, 다른 간부가 듣고서 해당 대대장을 지휘관의 종교편향 및 인권문제로 감찰부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신고한 간부는 어떤 형식 때문에 ○○○대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어서 평소 양심을 품고 있다가 감찰부에 투서하면서 종교문제까지 끼워 넣은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권면 수준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감찰부, 법무부의 입장은 지휘관이 부대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권면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휘관들의 종교적 관심과 신앙 안에서의 섬김은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²⁰

²⁰ 그 밖에 종교와 관련된 군 인권 침해 혐의로 군 인권센터에 민원이 제기된 실례로는 ① 21사단 화생방 지원대장 종교행사 참석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2015. 7.), ②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단장의 종교활동 강조 후 예하 대대에서 종교활동 강조하자 불만이 접수된 사례(2011. 4.), ③ 공군방공포병학교 근무단 학교장의 지시로 종교행사 참석을 하지 않은 장병들에게 제조 등의 사역을 시킨 사례

오늘날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인권 이슈를 선점하고 관심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 진정서 제출, 소원 제출, 고발 등의 법적 소란을 조장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른바 법적 소란을 통한 사회개혁(social reform from the legal noise)이란 표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권논쟁에서 ‘광기에 찬 자기표현’부터 막무가내식 자기주장까지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²¹ 그러나 자기취향에 경도된 개인의 자기 소견에 입각한 인권주장은 이성의 사용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자의식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갖춘, 즉 인격성을 갖춘 개인의 미래지향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요청은 보편적 인권에서 소홀하게 취급되기 쉬었던 구체적 개인의 인격적 자기발전과 자기보전에 필요한, 가치 있는 실존조건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²²

어쨌거나 오늘날 군 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군 선교에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군 내부의 특수지위관계로 인한 지휘·명령 체계와 일반행정상의 권한행사에 군선교가 편승하여 가던 넓은 길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종의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장병들의 영혼과 마음을 품는 좁은 길만이 펼쳐지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것은 강요나 강제에 가까운 강권이 아니라 온화한 말로 호소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제언하는 권면의 자리로 나가야 함을 지칭하는 말이다.

(2011. 6.), ④ 1115 공병단이 2011년 시행한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도, ⑤ 7포병여단 전(全)간부를 1인 1종교 갖기 운동(2012. 4.), ⑥ 9사단 966 포병대대장이 특정종교를 강요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었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례(2015. 4.) 등이 있다.

²¹ 쿠르트 젤만, 『법철학』, 윤재왕 역, 제2판 (서울: 세창출판사, 2010), 295.

²² 인권문제를 둘러싼 소수자의 인권과 보편적 인권의 갈등을 해소하는 법치국가질서 내의 사법적 기제와 평가관점에 관해서는 베르너 마이호퍼,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심재우 역 (서울: 삼영사, 1994), 151-157을 참조.

이런 유형의 고민은 이미 군종장교들의 의식 속에 일찍부터 공유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군대는 계급과 명령의 절대체계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권과 자유의지는 철저히 상대화될 수 있으며 무시될 수 있는 비인간화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입장에서 볼 때,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인간화의 요소들과 군인들이 직면하는 제반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인격적 사고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올바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제와 이에 응답할 수 있는 폭넓은 선교전략이 요청된다.”²³

“군 선교는 교회 중심적 선교를 넘어서서 군인들이 있는 내무반, GOP, 초소, 훈련장, 영창, 의무대 병실, 타종교 신자와 군 전체를 포함한 사랑의 봉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타종교 신자와 지휘관과의 사랑과 신뢰관계 등의 야전을 장으로 하는 군과의 일치된 선교목적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²⁴

“지금까지의 군 선교는 …… 안타깝게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의 군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한 요충지로만 여기는 치우친 교회 중심적 선교였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사실상 오늘날 선교가 부딪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더 늘리는 일만을 가지고 부족하다.”²⁵

²³ 이석우,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전략 연구,” 『군선교신학』 2(2004), 200에서 재인용.

²⁴ *Ibid.*, 233.

²⁵ *Ibid.*, 260.

하나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행 15:22-29) 가운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행 15:28) 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함의들을 군선교의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를 더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부대 내에서 정해진 종교활동 시간에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자유방임의 시간 속으로 무종교인들이나 종교 냉담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군 사회의 기율문화의 속성상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장병들이 그 문화 속에서 질서 잡힌 일정한 예배의식에 참여하듯, 종교 냉담자나 무종교인들도 특정종교 활동과 다른 정신적 감화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규율하는 것은 결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인권의 침해도 아니다. 군 내부에서 진정한 의미로 자유방임의 시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신전력의 극대화라는 군인사회의 특수지위관계에서 나오는 목표에 각자 자기의 신앙, 자기의 내면생활의 지혜에 따라 도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 인권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그냥 휩쓸려 흘러보낼 수 없는 맑은 바 각자 책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이제 인권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주제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사역 밖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주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곧 다시 말해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무관한 주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십자가 사건에서 전 인류의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인권의 주제도 십자가 사건 아래 놓여야 하고 십자가 사건에서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에서 전 인류의 해방과 구원이 확증되었듯이, 인권의 주제도 부활사건 아래 놓여야 하고, 부활사건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대한 희망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인간은 항상 불확실한 미래와 대면하고 있고, 군인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을 초월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혁명에서는 법정도 재판관도 필요 없다고 한다. 신앙 없는 시민적 차원의 인권은 혁명의 돌격나팔이나 셸롯주의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인권제도와 인권규범의식이 없는 신앙은 사회적 지평을 잃어버린 골방 속에 갇힌 근본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제도와 종교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양자의 창조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대하고 또 헌신해야 할 책임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전파에 힘써야 할 주의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몫이라고 생각한다.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

A Standard Proposal on the Type of Worship
and the System of Educ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Battalion-level Church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연수
- 계명대학교대학원(Ph. D.)
 - 군종 45기
 - (예)육군군종목사
-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계명대학교 출강
 - CBS 크리스천 칼럼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및 편집위원



1. 들어가는 말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를 통한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는 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과 군 입대 전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병들, 기독교전우회 간부 신자와 군인가족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

켜 '예배 인간'(homo venerabundus)¹이 되게 하여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대대급교회는 행정적 차원에서 상급 부대 군종장교(군종 목사)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목회 사역의 측면에서는 군 선교교역자들의 목회 돌봄 속에 보듬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대급 교회를 섬기는 군선교교역자들은 여러 면에서 열악한 대대급교회를 열과 성을 다해 섬기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런데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추적 거점인 대대급교회의 예배 실상과 기독 장병에 대한 신앙 교육은 군선교교역자들의 다양한 개성과 목회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예배의 경우, 일부 군인 교회에서는 공예배시 젊은이가 주축인 군인교회 구성원의 감흥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예전적 성격이 강한 '집회' 성격의 '열린예배'를 드린다. 이는 군인 교회 예배의 주 참가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배 참석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소위 열린 예배의 인간중심적 예배가 대대급교회를 비롯한 군인교회의 주 예배형태가 된다면, 이는 성경적 예배 요소를 변경시킨 것이며 예배의 근원적 의미에서 멀리 떠난 것이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학적 비판과 우려에 직면한다.² 여기에는

¹ '조은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예배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예배 인간이다. 예배는 인간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예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예배자'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예배 없는 인간은 이미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예배 당위성이 강조된 예배 인간으로 부른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 인간, 그는 세상 어디서든지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임을 선포한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터모던 쪽으로 그 뿌리를 뺏지 않는다. 세상 모든 곳에서 수많은 신을 찾아 구하는 뉴에이지와 향을 섞지 않는다. 조은석, 『SPR: 창조//출애굽 다이내믹스』(서울:쿠팡출판사, 2012), 23.

² '이종윤'에 따르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하이 처치'(High church) 개념을 갖고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카리스마틱(charismatic) 신오순절파와 같은 '로우 처치'(Low church) 입장에서 예배의식(Liturgy)이 없는 교회까지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가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예배에 영적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기존 예배의 틀이 변형되는 경향이 팽배해 가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종윤,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군선교신학』

군인교회라고 하더라도 성경적 예배를 대변하는 전통적 예배를 드러야 한다는 입장과 예배의 정신은 유지하되 기존 예배 형식을 탈피한 집회적 성격의 예배를 드러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목회적 긴장이 존재한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과 형태들이 신앙 그 자체의 어떤 변화를 필수불가결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대급 군인교회만이 아니라 진중 군인교회 전반에 걸쳐 있는 현실적 과제이다. 고로 군인교회 예배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군인교회 예배의 표준화 방안을 위한 진중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대급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의 경우 또한 군인교회의 환경과 군선교역자의 목회적 방침에 따라 다양한 형국이다. 특히 비전2020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대대급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의 실태는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전무하거나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매우 미약한 상태여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비전 2020실천 운동이 진중 세례 운동에 집중되어 온 반면 세례 받은 장병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사역에는 다소 소홀했던 점이 누적된 결과의 반영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비전2020운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전 군인교회의 예배 형식과 양육 교육의 체계화를 이루는 ‘표준화³⁾’ 작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군선교의 주 현상인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안을 살펴보고,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진중 군인교회의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현실을 진단한 후 표준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2(2014), 13.

³⁾ 표준화(標準化)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종류와 규격을 표준에 따라 제한하고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화와 비슷한 말로 ‘정규화’가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

2.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방안 평가

현재까지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요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 진중 교회 건축

사업 년도	신축		증 개축		보수 및 건축자재		비품(에어컨, 음향기 등)	
	부대	금액	부대	금액	부대	금액	부대	금액
98년	41	5,815,904,442	4	61,716,210	6	76,590,240	39	885,354,454
99년	26	2,324,910,560	5	225,500,000	3	119,000,000	40	345,516,000
00년	25	1,618,390,000	7	326,140,000	13	171,949,000	47	559,658,850
01년	28	3,523,014,000	10	442,430,100	11	1,039,254,920	47	593,615,000
02년	31	4,645,423,100	5	147,830,000	3	23,400,000	48	534,465,510
03년	33	5,244,179,240	6	378,000,000	10	411,300,000	39	684,894,991
04년	26	5,367,509,931	13	263,566,600	9	148,080,000	52	1,006,689,000
05년	27	6,571,624,685	4	309,000,000	16	275,750,000	73	1,904,867,490
06년	20	6,187,950,390	15	1,445,345,260	19	330,562,701	71	809,068,060
07년	25	7,005,970,710	14	779,648,000	15	271,983,000	38	936,262,050
08년	28	4,437,956,750	15	342,802,000	22	141,880,000	60	276,680,650
09년	23	5,057,369,300	12	511,280,000	8	114,970,628	39	471,393,750
10년	14	4,604,416,260	17	945,089,150	8	247,843,400	48	827,830,050
11년	16	6,923,957,090	9	768,104,545	10	211,149,000	32	424,508,776
12년	21	15,658,850,000	8	373,740,000	15	136,174,000	35	95,922,794
13년	11	5,642,200,000	1	21,575,100	18	45,084,500	42	105,544,320
14년	19	2,240,286,000	2	231,647,250	3	307,330,000	4	82,906,820
합계	414	92,869,912,458	147	7,573,414,215	189	4,072,301,389	754	10,545,178,565

〈표1〉 한국교회 후원 군인교회당 건축 및 시설 비품 지원 현황(신축은 기공기준)

대대급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진중군인교회의 건축과 보수는 한국군선교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덕교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한국군선교연합회(전 '군복음화후원회')를 중심으로 1950

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예배당을 보수하거나 교회당이 없는 부대에 교회당을 짓는 작업을 전개함으로써⁴ 군선교 운동의 지경을 확장시켰다. 특히 진중 군인교회 건축과 개보수 작업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⁵

‘김동연’에 의하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GOP 소초 교회’ 건축 사업은 힘든 경제 근무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장병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해갈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고 있어 매우 귀하다.⁶ 한국교회와 군인교회 성도들의 전적 헌신으로 진행되는 진중교회 건축과 개보수 사업은 복음의 증진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사업으로서 대대급 군인교회를 비롯한 진중 군인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

⁴ 군인교회의 신축과 개보수의 경우,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 자체의 예산으로 군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사회 일반 교회의 협력을 얻어 교회를 건축한 후 부대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민간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 속에 많은 교회당이 건축되었다. 1990년대에만 무려 559동의 군인교회를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대에 군인 교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진중교회가 신축 또는 개보수 되었다.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1(2004), 144.

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합계
신축	38	58	37	33	37	44	50	33	21	22	373
개보수	18	40	2	12	29	18	17	10	7	20	173

⁵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2014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연감」(2015), 302.

⁶ 김동연,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군선교신학』(12)(2014), 109. 김동연에 따르면, 대구경북군선교연합회는 15사단내 19개 동의 소초교회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였다. 논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7사단 지역에도 컨테이너를 소재로 한 소초교회가 대대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2) 군선교교역자 보임

구 분	사역구분별						전체 인원	서류 제출	선교 활동비 지원	직분별			
	전담 (교육원)	비전담 (교육원)	65세 초과자	부교 자	불명	목사				강도 사	전도 사	기타	
군 중 목 사 파 송 교 단	고신	14 (12)	4	2	·	·	18	16	13	18	·	·	·
	기감	92 (79)	20 (8)	3	19	·	131	111	58	97	·	34	·
	기성	8 (5)	8	·	·	·	14	6	7	14	·	·	·
	기장	·	5	·	·	·	5	1	·	5	·	·	·
	기침	37 (25)	10 (1)	2	·	1	48	39	14	46	·	2	·
	기하성	17 (9)	7 (3)	2	·	1	25	22	4	24	·	1	·
	대신	34 (27)	5 (1)	3	·	·	39	32	9	38	·	1	·
	백석	39 (29)	9 (4)	6	1	1	50	41	2	47	1	2	·
	예성	15 (13)	2 (1)	1	1	·	18	17	·	18	·	·	·
	통합	74 (61)	39 (8)	9	2	·	115	99	36	109	·	6	·
	합동	73 (57)	46 (12)	10	2	2	123	96	45	116	·	7	·
기 타	46 (30)	24 (3)	7	·	·	70	45	2	67	1	2	·	
합 계	447 (347/77.6%)	179 (41/22.9%)	45	25	5	656	525	190		2	55	0	

〈표2〉군선교교역자 현황(2015년 1월 30일 기준)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은 대대급교회에 군선교교역자를 보임시켜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접촉점을 강화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는 일이다. 현재 군중목사파송 11개 교단에 속한 교역자(목사, 전도사)와 필요시 별도심사를 거친 건전한 교단(한기총, KNCC 가입교단) 소속 교역자들로서 ‘군중목사의 군중업무 지도를 받아 대대급교회를 목양하고 섬기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위촉된 656명의 군선교교역자들이 현재 전후방에 위치한 대대급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⁸

⁷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에 따르면, 복음의 전달자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harles H. Kraft,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89.

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103.
‘군선교교역자 운영제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선교연합회에서는 군선교교역자에 대한 재교육 차원에서 매년 군선교교역자 수련회를 실시하여 일선 군선교 사역 헌신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하고 목적 지향적인 사역과 상호 이해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⁹

군선교교역자는 현역 군종목사들에게서 대대급교회의 목양을 위임 받아 대대급 부대 지휘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기독 장병을 돌보고 양육하는 실질적 사역자이자 한국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주역이자 군선교의 동력이며 자산이다.

3) 기독 장병 양육 교재

기독 장병들의 체계적 양육을 위해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개발하고 발간하여 각급 진중군인교회에 보급해 온 다양한 교육 교재는 대대급교회 활성화에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다.

『좋은 군사: 군인신자양육교재』는 “매년 군에서 세례 받는 20여 만 명의 초신자와 5만여 입대 전 세례교인 및 기성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 교재로서, 매주 1회 군인교회에서나 내무반 혹은 동아리 활동 모임 장소 등 활용가능한 적절한 장소에서 필히 본 교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¹⁰ 하는 취지에서 발간되었다. 특히 『좋은 군사: 군인신자양

가. 군선교교역자 운영발전 5대 정책사항

(1) 적임자 선발 (2) 전문교육(신임, 보수교육 병합) (3) 종합 인사관리 (4) 안정적인 선교비후원 (5) 신분보장

나. 군종목사파송교단별 정책사업 발전(행정, 후원): 군선교교역자(민간성직자) 파송, 관리

다. 1004군인교회 사역 활성화: 군종목사+전담교역자 완전 파송(정원 운영제)

라. 네트워크 시스템 연합 운용: 군종목사단+군선교연합회+군종목사파송교단

마. 선교활동비 지원 표준화: 선교활동비 지원 기준액 / 기본 매월 100만원x14개월-유류(교통비), 간식비 등

바. 활동연한 정책사항: 은퇴자(만 65세) 중 본인 희망시 격오지 부대 또는 비전 2020사역을 위해서 MEAK 책임하에 1년 단위로 만 70세까지 계속 사역 가능함.

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304.

¹⁰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좋은 군사: 군인 신자 양육 교재』(서울:

육교재』는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이 복무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양육되도록 기획된 것으로서 1년 52주 동안 교리, 교회 생활, 사회생활, 병영생활을 주제로 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¹¹

‘티 코리아’(TEE Korea)의 협조를 받아 제작된 『풍성한 생명: TEE 영상교재 교안집(1-2)』은 훈련소와 신교대 등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자대 배치 후 지속적인 양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킨 시청각교재¹²이다. 특히 『풍성한 생명(군선교용)』¹³의 해제를 위한 DVD와 강의 매뉴얼인 『풍성한 생명: TEE 영상교재 교안집(1-2)』은 신우회 성경공부를 누구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특징이 돋보인다. 이로써 진중군인교회는 책자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신자 양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군종목사단이 집필하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발행한 『THE 좋은 군사: 건강한 기독 장병 양육(생활편)』은 『좋은 군사: 군인신자양육교재』의 후속편 격으로 장병들의 신앙생활과 일반생활과의 괴리와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장병 제자훈련 생활편으

콤파출판사, 2001), 4.

¹¹ 『좋은 군사: 군인 신자 양육 교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 5주, 사도와 우리의 고백(사도신경) 13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십계명) 10주,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10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14주, 그리스도인의 병영생활 10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Ibid.*

¹²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풍성한 생명: TEE 영상교재 교안집(1-2)』 (서울: 콤파출판사, 2011), 6,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tion)1권은 구원받은 자의 삶(6과), 개인의 경건 생활(6과), 교회 공동체 안의 삶(6과), 부록1) 기독교 절기 부록2) 훈련 5주, 부록 3) 새신자 복음제시 3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2권은 성경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도모한 성경공부 교재이다: 1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의 진실성 3과) 성경의 배열과 역사, 율법서(1) 4과) 율법서(2-3) 5과) 역사서(1-2) 6과) 역사서(3), 시가서 7과) 선지서(1) 징계, 선지서(2) 구원 8과) 신약성서의 배경, 사복음서 9과) 사도행전, 서신서 10과)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¹³ 세이안(SEAN), 『풍성한 생명(군선교용)』, 김길 역 (서울: 티 코리아, 2008). 『풍성한 생명(군선교용)』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후원에 의해 진중군인교회에 보급되었다.

로 발행된 교재이다.¹⁴ 따라서 『THE 좋은 군사: 건강한 기독 장병 양육(생활편)』은 진중군인교회의 제자훈련 체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성격이 강한 우수한 성경공부 교재이다.

『선물(Present): 군인신자 양육교재』¹⁵는 군인교회 안에서 5주 동안 군인 새가족 정착을 위한 교육교재이다. 특히 장병들이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진중 세례를 받은 기독 장병들로 하여금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구원의 신앙을 확고히 하도록 기안된 특징을 지닌다.

『선물II(Present II): 새신자 나침반』¹⁶은 진중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한 권씩 선물로 증정하는 휴대용 소책자로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주 쉽게 정리한 기독교 입문서라 할 수 있다. 이 소책자는 기독 장병 양육에 있어 기본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진중 군인교회의 실정에 맞는 기독 장병 양육 교재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데 진력해 왔다. 특히 이상의 기독 장병 양육 교재는 진중세례를 받은 군인 신자가 자대에 배치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독 장병의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제공한 기독 장병 양육 교재는 대대급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선교교역자들이 계획을 세워 기독 장병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4) 민군 네트워크

비전2020사업 측면에서 대대급 군인교회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

¹⁴ 한국군종목사단 저, 『THE 좋은 군사: 건강한 기독 장병 양육(생활편)』(서울: 쿠파출판사, 2012), 6.

¹⁵ 한국군선교연구소, 『선물(Present): 군인신자 양육교재』(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4).

¹⁶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선물II(Present II): 새신자 나침반』(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5).

진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대급교회의 ‘군선교교역자 세례식 1인당 1만 원 사업’의 지속적 지원(2014년 1,920명 세례 19,200,000원 후원), 대대급 군인교회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를 실시(2014년 10월 22일, 국군중앙교회), 대대급 군인교회 부흥을 위한 지역교회 1:1 추진(모델: 새에덴교회)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¹⁷

그 밖에도 ‘사랑의 온차’, 문서선교자료 보급¹⁸, 군선교교역자 및 군인교회 선교비 지원 사업, 장병 위문 활동 지원¹⁹, ‘예비역 기독교인연합회’(KVMCF) 산하 ‘복음선교단’의 격오지 대대급 방문활동²⁰,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에 대해 대대급교회는 녹색카드 활성화로 군인신자를 지역 교회와 1:1 연결 및 사랑의 양육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민군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추진하고 있다.²¹

민군 네트워크의 원활한 연계 가동은 대대급 군인교회의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 해 준다. 특히 대대급 군인교회에로의 진중세례 전입 장병들과 일반 교회를 연결시키는 결연 사업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군선교 교역자들의 직접적 헌신이 동반된 각고의 작업 수행이 더욱 진중하게 요청되는 분야이다.

5) 신학적 실천방안(Theological Praxis) 제시

¹⁷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35.

¹⁸ 문서선교자료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문서전도의 날’에 각 부대 군종목사 및 군종병이 군선교연합회 본부 및 전국 지회(16개)를 통한 방문과 택배로 수령(약 200개 부대 보급)되고 있다.

¹⁹ 2014년 사랑의 온차 전달 사업을 포함한 295회에 걸친 각급 부대 장병 위문 활동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각 지회 및 여러 한국 교회가 1,150,475,081원을 후원했다.

²⁰ 복음선교단은 매월 3~4개 격오지 대대급의 열악한 군교회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연합회 공문’(한기연 15-26 / 2015. 7. 27), 1-6 참조.

²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35-64.

한국군선교신학회는 1997년 발족한 이래 14회에 걸친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²²을 개최하면서 「군선교신학」 논문집을 발간하여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교역자 및 군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에 다짐들과 빛 된 향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는 대대급교회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본 논제와 연관된 주요 논문 몇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희준’의 논문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는 대대급 군인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군종병의 교사화, 새신자 양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제자 양육,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안했다.²³

‘정제원’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은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주소를 파악한 후 군인신자 장병들의 실제적인 민간교회 결연을 위한 주소 확보의 방법론을 적절히 제안하였다.²⁴

‘주연중’의 논문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 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군선교 회원교회를 중심으로”는 군선교를 위한 민간 자산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점검했다.²⁵

‘이규철’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는 제언에서

²²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매년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군선교사역을 전개하고 다원종교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도록 군선교 현장의 중요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신학적 검토와 실천 방안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²³ 오희준,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10(2012). 245-270.

²⁴ 정제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군선교신학」11(2013). 49-91.

²⁵ 주연중,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 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군선교 회원교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11(2013). 96-127.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별로 부흥사를 파견하여 일일부흥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군선교교역자의 사명의식 고취와 영적 자질 강화를 위한 특별 영성 훈련 및 후원 채널 확보를 역설하였다.²⁶

‘이종윤’의 논문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은 한국의 대다수 교회와 진중 군인 교회 공히 예배의 정체성 혼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중 군인 교회의 예배 또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갱신되어야 할 것을 진중하게 촉구하고 있다.²⁷

‘김진섭’의 논문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은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전략을 제안했다. 김진섭은 군선교를 효과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설교전략으로써 귀납법적인 설교 전개, 복음전도와 기독교교육의 전개, 연간목회계획과 설교계획 수립, 연간 예배 및 설교 모범 발간, 정기적인 설교 세미나 개최 등을 제시했다.²⁸

김동연의 논문 “대대급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은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했다. 김동연에 따르면,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선교교역자들의 보임 안정, 부대 지휘관의 신앙전력화 의지와 세심한 관심 필요, 신실한 군중병들과 기독장병들의 헌신, 심령이 가난한 장병 중심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 민간교회와의 네트워크 동역, 대대 지휘부와의 좋은 유대 관계 형성,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동역이 필요하다.²⁹

한국교회 군 선교사역의 싱크탱크로서 정책, 전략, 전술 등을 연구 개발하여 청년 전도의 중심으로서 한국교회 재부흥에 기여하고자

26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군선교신학」11(2013), 138-167.

27 이종윤,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11-37.

28 김진섭,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군선교신학」12(2014), 38-85.

29 김동연, *op. cit.*, 91-117.

2012년 설립된 ‘한국군선교연구소’는 「2013년 군선교연구보고서(1)」을 발간하여 군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실제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3년 군선교연구보고서(1)」은 “군인교회 주일예배 활성화 방안”과 “대대급교회 새 신자 양육 방안: 수도군단 159공병대대 임마누엘 교회 사례” 그리고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군인교회 새가족 정착 및 양육 방안: 새에덴교회의 군인교회 특별사역을 중심으로”, “군중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을 위한 제언” 등에 관한 연구물을 게재하고 군선교 현장의 실제적 통계를 적출함으로써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요인들을 규명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³⁰

6) 평가

한국군중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제적 요충지인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그 구성 요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진중 군인교회의 건축과 보수 작업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요하는 바 한국교회가 총력을 기울여 매진하고 있는 사역이다. 이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대대급교회는 진중에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영혼의 안식처이자 구원의 요람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군선교 교역자 보임과 기독 장병용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민군 네트워크 연결 사업을 강화하는 것, 한국군선교신학회와 군선교연구소의 신학적 숙고와 실천 방안 제시 등은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인프라이자 긴요한 긍정적 방안이다.

그런데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내외형적 제반 사항들은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대대

³⁰ 한국군선교연구소 편, 「2013년 군선교 연구보고서(1)」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4), 6-104. 한국군선교연구소는 2014년 11월 14일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급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배와 교육의 본질을 보전하면서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근원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는 ‘그 믿는 바 내적인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다.³¹ 이는 표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형식에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진중교회에서 드러지는 다양한 예배 형태와 신앙교육은 그 자체로 존중할 가치가 다분히 있다 할지라도 군인신자의 질적 성숙의 척도인 예배의 표준화와 신앙교육 과정의 체계화 작업은 아직은 미약하거나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예배와 신앙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받기 어려운 대대급교회의 여건을 고려한 예배와 신앙교육의 병행³²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대대급교회를 비롯한 진중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배와 교육의 표준화는 실제적 과제로 대두된다.

3. 대대급교회의 예배 표준화 방안

이제 대대급 군인교회를 포함한 진중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배의 현주소를 평가한 후 예배의 실제적 모범인 표준화 방안을 모색해 보자.

1) 대대급교회 예배의 현실

(1) 설문 조사 결과³³

³¹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2.

³²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The Way of Shared Praxis* (Oregon: Wipf & Stock Pub., 1999), 339.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에 따르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표현되어야 하고 인간을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목상해야 하며 신적인 삶과 인간적 삶 사이의 만남이 항상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예배의 일차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예배의식은 참여자들의 삶에 실존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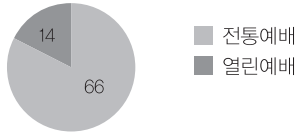
³³ 아래의 통계는 한국군선교연구소, 「2013년도 군선교 보고서(1)」, 16-18과 한국군선교연구소, “2014년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 준비 특별 설문 조사서”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4), 1-2를 참고한 것이다. 「2013년도 군선교 보고

논의의 편의상 도표화된 통계인 「2013년도 군선교 보고서(1)」을 A로, “2014년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 준비 특별 설문 조사서”를 B로 표기한다.

① 현재 예배의 형식(태)은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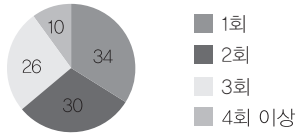


A의 경우, 교단예식서를 따르는 예배 형태는 50%, 열린 예배 형태는 32% 정도이다.



B의 경우, 전통예배는 66%, 열린 예배는 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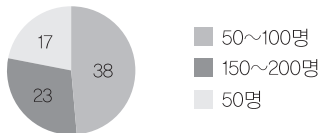
②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횟수는?



A의 경우, 군인교회의 1/3정도가 주일 오전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주중 수요 예배까지 드려지는 비율은 1/4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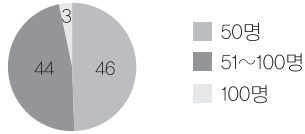
B의 경우, 주일 오전예배는 거의 다 드리고 있으나 오후 예배는 17% 정도이다.



③ 주일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몇 명인가?

A의 경우, 50~100명(38%),

서(1)」의 통계는 대대급 34곳 교회의 군선교 교역자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고, “2014년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 준비 특별 설문 조사서”는 56명의 군선교 교역자의 설문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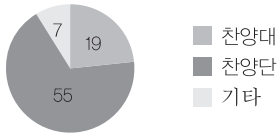
150~200명(23%), 50명 이하(17%)이다.

B의 경우, 50명 이하(46%), 51~100명(44%), 100명 이상(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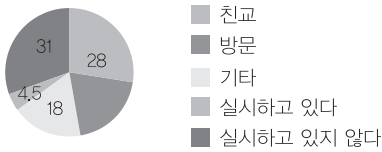
④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는 누구인가?

A의 경우, 악기 연주자(27%), 피아노 반주자(26%), 찬양단(25%)을 운용하고 있다.



B의 경우, 찬양대(19%), 찬양단(55%), 기타(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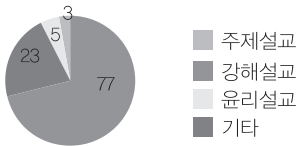
⑤ 예배 출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특별한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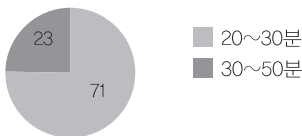
A의 경우, 친교(28.2%)와 방문(20.4%)과 기타(30.8%)이다. 기타의 경우 포인트 누적 프로그램을 이용한 특별휴가

제도 운용과 간식의 질에 따라 장병들의 예배출석이 영향을 받고 있다.

⑥ 설교의 유형은?



B의 경우, 주제설교(77%), 강해설교(23%), 윤리설교(5%), 기타(3%)이다.



⑦ 설교의 소요 시간은?

B의 경우, 20~30분(71%), 30~50분(23%)이다.

(2) 대대급교회 주보의 예

주일예배 주일오전 1부 10: 00, 오후 1: 30

집례 박중순 목사

*표가 있는 순서는 일어서서 예배드립니다.

*목 도	320장(1절)
*성서교독	1번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268장
기 도	김용운 집사
말씀선포	요 4:21~26(신약 148 쪽)
헌금봉헌	이세중 군중
특 송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박중순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파송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축 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성도교제	다같이
오후예배	

마태복음강해 마태복음 14장 1~21

☀수리봉 광현교회 [대대급]	
목사 박중순, 집사 손병윤, 이재선	
균총병 2	상병 이상표
2대본	상병 이상우
6중대	상병 김민환
7중대	병장 한준 상병 김종민, 이병 하도민
8중대	일병 진정성, 일병 이낙현
의무대	상병 김진규
수송	
간부	중위 김용운, 중위 한정호, 중위 유재준, 소위 김시은

오늘의 묵상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지기 전까지는 좋지 아니고 노래는 불러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걱정은 다했을 때에 붙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는 곧 기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므로 그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눈동자를 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의 한 사건에 불과한 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은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왕으로 기쁨부을 받은 후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로 보내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쉬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시 136: 1)

“우리를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36: 2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4).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 삶에 행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보 1 / 00연대 수리봉광현교회)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전 10시 30분

인도자: 권오상 목사

※ 조용한기도	다	같	이
※ 예배의부름	인	도	자
※ 찬 송 35장	다	같	이
※ 관 독 문 17번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송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38장	다	같	이
회 중 기도	하주원	성도	
성경봉독 행 7: 17-3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말 씩 신 포	권오상	목사	
봉 헌 송	다	같	이
봉 헌	이근서	군중	
봉 헌 기도	인	도	자
성도의교계	다	같	이
※ 파 송 찬 송 505장	다	같	이
축 도	권오상	목사	

※표는 일어서서

☐ 오늘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피로를 받을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리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눅 24:32-34)

주 일 오후 예 배

Sunday Afternoon Worship Service

(에베드림제자학교)

오후 1시 30분

인도자: 권오상 목사

찬 양	찬	양	단
기 도	이재범	군중	
찬 송 286장	다	같	이
성경봉독 레 19: 2	인	도	자
말 씩 선포	추구하는	사람들	
찬 송 288장	다	같	이
광 고	다	같	이
축 도	권오상	목사	

수 요 예 배

Wednesday Worship Service

오후 7시

인도자: 권오상 목사

찬 양	찬	양	단
기 도	김민홍	실무	
찬 송 286장	다	같	이
성경봉독 행 16-11	인	도	자
말 씩 선포	사도행전	강해	
찬 송 191장	권오상	목사	
광 고	다	같	이
축 기도환	다	같	이

은혜의 물가 - 내가 바라보며 살것은

남에서 가장 전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아우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Jim Elliot) 선교사가 있었다. 그가 순교한 뒤, 한 기자가 열렸던 선교사의 부인을 방문했다. 그는 부인에게 "생상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었습니까?"라며 위로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비극이 아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56년 짐의 부인은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복음 전도를 위해 아우라 부족을 찾아가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그곳에서 감격스런 신약성경 봉헌예배가 드려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삶의 환경과 여인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품으로 가는 날, 행인을 다한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

예 배 · 봉 사 위 원

주일	회중기도		성경봉독	찬양		봉헌	
	주일오전	주일오후		주일오후	주일오전		
4월 5일	손수연	임경배	이동권	인도자	분부포대	이근서	
4월 12일	이근서	고형태	신민구	인도자	제1포대	제1포대	이근서
4월 19일	임경배	박정호	이근서	인도자	제2포대	제2포대	이근서
4월 26일	하주원	이재범	김민홍	인도자	제3포대	제3포대	이근서

〈주보 2 / 00년대00세대 하방군인교회〉

2) 시사점

이상의 설문 조사와 군인교회 주보의 예를 종합해 보면, 본 논제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진중 군인교회의 예배 현실은 다양하며 지극히 어렵고 척박한 예배 환경과 상황을 반영한다. 대대급교회는 주일 낮 예배의 경우 전통적 예배 형식을 다 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 밖의 공예배(주일 오후, 수요)는 부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드러지지 않거나 축약하는 경우가 많다. 〈주보 1〉은 수요 예배를 드러지

않으며 주일 오후는 30분가량의 축약 형태로 드리고 있는 대대급교회의 유형이다. 이는 부대의 상황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유동성이 강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주보 2>는 부대의 상황이 크게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대대급교회의 유형이다.

둘째,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진중 군인교회는 ‘허도화’가 분류한 바 한국교회 ‘예배 갱신기’³⁴와 궤를 같이한다.

³⁴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주일예배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8), 17-20

허도화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예배 변화는 다음 다섯 시기를 거치고 있다.

첫째, 예배 형성기(1879-1900): 한국교회의 예배사에서 형성기는 만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미국 교단 배경의 예배 형식이 소개되면서 예배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 한국 개신교는 자체적인 예식서 하나 없이 선교사들이 소개한 외국의 예배 형식에 따라 주일예배를 드렸다. 선교초기에 한국교회 안에 형성된 예배 형식은 선교 지향적이며 비예전적인 경향을 띠었으며 이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자리 잡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예배 형식은 한국의 종교적 토양에 접근하려는 선교방법과 선교사들의 자국에서의 예배 경험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선교사들은 유교, 불교, 그리고 무교와 같은 한국의 전통종교와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에게 주로 회심자들을 얻기 위한 성격의 간단한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선교사들은 19세기 미국에서 왕성하던 부흥회 형식의 예배를 소개하였다.

둘째, 예배 전통기(1900-1930): 예배 전통기는 교회와 교단이 조직된 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예배 인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며 예배규범과 모범을 통하여 예배의 전통을 세우던 시기이다.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예식서들을 중심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예배모범은 장로교와 성결교회에서는 헌법(憲法)을 통하여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교리(敎理)와 장정(章程)을 통하여 각 교회에 전달되었다. 교회조직과 정치에 밀려나 예배에 대한 무관심을 경험하던 초기 한국교회는 특별히 1907년 대부흥운동에 의해 독특한 예배 전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형성된 한국교회의 예배전통은 주정주의적 경향을 띤 설교 중심의 사경회, 그리고 경건과 성령운동을 강조한 기도회로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배를 더욱 단순하게 만들었다.

셋째, 예배 토착기(1931-1960): 예배 토착기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배 형식이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형의 예배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이다. 일제의 교회 필박과 한국동란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은 예배형식은 길선주의 말세신앙, 김익두의 치유와 이적, 이용도의 신비신앙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채우려는 한국형 부흥회에 의해 지배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이성봉의 사경회를 중심으로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부흥회식 예배를 비판하는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도 나타났다. 신사참배문제로 인하여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던 교회들에 의해 예배의 정치적 의미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특히 1930년대는 초기 선교사들이 심은 예배가 탈 예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일어난 예배의 토착화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예배 굴절기(1961-1990): 예배 굴절기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80년대로

셋째, 예배의 형태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경우 교단예식서를 따르는 경우가 상승하였으나 아직 일부 군인교회의 경우 열린예배 형태를 고수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기식’에 따르면, 공군 교회의 경우 전통적인 예배 양식을 공통적으로 고수해 오고 있다. 다만 수요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의 경우 일부 교회에서 음악 예배 형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며 신우회 주관이나 음악 그룹을 통해 신우회들을 동참시키고 있으나 군 교회에 맞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으로 연구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³⁵

넷째, 군선교교역자 대부분은 20~30분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목회적 입장에 따라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주제 설

이어지는 경제개발에 힘입어 과열현상까지 나타난 개교회주의적 교세 확장의 열기에 의해 예배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던 시기로 이때 예배가 크게 굴절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세계교회협의회(세계)의 영향으로 예배갱신운동의 필요성이 전달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토착화운동이 찬송가, 통성기도, 교회의 건축양식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건축 양식은 1900년대에는 ‘L(니은)자형’, 1910년대에는 ‘T(티)자형’, 192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고딕형’이었으나 1970년대의 성령운동과 기도원운동은 한국형 예배의 주정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예배 속에 박수와 복을 이용한 열광적인 찬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교회의 대형화가 가속화되면서 교회들이 자체 교회의 성장을 선교의 최대 목표로 삼아 예배를 지역 교회의 대형화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으며 개체 교회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예배형식은 교단의 표준 예식이 지닌 권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예배 갱신기(1991년 이후): 예배 갱신기는 예식서를 편찬하여 초대교회의 예전회복을 시도하거나 경배와 찬양과 같은 오순절적 예배의 본질을 찾으려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각 교단은 예식서를 통하여 에큐메니칼적 예배를 제시하여 세계교회의 예배전통을 살리는 노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반면 어떤 교회들은 예식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예배형식을 취하였다. 이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들은 경배와 찬양(Praise & Worship), 방언과 치유 등의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예배(Pentecostal Worship),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Seekers Service), 그리고 멀티미디어(Multi-media)를 사용하는 동영상 예배 등으로 나타났다.

³⁵ 우기식, 『문화와 청년선교』(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1), 128.

우기식에 의하면, 공군 교회의 주일 낮 전통적 예배와 새로운 형태의 음악 예배 형식은 다음과 같다. <주일 낮 예배 순서> 묵도/찬송/교독/사도신경/찬송/대표기도/성경봉독/찬양대 찬양/설교/찬송/헌금/광고/축도.
<새로운 형태의 예배 순서> 찬양과 경배의 시간/기도/찬송/성경봉독/특송/설교/찬송/광고/주기도문.

교를 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대급 군인교회를 비롯한 진중 군인교회는 예배 갱신³⁶을 통한 활성화(부흥)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3) 진중 군인교회 예배 표준화를 위한 신학적 반성과 제안

(1) 진중 군인교회 또한 한국교회의 영역 안에 있기에 대대급 군인교회를 포함한 진중 군인교회의 예배 갱신³⁷을 위한 일체의 노력과 추구는 한국 교회의 예배 변천과 갱신을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고 사료된다.

히도화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예배는 네비어스의 선교정책에 따라 토착민들을 위한 간단한 형식의 비예전적 성격으로 강하게 형성되었다. 점차 거리에서 구도자들을 얻으려는 노방예배와 예배를 통하여 회심자들을 얻으려는 부흥회 형식의 선교 지향적 예배로 발전되었다. 1907년 열정적인 설교와 기도를 중심으로 사경회와 회개운동을 일으킨 대부흥운동과 1930년대 일제 말기에 형성된 부흥회 형식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더욱 비예전적 예배로 자리 잡아 갔다. 몇몇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예전적 예배는 한국 목회자들에게는 복잡해 보이기만 하였다. 잘 짜인 예배 순서는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

³⁶ 히도화에 따르면, 세계 교회 예배갱신운동은 가톨릭이 1963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예배의 내용, 구조, 그리고 형식을 개혁한 새로운 성례전(The Constitution on the Sacred Liturgy)을 선언함으로 시작되었다. 가톨릭의 예배 개혁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주요 개신교(기독교) 교단들은 30년 동안 각각 새로운 예식서와 찬송가를 출판하였다. 기독교의 예배갱신운동은 성서적 내용에 근거하여 1) 함께 모여(Gathering), 2) 말씀을 듣고(Hearing of the Word), 3) 감사로 응답하며(Thanksgiving), 4)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Sending -forth) 예배의 4중 구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히도화, *op. cit.*, 230.

³⁷ ‘한재동’에 의하면, 예배 갱신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약속에 의해 주어 진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본질적 예배 요소들에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한재동은 “예배의 변화의 좌표는 교회 밖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부터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배는 세속적 사고의 틀로는 이해되지도 받아들여 지지도 않는 비세속적 성무이기 때문이다. 한재동, “예배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범위: 예배본질의 회복과 그 시공간적 조건으로서의 본질적 요소들”, 『신학과 실천』18(2009), 59-60.

보다는 방해로 여겨졌다. 이처럼 탈(脫)예전화의 먼 길을 걷던 한국교회의 주일예배가 예전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60-1970년대의 일이다. 이 때로부터 20년 동안 각 교단이 예전 회복을 위하여 연구하고 실험한 노력이 1990년대 예배 갱신의 가능성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국교회의 각 교단은 예배 갱신을 부르짖으면서 새로운 예배서와 예식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예배 갱신에 제일 먼저 착수한 성결교회(기성)는 1996년에 『예배와 예식서』를 발간하였다. 장로교(통합)가 1997년에 『표준 예식서』를 내놓았다. 2002년 감리교(기감)가 『새 예배서』를 발간하였다. 이 같은 예배서나 예식서는 한 가지의 표준 예배순서를 제시하는 과거의 것과는 달리 다양한 형식의 주일예배 순서들³⁸을 소개한다. 이것은 지역교회들이 새롭고 동시에 복잡한 형식의 표준 예배 순서에 대하여 느낀 부담을 덜어주면서 예배 갱신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전통적인 예배형식과 새로운 것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함으로써 교단이 갱신하려는 주일예배의 방향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각 교단의 예배서와 예식서는 새로운 유형의 예배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예문)를 제시하고 동시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³⁹

되짚어보면 한국교회와 발걸음을 같이하여 온 진중 군인교회는 한국교회의 예배갱신을 위한 노력보다 더 먼저 1994년에 『군중예식서』를 만들어 내면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광선회는 『군중예식서』 추천사에서 이렇게 밝힌다.⁴⁰

³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성결교회의 다양한 예배순서는 첨부된 부록을 참고하라.

³⁹ 허도화, *Ibid.*, 231-232.

⁴⁰ 한국군중목사단·(사)군복음화후원회 편, 『군중예식서』(서울: 한국군중목사단·(사)군복음화후원회, 1994), 2. 『군중예식서』는 예배의식(제 1부), 성례식(제 2부), 임직식(제 3부), 예배당 건축 예식(제 4부), 혼례식(제 5부), 장례식(제 6부), 기타 예

이제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보다 나은 내면적인 발전을 하고자 한국군종목사단이 진중 목회현장에서 꼭 필요한 「군종예식서」를 발간한 것은 군목제도 역사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실제 군목을 파송하고 있는 10개 교단은 각종 예식의 교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배경에 있어서 용어 등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중에서만 하나의 통일된 예식서를 갖게 된다는 것은 군선교가 한국 교회 연합 운동에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군종예식서』의 지침은 매우 모범적이며 실제적이다.⁴¹

식(제 7부). 각종 행사 및 의식(제 8부),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예를 들어 '주일 낮 예배'에 대한 지침은 매우 세밀하다.

1. 유의할 사항

- (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요 4: 23-24).
- (2) 예배를 위한 환경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 (3) 교인들이 시간을 엄수하여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의 앞좌석에서부터 차례로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성가대는 질서 정연하게 예배 5분 전에 성가대석에 앉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4) 성직자는 예배위원(헌금, 안내, 기도, 기타)이 왔는가를 예배 전에 확인해야 한다.
- (5) 성직자는 외모를 단정하게 하며 목사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 (6)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교인들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2. 예배의 진행

- (1) 예배는 본 예법에 준하여 드리되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2) 목사가 예배의 시작됨을 선언하고 곧이어 성가대가 송영을 하는 동안에 성도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 (3) 성가대의 송영이 끝나면 목사는 시편 중에서 '찬양의 시'를 읽든가, 예배에 알맞은 찬송가 가사를 읽는다.
- (4) 성도들은 다 기립하여 개회 찬송을 부르고 이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 (5) 찬송가 부록에 기록된 그날에 적합한 '교독문'을 목사와 성도들이 교독하고 앓은 다음에 목사가 묵회 기도를 한다.
- (6) 예배를 위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교회적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 확신과 중보와 감사로 기도드려야 한다.
- (7) 목사는 그날의 성경 본문을 '봉독'한다.
- (8) 헌금 순서는 헌금위원이 질서 있게 나와 헌금함을 들고 서서 기도한 다음에 성

2010년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 11개 파송교단의 다양함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군인교회의 일치와 경건한 예배 의식의 회복을 이루고자 『군중예식서』를 개정한 『군인교회 예식서』를 발간하였다.⁴² 그런데 『군인교회 예식서』는 『군중예식서』와는 달리 주일 오전 예배의 경우 두 가지 형식의 예배순서를 설정하였다.⁴³

예배순서 1안	*예배로의 부름 / *영광송 / *교독문 / *신앙고백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설교 / 합심기도 / 세례(성찬식) / 찬송 / 헌금 / 봉헌기도 / 인사 및 광고 / *송영 / *축도 (*는 일어서서)
예배순서 2안	*입례송 / *예배로의 부름 / *찬송 / *죄의 고백 / *용서의 말씀 / *교독문 / *사도신경 / 찬송 / 오늘의 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설교 / 합심기도 / 세례(성찬식) / *봉헌찬송 / 봉헌 및 목회기도 / 환영 / 광고 / *파송의 말씀 / *축도

〈표3〉 『군인교회 예식서』에 수록된 주일 오전 예배 순서

『군인교회 예식서』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의 경우 『군중에

도들에게 바치게 하든지, 예배 전에 헌금함을 성전 좌우에 미리 비치하였다가 헌금 시간에 들고 나와 기도할 수도 있다.

(9) 성가대는 ‘특별찬양’을 한다.

(10) 목사는 설교를 하되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좋다.

(11) 설교가 끝난 후에 ‘찬송’을 부르고 목사는 그날의 광고를 하고 기립하여 폐회찬송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끝낸다.

3. 예배의 종결

(1) 목사의 축복기도가 끝난 후 성가대의 폐회 송영이 진행되는 동안에 목사는 예배당 입구에 나와 성도들이 나올 때에 하나하나 정성스런 행동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다.

(2) 교인들은 질서 있게 퇴장해야 하며 명랑하고 기쁘게 산회하여야 한다.

(3)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은 다정한 친교 시간을 각자 자유롭게 갖는 것이 좋다.

⁴²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군인교회 예식서』 (서울: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0), 5-6. 계층별 교회행사별 다양한 예배 형식을 제공하고 혼용되고 있는 예배 용어와 형식을 통일하여 군인교회의 기록과 일치를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둔 『군인교회 예식서』는 예배/성례전(1), 교회 예식(2), 가정 예식(3), 기도문(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⁴³ *Ibid.*, 13-16.

식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예배 형식을 취한다.

주일 오후 예배	찬양 / 조용한 기도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설교 / 찬송 / 광고 / 축도
수요 기도회	찬양 / 조용한 기도 / 찬송 / 기도 / 성경 봉독 / 찬양 / 설교 / 찬송 / 광고 / 찬송 / 축도(주기도문)

〈표4〉 『군인교회 예식서』에 수록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순서

『군인교회 예식서』는 군선교 현장의 다양한 삶의 정황을 고려하면서 ‘예배의 본질’⁴⁴을 회복하려는 진중한 노력이 묻어나는 좋은 예식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대급 군인교회를 포함한 진중 군인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군인교회 예식서』를 표준으로 삼아 교회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되 기독 장병과 군인가족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온전한 값진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일부 진중 군인교회가 열린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진지한 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조기연’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열린예배가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 다수가 이 예배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열린예배는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가 미국 일리노이 주의 남부 베링톤에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hurch)를 세우면서 시작한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가 그 시초이

44 ‘고용수’에 따르면, 예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 행위에 있어 중심요소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거기에 각 개인들로 하여금 응답하게 할 뿐 아니라 예배의 참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유지하도록 한다. 더욱이 고용수에 의하면, 하나님 경배(adoration)의 정신은 한 시간의 예배에 제한되지 않고 일상적 삶으로 연결된다. 영어 ‘service’는 예배가 삶과 분리되는 이원적 요소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뜻이기도 하다. “예배를 위해 들어 오고 봉사를 위해 나간다”(Enter to worship, depart to service)는 표어는 예배와 생활의 불가분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 온전한 예배는 예전(liturgy)과 일상생활 속의 봉사(service)를 통해 드러져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고귀한 업무’이다. 고용수, “예배와 기독교교육,” 『敎會와 神學』25(1993), 118-120.

다. 그러므로 열린예배는 ‘구도자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이름이다.⁴⁵

조기연에 의하면, 실제 월로우크릭 교회의 예배는 구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낯선 감정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교회당에 있는 일체의 기독교적 상징을 제거하고, 예배에서는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성례전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구도자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의 예배 행위가 인도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된다. 구도자들은 말하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 월로우크릭 교회는 예배를 구도자들의 문화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데, 매번 예배에서 드라마를 보여준다는지 또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설교는 당연히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를 설정하여 접근하게 된다. 월로우크릭 교회의 구도자 예배는 다음의 형식이다: 밴드의 전주 / 환영의 인사 / 보컬 듀엣 / 드라마 / 보컬 그룹의 연주 / 드라마 / 성경봉독 / 밴드가 곁들여진 노래 / 헌금(이 때 구도자들은 헌금을 하지 말도록 광고한다) / 메시지(설교) / 토론 및 교제. 이 외에 다양한 예배 형태들이 있으나 크게 보아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⁴⁶

조기연의 분석에 따르면, 열린예배는 예배학적 견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열린예배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예배’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전도집회’라고 보아야 한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예배의 이중성(duality of worship), 곧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봉사’이다. 그러나 열린예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실제 월로우크릭 교회의 광고시간에 스태프 중의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예배는 구도자

45 조기연, “‘열린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神學과 宣敎』26(2001), 289.

46 *Ibid.*, 293-295.

들을 위한 우리의 선물”(This service is our gift for the seekers)이라고 말한다. 이는 구도자 예배의 본질과 정체성이 ‘하나님을 위한 회중의 봉사’라기보다는 ‘구도자를 위한 회중의 봉사’ 다시 말해 ‘인간을 위한 인간의 봉사’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열린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인간 중심적 예배 곧 ‘고객 지향적인 예배’(consumer-oriented worship)이다.

셋째, 열린예배는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Worship as a means of evangelism)이다. 넷째, 열린예배는 회중의 ‘수동적 참여’(passive participation)를 극대화하는 예배이다. ‘회중 참여의 결여’는 열린예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취약점이다. 예배가 ‘회중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위해’ 되어진다. 따라서 회중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보기보다는 ‘구경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는 좋은 예배가 아니다. 좋은 예배는 회중에게 ‘온전하고 의식적이며 능동적인 참여’(full, conscious, active participation)를 유도하는 예배이다. 열린예배는 예배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예배이다.⁴⁷

조기연에 따르면, 열린예배를 기획하는 교회는 먼저 이 예배가 ‘신자들의 예배’인지 아니면 ‘구도자를 위한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신자들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자들’(believers)이 그 회중이다. 반면 구도자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이다. 만약 진중 군인교회에서 열린예배를 기획하고자 한다면 회중의 속성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일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진중 군인교회에서의 열린예배 또한 대부분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중에서의 열린예배는 비신자 초청 집회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군인

⁴⁷ Ibid., 295-300.

교회 예식서』에 준하는 경건하고 영적 깊이를 더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함이 옳다고 사료된다.

(3) 예배와 관련하여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진중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교의 갱신 또한 필수적이다.

‘김진섭’의 조사에 의하면, 군선교교역자들의 주당 설교 사역이 민간 교회의 목회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진다.⁴⁸

이미 앞서 지적한 바처럼, 군선교교역자들 대부분이 강해설교보다 주제설교를 하고 있다. 이은규에 따르면, 강해설교는 성경 가운데 한 권이나 어느 일정한 부분을 본문으로 하여 그것을 연속적으로 주석해 나가는 설교의 형태이다. 주제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찾게 되는 주제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본문을 찾는 과정을 거쳐 설교를 준비하는 형태이다.⁴⁹ 그런데 주제설교는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감에 있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거나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성경의 본문을 예증의 형태로 사용하는 위험에 빠질 개연성이 있다.

이종윤에 의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주관적 경험이나 간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강해설교가 더 효과적이고 위력

⁴⁸ 김진섭,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48.

군선교 사역자들의 주당 설교횟수는 주 1회(3%), 주 2회(11%), 주 3회(26%), 주 4회(16%)이다. 평균 설교 시간은 군장병들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20분(31%), 25분(28%), 30분(26%)이 주류를 차지한다.

설교자의 주된 설교 목적은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27%), ‘기독교 교리를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20%), ‘전역 이후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20%),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군복무를 잘 감당하도록 교육하는 것’(19%), ‘군장병들이 당장 직면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것’(10%), ‘피곤한 중에 참석한 군장병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오락 시간을 제공하는 것’(2%)이다.

⁴⁹ 이은규, “청소년을 위한 바른 예배 고찰,” 『신학과 실천』24(2010), 288

적이다.⁵⁰

중요한 점은 군선교 교역자들로 하여금 설교 갱신을 통해 대대급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성공적인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는 ‘연간 예배 및 설교 모범’을 제작하여 일선 사역자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정기적인 설교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라 사료된다.

더불어서 모든 설교자는 삶의 변화를 유발하는 설교의 갱신을 위해 ‘자신을 가다듬는 것’과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착념할 필요가 있다. 이종윤은 설교자에게 있어 자신을 가다듬는 것에 대해 이렇게 조언한다.

설교자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도록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전도자(evangelist)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전령사(herald)가 되어야 하며,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토록 하는 대사(ambassador)가 되어야 하고, 매일 성도들을 돌보고 먹여야 하는 목자(shepherd)가 되어야 하며, 청중의 모든 필요를 적당한 말씀의 공급을 통해 채워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청지기(steward)가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witness)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감독관(overseer)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종(minister)이 되어야 한다.⁵¹

‘김금용’은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⁵⁰ 이종윤,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21-22.

⁵¹ *Ibid.*, 30.

예배를 위한 준비란 '예배 준비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예배 준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예배 준비를 계획하는 것이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모든 예배와 설교가 모든 예배자들과 설교가들에 의하여 기도하며, 생각하며, 연구하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함으로 준비된다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훌륭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실 것이며, 예배자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시 16:11; 요 16:24)과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⁵²

이상의 사안을 종합하여 볼 때, 진중 군인교회의 주 구성체인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교단을 배경으로 하는 군선교 교역자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 장병들의 보다 성숙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군인교회 예식서』를 표준으로 삼은 예배의 회복과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설교의 갱신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4. 대대급교회 교육 표준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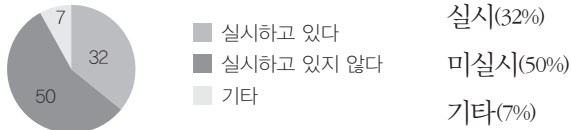
이제 대대급 군인교회를 포함한 진중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의 현주소를 평가한 후 보다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표준화 방안을 모색해 보자.

1) 대대급교회 교육의 현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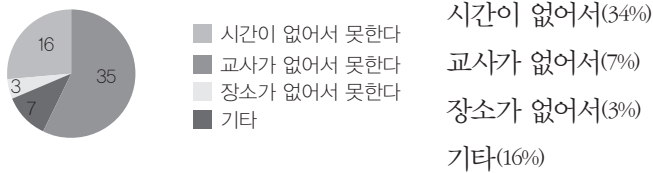
52 김금용, "설교와 예배 준비의 의미에 대한 한 연구," 『신학과 실천』(8)(2005), 66-67.

53 아래의 설문 통계는 한국군선교연구소, "2014년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 준비 특별 설문 조사서"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4), 3을 참고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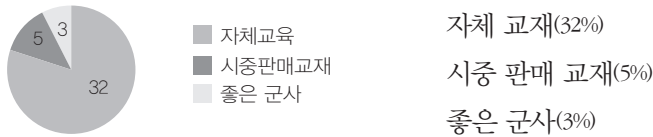
(1) 귀 교회는 초신자 양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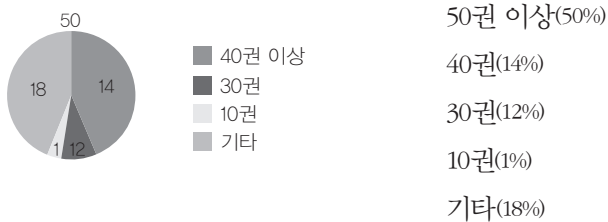
(2) 양육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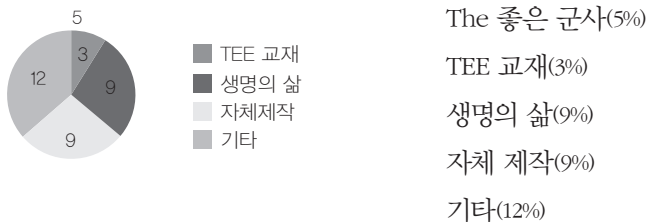
(3) 사용하는 양육교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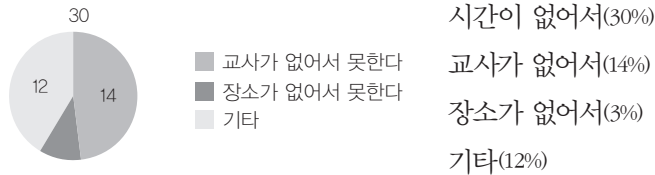
(4) 성경과 찬송가는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가?



(5) 사용하는 제자 양육교재는 어떤 것인가?



(6) 제자 양육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2) 시사점

대대급교회의 교육에 대한 이상의 설문 결과는 대대급교회 교육 표준화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설문의 결과에 따르면, 대대급교회의 교육적 현실은 앞서 살핀 예배의 경우처럼 지극히 어렵고 척박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 매우 딱한 형국이다.

둘째, 대부분의 대대급교회는 진중에서 세례를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은 기독 장병들에 대해 체계적인 초신자 양육과 제자 양육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 사역인 세례와 양육 가운데 세례 사역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어 왔으나 양육 사역의 경우 그 추진 동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대급 군인교회의 양육 교육이 미진한 상황은 비전2020실천운동에 참여하는 일반 실천교회가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⁵⁴을 생 각만큼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넷째, 기독 장병 양육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직접적 이유는 교육 시간의 부족과 제자반을 인도하는 교사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는 장 병들이 경계 근무와 교육 훈련, 개인 정비 및 단체 생활 등의 요인으로

⁵⁴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지기 임명, 전도특공대(전담부서) 조직 3) 기도하기 4) VIP가족 전도하기 5) 사랑의 편지 보내기 6) 선물 보내기 7) 심방하기 8) 초청하기 9) 전역 후 영접하기 10) 후원하기. 이종윤, 김대덕, “비전2020 실천운동의 역사적 비평적 연구,” 『군선교신학』11(2013), 23.

인해 진중 교회에서 적정한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면과 기독 장병들을 체계적으로 보듬는 대대급 군인교회의 자체 역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섯째, 많은 대대급교회가 자체 교재를 준비하여 양육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여 보급한 여러 교재들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논자가 전방에서 수고하는 몇몇 군선교 교역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오래전 보급된 교재들은 이미 손실되거나 부족해 직접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충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대급교회를 비롯한 진중 군인교회의 양육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군인교회 자체의 양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양육에 대한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선교 교역자들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된다. 더불어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에 협력하는 일반 실천교회들로 하여금 미래장병 양육 사역을 위해 더욱 기도와 사랑의 격려로 협력하는 것 또한 긴요하게 요청된다.

3) 신학적 반성

(1) 교회의 교육 목적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강용원’에 따르면, 기독교교육은 “기독교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표현 및 전달과 관련된 교육 행위”이다.⁵⁵ 강용원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은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이며, 핵심은 신앙교육이다. 동시에 기독교교육은 기독교공동체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교육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를 닮음’(Christlikeness)에로의 교

⁵⁵ 강용원, “全體教會의 機能으로서의 教會教育 鼎立을 위한 論議,” 「학생생활연구」 5(1990), 2

육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교육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육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교육은 단순한 성서교육, 교리교육, 또는 도덕교육을 넘어선다.⁵⁶

기독교교육에 대한 강용원의 사상은 진중 군인교회의 교육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이나 기존의 세례 신자를 무론하고 교회의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전 진중 군인교회는 전체 기능으로서 교회 교육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교회 교육의 일차적 목적을 두고 각급 교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교회 교육에 매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2) 청년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대급교회를 필두로 한 진중 군인교회의 주 예배층은 청년이다. 어느 시대나 청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급격한 문화변이 속에 존재하는 청년에 대한 이해는 진중 군인교회의 주력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긴요하다.

「가톨릭 신문」에 따르면, 현 한국의 청년들은 I세대(인터넷 세대), N세대(디지털 원어민), P세대(열정적이고 사회문제나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 V세대(적극적이고 가상세계에 익숙함), C세대(소비하는 문화를 통해 취향을 드러냄), 웹2.0세대(제2의 인터넷 세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개인화·다원화·전문화되어 있어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동시에 한국 청년의 현주소는 매우 우울한 모드에 처해 있다.⁵⁷

⁵⁶ *Ibid.*, 2-3.

⁵⁷ 주정아, “가톨릭 청년, 희망을 말한다,” 「가톨릭신문」(제2888호) 2014년 3월 30일, 10. 주정아에 따르면, 1900년대 전후, 한국역사 안에서 이른바 ‘청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만 해도 청년들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근대적 인간으로서 인식됐다. ‘문학청년’, ‘젊은 우상’, ‘신세대’ 등의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주로 ‘생활인’의

‘김도일’의 분석에 의하면, 기독교인 P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적 과제는 다음 5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둘째, 예배를 통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줄이기. 셋째, 감성을 깨우치고 만족시키는 교육. 넷째, 삶의 현장을 바탕으로 한 교회교육과정의 개선. 다섯째, 삶의 의미 제시를 통한 정체성 확립이다.⁵⁸

김도일은 교회교육의 지도자들에게 P세대로 대변되는 현대의 청년인 기독 장병들이 교회교육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자유함을 갖도록 맑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이고 속이 꽉 찬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⁵⁹ 조언한다.

(3) 교회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여 기독 장병 개개인을 사랑으로 보듬고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각급 제대 군중병들을 교육시켜 교사로 활용하는 것과 기독전우회 간부 신자들과 군인가족 성도들의 협조를 구하여 훈련시켜 복음의 교사이자 교역자의 동역자로 봉사하고 사역하게 하는 긴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진중 군인교회별 상황에 적합한 교육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진중 군인교회는 부대의 단위와 기능에 따라 그 규모와 활동 범주와 교육 여건이 다양하다. 따라서 교회 교육의 합목적성을 견지하되 진중 교회별 상황에 적합한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5) 현실적으로 예배와 신앙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받기 어려운 대대

로서 언급된다. 88 만원 세대, 대오족(대학교 5학년), 이태백(20대 태반은 백수), 패러싱글족(부모에게 붙어사는 싱글족) 등 과거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정되곤 한다. 취업난, 치솟는 전세금과 등록금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로도 불린다. 실제 생활비와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 한국 청년들의 비율은 전체 청년 인구의 80%에 육박하여 ‘갠저루족’이라고도 불린다. 이 ‘어른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조사되어 최근에는 스스로를 사회의 남아도는 존재로 인식하는 ‘잉여 인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58 김도일, “P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과제,” 『교육교회』320(2004), 14-15.

59 *Ibid.*, 16.

급교회의 여건을 고려한 예배와 신앙교육의 병행을 진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쉐릴’(Lewis J. Sherrill)에 따르면, 예배가 곧 교육시킨다는 사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포로 기간 중 회당예배의식은 예배와 교육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의 삶의 질이면서 종교교육의 현상이 되었다.⁶⁰

고용수에 따르면, 신약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고백을 예전(특히 세례 의식)을 통해 표현했다.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터툴리안의 강조처럼, 초대교회는 세례 의식에 앞서 준비교육에 철저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예배 의식이 있었다. 하나는 세례 이전의 학습자를 위한 ‘말씀중심의 예배’(Missae Catechumenorum)와 세례자 중심의 성만찬을 위한 예배(Missa Fidelium)이다. 믿음에 대한 초기의 표현 양식이 나중에는 교회의 도그마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세례입문교육의 과정에서 교리문답자의 신앙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다가 5세기에 이르러 교회의 신앙 형식이 되어서 주일예배에 니케아 신조를 암송하는 관행이 생겼다.⁶¹

‘폴 비스’(Paul Vieth)에 의하면, 예배는 기독교교육의 커리큘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배가 없는 가르침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이라 할 수 없다.⁶² 결국 교회 교육은 예배 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며 예배는 교회 교육에 의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원을 받

⁶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짧은 형식의 간결한 문구를 가지고 있었다(신 6: 20-25, 26: 5-9; 수 24: 2-13). 성경 주석가들은 말씀을 듣는 행위가 이스라엘 예전생활의 일부였다고 해석한다. 공동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과거를 회상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가르쳤다.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4), 26. 고용수, *op. cit.*, 124에서 재인용.

⁶¹ 고용수, *Ibid.*, 124-125.

⁶² Paul Viet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1965), 13. 고용수, *Ibid.*, 125에서 재인용.

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현실적 여건과 근무상황의 지난함으로 인해 주일날 1회 정도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대급교회는 주일 예배와 양육교육을 병행하여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배 형식의 교육적 배려는 어느 시대나 필요사항이기 때문이다.

4) 교육 표준화 방안 제안

이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진중 군인교회에 보급되어 있는 교재를 이용한 기독 장병의 양육에 대한 교육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본 유형⁶³

단계	대상	교재	주제	교사	비고
I 단계	전입신병	「선물II」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가능하면 담임교역자가 직접 인도
			2)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3)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4)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		
			5) 믿음은 가장 큰 복		
			6)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		
			7) 나는 멋진 크리스천		
II 단계	기간병	TEE(1) [풍성한 생명]	1부 구원받은 자의 삶	군종병, 기독전우회 간부 신자, 군인가족 신자	조별 편성 성경 공부
			1) 거듭남		
			2) 죄에서의 회개		
			3) 믿음과 용서		
			4) 순종		
			5) 하나님의 가족		
6) 성령 충만					

⁶³ 기본유형은 진중에서 세례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기독 병사에게 총 57주에 해당하는 교육을 시켜 제자급 신자로 성장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2부 개인의 경건 생활 7) 성경을 읽는 방법 8) 기도 9) 사탄을 이기는 법 10) 옛 본성을 이기는 법 11) 세상을 이기는 법 12) 전도 3부 교회 공동체 안의 삶 13) 세례 14) 주의 만찬(성찬) 15) 지역교회의 교인 16) 교회란 무엇인가? 17) 하나님의 청지기 18) 하나님의 인도하심		
III 단 계	기간병	TEE(2) 『풍성한 빛』	1-1) 성경은 어떤 책인가? 1-2)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1)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2-2) 성경의 진실성 3-1) 성경의 배열과 역사 3-2) 율법서(1)-창세기 4-1) 율법서(2)-이스라엘 백성 4-2) 율법서(3)-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5-1) 역사서(1) 5-2) 역사서(2) 6-1) 역사서(3) 6-2) 시가서 7-1) 선지서(1)-장계 7-2) 선지서(2)-구월 8-1) 신약성경의 배경 8-2) 4복음서 9-1) 사도행전 9-2) 서신서 10-1) 빌립보서 10-2) 요한계시록	군종병, 기독교전우회 간부 신자, 군인가족 신자	조별 편성 성경 공부

IV 단 계	기간병	『The 좋은 군사』	1) 이제는 생활이다	군종병, 기독전우회 간부 신자, 군인가족 신자	조별 편성 성경 공부
			2) 언어생활		
			3) 인간이란 무엇인가?		
			4) 군대와 인간관계		
			5) 이성 교제 그리고 윤리		
			6) 결혼과 가정		
			7) 위기에 빠졌을 때		
			8) 중독		
			9) 생명 윤리		
			10) 기독교와 대중문화		
			11) 기독교와 전통문화		
			12) 선한 사마리안 되기		

(2) 기독전우회와 군인가족 성도 및 기독 사관생도의 제자화 양육 유형⁶⁴

기독전우회와 군인가족 성도, 그리고 기독 사관생도들은 비교적 계획적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가 용이하기에 아래 표에 제시한 것처럼 단계별 제자화 교육을 제안한다.

I단계	I단계I	II단계I	IV단계	V단계
『선물II』	TEE(1) 『풍성한 생명』	TEE(2) 『풍성한 빛』	『좋은 군사』	『The 좋은 군사』
7주	18주	20주	50주	12주

(3) 주 1회 예배를 드리는 대대급교회에서의 양육

부대의 경계근무와 개인 정비 요인으로 인해 주 1회 예배를 드리는 대대급교회의 경우, 일반교회의 교회학교(주일학교)의 분반공부 개념을 도입하여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후 바로 이어 양육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한다.

⁶⁴ 기독전우회와 군인가족 성도 및 기독 사관생도의 제자화 양육 유형은 기독전우회와 군인가족 성도 및 기독 사관생도들에게 제자화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후방 어느 곳의 진중교회에서든 기독장병을 위한 복음의 교사로 봉사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게 하는 기본 프로그램이다.

1부	주일 오전 예배	인도: 군선교 교역자	시간) 50분
2부	(신우들 조를 편성하여) 분반 성경 공부 및 친교 ■ 기본 유형 적용	교사: 군선교 교역자, 군종병, 군인가족 성도	시간) 30분

(4) 주 3회 예배를 드리는 대대급교회에서의 양육

공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대대급교회를 비롯한 진중 군인교회는 주일 오후(저녁)예배 혹은 수요일 예배(기도회) 시 분반공부 개념을 도입하여 양육 교육을 시행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1부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기도회)	인도: 군선교 교역자	시간) 30분
2부	(신우들 조를 편성하여) 분반 성경 공부 및 친교 ■ 기본 유형 적용	교사: 군선교 교역자, 군종병, 군인가족 성도	시간) 30분

(5) 구역 예배를 통한 군인 가족의 신앙 양육

군인 가족(기독전우회)의 구역 예배는 군인교회 여성 성도들의 신앙과 복음 전도 및 교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기독교 장병의 양육과 연관지어 군인가족 성도들을 기독교 장병에 대한 양육 교사로 양성하는 차원에서 앞서 제시된 성경공부 교재를 활용하여 제자화 교육의 시간으로 선택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곧 전 군인교회가 2년 정도 「선물II」, TEE(1)『풍성한 생명』, TEE(2)『풍성한 빛』, 『좋은 군사』, 『The 좋은 군사』 등을 일제히 구역 예배 시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해 나간다면, 차후 기독교 장병 양육 교육을 받은 군인가족 성도는 전속되는 군인교회에서 얼마든지 복음의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어 군선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리라 확신한다.

이처럼 진중 군인 교회는 2년 정도 군인가족 성도들에 대해 일제히

양육 교사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군종목사단은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성경공부 책자를 협의 선정하여 공동 구매 후 각급 진중 군인교회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이럴 경우 군인가족들이 잦은 이동으로 인한 신앙 교육의 단절을 극복하여 지속적인 신앙 성장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대급교회 활성화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공을 담보하는 실제적 요인이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진중 교회 건축, 군선교교역자 보임, 기독 장병 양육 교재, 민군 네트워크, 신학적 실천방안 제시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외형상의 구성 요인을 강화하여 왔다. 하지만 작금의 대대급교회에 있어 예배 형식적 측면과 교육 체계의 실상은 교회가 처한 환경과 군선교 교역자들의 목회적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도록 통합적 역량을 집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진중 교회별로 예배의 형식이 상이한 경우가 많을뿐더러 체계적인 양육 교육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예배의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진중 군인교회에서의 예배 형식은 『군인교회 예식서』에 준해서 기획하고 내적 일치를 꾀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중 교회들의 예배 형식의 다양화를 극복하고 진중 교회의 일체성을 강화하며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는 토대를 굳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진중 군인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체계의 미약성과 통전성의 미

비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공적 수행, 특히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논자는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진중 군인교회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제반 교재를 이용한 기본 유형을 표준점으로 삼아 각급 군인교회가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양육 교육 실시를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대대급교회를 포함한 전 진중 군인교회가 『군인교회 예배식서』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 형식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군인교회의 예배갱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기독교 장병의 양육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내실화와 대대급교회를 필두로 한 진중 군인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절실한 사명이다.

Abstract

This article pursues a standard proposal on the Type of Worship and the System of Educ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Battalion-level church.

Nowadays, Battalion-level Churches have some problems, for the type of worship in Battalion-level Churches is very diversity and the system of education for the nurture of christian soldiers are inadequat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whole military church including Battalion-level Church would rather keep the type of worship centered around the Ritual book of Military Church.

At the same time, What build a system of education for the nurture

of christian soldiers must be an urgent request for the reinforcing method of The Vision 2020 Move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whole military church including Battalion-level Church.

주제어(key words):

대대급교회의 활성화(The Revitalization of Battalion-level Church)

예배의 형식(The Type of Worship)

예배 인간(homo venerabundus)

기독 장병의 양육(The Nurture of Christian Soldiers)

군인교회 예식서(the Ritual book of Military Church)

부록1) 장로교(1997)의 주일예배순서

장로교(1997)의 주일예배순서				
《(1)전통》	《(3) 개혁교회》	《(2) 3중구조》	《(4) 6중구조》	《(5) 스코틀랜드/미국》
전주 예배의 말씀 응답송 기원	전주 예배의 말씀 송영 기원	1. 개회 전주 ■입례송 예배의 말씀 응답송 기원 주기도 영광송	1. 예배를 위하여 나아감 전주 예배의 선언 응답송 예배의 말씀 예배의 기원	■입례송 기원
경배의 찬송 성서교독 사도신경 찬송	경배찬송 신앙고백 성서교독 ■참회의 기도 ■용서의 확신 찬송	성서교독 경배찬송	2. 찬양과 고백 경배의 찬송 신앙고백 시편교독 고백의 기도 침묵의 기도 용서의 확신 영광송	찬송 고백의 기도 용서의 선언 영광송
목회기도 주기도	목회기도와 주기도 주기도	목회기도 응답송	3. 중보의 시간 기도 주기도	기도 주기도
성경말씀 찬양 설교 설교후기도	성경말씀 찬양 설교 설교후기도	2. 말씀의 선포 구약의 말씀 송영 신약의 말씀 찬양 설교 설교후기도 신앙고백	4. 말씀의 선포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찬양 ■복음서의 말씀 설교전기도 말씀의 선포 설교후기도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찬양 복음서의 말씀 설교 설교후기도 ■신앙고백
응답의 찬송	찬송	응답의 찬송	5. 감사와 응답 응답의 찬송	응답의 찬송
헌금 헌금송 감사기도 찬송	헌금 감사기도 헌금송	3. 감사의 응답 헌금 감사기도 헌금송 중보기도 찬송	헌금과 기도 헌금찬송	헌금 헌금송
축도 후주 성도의 교제 및 교회소식	축도 후주 성도의 교제 및 교회소식	파송의 말씀 축도	6. 위탁과 축복 파송의 말씀 축도 후주 성도의 교제 및 교회소식	파송과 축도 성도의 교제 및 교회소식
(2) 입례송: 성가대, 예배위원 입장 (3) 참회의 기도: 침묵으로 (4) 구약의 말씀: 목사 또는 평신도 복음서의 말씀: 설교자 (5)입례송: 성가대, 예배위원 입장		중보기도: 특별한 형편에 처한 교우를 위해/목사나 장로 용서의 확신: 성경말씀으로 서신서의 말씀: 목사 또는 평신도 응답의 찬송: 설교와 관련된 찬송 신앙고백: 사도신경		

부록2) 감리교(2002)의 주일예배순서

감리교(2002)의 주일예배순서		
《(1) 말씀중심 예전형》	《(2) 말씀중심 자유형》	《(3) 찬양중심 자유형》
1.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전주 입례송 예배로부름과 기원 경배찬송 죄의 고백 자비송 용서의 말씀 교육 삼위영가 오늘의 기도 주님의 기도 기도응답송	전주 입례송 회중의 열린찬양 예배로부름과 기원 오늘의 기도 경배찬송 죄의고백 회개의 기도송 용서의 말씀 주님의 기도 교육 신앙고백 삼위영가 찬양	전주 예배로부름과 기원 경배찬송 개회기도 특별찬양
2. 말씀의 선포 구약성경봉독 서신서봉독 복음서봉독 찬양 설교전기도 설교	성경봉독 특별찬양 설교전송영 설교	성경봉독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설교
3.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신앙고백 찬송 평화의 인사 봉헌 봉헌 및 묵회기도 봉헌응답송	기도 말씀응답송 교회소식 봉헌 봉헌 및 묵회기도	회개기도 신앙고백 봉헌
4. 세상으로 나아감 교회소식 찬송 파송의 말씀 축도 축복송 후주	찬송 파송의 말씀 평화송(살림송) 축도 송영 후주	성도의교제 기도 찬양 찬송 파송의 말씀 축도 후주

부록3) 1990년대 성결교회의 주일예배

1990년대 성결교회의 주일예배		
<1991년(예식서)>	<1996년(헌법)>	<1996년(새 예식서 B)>
1. 개회예배 예배사 입례송 예배의 부름 경배찬송 성령임재의 기도 신앙고백 참회의 기도 자비의 기도 주기도(주기도문영창) 사죄의 확인 영광송	1. 모이는 교회의 예배 예배로의 부름 경배찬송 시편교독 참회의 기도(개회기도) 주님가르치신기도	[준비순서] [모임송] [진교인사] 1. 모이는 교회 전주 예배로의 부름 경배찬송 시편교독 성령임재의 기도 기도송 회개의 권면 참회의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기도(혹 영창 548장) 사죄의 확인 영광송
2. 말씀예배 구약성경봉독 서신교독 찬양 복음서 봉독 설교기도 설교 목회기도 응답의 찬송과 헌금 봉헌기도	2. 말씀받음의 예배 성경봉독(구약,서신,복음서) 찬양 설교 사도신경고백 응답의 찬송 헌금과 기도	2. 말씀받는 교회 구약성경봉독 성경봉독송 신약성경봉독 찬양 설교 목회기도 신앙고백(사도신경) 봉헌의 말씀 찬송과 헌금 봉헌기도
3. 성만찬 예배 4. 파송의 예배 광고 송영 파송의 말씀 축도	3. 성만찬 나눔의 예배 4. 흠여지는 예배 송영 파송의 말씀 축도	3. 성만찬 나눔교회 교회소식 흠여집송 흠여집의 말씀 송영 축도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 이승구 Lee, Seung Goo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찬동과 감사의 말

예배의 형식과 교육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논문입니다. 특히 열린 예배가 예배이기보다는 전도 집회라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깊은 찬동을 표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2013년도 군선교 보고서(1)”와 “2014년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 준비 특별 설문 조사서”(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4)를 잘 참조하여 현실을 잘 드러내어 준 것도 큰 기여라고 여겨집니다.

2. 안타까운 점

이왕 예배 형식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니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형

식과 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7쪽에 나온 『군인교회 예식서』에 있는¹ 예배 의식 제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위해 어떤 점에 좀 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교회 예식서의 내용에 대한 좀 더 비판적인 평가가 있으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예배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 한 논문으로 또 다른 논문으로 교육 표준화 방안이 제시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육 방안으로는 기존에 나온 「선물 II」, TEE(1): 『풍성한 생명』, TEE(2): 『풍성한 빛』, 『좋은 군사』, 『The 좋은 군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시입니다. 그러나 이왕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으니 좀 더 창의적인 제안이 있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3.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수정 제안

좋은 전달을 위해 다음같이 각주와 참고문헌의 형식 수정을 제안해 봅니다.

(각주)

2) 이종윤,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군선교신학』 12(2014), 13.

이종윤,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군선교신학』 12 (2014): 13.

43) *Ibid.*, 13-15.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군인교회 예식서』,

¹ 『군인교회 예식서』 (서울: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0). 2) 이에 대해 이승구,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서울: SFC, 2007)의 ‘공예배’에 대한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13-16.

(오늘날에는 *Ibid.*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

강용원. “全體教會의 機能으로서의 教會教育 鼎立을 위한 論議.” 『학생생활연구』 5 (1990): 시작 면수-마지막 면수.

고용수. “예배와 기독교교육.” 『教會와 神學』 25 (1993): 시작 면수-마지막 면수.

김금용. “설교와 예배 준비의 의미에 대한 한 연구.” 『신학과 실천』 8 (2005): 시작 면수-마지막 면수.

4. 마치면서

좋은 논의를 통해서 대대급 예배와 교육의 방안을 잘 제시해 주신 이규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대대급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예배답게 주께 드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진리 안에서”(in the truth) 그리고 “영 안에서”(in the Spirit)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군(軍) 지도자(指導者)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

■ 강사문 Kang, Sa Moon

-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시작하는 말

요즘 우리나라에 사회의 갈등과 대결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 지도자(指導者)와 지도력(指導力)의 부재(不在)라고 한다. 현명한 국가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군에도 참신한 지도력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군은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사기충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에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국가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역시 군대의 운명도 군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전쟁의 승패도 군 지도자의 판단과

결단에 따라 승리와 패배의 희비가 엇갈린다. 따라서 지도자의 사고와 판단력의 역량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과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생존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도자와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신약성경에서는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 공동체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나 군사적 조직체가 없었으므로 군사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혹 있다면 로마군의 파견대장 정도가 언급되므로 군사 지도자라면 구약시대의 군사 지도자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공동체는 자기 국가만을 위해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국가를 초월한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참신한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에 관해 개론적 이해에 이어 군 지도자로 활약한 모세, 여호수아, 사울 왕, 다윗 왕 등 군 통수권자들을 차례로 다루어 본다.

2. 지도자(指導者)라는 용어(用語)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상(像)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용어가 지도자로 호칭되었고 누구에게 이런 지도자란 호칭이 주어졌으며 이런 지도자의 호칭을 받은 자의 기능과 특성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말 성경에 지도자(leader)란 용어는 한글개역(1938년)에 단수로 6번(구약 4, 신약 2) 나타난다.¹ 복수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공동번역(1977년)에는 지도자란 어휘가 단수로 67번(구약 44, 신약 23), 복수로 43번(구약 26, 신약 15), 전부 110번 나타난다. 더욱이 표준새번역(1993년)에는 단수로 195번(구약 175, 신약 20), 복수로 139번(구약 115, 신약 24), 전부 334번 나타난다. 한글개역에는 지도자란 어휘가 6번밖에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공동번역에는 100번 이상, 새번역에는 300번 이상이 나타

¹ 삼상 9:16; 10:1; 13:14; 25:30; 마 23:10(2번).

나는가? 무슨 이유로 최근 번역일수록 지도자란 용어가 더 많이 생겨났단 말인가?

이런 경향은 영어권의 역본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중세 영어 역본인 KJV(1611)에 지도자란 어휘는 신약 1번을 포함해서 단지 6번 나타난다.² 그러나 최근 영역본인 NRSV(1989년)에는 ‘leader’(리더)라는 어휘가 215번 이상 나타나고, NIV(1994년)에는 ‘leader’란 어휘가 310번 이상 나타난다. 여기서도 오래된 역본에는 ‘leader’란 어휘가 단지 6번 나타나는 데 비해 최근 역본일수록 옛 번역본보다 30-50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도자라는 용어를 번역판에서 찾기보다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찾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떤 어휘가 우리말 성경에서 지도자로 번역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번역자들이 어떤 히브리어 어휘를 지도자로 번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역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같은 어휘라도 역자에 따라 다른 용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혼선을 준다. 우선 아래 도표에서 보는 대로 히브리어 어휘 ‘나기드’가 흠정역에서는 ‘leader’로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지도자로 번역되고 있다.

한글개역 성경	KJV(흠정역)	BHS(맞소리 본문)	비 고
지도자	leader	נָגִיד-나기드 מַעֲשֵׂה-메아스레	
삼상 9:16; 10:1; 13:14; 25:30	대상 12:27(28-MT); 13:1; 사 55:4; 대하 32:21; 사 9:16(15-MT)	KJV역은 히브리어의 나기드와 메아스레(사 9:15) 두 단어를 지도자로 옮긴다.	한글개역 성경은 나기드만을, 흠정역은 나기드에 ‘메아스레’를 첨가한다.

(지도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나기드)³

² 단수-대상 12:27; 13:1; 사 55:4; 복수-대하 32:21; 사 9:16(15-MT); 마 15:14.

³ 위 도표는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실린 강사문,

구약(한글개역)에서 나타나는 4번의 지도자는 모두 히브리어 ‘나기드(נָגִיד)’의 번역이고, 신약의 마태복음 23장 10절의 지도자는 전문인, 교수나 스승이란 의미의 ‘카테게테스(καθηγητης)’의 번역이다. 한편 KJV 구약에 나타나는 5번의 지도자 가운데 4번은 히브리어 ‘나기드’의 번역이고, 한 번은 이사야 9장 16절의 ‘메아스레’를 지도자로 번역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의 지도자는 안내자(案内者)나 인도자(引導者)란 의미의 ‘호데고스(οδηγος)’의 번역이다. 한글개역이나 흠정역 역자들은 구약의 ‘나기드’를 지도자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나기드’를 지도자로 옮긴 것이다. 흠정역 역자만은 ‘나기드’에 한 번 ‘메아스레’를 지도자로 옮길 뿐이다.

그런데 신약의 경우는 역자들의 이해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한글개역의 역자는 ‘카테게테스’를 지도자로 옮겼고, 흠정역 역자는 ‘호데고스’를 지도자로 번역한다. 따라서 구약의 ‘나기드’를 지도자로 번역하는데에는 역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일치한 셈이다.

최근 한글 표준새번역에서는 ‘나기드’ 외에도 다른 여섯 개의 어휘를 지도자로 번역한다.

BHS 어휘들	빈도수	성구	비고
נָגִיד-나기드	3	왕상 14:7; 대상 13:1; 29:22	NRSV에 6번
נָשִׂיא-나시	44	창 23:6; 출 16:22; 22:28 등	NRSV에 60번
שָׂרָא-로시	15	출 18:25; 민 1:4; 36:1 등	NRSV에 22번
שָׂר-샤르	52	출 2:14; 삿 5:15; 8:6 등	NRSV에 19번
שׂוֹטֵר-쇼테르	3	신 16:18; 수 1:10; 8:33	
קָצִין-카친	3	사 22:3; 미 3:1, 9	
גִּדּוּל-가돌	3	신 3:7; 4:14; 나 3:10	

〈한글 표준새번역의 지도자 빈도수〉

“구약성경에 나타난 지도자상”(2001, 대한기독교서회), 331쪽에서 재인용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대로 한글 표준새번역에 지도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어휘가 3번 이상 반복되는 것이 7개이고, 그 외에도 한 번 또는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이 무려 15개로 전부 22개의 다른 히브리어 어휘가 우리 말 지도자로 번역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인 히브리어 어휘는 ‘샤르’로 52번, 다음으로는 ‘나시’가 44번이다. 그다음은 ‘로시’로 15번이나 지도자로 번역된다. 3번씩 번역된 히브리어 어휘는 ‘나기드’를 비롯 4개이다. 표준새번역에 지도자가 202번 나타나는데 미확인된 40곳을 제외하면 지도자 빈도수가 162번이다. 이는 히브리어 22개 어휘가 지도자로 162번 번역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번역 경향은 영어 역본인 새개정표준번역(NRSV)에도 나타난다. 아래에서 보는 대로 NRSV역에 ‘leader’가 269번 나타나는데 신약(27번)과 제2정경(29번)을 제외한 213번 가운데 미확인된 40번을 제외한 173번이 ‘leader’로 번역되는데 이는 히브리어 어휘 15개가 173번이나 ‘leader(s)’로 번역된 셈이다. 특히 56번이라는 많은 빈도수에 특수한 기능의 지도자로 번역된 용어는 많은 시편들의 제목으로 나타나는 ‘메나체아흐’(מְנַצֵּחַ)이다. 이 어휘는 시편에 55번 나타나고, 나머지 한 번은 하박국 3장 19절에 나타난다. 이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것인데 NRSV는 이 어휘를 ‘leader’로 번역한다. 다른 번역에서는 지도자 대신에 지휘자(conductor, director)로 번역되고 있다.

NRSV에서 제일 빈도수가 가장 많은 어휘는 ‘나시’라는 어휘로 그 뜻은 ‘들어 올린 자’란 뜻에서 지도자로 60번 번역된다. 다음으로는 ‘로시’로 22번 번역되는데 이는 머리라는 뜻으로 우두머리 또는 지도자로 옮겨진다. 19번이나 지도자로 번역되는 샤르는 왕자, 통치자 또는 신하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나기드’가 6번으로 나타나는 등 5개의 히브리어 어휘가 지도자로 번역되고 있다. 그 외 15개의 히브리어 어휘는 한 번 또는 두 번 지도자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15개 히브리어 어

휘가 영어의 'leader(s)'로 번역된 셈이다. 이 역본에 지도자란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란 의미의 '메나체아흐'가 56번,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을 가리키는 '나시'가 60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두 어휘의 빈도수가 100번을 넘으니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BHS 어휘들	빈도수	성구	비고
מְנַצֵּחַ	55	시 4:1; 5:1; 6:1	한글 표준새번역에는 지도자로 번역되지 않음
נָגִיד	6	왕상 14:27; 16:2; 대상 12:28; 13:1; 28:4; 사 55:4	한글 표준새번역에 3번
נָשִׂיא	60	출 16:22; 34:11; 민 1:16 등	한글 표준새번역에 44번
רֹאשׁ	22	신 1:13; 15; 29:10; 왕상 6:1 등	한글 표준새번역에 15번
עָר	19	대상 22:17; 23:2; 대하 24:10 등	한글 표준새번역에 52번

〈영역본 NRSV에 따른 leader의 빈도수〉

그러므로 위의 도표들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응하는 어휘의 빈도수가 많은 히브리어 어휘들을 역자들이 지도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빈도수가 많은 어휘들을 검토하여 지도자 모습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3. 지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휘들

세 개의 역본을 통해서 지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휘가 27개가 되지만 여기서는 빈도수가 많은 대표적인 히브리어 어휘들,

- 즉 1) 나기드(נָגִיד),
- 2) 나시(נָשִׂיא),
- 3) 로시(רֹאשׁ)
- 4) 사르(עָר)
- 5) 모셀(מַשֵּׁל)

- 6) 할라크·……리프네(……לפני……הלל)
 7) 에베드(עבד)
 8) 나하그(נהג)⁴

1) ‘나기드’(נהיג)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이다(삼상 9:16; 10:1; 13:14; 25:30; 삼하 5:2; 6:21 등).

위의 성경구절에서 ‘나기드’가 48번(MT) 가운데 한글개역 성경 사무엘상에서만 지도자로 4번 번역된다(9:16; 10:1; 13:14; 25:30). 나머지 사무엘하, 열왕기와 역대기 등 역사서에서 ‘나기드’는 주권자로 11번 번역된다.⁵ 또는 외국 왕(겔 28:2), 인도자(사 55:4)와 족장(대상 12:27-MT-28) 등으로 번역된다. 공동번역에서는 ‘나기드’를 거의 수령으로 또는 지도자(대상 12:28)로 번역하고, 우리말 표준새번역에서는 거의 영도자로 또는 통치자(삼하 5:2; 6:21; 겔 28:2)로 번역한다. 흠정역도 ‘나기드’를 4번 ‘leader(s)’로 옮긴다(대상 12:27; 13:1; 대하 32:21; 사 55:4). NRSV에서는 ‘ruler’ 또는 ‘leader’(대상 12:28; 사 55:4)로 번역되고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거의 사령관인 ‘commander’로 번역된다. 아래 도표를 통해 쉽게 파악이 될 것이다.

장절	BHS	한글개역	공동번역	한글표준 새번역	NRSV	비고
삼상 9:16	נהיג	지도자	수령	영도자	ruler	JB- commander
삼상 10:1	נהיג	지도자	수령	영도자	ruler	
삼상 13:14	נהיג	지도자	수령	영도자	ruler	
삼상 25:30	נהיג	지도자	수령	영도자	prince	

⁴ 더 자세한 용어를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바람.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지도자상,” 『하나님 나라와 선교(서정운 명예총장 은퇴기념 논문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29-358.

⁵ 삼하 5:2; 6:21; 7:8; 왕상 1:35; 14:7; 16:2; 왕하 20:5; 대상 5:2; 11:2; 17:7; 29:22; 대하 6:5.

삼하 5:2	רִגְלִי	주권자	영도자	통치자	ruler	
삼하 6:21	רִגְלִי	주권자	왕	통치자	prince	
대상 12:27= MT:28	רִגְלִי	족장	지도자	영도자	leader	우두머리-한글 개역개정
사 55:4	רִגְלִי	인도자	수령	인도자	leader	
겔 28:2	רִגְלִי	왕	우두머리	통치자	prince	

(다른 역본에 따라 지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기드’)

‘나기드’의 기본 의미는 앞에 서 있는 왕과 같이 높으신 분(*be high, exalted*)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아비아, 바아사와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호칭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특별히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삼상 10:1; 13:14). 이 선택된 지도자의 기능은 사사처럼 적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나기드’로 불린 자들은 신의 소명을 받고 등장한 군대 사령관인 카친수(10:24; 사 11:6-11과 병행되며 군대 지도자로 이해되었다. 또 ‘나기드’가 왕국 초기에는 ‘샤르’(최고 사령관 또는 야전 사령관)와 연계된(수 5:114; 사 4:17; 삼상 12:9) 것으로 이해되지만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로서의 의미는 약하다.

‘나기드’란 호칭은 처음 사울과 연계되어 쓰인다(삼상 9:16; 10:1).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나기드로서 선택하여 기름 부었다. 그래서 최근 번역은 나기드를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등장하여 카리스마를 가진 높으신 자로 번역한다. 그의 임무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런 기능이 사사(Judge)의 기능이요 모시아(*mosia*-구원자)의 기능이었고 후에는 왕의 기능이 되었다. 이런 기능은 아웨가 그를 지도자로 임명한 이유라는 것을 칠십인역 사무엘상 10장 1절에 긴 문장으로 부연 설명한다(10:1).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

름을 부으신 것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 아니냐? 너는 주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기업의 지도자로 너에게 기름 부으신 표징이다(LXX I kings 10:1=한글 삼상 10:1).

나기드는 자주 다윗에게도 사용된다(삼상 13:14; 25:30; 삼하 5:2; 대상 11:2). 사울의 실패 후에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나기드로 임명하신다(삼상 25:30).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삼하 7:8; 대상 17:7)와 목자로 삼으셨다(삼하 5:2; 대상 11:2). 미갈에 대한 다윗의 진술(삼하 6:21)도 백성을 위한 그의 나기드 임명은 하나님에 의한 선택이고 임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한다(삼상 16:11이하, 시 78:70 이하).

다윗의 승계 이야기 속에서 사독과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별 어려움 없이 당위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이 나기드로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왕상 1:34 이하). 이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미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을 작정하였기 때문이다(왕상 1:35).

이스라엘 왕 중에 나기드로서 왕이 된 자는 위에서 거명한 7명이다(사울, 다윗, 솔로몬, 아비야, 여로보암, 바아사,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제외한 왕들은 통일왕국 초기의 왕들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머지 왕들은 나기드로 선택되지 않고 직접 왕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합법적 인정 없이 왕으로 자연 승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기드가 되는 과정과 절차는 우선 하나님의 선택, 임명, 존귀와 기름 부음이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지도자 자격의 기본 조건 4가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 그리고 높이 들림과 기름 부음(메시아)을 받는 일이다(삼상 9:16; 10:1). 그래서 나기드 됨의 우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 의해 카리스마가 주어지고 운명지어진다. 그 결과로 나기드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백성으로부터 인정된다.

나기드의 호칭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삼하 7장). 그래서 계약관계가 파기되면 사울처럼 자동적으로 나기드 신분이 파기되고 다음 사람, 즉 다윗에게 주어진다(삼상 13:14). 그래서 나기드 지도자란 하나님과의 조건적 계약 관계에서만 유지되는 지도자상이다. 나기드 지도자란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할 때에만 지도자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지, 만년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성전의 대제사장도 나기드로서 기능을 갖는다. 이는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임명과 카리스마의 부여를 보증하는 데서 인정되며 후기 자료에서 나타난다(대상 9:11; 대하 31:13). 세속적 의미로 족장들을 나기드로 불렀다. 여호야다는 아론 지파의 족장이고(대상 12:28), 정규군의 나기드 즉 군 사령관이다(대상 27:5). 두로 왕도 나기드로 호칭되었다(겔 28:2).

2) 나시(נָשִׁי) 지도자란 하나님이 들어 세운 자이다.

앞에서 본 대로 한글개역이나 영어의 흠정역 같은 오래된 역본에서는 ‘나시(נָשִׁי)’를 지도자로 번역하지 않았으나 최근 번역의 한글역들과 NRSV에서는 나시를 지도자로 번역한다. 한글 표준새번역에서는 나시를 44번 지도자로, NRSV에서는 나시를 60번 지도자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역본에 따르면, ‘나시’로 호칭된 자도 지도자로 인식하게 된다. ‘나시’란 말은 들어 올린다는 ‘나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다. 그래서 우리말 표준새번역은 창세기 23장 6절에서 헤브론의 헛사람들이 사라를 위한 묘지를 찾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 세우신 지도자”라고 번역한다. ‘네시 엘로힘’이란 말의 문자적 번역은 ‘하나님의 지도자’, 즉 하나님이 들어 세운 지도자란 뜻이다.

구약성경에 ‘나시’가 126번 나타난다. 오경에 69번, 신명기 역사서에

14번, 역대기에 7번과 에스겔서에 36번이다.⁶ 최근 역본들에서 ‘나시’가 어떤 용어로 옮겨졌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본문 및 번역본 성경구절	MT	공동번역	한글 표준새번역	NRSV	NIV
출 22:28(MT 27)	נָשִׂיא	지도자	지도자	Leader	ruler
민 2:3	נָשִׂיא	지휘관	지휘관	leader	leader
왕상 11:34	נָשִׂיא	두목	두목	leader	leader
대상 15:22	נָשִׂיא	지휘자	지휘자	leader	head
사 3:7	נָשִׂיא	어른	통치자	leader	leader
렘 40:13	נָשִׂיא	장교	지휘관	leaders	officers

(최근 역본에 따라 지도자의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시)

위에서 보는 대로 히브리어 본문은 모두가 ‘나시’이므로, NRSV도 ‘나시’를 전부 ‘leader’로 번역한다. 그러나 우리말 공동번역은 ‘나시’를 지도자, 지휘자/관, 두목, 어른 또는 장교로 번역하고, 한글 표준새번역도 ‘나시’를 지도자, 지휘자, 지휘관, 통치자 또는 두목 등 다양하게 표현한다. 의미상으로는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체적 문맥에서의 표현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란 이미지를 찾는 데에는 영어역보다는 오히려 우리말 번역이 약간의 혼선을 줄 수 있다.

‘나시’의 위상을 말한다면 ‘나기드’가 왕과 같은 위치라면 ‘나시’는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모세를 보필하던 각 지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왕국의 시작과 더불어 이 호칭은 왕과 같은 의미로서 솔로몬도 이 호칭을 유지했고(왕

⁶ “נָשִׂיא”,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d. by G. J. Botterweck, H. Ringgren & H.-J. Fabry(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Vol. X, 45. 에벤-쇼산 콘코던스에서는 나시가 133번으로 집계된다.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1990), ed. by A. Even-Shoshan, 786). 바 이불 밖에서는 134번으로 통계된다.

상 11:34), 애굽의 바로 왕도 나시로 호칭되었다(겔 30:13). 여호수아 13장 1절의 미디안의 나시는 후에 민수기 13장 8절에서는 미디안 왕으로 대치된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의 하나님과 나시가 병행되던 것이 아합 왕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과 왕으로 된 것(왕상 21:10)으로 보아 나시가 후에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로 간주되어 왕으로 대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시란 호칭이 주어졌는가? 각 가문의 지도자(민 1:44; 4:46 등), 각 지파의 지도자(민 2:3-29), 회중의 지도자(출 16:22) 등 각 씨족이나 집단의 대표자들을 지칭하고, 또 미디안 지도자(수 13:1), 유다의 지도자(스 1:8) 등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브라함도 나시였고(창 23:6), 이스마엘도 나시였다(창 17:20). 하물의 아들 세겜도 나시였고(창 34:2), 솔로몬도 나시였고, 애굽의 바로 왕도 나시였다. 세스바살도 나시였다(스 1:8). 12지파의 대표자들도 나시였다(민 13장). 제사장들도 나시로 호칭되었다. 또는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을 말한다(창 23:6; 34:2).

이들의 기능은 군인 병사들의 소집을 담당하는 일(민 10:4), 미래에 땅을 재분배할 때 여호와와 제단구역에 앉아 속죄제를 돕는 일(겔 45:7ff. 48:21ff), 분쟁의 요소들을 재판하는 사법적 기능을 하는 것(수 22:14, 30, 32) 등이다. 에스겔 1-39장까지는 왕과 나시의 정체가 구분이 되나 40-48장에서는 왕과 나시의 정체가 선명하지 않다.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나는 나시는 왕과 같은 권위와 기능을 가진 자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대망의 지도자를 말한다. 에스겔 45장 9-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시에게 할 일을 명령하신다.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라……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밧을 써라.”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소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왕정 시대의 나시와 달리 모든 백성들이 계층 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것을 추진할 자임을 시사한다.

3) ‘로시’ 지도자(רֹשֵׁי)란 각 지파/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이다.

‘로시’란 말은 머리라는 뜻이다. 구약에 로시가 627번 나타나는데⁷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주로 ‘두령’으로 번역되고, NRSV에서는 대부분 ‘head’로 번역되는 어휘이다. 한글 최근 번역들에서는 지도자로, 최근 영어역도 ‘leader, ruler’ 혹은 ‘captain’으로 번역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총리를 가리켜 ‘로시 멘살라’(우두머리 통치자라고 부른다. 이제 몇몇 성경구절에서 로시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자.

성경구절	BHS	한글개역	공동번역	한글 표준새번역	NRSV
삿 11:8	רֹשֵׁי - שָׂרֵי	머리	수령	통치자	head
출 18:25	רֹשֵׁי - שָׂרֵי	두목	지도자	지도자	heads
느 11:3	רֹשֵׁי - שָׂרֵי	두목	어른	지도자	leaders
민 14:4	רֹשֵׁי - שָׂרֵי	장관	지도자	우두머리	captain
신 1:13	רֹשֵׁי - שָׂרֵי	두령	지도자	지도자	leaders

〈로시에 대한 각 역본들의 표현들〉

위에서 보는 대로 히브리어 ‘로시’가 한글개역에는 두목이나 두령 등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옮긴다. 그러나 공동번역이나 한글 표준새번역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각각 3번씩 군사 지도자 또는 집단의 지도자로 번역한다. 영역에서도 2번 ‘leader’로 번역된다. 사사기 11장 8-11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를 그 백성들의 로시로 추대한다. 즉 입다는 암몬 군사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줌으로 사사가 되었으며 군사 지도자가 된 것이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도 로시는 각 지파의 대표 지도자들이다(민 30:2; 왕상 8:1; 신 1:13, 15; 민 1:16; 삿 10:18 등). 또 는 가문의 어른을 가리켜 로시로 호칭했다(출 6:14; 25). 모세가 임명한

⁷ רֹשֵׁי TWAT VII, 272-73. Even-Shoshan, *A New Concordance*, 1048-51.

천부장 백부장 같은 자들도 로시로 불린다(출 18:25; 민 25:4).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는 유다 지방의 도지사 같은 자가 로시로 호칭된다. 때로는 대제사장도 로시로 호칭되었다(왕하 25:18).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는 사울도 이스라엘 지파들의 로시와 왕으로 호칭된다. 따라서 로시는 왕이나 나시와도 병행된다. 민수기 32장 2절의 나시가 28-30절에서는 로시로 나타난다. 또 민수기 34장 16-29절의 나시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는 로시로 표현되므로 로시도 나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시는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 하나님이 들어 세운 자 ‘나시’ 또는 ‘나기드’와 같은 자로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샤르’(רַשָׁ) 지도자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군사 지도자이다.

구약에서는 ‘샤르’가 420번 나타난다. 샤르는 왕과 신하라는 맥락에서 신하들이나(창 12:15; 민 22:8), 군대 장군들(출 21:22), 지역(대상 22:17; 렘 24:1)이나 그룹(창 47:6; 삼상 22:2)의 장(長)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호칭이다.⁸ 영어 역본에서는 prince, commander, ruler, officer, leader 등으로 번역되었고, 한글개역에서는 방백, 공동번역에서는 추장이나 지도자로, 한글 표준새번역에서도 지도자로, NRSV에서는 ruler, officer 나 lords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자를 샤르로 부른다. 샤르는 왕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지만 때로는 왕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사 10:8). 한글개역은 샤르를 왕(사 9:6(5-히))으로 번역한다. 또는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샤르 중에 샤르로 즉 왕의 왕(8:25)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샤르를 하나님의 샤르로 표현하고 있다(대상 24:5). 아마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는 주로 지파나 군 조직 속에서 군대 장군들을 가리킬 때

⁸ ‘רַשָׁ’, TWAT VII, 861-2. 여기서는 샤르의 빈도수를 421번으로 계산한다.

사용되었다. 몇몇 성경구절들을 여러 역본들을 통해 비교하면 쉽게 파악될 것이다.

성경구절	BHS	한글개역	공동번역	한글 표준새번역	NRSV
출 2:14	רָב	주제(主宰)	우두머리	지도자	ruler
삿 5:15	רָב	방백	왕자	지도자	chief
삼상 29:2	רָב	장관	추장	지도자	lords
대상 25:1	רָב	군대장관	예배 지도자	군대 지도자	officers
느 9:38	רָב	방백	지도자	지도자	officials
장 8:16	רָב	재상(宰相)	지휘관	지도자	ruler
사 1:23	רָב	방백	지도자	지도자	prince

〈역본에 따라 지도자의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르'〉

위 도표에서 보는 대로 히브리어 '샤르'에 대한 번역이 한글 표준새번역은 지도자로 일관되게 번역하나, 한글개역에서는 군대 지도자의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지도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방백이나 장관으로 표현한다. 또한 공동번역은 다른 여러 역자들에 의한 번역으로 일관성은 없으나 지도자란 용어를 3번 사용한다. 한편 영역도 ruler나 lords 등 다양하다. 신명기적 작품이나 역대기 등 주로 후기 작품에서 샤르가 군사 지도자를 가리키는 문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5) 모셀(מושל) 지도자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다.

(1) 모셀은 마샬의 능동 현재형이다. 마샬은 능동형으로 76회, 사역형으로 3회 모두 79회 사용된다. 주로 정치적인 의미로 왕이 힘과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 백성을 잘 다스린 모셀(통치자)로 묘사된다.

(2) 하나님도 모셀로 묘사된다. 욥기 2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갖고 다스리며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자'로 표현된다. 창세기 1장 16-17절에서 하나님은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다. 여기서 주관한다는 ‘마살’은 상하 주종 관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질서대로 수평적인 다스림을 의미한다. 아담이 아내 하와를 다스린다(창 3:16)는 말도 같은 범주의 의미이다.

6) 지도자란 군사나 백성들 앞에서 가는 자(……לפני……הלך-할라크 리 프네)를 말한다. 지도자는 위협을 무릅쓰고 선두에서 군대를 끌고 가는 자이다. 방향을 제시하고 앞에서 끌고 가고 때로는 뒤에서 떨어진 자들을 밀고 가는 자가 지도자이다. 하나님도 전쟁 시에는 그의 군대들 앞에서 전위대장으로 적진을 헤치고 나가신다. 또는 후미에서 부상자들을 돌보시는 후위대장으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신다. 민수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신다.

7) ‘에베드’(עבד) 지도자란 증처럼 섬기는 자를 의미한다.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란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에서 유래한다.⁹

(1) ‘아바드’란 동사는 ‘종으로 섬긴다’, ‘노예로서 주인을 섬긴다’(δούλευν)의 의미(114회)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다.

(2) ‘하나님께 예배드린다’(λατρευείν)는 뜻으로 75회 사용되었다.

(3) ‘행한다’(ποιείν)는 뜻으로 22회 번역되고 있다.

(4) ‘기꺼이 섬긴다’(θεραπευείν)는 뜻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1회).

(5) 신하가 왕을 공적으로 섬긴다(θεραπευείν)는 뜻으로 13회 사용된다.

누구를 섬긴다는 아바드의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까지 포함되고 더욱이 땅도 아바드(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창 2:5; 3:23 등). 따라서 섬김의 범주는 폭이 넓어 사람으로부터 자연과 하나님까지가 섬김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섬김의 의미는 ‘아바드’란 말이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대로 몇

⁹ “עבד”, TWAT V, 988.

가지 의미를 함유한다. 첫째, 소외된 이웃을 섬기되 종이 주인을 섬기 듯이 섬겨야 함을 뜻한다. 하고 싶을 때 섬기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하나의 의무요 책임임을 알 수 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둘째, 섬김의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섬겨야 한다. 섬김이란 말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같다. 영어의 ‘service’란 말이 히브리어의 ‘아바드’, 즉 ‘예배드린다’는 말에서 유래되고 있다. 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없는 자를 도울 때 보다 더 공손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섬기듯이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한다(1:16). 아모스 선지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공동체를 섬기는 일ियो,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5:15). 온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맺은 계약의 백성으로, 즉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래서 피차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그와 맺은 계약을 위반한 셈이다. 공동체 안에서 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다(사 60:1).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 또는 현실화 되어야만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20)라는 말씀에

서 좀 더 명확해진다.

시편 10편 14절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오제르)”로 묘사되었고,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자(시 35:10)로 기술되어 있다. 시편 40편 17절에서도 가난한 시인은 아뢰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 이시요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한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자(오제르)이다. 즉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필 것을 명령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가난한 자를 철저하게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이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돌보아 주는 봉사자가 될 것을 요청하신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에 의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섬기는 지도자는 고난에 동참하는 지도자(수난의 종)이다. 이사야 53장은 수난의 종의 노래다. 아무리 짓눌려도 불평하는 소리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생애 모습에서 실재화된다.

8) 지도자(נהג-나하그; להג-나할; מדרג-마드리크)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이다

(1) ‘나하그’는 ‘이끌다’의 뜻이다. 전부 10회 나타난다(출 10:113; 삼하 6:3; 대상 13:7; 시 80:2; 전 2:3; 사 11:6; 59:11; 63:14; 애 3:2; 나 2:8). ‘나하그’는 지도(指導)란 글자의 도(導)에 해당된다. 지도자란 백성을 이끌어 가는 자이다(leader, driver, guide). 목자가 양 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지도자는 목자처럼 인도하는 자이다. 능동태에서 주어는 사람으로 양 떼를 이끌고 가는 자로 야곱(창 31:18), 모세(출 3:1), 다윗(삼상 30:20) 등이 나

하그에 해당된다. 나하그의 목적어는 양 떼나 짐승들이다. 한편 강조형(피엘)에서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어는 항상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이시고 인도를 받는 자는 사람이다. 시편 80편 1절(히-2)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된다. 하나님이 인도자(떼나하그)로서 양 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백성을 바다와 광야에서 인도하신다(사 63:11-14; 시 78:52). 동시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심판자로서 백성을 포로로 이끄신다(사 49:10). 왕이나 장군이 인도자로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가거나(대상 20:1; 대하 25:11) 포로들을 이끌고 있다. 지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이다(전 2:3).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목자로서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는 인도자로 묘사된다.

(2)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나하그는 ‘나할’과 병행되므로 나할도 나하그와 같은 인도자의 의미를 갖는다. 구약에서 나할은 피엘형으로 9번, 사역형으로 1번 모두 10번 나타난다(창 33:14; 47:17; 출 15:13; 사 40:11; 49:10; 51:18; 시 23:2; 31:4; 대상 28:15; 32:22).¹⁰ 이사야 51장 18절의 나할을 인도자로 번역함이 가하다.¹¹ 시편 23편 2절에서 하나님이 나할로 즉 인도자로 이해된다. 지도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이다.

(3) 길을 인도한다는 인도자의 또 다른 용어는 ‘마드리크’이다. 마드리크는 ‘테레크’의 히필 현재형이다.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란 말이다. 테레크의 히필형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박국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산등성로 가게 하신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삼상 24:19). 이는 친구를 만나면 좋은 길로 편히 가게 한다는 말이다. 그래

¹⁰ TDOT IX, 260.

¹¹ TDOT IX, 260, n. 2에서 Haupt는 나할이 ‘인도하다’의 뜻이 없다고 한다.

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은 구원의 길을 의미한다(수 24:17; 출 32:7 이하).

4. 구약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

이스라엘 나라의 천여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약 300년 간격으로 나타난 세 군의 저명한 군사 지도자들 즉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과 다윗의 지도력과 예언자적 지도력을 가진 사무엘과 예레미야의 지도력에 관해서 살펴본다.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지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초월적 권위의 민족적 군 지도자로서의 모세(출 1장-신 34장)
- 2)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수 1-11장)
- 3) 이스라엘의 첫 번 왕국의 실패한 지도자 사울(삼상 9-15장)
- 4) 이스라엘 왕국의 영원한 지도자 다윗 왕(삼상 17장-삼하 24장)
- 5) 예언자적 지도자 사무엘과 예레미야(사무엘상·하, 예레미야서)

여기서는 첫 번째 민족적 군사 지도자인 모세의 서론적인 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모세의 민족적 지도자의 모습은 취급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그의 지도력의 세 항목만을 다루려고 한다.¹² 그리고 여호수아, 사울과 다윗 그리고 나머지 군사 지도자들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모세는 앞에서 언급된 군대 지휘관을 지칭하는 나기드나 로시 같은 명칭이 주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이 명칭들을 능가하는 군 통수권자요,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 싸웠던 장군이다. 오히려 이런 군사 지도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후대의 산물인 것이다. 모세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

¹² 강사문, “구약성경에 나타난 지도자상”, 348-352.

사를 전멸시킨 군사 지도자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광야를 횡단할 때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에는 손을 들어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격퇴시켰던 군사 전략 가요, 군 지도자였다(출 17:8-16). 시내 반도와 요단 동편을 지나 느보 산에 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적에서 지켜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 하였던 장군이요 군 통치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지도력의 여러 모습들을 검토하여 지도자의 전형을 찾아 보려고 한다.

1) 초월적 권위의 군 지도자로서의 모세(출 1장-신 34장)

이스라엘 역사와 백성들의 삶 속에서 모세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요 군 지도자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한 최고의 구원자이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시공을 넘어 신앙과 군의 지도자로 간주되는 초월적 권위의 지도자이다.¹³ 왜냐하면 앞에서 열거한 여러 군사 지도자 호칭으로 호칭되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그런 호칭을 가진 지도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나기드나 나시가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였던 최고 영도자이다. 그래서 모세는 왕국 전 시대에 속했던 지도자들의 지도자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지도자인 셈이다(민 12:7-8; 신 34:10).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지도자 모습을 살펴보자. 지면 관계로 지도자 모세의 세 가지 모습만을 고찰한다.

(1) 목자로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지도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였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지도자의 일차적인 책임은 양을 먹이는 일이다. 다음은 양의 생명을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¹³ S. 딘 맥브라이드, “초월적 권위: 구약 전승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 『기독교 사상』 387(1991/3), 23-36.

다. 왜냐하면 양의 생명과 안전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은 곧 양들이 죽음에 직면했음을 뜻한다. 에스겔은 에스겔 34장에서 목자 없는 양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흠어지며 흠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5절).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8절). 그래서 양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양들을 위협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겠다고 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그 흠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 낼지라……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살찐 꼴을 먹으리라……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אֵלֶּיךָ)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11-15절). 여기서 목자의 기능은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임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의 생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슥 11:17)라고 준엄한 경고를 하신다.

본래 목자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들이나 정의로운 왕에게 붙여졌던 찬양의 호칭이었다. 태양신 같은 우트(Utu)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목자로서 불려졌고 함무라비와 같은 정의의 임금들이 목자로 호칭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기쁨을 가져다 준 파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의해 나의 목자(עֵרֶךְ)로 불린 것과 유사하다. 이런 호칭이 구약성경에서도 같은 경우로 쓰이고 있다. 앞에서 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음을 언급하고 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목자”(יהוה עֵרֶךְ)라고 노래한다. 또 시편 78편 52-53절에서 시인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라고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목자 호칭을 받은 자는 야곱 같은 족장(창 46:32)이나 요셉(창 37:2), 또는 사사들(대상 17:6)이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민 27:16-23) 같은 자로서 그 사회의 수장적인 지도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라는 호칭이 의미하는 바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민족 해방자요, 지도자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40년간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백성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졌던 민족 지도자이므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도 그러한 지도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듯이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큰 목자”(히 13:20)로 비유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상이 새로운 모세의 유형으로 유비될 정도로 지도자로서의 목자인 모세의 권위는 신약 전승 속에서도 바람직한 지도자상으로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신약의 목자 개념에는 나타나나 구약의 목자 개념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소가 있으니 이는 목자의 희생과 죽음이다. 다윗이 양 치는 자로 희생의 의미를 풍기나 뚜렷하지는 않다(삼상 17:34-36).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나는(그리스도)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11, 14절)라고 양을 위한 목자의 죽음과 희생 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날 때는 그는 참 목자가 아니고 샅꾼일 뿐이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선 사명감에 찬 군 지도자 모세

모세는 40여 년간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영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

이다. 그러나 그는 한 순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생의 방향을 바꾼 자이다. 애굽 왕자의 길에서 광야 목자의 길로, 통치자의 대망의 길에서 압제받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광야 망명자의 길로 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히 11:24-26). 그래서 에이브러햄은 모세야말로 40년간의 이방 종교와 문화생활에도 조금도 동화되지 않고 자기 민족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철저한 히브리인의 원형이라고 한다.¹⁴ 이러한 민족정신이 유대인들이 이천 년 이상 세계에 유리방향하였지만 그들의 민족혼을 유지시킨 비결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현현을 신비 속에 체험한다. 그의 체험 이야기 속에서 '본다' 혹은 '안다'는 뜻인 '라이'(ראה) 동사가 형태를 달리하여 일곱 번 반복함으로써 모세가 신비의 체험을 확고 부동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인식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는 말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성적인 판단의 세계가 아니라 황홀과 경이의 세계, 신비와 두려움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극적인 체험이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경외(tremendum mysterium)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것이다. 모세는, 그가 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므로 가까이 하지 말 것과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인간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다 포기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겸허한 지도자 모세를 상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 같은 지도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겸허한 자로 확고부동한 소명감 속에 백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책임과 희생을 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¹⁴ "Moses", Encyclopaedia Judaica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1971), 372.

(3) 민족을 압제에서 해방하고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기 3장 7-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모세에게 위탁하신다. 먼저 7-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의 우고를 아시고 친히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다. 따라서 모세는 민족 해방을 주도할 민족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위촉된 자이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모세는 호렙 산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는 참 목자로서 군 지휘관으로 위임된 것과 같다.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파송하는 파송 선언을 하심으로써 그의 위임을 끝맺는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끌어 올리는 자(one who draws out)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미가 선지자도 모세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수행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낸 자로 이해한다(6:4). 시편 106편 23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라고 증언한다.

그 결과로 출애굽기 32장 1절과 23절 두 곳에서는 분명히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낸 사람’이라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모쉐 하잇쉬 아세르 헤엘라누 미에레츠 미 쓰라임”.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는 왕 이상의 권위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해방자요 민족 지도자로 인식되었고 그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 역사 속에서도 영원한 민족 지도자로서 그의 기능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세아 12장 1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자로서 그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보호한 자로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

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러므로 모세 같은 지도자란 백성이 외국의 압제에 빠졌을 때 민족을 구원한 자로 인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 18:18; 34:10).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십 년간 준비하였고 그 후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사십 년간 광야생활을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임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신약에도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유형이 전승되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모세로서 묘사되고 있다. 지금도 모세는 고통받는 민족 지도자의 원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5. 나가는 말

구약성경에 나타난 군사 지도자로 호칭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 역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호칭은 나기드, 나시, 로쉬, 샤프르, 모셀, 군사들 앞에서 가는 자, 에베드와 나하그 등 8가지의 호칭으로 불린 자들이다. 이런 호칭을 가진 자들 가운데 저명한 6명의 군사 지도자들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레미야 등이다.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모세의 지도자 모습만을 다루었다.

지도자 모세의 모습은 목자로서의 기능이다. 목자는 양을 치는 자로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이다. 옛날 왕의 호칭 중에 하나는 목자였는데, 이는 왕은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 온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를 전속 부관으로 삼아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자임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에 헌신했던 지도자였다. 확고한 소명감에 출발한

지도자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던 자이다. 하나님의 소명에 기초한 사명감 없이는 계속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민족을 바로 왕의 압제에서 구출한 민족의 해방자요 구원자인 것이다. 홍해 바다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을 구출한 군의 최고 영도자인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military leaders and leadership in the period of the Old Testament. In the society or the nation a leader appears to be a very important person who leads a national community or a military organization. It is said that the conflict of a community is understood as the lack of leaders and leadership in a social community or a nation. The terms that are translated as a leader in the Old Testament are nagid, nasi, rosi, sar, soter and nahag etc. Among them nagid mainly functions as a military leader. Nagid is selected and anointed by God and later he becomes a king as seen in the case of Saul and David. Thus nagid saves his people from the enemy like Philistines. Nasi literally means a person whom God has raised up as His man. He also is a military leader who supports the king. Later the position of nasi is equalled with God (1King 21:10). A rosi, which means a head of men, points out to the head of each tribes of the Israelites. A rosi like nasi is equalled

with king and the head of each israelite tribes (1Sam 15:17). Thus nagid, nasi and rosi are used to suggest the military commander of the same function of a military organization. The other terms, sar, soter and nahag, are those who are related to military and war.

Moses as a military leader is the greatest leader in the early time of israelite history. He was called as a shepherd who saved and led his people from Egypt in which they were Pharaoh's slaves. The shepherd is a title that was given to kings in the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to protect and save the life of people. The function of the title is to protect and save the life of the many lambs as a shepherd. Thus John witnesses that Jesus as new Moses is the good shepherd who lays down his life for human(John 10:11). Moses also was a national leader who was called and responded to God's calling. To be a leader who follows and obeys the divine command Moses needed to have his experience of the "tremendum mysterium" at Mt. Sinai, so that he could lead his people up to near Canaan through the deserts in the struggle with many enemies. His final result of his leadership was to save his people from the Pharaoh's oppression and to lead them to the promised land obeying the command of Yahweh. Thus we call him a transcendental national and military leader in history.

주제어(key words):

군사 지도자(Military leader), 지도력(Leadership) 모세(Moses),

여호수아(Joshua), 예레미야(Jeremiah).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代)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Home like church and church like hom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or unifying three successive generations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military mission

■ 김진섭 Kim, Jin Sup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B. S.)
- 고려신학대학원(M. Div.)
- 미국 Covenant 신학대학원(구약학 전공, Th. M.)
- 미국 Dropsie 대학원(고대근동학 전공, M. A., Ph. D.)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캠퍼스 부총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해마다 사회와 교회가 5월을 가정의 달로 함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은총과 특별한총이 엮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가정과 영적 가족인 교회가 시위하는 감동적인 차별성을 통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것은 군인교회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초대교회 월력을 따르면 2015년 5월 24일 주일은 성령강림절이

었다. 이는 유월절(금요일 저녁에 시작)의 제3일째 날인 주 예수님의 부활절(주일; 유대인의 초실절레쉬트 카찌르)을 40일 지나면 그분의 승천절이요, 50일째 되는(오순절; 유대인의 칠칠절샤부오트) 주일에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예루살렘)에 유하라”(사 32:15의 인유로서 눅 24:49)고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행 1:4)을 갈망하는 약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행 1:14) 일도 5월에 일어난 셈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는 5월을 성령강림절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는 가정의 달로 3대와 함께 대대로 지키면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의 절묘한 균형과 상승효과를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이해는 포괄적인 군선교 2020 전략이 3대를 이어 대대로 영속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하므로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면(행 2:1-4), 그 첫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모친 마리아,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대참조: 마 13:55), 이종사촌 야고보와 요한)과 영적 가족(나머지 그리스도인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육신적 가정이 개척교회의 최소 설립회원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민족,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주 예수님 안에서 영적 한 가족으로 나타나는 건강한 가정공동체였다.¹

성령님의 은사론적인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전에 “모든 참음”을 사도의 증표(고후 12:12)로 앞세웠다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건강한 가정공

¹ 예를 들면, 루디아와 간수의 권속이 중심이 된 빌립보 가정교회(행 16:40); 아굴라-브리스길라 부부의 고린도 가정교회(고전 16:19)와 로마 가정교회(롬 16:3, 5); 빌레몬-압비아 부부의 골로새 혹은 라오디게아 가정교회(골 4:17; 몬 2); 여성도 늬바의 라오디게아 가정교회(골 4:15).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Vincent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바울 서신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2005)을 보라.

동체였기에 당연히 목사, 장로와 안수집사의 공통적인 자격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딤후 3:2, 4, 12; 딤후 1:6)는 상식적 믿음을 요구한다.²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상식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맺는 것이기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불신자의 일반은총적 상식의 선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 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딤후 5:8)고 경고한다.

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보통 가정들로 구성된 영적 가족인 교회는 비록 온갖 형태의 ‘티나 주름이나 흠’(엡 5:27)투성의 죄인들로 구성된 집합소이나, “어르신은 아버지같이, 모친은 어머니같이, 젊은이는 형제 같이, 젊은 여자는 일체 깨끗함으로 자매같이”(딤후 5:1-2) ‘돌보는’(딤후 3:5) 기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은 “피는 물보다 진 하다”는 속담처럼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마 12:49; 요 19:26-27; 롬 16:13) 속에 반드시 육신의 가족 친족이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다.³

1. 가정: 성령님 충만의 첫 확인 장소

모세오경에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로 구성된 도합 613 개의 계명이 있지만, 구신약 성경이 명시하는 최고의 ‘하라’ 계명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행 16:31; 비교, 요 16:9)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요 20:21; 엡 5:18)이며, 최고의 ‘하지 말라’ 계명 역시 “성령님을 훼

²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장로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³ 이 주제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0일 백석대학교 서울교직원 중장예배의 설교인 김진섭, “영적 백석 가족(요 19:25-27; 딤후 5:1-2), 「백석춘추」 4 (백석학원 교직원예배 설교집; 서울: 백석출판사, 2004), 203-218을 보라.

방/거역/근심하게/소멸하지 말라”(마 12:31, 32; 엡 4:30; 살전 5:19)이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기에(고전 12:3), “주 예수님을 믿으라”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두 계명은 사실상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최고의 ‘하라’의 두 명령 모두가 확인될 수 있는 첫 장소가 모두 가정이란 것이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명령과 약속의 중심점이 ‘네 집’인 가정이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 역시 직계 가족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성령님 충만(엡 5:18)의 첫 확인 장소가 왜 가정인가라는 질문은 인간관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창 2:25 참조) 가족 구성원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며,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예수님)께 하듯 하라...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5:22-6:4).

2. 3대(代)를 잇는 가정

앞서 살핀 ‘하라’의 최고의 두 계명이 말하는 ‘가정’의 성경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은 4대(8촌)까지 직계로 보지만, 창세기를 필두로 구약성경 전반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조상의 경우 3대를 직계가족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⁴(출 3:16; 행 3:13; 7:32)이라는 고

4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출 3:6, 15; 4:5; 마 22:32; 막 12:26; 눅 20:37;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출 3:16; 행 3:13; 7:32;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창 50:24; 출 2:24; 6:3, 8; 33:1; 민 32:11; 신 1:8; 6:10; 9:5,27; 29:13; 30:20; 34:4; 왕하 13:23; 렘 33:26; 마 8:11; 눅 13:28; 유사한 표현—창 31:53; 32:9; 35:27; 출 26:42; 행 7:8.

정적인 문구를 사용한다. 즉 아브라함(주전 2166-1991년), 이삭(주전 2066-1886년), 야곱(주전 2006-1859년), 요셉(주전 1916-1806년)의 삶을 통해 야곱은 15세가 될 때까지, 요셉은 30세가 될 때까지 각각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과 인격의 감화를 받은 셈이다. 유대인 남자의 '성년'(바르 미쯔 바, '계명의 아들')이 만 13세임을 감안하면,⁵ 야곱과 요셉은 성년이 지나도록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익히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들”(신 4:9) 3대를 이을 것이요,⁶ 따라서 ‘대대로’⁷ 세대차가 없는 문화와 신앙을 가진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너를 ‘지존’(엘론)으로 세울 것이다”(신 28:1-14)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 108개 국가에 디아스포라로서 약 1500만 명의 인구와⁸ 약 170만 명의 ‘정통파 유대인’(Orthodox Jew)⁹으로 구성된 유대인은 구신

⁵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일화를 소개하는 유일한 내러티브(눅 2:40-52)는 바로 성년 예비년인 만 12세에 모든 유대인 가정의 ‘전통처럼’(42절) 율법의 규례를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며, 소위 ‘탈무드 학습법’(46절, “랍비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의 태도를 취하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⁶ 참조. 신 6:2,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 욥 1:3, “너희는 너희 아들들에게...너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그들의 아들들은 다른아헤르, 즉 ‘다음’ 세대에게 열거하라.”

⁷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기원을 두는 ‘대대로’에 대한 대표적인 히브리어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그들의 세대를 따라서”(레도로탐) 쉘마 본문 중의 하나인 민수기 15장 38절과 함께 창 17:7, 9; 출 12:42; 27:21; 30:21; 31:16; 40:15; 레 7:36; 17:7; 21:17; (2) “너희들의 세대를 따라서”(레도로테캅-창 17:12; 출 12:14, 17; 16:32, 33; 29:42; 30:8, 10, 31; 31:13; 레 3:17; 6:11; 10:9; 22:3; 23:14, 21, 31, 41; 24:3; 민 9:10; 10:8; 15:14, 15, 21, 23a, 23b, 29; (3) “세대에서 세대로”(레도르 바도르)-시 10:6; 33:11; 49:11; 61:6; 85:5; 89:1; 100:5; 119:90; 146:10; 잠 27:24; 사 51:8; 애 5:19; 욥 3:20.

⁸ 유대인정책계획연구소(Jewish People Policy Planning Institute)의 2014년 통계에 의하면 1420만 명이며, adherents.com은 1200만에서 1800만 명으로 추산하는 바, 회당과 유대인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세속적 유대인이 약 450만 명임을 고려한 것이다. “US State Department’s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04”에 따르면 108개 국가에 1514만 명으로 추정된다.

⁹ Menahem Berger, “Letter to the Editor”, *The Jewish Observer* (February 2000)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614만 명 중에 90-100만 명, 북미 720만 명 중에 55-65만 명, 기타 지역에 12-15만 명으로 합계 167-180만 명으로 본다. ‘정통파’ (Orthodox; Hasidi,

약성경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사 경륜의 관점에서 지구상에 알려진 24,000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보호-인도해 오신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민족임에 틀림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주전 2166-1991년)을 선택하여 75세에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Ziggurat) 문화와 종교 가운데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②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¹⁰ 많은 후손과, ③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베카)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28:14; 갈 3:8)고 약속하신 후, ④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85년 후 쌍둥이 손자 야곱을, 그리고 175세에 죽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3대(代)를 잇는 대대로의 민족으로, ⑤ 마침내 모세를 중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신정국가로서의 언약을 맺으셔서(주전 1446년 5/6월),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 보물 같은 백성”(출 19:6; 신 7:6; 롬 9:4-5)으로 선택되었고, ⑥ 구약 역사 전반에 걸쳐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레 26:12; 렘 31:33)는 언약관계로 재천명되었으며, ⑦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주전 722)과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주전 586) 이후 구약의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듭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산 소망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메시아)가 되셨으며, ⑧ 1948년 5월 14일 오

Haredi) 유대인은 우리가 논하려는 토라와 그 613 계명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준 신성하고 영원하며 변개할 수 없으며, 구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 탈무드, 미드라쉬 역시 신성한 것으로 받는 점에서 ① ‘보수적’(Conservative; Masorti) 유대인, ② ‘개혁적’(Reformed) 유대인, ③ ‘진보적’(liberal; progressive, hiloni) 유대인, ④ ‘인본적’(humanistic) 유대인과 차별된다. 따라서 정통과 유대인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살인, 우상숭배, 간음, 근친상간), 안식일 성수, 정결 음식 규제(Kashrut), 생리와 출산 후 성관계 규제에 대한 가정 정결법(Taharat Hamishpacha), 사내아이의 할례 등을 엄격히 준수한다.

¹⁰ ‘하늘의 별같이’(창 15:5; 22:17; 26:4), ‘바다의 모래같이’(창 22:17; 32:52), ‘땅의 티끌같이’(창 13:16; 28:14).

후 4시 초대 수상 벤-구리온(David ben-Gurion, 1886-1973)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게 된 것은 인류종말의 임박 신호탄이 되었고(마 24:32-33 참조), ⑨ 주 예수님의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의 원리를 따라,¹¹ 신약의 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과 특권(갈 3:9; 벧전 2:9; 고후 6:16; 계 20:6; 21:3)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5-26)는 “한 새사람”(One New Man, 엡 2:15; 갈 3:28)을 완성하는 과정임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5장 18-19절이 밝히는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왕하 10:15-23)의 유언을 250년 동안 순종하고 지키고 있어 바로 3대가 함께 세대차가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최상의 본보기가 된다.¹²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제3세대가 자신들이 비참해진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천명하는 가운데(겔 16:6; 18:23, 32; 참조. 딤펢전 2:4; 벧후 3:9), 모세의 율법을 순종한 경건한 삶을 산 아비(18:5-9)와, 모든 율법을 조직적으로 불순종한 아들(10-13절)과,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조부의 신앙을 본받은 손자(14-18절) 각각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 받게 됨을 강조하면서, 복 중의 복은

¹¹ 주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된 유대인 전도예의 최우선권에 대한 이해는 최근 흔히 ‘메시아닉 주’라 부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상한 관심에서 잘 드러난다. 참조.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첫째는 유대인에게: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유대인 전도』, 김진섭 역 (서울: 이스트윈드, 2012);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이스라엘 민족, 영토 그리고 미래』, 김진섭 역 (서울: 이스트윈드, 2014).

¹² 일반은총의 특별은총화로써 전남 해남의 고산 율선도(1587-1671) 종가를 비롯한 전국 10대 명문가의 자녀교육을 밝힌 최효찬,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서울: 예담, 2010)을 참조. 대조적으로 교회사적인 영적 에베레스트에 해당되는 최고 거장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역사는 특별은총의 뛰어난 실례이다.

3대가 함께 사는 것이며,¹³ 3대의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3.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가정과 교회

앞서 간략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핀 대로, 육신적 이스라엘 민족 이든, 그들에게 접붙여지는 열방들도 포함되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이든 3대를 잇는 진정한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을 구신약성경은 천명한다. 우주창조를 소개하는 창세기 1:1-2:3의 본문과 특별히 1:2는 땅이 ‘형체가 없고’(토후), ‘거주자가 없는’(보후) 상태에서 첫 3일간 빛과 어둠, 물과 궁창(하늘), 육지와 바다, 땅과 풀·채소·나무의 형체와, 둘째 3일간 첫 3일간에 대응하는 궁창의 해·달·별,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 땅의 짐승과 인간이란 구체적인 기능을 가진 거주자들의 자리매김을 말씀으로 진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특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 창조에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생물을 만드신”(창 2:7)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한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신”(창 2:22) 결혼의 원형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문화-선교적 사명(cultural-missional mandate)의 가정적 원형은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시는”(마 19:6) 최상의 ‘자기 쪽/부분 같은 돕는 자’(에제르 케벡도; 창 2:20)와의 결합이요,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의 씨’(제라 엘로힘; 말 2:15)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속’(시 127:3)임을 천명한다.

인류 역사에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것에게 생명을 주실 때 새 창조가 있어 왔다. 이 새 창조는 자연계나(시 104:30), 이스라엘 민족이나(사

¹³ 참조. 욥 42:16, “그 후에 욥이 일백사십 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심지어] 사대를 보았고”; 시 128:6-7,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아들들의 아들들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잠 17:6, “아들들의 아들들은 노인들의 면류관이요, 그들의 아버들은 자식들의 영화니라.”

43:1), 열방이나(사 65:17; 66:18), 개인의 심령(시 51:10)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와 신약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여(사 1:5-6) 완전히 죽은 자로 보이던 포로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물론 이방 인까지도 성령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의 사역을 선지자들은 예견했다(사 32:15; 44:3; 겔 37:14).

1) 에스겔 37:11-14

에스겔은 환상 중에 뼈로 가득한 계곡으로 인도되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루아흐)가 와서 마른 뼈를 다시 살게 하도록 생기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신다. 바빌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여호와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공동체이다(참고 11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에스겔이 순종하자, 그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왔고, 그 뼈들은 살아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 환상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그의 미를 설명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12절). 여호와께서 성령님의 생명력을 통하여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최초의 인간을 생물로 만드신”(창 2:7) 것처럼, 같은 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생케 하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2:7의 명백한 해설인 에스겔 37:1-10은 11-14절에 구현될 실재를 환상적인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14절에서 그 생기의 실체는 바로 ‘나의 영’(루히)으로 묘사된 성령 하나님시심을 확증한다: “내가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본문의 ‘나의 영’은 구약에서 14회 사용된 바,¹⁴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을 가리킨다. 이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구약 명칭인 ‘영’(11회; 루아흐), ‘그 영’(5회; 하루아흐), ‘그의 영’(4회, 루호), ‘여호와의 영’(26회, 루아흐 아도나

¹⁴ 창 6:3; 잠 1:23; 사 30:1; 42:1; 44:3; 59:21; 겔 36:27; 37:14; 39:29; 욥 2:28, 29; 학 2:5; 속 4:6; 6:8.

이), ‘하나님의 영’(12회, 루아흐 엘로힘),¹⁵ ‘거룩의 영’(3회, 루아흐 핫코데쉬)¹⁶ 과, 신약의 의미 상당어인 ‘영’(34회, 프누마, ‘그 영’(77회, 토 프누마), ‘그의 영’(3회, 아우투 프누마 혹은 토 프누마 아우투), ‘나의 영’(3회, 토 프누마 무), ‘하나님의 영’(13회, 토 프누마 투 쎬우), ‘우리 하나님의 영’(고전 6:11, 토 프누마 투 쎬우 헤몬), ‘주(= 구약의 ‘여호와’)의 영’(4회, 토 프누마 쿠리우),¹⁷ ‘그리스도의 영’(2회, 토 프누마 크리스투), ‘예수님의 영’(행 16:7, 토 프누마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 토 프누마 예수 크리스투), ‘그의 아들의 영’(갈 4:6, 토 프누마 투 휘우 아우투)이 동일한 신격임이 증거되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제 3위 되시는 ‘성령님’(87회, 프누마 하기온(47회) 혹은 토 프누마 토 하기온(28회) 혹은 토 하기온 프누마(12회))¹⁸이시기 때문이다.

2) 이사야 32:15-20[필자 사역]

- ¹⁵¹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과수원이 되며, 과수원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¹⁶¹ 그 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과수원에 머물리니,
¹⁷¹ 의의 작업은 화평이요, 의의 수고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¹⁸¹ 내 백성이 화평한 보금자리와 안전한 거처와 편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15-20절은 14절에 뚜렷한 관계를 갖지 않으며 인접한 선행 절이 없다. 그러나 이 단락은 아마 1-5절에 묘사된 미래시대에 대한 묘사가 6-14절에서 존재하는 악에 대한 탄핵으로 중단되었지만, 다시 미래시

¹⁵ 비교. 루아흐 엘로야(욥 27:3); 루아흐 엘(욥 33:4); 루아흐 엘라힘(단 4:8, 9, 18; 5:11, 14).

¹⁶ 시 51:11; 사 63:10, 11; 신약의 ‘성령’과 동등어이지만 ‘거룩의 영’(프누마 하기오스 네스; 롬 1:4)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¹⁷ 비교. 프누마 쿠리우(사 61:1의 인용인 눅 4:18; 행 8:39).

¹⁸ 예를 들면 행 16:6, 8과 롬 8:2,9,14,16,23,26,27의 문맥에서 이 사실이 입증된다.

대에 대한 묘사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20절은 1-5절과 6-14절 모두를 교묘하게 묶는다. 1절의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왕의 시대는 15-17절의 성령님에 대한 약속과 의와 공평의 결과적인 정착을 부합시킬 것이다. 이는 6-7절이 책망하는 그 존재하는 불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비옥한 들판과 자연의 놀라운 회복이 10절과 13절의 초라한 수확기와 황폐한 들판의 반전이 될 것이다. 이 재난들이 사회적 범죄와 억압과 믿음 없는 자기만족에 대한 징벌로서 임한다. 18절의 “화평한 보급자리와 안전한 거처와 편히 쉬는 곳에” 거하는 민족은 13절의 예루살렘 곧 “희락의 성읍”에 선고된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다.

유일한 생명의 공급자로서의 성령님은 32:9-14에 언급된 파멸과 죽음 이후 모든 영역에 새 생명을 주신다. 파멸은 “일 년 남짓하여” 오고 (10절) 성령님의 충만함에서 오는 소생이 명시되지 않은 미래에 있다.

자연은 새롭게 될 것이다. 이는 광야가 과수원으로 바뀌어, 마치 천지창조 때에 “땅은 형체가 없고 거주자가 없는”(창 1:2) 상태에서 성령님이 만물의 형체와 생명적인 자리매김을 주셨다면, 단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자연은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에서 오는 소생은 물론, 17절의 연결고리가 명시하는 대로 불모지 같은 백성의 본성이 바뀌어 메시아가 공평과 정의와 화평으로 다스리며, 백성이 안정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는 곧 완전한 에덴동산의 회복으로, 이사야 40-55장이 밝히는 회복과 갱신 역시 다산(多産)과 풍부한 물(40:1이하; 41:17-20; 49:19이하), 언약 갱신(55:3-5; 45:9이하), 성읍 재건과 인구 증가(44:24-28) 등이다.

3) 이사야 44:1-5[필자 사역]

¹¹ 그러나 이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2] 너를 지으며, 모태에서 너를 빛으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 말라.

^[3] 왜냐하면 내가 갈한 [땅]¹⁹에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시내
들을 [부어주며],
너의 씨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너의 새싹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4] 그들이 시냇가에 버드나무들같이 풀 사이에서 돌아날 것이
라.

^[5]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를 이름 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베앗타)으로 시작하는 이 단락은 43:22-28의 앞서 언
급한 이스라엘의 ‘전에는’의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것 사이에 대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다시 한 번 43:25에
서처럼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거저 주시는 선물임이
강조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는 그분이 구원하셔야만 한다는 의
무에서 자유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분의 사랑에 기인한 은혜로운 선물이며,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님에 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까지도 소생
함을 묘사한다(5절).

이 단락은 4가지 강조를 가진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계속된 하

¹⁹ 갈한 ‘땅’보다는 ‘사람’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여성형의 ‘마른 땅’에 비해 남성형으
로 ‘사람’을 가리켜 이사야서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21:14; 29:8; 32:6;
55:1; 참조. 시 143:6).

나님의 사랑과(1-2절), 둘째, 성령님을 3대(너-너의 씨-너의 새싹)에 걸쳐 부여주심과(3절), 셋째 수많은 후손과(4절), 넷째, 이방인까지도 이스라엘인으로 계산되는 특권이다(5절). 43:8-44:22의 문단에서 포로귀환에 특별히 더 초점을 맞추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바로 그 성취로서 그 이전의 문단들(42:14-17; 43:1-7, 14-21)보다 더 미래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스라엘은 생존 번성할 것이며, 복 받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옛 언약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벧후 3:9).

^[1절] 43:28부터 반복되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대조적인 호칭은 저주 아래의 야곱과 비방 받는 이스라엘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려는 전부가 아니며, 이제는 머리를 들고 ‘나의 종’, ‘나의 택한’이란 용어들을 듣도록 부르신다.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향해(43:21) 그들을 여전히 사용하실 것이다. 포로라는 바로 그 비극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보다 나은 위치에 그들이 서게 할 것이다(43:10; 44:8).

^[2절] 43:1을 상기시키는 이 구절은 누가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한다. 즉 이스라엘의 바로 그 존재를 책임지신 언약의 여호와 이시다. ‘지는 자’(오세르)와 ‘빛은 자’(요제르)가 병행되는 용법은 오직 이사야에만 나타나며(22:11; 27:11; 44:2; 45:18), ‘빛다’라는 동사가 구약에 40회 사용되는 중에 이사야서에 20회, 그것도 43:1-46:11 사이에 14회 사용된다. ‘모태에서’와 ‘너를 도와 줄’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한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참조. 41:10, 14; 43:1)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자신들을 버리셔서 과부, 마르고 죽은 막대기, 추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그들이 체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이며, 그들은 시조부터 죄인들이지만(43:27) 신명기(32:15; 33:5, 26) 외엔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된 절친한 애칭인 ‘예슈룬’(올바른 자) < 야샤르>이기 때문이다.

^[3-4절] 3절은 동의적 평행구의 전형적 예로서, “갈한 땅, 마른 땅”, “너의 씨, 너의 새싹”, “물, 시내들”, “나의 영, 나의 복”이 각각 평행 대구(對句)를 이룬다. 그렇다! 갈한 땅이나 마른 땅에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단비 같은 성령님이요(32:15), 그 비로 인해 형성되는 와디(wadi, 계절천)는 동식물과 인간을 위한 생명줄이다.

^[5절] 조롱과 멸시의 대상에서(43:28; 겔 36:19-20) 이제는 그 백성이 되는 영예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사람’(제, 3회 사용으로 3절이 명시하는 3대를 암시) 각인에게 주실 것이다(참조. 시 87:4-6).

여기 ‘씨’나 ‘새싹’은 본래 식물의 ‘씨’(제라; 창 1:11, 29; 사 5:10)와 씨에서 ‘발아한’(야짜) ‘새싹들’(제에짜임; 사 34:1; 42:5; 욥 31:8; 따라서 ‘손자’²⁰를 가리킴)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가 오면 반드시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법칙(사 55:10)의 확실한 보장만큼이나, 성령님의 강림과 충만으로 적어도 3대(代)가 세대차가 없이 영속하도록(참조. 사 59:21) 죽은 뼈와 해골의 집단이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겔 37:10) 하나님 은혜의 법칙을 약속한다.

자식은 고대근동의 복과 저주 개념의 표지이기에, 이사야서에서는

²⁰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12 (2003), 208.

중요한 주제가 된다(7:14; 8:3, 18; 9:6; 23:4; 26:16-18; 29:23; 37:3; 49:20-22; 51:17-20; 54:1; 56:3-5; 60:4, 9; 66:8-9).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같이’(창 15:5; 22:17; 26:4), ‘바다의 모래같이’(창 22:17; 32:52), ‘땅의 티끌같이’(창 13:16; 28:14) 수많은 후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은 완전 파멸에 내어준(사 43:28)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주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능력으로(창 1:2; 2:7) 죽고 메마르고 심지어 불에 삼켰다고(사 6:12-13) 세상이 조롱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풍성한 샘물로 꽃피게 할 것이다(겔 37:7-10, 28).

‘마른 땅의 물’ 역시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12:3; 30:25; 32:2, 15; 33:21; 35:6; 41:18; 43:20; 51:3; 55:1; 59:19; 66:12). 이사야 32장 15절은 성령님의 사역이 사망과 부패가 왕 노릇 하는 바빌론에서의 회복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춘다면, 44장 3절은 보다 광의의 종말론적인 갱신에 관련된다. 성령님에 의한 갱신과 회복의 약속은 다른 선지서 본문과 연결되며(32:15; 겔 36:26-28; 율 2:12-14, 28-29), 이스라엘의 죄가 파멸과 조롱을 초래했다는 앞의 본문(43:22-28)과 본문 5절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인이 되는 영예를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과 잘 연결된다. 죄 있는 상태로서의 이스라엘 후손이 번성함은 심령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며(신 30:6; 렘 31:31), 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사 60:2-3; 66:18).

4) 이사야 59:19-21[필자 사역]

^[19]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는 그[여호와]가 급류의 강물같이 오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 그[급류] 안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 문이라.

^[20] 구속자가 시온에 오실 것이요,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¹²¹⁾ 나에 관한 한 그들과의 내 언약이 이것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네 위에 [임한] 나의 영광 네 입에 둔 내 말씀들이 네 입에서와, 네 씨의 입에서와. 네 씨의 씨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9장은 언약 백성의 '전적 타락과 부패'로 인한 지난날의 배교, 사기, 부정을 회상하는 애가(1-9절) 후에, 비록 그들의 형벌의 때가 끝났지만 여전히 '전적 무능'의 낙심과 절망에 거하는 회중에게(10-15상) 이사야는 회복과 갱신의 메시지로 격려한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중보자'(마르키아, 16절)와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나라가 자기 백성은 물론(참조. 40:5; 45:6; 52:10), 더 나아가 모든 열방 속에²¹⁾ 성령님에 의해 급류의 강물같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할 것이며, 따라서 자식 농사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세속 교육의 푸념과는 정반대로, 새 언약의 백성 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는 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3대의 '언약의 자녀'(Covenant Child)로써 대대로 이어갈 수 있음을 보증한다.

5) 요엘 2:28-29[필자 사역]

¹²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쏟아 부으리니,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꾸며 너희 청년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¹²⁹⁾ 심지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그 날에 내가 또 내 영을 쏟아 부으리라.

본문은 요엘서의 심장부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쏟아 부으시는' 일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임직 예식에 감람유를 쏟아 붓던 상징의

²¹⁾ 사 42:6; 49:8; 54:10; 55:3; 61:8.

실체이며, 제한된 리더십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쏟아 부어’ 성령님의 민주화(민수기 11장 29절의 성취)와, 은사론적으로 왕 같은 만인제사장²²과 만인예언자²³를 삼으실 것을 전망한다. 이 선포는 예레미야의 ‘새 마음’(31:33-34)과 에스겔의 ‘새 영’(36:26-27)만큼이나 혁명적이다. 여기에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너희 노인들’과 ‘너희 청년’은 육신적 가족의 4대를 아우르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출범하는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직접 인용되었고(행 2:17-18), 그 결론(행 2:38-39,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에서 재확인되었다. 신약에서 ‘모든 육체’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계 7:9)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세계 260여 국가, 24,000종족, 66.5억의 인구, 6,912개 언어로 구성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s)의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4.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지금까지 살핀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적인 가정이란 3대가 내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은 ‘은혜롭고 기꺼운 손님’(a gracious and willing Guest)²⁴이심을 믿고 실천하는 곳이라면,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히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가

²² 출 19:3-6; 그 성취로서의 롬 15:16; 뱀전 2:9 참조.

²³ 민 11:29; 그 성취로서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사람’(딤후 6:11; 딤후 3:17) 참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쉬 엘로힘; 76회)이란 명칭은 예언자 엘리야(7회)와 엘리사(29회)의 별칭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세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현대판 예언자임을 보여준다.

²⁴ D. M. Lloyd-Jones, *Christian Unity (studies in Ephesians, chapter 4, verses 1-16)* (Grand Rapids: Baker, 1972), 272.

정을 이루는 최소단위인 결혼의 신비한 원리(창 2:24-25)는 정확하게 교회의 신비한 원리와 맞물려 있고(엡 5:31-33), 교회가 영적 가족인 관계로 교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육신적 가족 관계의 개념으로 적용한다(요 19:26-27; 딤후 5:1-2). 둘째, 그리스도인 각자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동시에(고전 6:19), 교회 역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고전 3:16; 엡 2:21-22), 이 둘의 가교가 바로 가정임을 교회를 개척해 본 모든 사역자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셋째,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마 18:19)이란 합심기도의 능력을 약속하는 본문은 4복음서에 단 3회 사용된 ‘교회’(마 16:18; 18:17(2회))와 교회란 “두 사람 이상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분이 함께 계시는 곳”(마 18:20)이라는 정의의 문맥에 놓여 있는 동시에, 이 두 사람의 정상적인 출발점은 가정의 부부이며, ‘합심’(숨포네오, <같은 목소리를 내다>) 심포니)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참조. 기도가 가장 쉽게 막히는 인간관계는 부부임을 지적하는 벵전 3:7). 넷째,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 교회였다(본 논고 각주 1 참조).

따라서 가정은 최소한 3대에 걸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일치하는가를 가족끼리 점검하고 격려하는 최소 교회공동체인 것이다.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칼빈은 하나님은 분리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주장한다. 가족, 민족 등의 자연 집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 교회’(house-church) 사상이 칼빈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²⁵ “단 하나의 가정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신자들의 모든 가족들이 각기 작은 교회가 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말도 맞다는 것은 기록되

²⁵ G. S. M. Walker, “Calvin and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6 (1963): 371-89. Donald K. McKim ed.,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77-302, 특히 288-290.

어야 할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칼빈은 주장했다.²⁶

그러기에 신자들의 자녀들은 연합적 거룩을 소유하여 세례 받을 자격도 먼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가지고 있다.²⁷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일종의 상속권에 의해서 우리를 우리의 후손과 연합시키시기”²⁸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교회의 자녀로 태어나며,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간주된다.”²⁹

가정뿐 아니라 민족도 기독교 기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때, 이 시의 시의회 총회에서는 “이 거룩하고 복음적인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의하였다.³⁰ 그러나 이 애매한 약속으로 칼빈은 만족할 수 없었다. 요시아와 아사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맺어진 언약을 상기시키면서,³¹ 칼빈은 통치자들에게 모든 시민이 “교회의 올바른 시작”인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강요하도록 요청했다. 이 신앙고백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단번(once-for-all)에 맺는 공동 언약 행동으로 간주되었으며,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 그리스도인 연합체에서 축출되어야 했다. 사실 이 방안은 자유사상가들과 저항자들의 제후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칼빈의 이상(ideal)은 시민권이 곧 교회 회원권으로 통하던 그 사회의 이상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그가 교회와 국가를 동일하게 보았

²⁶ Calvin, *Comm.* 고전 16:19.

²⁷ 우상숭배자들과 출교당한 자들의 자녀의 세례문제에 대해 1559년 11월 7일에 John Knox에게 보낸 편지인 Adam Mitchell Hunter, *Teaching of Calvin* (2nd ed.; London: James Clarke, 1950), 178 참조.

²⁸ Calvin, *Comm.* 시 103:17.

²⁹ Calvin, *Comm.* 행 8:37.

³⁰ B. James Kidd, *Documents Illustrative of the Continental Reform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11), 519.

³¹ Émile Doumergue, *Jean Calvin*, vol 2,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Lausanne: Georges Bridel, 1910), 236, 239.

다는 말이 아니다. 칼빈이 출교권을 확보하려고 오랫동안 투쟁했다는 점을 보면, 그가 영적인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분명하게 구별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하지만 그는 국가를 세속화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 까닭은 국가 역시 교회와 똑같이 신성한 기원 및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³² “국가는 공적인 도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 행동하기 때문이다.”³³ 두메르그가 지적하듯 “이 시대에는 구체적인 신앙에 구체적인 시민생활 형태가 포함된다.”³⁴

교회가 보여주는 애석한 교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출발된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중심하는 안디옥교회로 선교 기지가 이동하면서(행 8:1; 11:19-21), 특히 ‘바르 코흐바’(Bar Kochba (Simon bar Kosiba)가 로마를 대항한 반란(주후 132-135)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격감하고, 서서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로마제국에 공인된(주후 313년) 후, 오늘에 이르도록 유대교-초대기독교 공동체가 가정 중심으로 전수한 쉘마교육인 “말씀·기도·인성의 3대(代) 평생학습”³⁵의 유산을 물려 받지 못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예로 들어 교회의 옛 터만을 보존할 뿐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³⁶

³² P. Imbart de la Tour, *Calvin et l'Institution Chrétienne*, vol. 4 of *Les Origines de la Réforme* (Paris: Firmin-Didot & Cie, 1935), 109.

³³ R. N. Carew Hunt, *Calvin* (London: Centenary Press, 1933), 136-37.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vicars)’이다(1537 신앙고백 제21장; Kidd, *Documents*, 571; 기독교강요 IV, 20. 4 참조).

³⁴ Doumergue, *Jean Calvin*, vol 2, 249.

³⁵ 김진섭, “성령님과 쉘마교육-말씀·기도·인성의 3대(代) 평생학습,” 『인성과 쉘마』 (논문집 제1권; 서울: 쉘마교육학회, 2010), 85-137을 보라.

³⁶ Everett Ferguson,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3), “Jewish Christianity,” 576-579; W. H. C. Frend, *The Rise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 “The Christian Synagogues 70-135,” 120-160; Adolf M. Ritter, 『고대 그리스도교의 역사』, 조병하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3), 103-107; 250-255를 참조.

현용수 박사가 지적하는 대로,³⁷ 바로 유대인의 선민사상의 수직적 자녀교육의 성공이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인 창세기 18장 19절이 출애굽기 19장 4-6절의 모세(시내산) 언약의 '쉐마'로 이어져 오늘까지 3대(代)가 함께 대대로 전수함에 기인한다면, 수직적 자녀교육이 빠져버린, 즉 가정과 분리된 교회가 신약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수평적 열방 전도(선교)만을 치중해 온 것이 그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가정을 희생시켜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려 했던 선배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괄목할 만한 열매를 가져왔지만 (필자 역시 목사의 아들로서 산 증인이다),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이 목회자나 사모가 되는 길을 거부하거나 신앙에서 방황하는 부작용도 가져왔으며, 아직도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가정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가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의 일과표를 강요(?)하는 폐해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적어도 3대가 신앙과 생활에 어떤 세대차도 없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극심한 세대차와 함께 가정이 붕괴되고 세계적인 최저출산율 국가로서 이런 추세라면 2050년이면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국의 가정에 화급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다. 결혼이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시는”(마 19:6) 최상의 배우자와의 결합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시 127:3)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문화-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한국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³⁸

³⁷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쉘마』 제1권 (서울: 쉘마, 2009), 31-33은 이런 맥락에서 3부작의 요약을 제공한다.

³⁸ 지상의 24,000 종족 중 12명의 자녀를 이상적 숫자로 생각하는 정통파 유대인, 아미쉬/메노나이트 그리스도인, 모르몬과 4명의 합법적 아내를 두고 세계를 뒤덮고 있는 모슬렘 쓰나미를 대조해 보라.

5. 유대인 가정의 태교(Niddah)와 유아교육(Shema)과 성령님의 충만

구약성경과 그 해석전통에 따른 유대인의 '자녀교육'(giddul banim)은 제일 먼저 그들의 임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레위기 12장과 15:19 이하에 근거하며, 보다 자세한 규정은 미쉬나(Mishnah) 제6번째 주제(seder)인 '정결'(tohorot)의 제7번째 소주제(tractates)로서 10장으로 구성된 '생리'(Niddah) 혹은 토솨프타(Tosefta, '부록') 제6번째 주제인 '정결'의 제5번째 소주제로서 9장으로 구성된 '생리'에서 논의된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여성의 최소한 5일간의 '생리'(niddah) 기간과 그 이후 7일간의 '정결'(Niddut) 기간 동안 금욕하며, 7일째 밤에(배란기 시작) 여성이 '목욕'(Mikvah) 후에 부부관계를 갖도록 랍비가 지도하여, 남자가 가장 신선하고, 정자가 가장 왕성할 때 수정되게 하는 것이다(삼하 11:2-5의 밧세바의 목욕, 다윗과 동침, 임신 참조). 임신된 후에도 일개 가정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랍비들이 임산부 앞에서 시편을 읽고 신명기를 읽으며 태교를 계속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의학상식과 성윤리의 문란으로 인해 여성의 생리 중에도 부부관계를 조장하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막 8:38) 속에서, 1980년대부터 수천 년 전수되어 오는 유대인들의 임신법과 그들의 우수성의 함수관계를 연구하는 유네스코의 '닛다' 프로젝트와, 어머니 엘리사벳(눅 1:41)과 아버지 사가랴(눅 1:67)의 성령님의 충만은 태중의 세례요한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게 하는(눅 1:15) 배후였다는 실례는 '하나님의 씨, 기업, 상급'인 자녀를 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만 세 살부터 성년이 되는 13세(바르 미즈바, '계명의 아들')까지 계속되는 유대인 가정의 유아교육은 '쉐마'교육(신 6:4-9; 11:13-21; 민 15:37-41)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는 쉘마 선민

(選民) 인성교육은 매일 아침저녁 3대(代)가 함께 암송하며 두뇌와 심장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부지런히 가르쳐 습관화되게 한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에서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딤후 3:14b-15a)의 문맥 역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디모데에게 전수된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딤후 1:3-5) 3대(代) 유대인 가정 쉼마교육을 전제하는 것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며, 13세면 모든 인성교육이 완성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지하는 부모들은 수평문화(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를 양산하는 TV 같은 영상교육을 금하며 (따라서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는 TV가 없으며, 회당에는 교육관이 없다), 오감(五感)을 통한 수직문화 각인을 위해 손목과 미간의 경문, 문설주와 바깥문의 메주자, 613개 율법을 환기시키는 기도 솔의 찌찌트(술), 다윗의 별, 메노라(7가지 난 촛대), 절기 예식과 음식, 앞뒤로 온 몸을 흔들며 기도, 토라를 손으로 만짐, 안식일 마무리에 피우는 향냄새 등을 충동원하며, 족보교육을 통한 선민의 자긍심을 심고, 율법을 중심한 독서와 탈무드식 토론환경과, 이웃사랑의 실천인 켄다카(자선함)에 참여하게 한다.

6. 교회 같은 가정: 선교사역의 출발점

예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 마 28:18-20)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며, 그분의 유연적 명령(행 1:8)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 ‘모든 족속’과 ‘땅 끝’은 여자적인 이방인과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이란 의미 너머 선교인류학의 관점에서 비록 직계가족 중에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상도 포함된다.

1970년대에 한국의 이민자들이 중남미, 북미, 유럽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본래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586년 남유다가 각각 망하면서 열국으로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키는 전용어였지만(요 7:35), 초대 교회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확대 사용되었다(약 1:1; 벧전 1:1).

하나님께서 178개국에 750만 명이란 코리안 디아스포라(세계 최대)를 심으시고, 168개국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세계 제2위)를 파송하신 뜻은 무엇인가? 왜 유대인들이 한민족을 ‘제2의 유대인’이라 부르며,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을 ‘제2의 언약국가’로 보며, 유대인을 구원할 “이방 민족으로”(신 32:21과 사 65:1-2의 인용인 롬 10:19-20; 사 55:5), 한국 그리스도인을 “해 돋는 곳에서 급히 흐르는 하수”[영적 쓰나미]같이 몰려 올”(사 41:25; 59:19) 대상으로 믿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 속에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명시하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가장 극명하게 성취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세계 최악의 불량/극빈국가인 북한과 세계 최대의 선교/기독교국가인 남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³⁹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우상 3만 5천 개와 최근 제3대 김정은에게 세습을 강행하면서, 동족 700만 명 살인(6·25 남침 300만 + 과반세기 정치·종교범 100만+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 아사자 300만)과 현 평양 노동자의 월급이 3,500원(= 1달러)의 비참함 속에서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로 세계 최우량의 지하 그리스도인을 보존하고 있다면, 남한은 약 6만 개의 교회와 온갖 형태의 기도(새벽, 산, 통성, 철야, 금식, 24시간, 수요/금요, 골방) 수출 국가이지만, “사치, 방종, 음란, 우상숭배, 이념대립, 북한 핵무기 위협”의 적신호를 교회가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문화와 언어가 1세와 완전히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

³⁹ 보다 자세한 주석적, 한국사적 고찰을 위해 김진섭,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언약의 복과 저주’의 북한 정황적 적용,” 『성경과 신학』 40(2006), 308-368을 보라.

라 가정의 자녀들은 물론이요, 극심한 세대차와 가치관의 혼돈을 지닌 모든 한국인의 자녀들이 바로 ‘모든 족속과 땅 끝’의 출발점이요, 우리 모두가 선교 사명의 근원은 바로 내 가정 3대가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⁴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마 11:11)는 이유가 성령님이 충만한 부모 사가랴(눅 1:67)와 엘리사벳(눅 1:41)의 아들로서 ‘모태로부터’(눅 1:15) 그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 살이면 늙다”(그래서 유대인의 웨마교육도 만 3세로부터 시작된다)는 세상 상식과 함께, 자녀의 성령님 충만은 주 예수님을 본받아 잉태에서부터(눅 1:35) 평생토록(눅 3:22; 4:1, 14, 18, 21; 요 3:34; 행 10:38; 롬 8:11; 히 9:14; 벧전 3:18) 지속되어야 한다. 죄의 “씩어져 가게 하는 옛 습관”(엡 4:22)을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성 훈련은 어릴수록 더 쉽고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늦게 믿은 우리의 체험에서 입증되기 때문이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앞서 간략히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가정교회적 가치관을 상실한 후유증을 보여주고 있거니와, 세계의 유대인 전체 인구 1500만 명 중에 미국이 684만(약 50%), 이스라엘이 500만, 프랑스가 65만 정도 가운데 약 12%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약 3,500년 동안 비록 성령님도, 예수님도, 신약도 없었지만, 온갖 종류의 박해와 인종 말살의 위협 속에서도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금과 빛의 역할(예: 1901년에 제정된 노벨 수상자의 35%(105명), 미국 대학교수의 25%, 상하의원 20%, 월가 금융전문가 35%,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의 50%; 미국 70만 변호사의 20%; 미국 최상위 부자 40명 중 22명)을 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⁴¹

⁴⁰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웨마」 제3권 (서울: 웨마, 2009), “제3장: 기독교와 웨마교육선교 전략”(173-229)은 명료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⁴¹ 유대인의 성공과 영향력에 대한 수치와 예증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다. 부연한다면, 최고 부자 빌 게이츠(2008년 말 자산 560억 불)나 투자의 귀재요 지존으로서 세

비록 신약을 ‘쓰레기’(trash)라 부르기를 서슴지 않으며,⁴²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주(여호와)로 고백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할 ‘신성모독죄’로 여기며,⁴³ 모든 죄인의 영적 출생(중생)-성장(성화)-사명(은사와 능력)의 주도자이시기에 모든 인간의 ‘최상의 복’(사 44:3; 마 7:11; 눅 11:13)이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⁴⁴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말씀과 기도와

계 제일의 고액 연봉자인 조지 소로스(2008년 현금 연봉이 7억 5백 불)를 비롯하여, 히틀러에 의해 600만 유대인이 학살당할 당시, 독일 인구의 6% 유대인이 독일 전체 유통 마르크의 28%를 지배했으며, 나폴레옹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럽 금융계의 지배자 로스 자일드 가문이 유대인이다. 노벨 경제학상은 65%, 의학상은 30%, 물리학상은 22%를 유대인이 차지한다. 유물론의 지존 칼 마스, 정신의학의 지존 지그문트 프로이드, 자연과학의 지존 아인슈타인, 정유업계의 지존 록펠러, 원자폭탄 제조자 오펜하이머, 발명왕 에디슨, 천문학자 갈릴레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 관능배우 마릴린 먼로, 명배우 폴 뉴먼, 저스틴 호프만, 해리슨 포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스피버그 감독, 우디 앨런 감독 등 모두 유대인이다. 미국 영화산업 할리우드 주요 영화사 7개 중 6개(예: 콜롬비아, 유니버설, MGM, 20세기 폭스, 워너브러더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가 유대인들 것이다. 포춘지(2008년 12월) 아시아판 특집에 의하면, 미국 경제의 70%를 점유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한국 대표 37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자본 점유율을 과시하고 있다: 국민은행 85%, 외환 74%, 하나은행 81%, 신한은행 64%, 부산은행 62%, 대구은행 65%, 우리은행 11%, 제일은행 100%, 시티은행 100%, 삼성전자 54%, 삼성화재 54%, 삼성자동차 70%, 현대자동차 47%, 기아자동차 25%, 대우 67%, SK유공 52%, 에스오일 51%, 현대오일뱅크 84%, SKT 49%, KTF 46%, 한국전력 74%, 포항제철 70%, LG전자 44%, LG필립스 55%, 하이닉스 22%, KT&G 62%, 신세계 46%, 롯데쇼핑 25%, 현대백화점 46%, 현대중공업 19%, 현대산업개발 67%, 대림산업 61%, GS건설 47%, 현대건설 13%, 대우건설 9%, 금호건설 14%. 2008년 한국에서 가져간 국부가 250억 불이고, 올리는 300억 불로 예상한다. 미국 인구의 2%,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인데 무섭고 불가사의하지 않은가?

- 42 필자가 유대인 명문 드랍시(Dropsie) 대학교의 박사과정(1979-91) 중에, 영국 Sephardi 공동체의 Chief Rabbi로서 처칠, 레닌, 프로이드와 교분이 깊은 아버지(Moses Gaster) 아래 그 당시 우가리트어, 비교종교학, 신화의 대가로 인정받고 32개 언어를 구사하던 Theodor H. Gaster가 자신의 강의시간에 내뱉는 “복음서는 덜 쓰레기요, 서신은 더 쓰레기”이며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참람한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
- 43 미국의 교도들이 유대인 고객들에게 성탄카드를 건네다 “가게 문 닫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위협을 받은 자가 많다. 필자도 고대근동학, 특별히 수메르 문학의 대부과 같은 Samuel Noah Kramer 박사에게 주 예수님을 전할 때, “You have talked too much!”라는 경고를 받아야 했다.
- 44 구약에 ‘성령’(루아흐 핫코데쉬; 시 51:11; 사 63:10, 11)이란 용어와 동일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인 ‘영’, ‘그 영’, ‘그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 의 영’이란 용어는 신약에 그 동등어가 각각 발견되지만, 유대인은 신약이 말하는 성령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성의 3대 평생 가정학습이라는 탁월한 유산을 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 전수가 있다.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뇨?”라고 질문하면서,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된 것”(롬 3:1-2)임을 밝힌 대로, 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돌 판에 두 번이나 직접 기록한(출 32:15-16; 34:28) 십계명과, ② 유대인 가정의 3대(代)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쉼마(신 6:4-9; 11: 13-21, 민 15:37-41)와,⁴⁵ ③ ‘하라’(248개)와 ‘말라’(365개)의 ‘613 계명’(타르야그 미즈보트)을 지닌 토라(율법서, 즉 창세기-신명기의 모세오경)⁴⁶ 및 ④ ‘율법과 선지자’(마 22:40; 행 28:23; 롬 3:21) 내지 타나크(토라-네비임-케투빔·율법-선지자-성문세의 첫 글자들의 합성어; 눅 24:44 참조)란 명칭의 구약성경을 쉼마에 명시된 ① 왼손과 이마에 부착하는 경문(經文) 상자인 테필린, ② 문설주와 바깥문에 부착하는 메주

45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신 6:7; 11:19)는 계명(248개의 ‘하라’ 중 10째)을 따라 유대인 가정은 매일 취침과 기상 때마다 ‘쉼마’(신 6:4-9; 11:13-21; 민 15:37-41)를 암송하는 ‘말씀대국’(신 4:5-6, 8)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하고이] 하가돌[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고이] 가돌[가 어디 있느냐?”

46 ‘하라’의 계명 첫 9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란 주제와 맞물려 “613 계명의 신약과의 관계”에 대한 주석학적 고찰이 화급하다: (1)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출 20:1; 히 11:6); (2)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라(신 6:4; 롬 3:29); (3)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5; 마 22:35-38); (4) 하나님을 경외하라(신 6:13; 마 10:28-29); (5) 하나님을 경배하라(출 23:25; 마 4:10); (6)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신 10:20; 고전 6:17); (7)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6:13; 참조. 마 5:33-37); (8)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신 28:9; 엡 2:10); (9)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레 22:32; 벧전 3:15). ‘하지 말라’ 계명의 첫 26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계명들로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3위1체 하나님 신앙을 견지해야 함을 드러낸다. 613 계명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가정-생명-물질-섹스”라면, 현대교회회의 타락은 바로 그 도치된(“섹스-돈-낙태·자살·타살-가정 파괴-하나님 모독”)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기인함을 직시할 수 있다.

자, ③ 기도 솔인 탈리트와 가장자리에 달린 솔인 찌찌트와 청색 끈(다섯 개의 매듭 사이에 긴 끈을 다른 끈에 7, 8, 11 [=26, 여호와란 히브리어 YHWH의 숫자 값, 13'하나란 뜻의 에하드의 숫자 값]번 각각 감아 “여호와는 한 분”임을 고백한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랍비)와 그 말씀을 기록 보존하는 서기관(소페르)을 통해 지금까지도 그 말씀 위탁과 전수의 유대인 전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약성경이 가정 단위로 위탁되고 3대(代)가 매일 취침과 기상 때마다 ‘쉐마’를 암송하는 ‘말씀 대국’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루에 3차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국’(大國)⁴⁷의 전통을 수천 년 동안 고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쉐마는 어린이가 제일 처음 따라 외우는 첫 ‘기도문’이 되며, 임종의 최후 ‘신앙고백’일 뿐 아니라, 안식일과 여러 절기(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 7일째인 ‘호샤나 라바’[큰 간구], 대속죄일, 새해)의 기도나, 토라를 궤에서 꺼낼 때 드리는 기도문에도 일정 부분이 암송되므로, 쉐마는 말씀과 기도를 묶어주는 고리이기 때문이다(특히 회중이 복창하는 ‘케두샤’[거룩]의 3째 고백인 신 6:4 참조).

유대인이라면 매일 3대가 함께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대국’이며, 그들은 ‘기도문집’(잇두르 테펠라)을 따라 주어진 상황에 정해진 기도문을 낭송한다. 즉 일출부터 4시간 이내의 ‘새벽기도’(샤하리트)와, 일출부터 6½시간 이후부터 일몰까지의 ‘낮기도’(민하)와, 일몰 1½시간 이전부터 자정까지의 ‘저녁기도’(마아리브)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기도의 전통은 창세기의 족장들에게서 벌써 엿볼 수 있으니(베라코트 26b), 곧 아침에 기도한 아브라함(창 19:27), 저녁에 기도한 이삭(창 24:63), 밤중에 기도한 야곱(창 28:10)이 그 실례이다. 다윗(주전 1041-971년)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는”(시 55:17) 기도

⁴⁷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고이 가돔]가 어디 있느냐?”(신 4:7).

나, 다니엘(주전 약 631-530년)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 6:10) 기도는 그 전통의 뿌리 깊은 역사를 보여준다.

셋째, ‘인성/인품’(character, personality)이란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 성품 혹은 정신력”으로 정의한다면, ‘인성교육’이란 “그 내면적 성품이나 정신력을 제2의 천성이 되도록 계발하여 외면적 선행으로 드러나게 하는 인격자 교육”을 가리킨다. 이 인성의 재질과 크기에 따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류 역사 경영에 “천히 짧게 쓰는 그릇과 귀히 오래 쓰는 그릇”(딤후 2:21-22)의 사용도가 결정된다. 현용수 박사에 따르면, 인성이란 각 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종교적 가치 아래 ‘13세’(바르 미쯔바, 즉 ‘계명의 아들’이라 부르는 유대인 남자의 ‘성년’의 연령임) 이전에 형성되는 것이며, 어려서부터 613 계명의 ‘하라’와 ‘하지 말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인성교육이 강조하는 12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의, 정직, 성실, 진실, 침착, 말씨, 용기, 친절, 인내, 극기, 겸손, 책임감.⁴⁸

성경은 모든 인간이 본질상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진단한다(엡 2:1; 창 6:5, 8:21; 롬 3:10-18). 하나님께서 흠으로 빚어 성령님의 기운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되었지만(창 1:28; 2:7; 욥 33:4), 아담의 타락 후에 본성이 부패하여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는 ‘버려진’ 죄인이 되었다(창 6:3; 롬 1:24, 26, 28). 그러나 현실에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며, 소위 ‘이교도의 덕’이라 불리

⁴⁸ H. H. Donin, *To Raise a Jewish Child: A Guide for Parents* (New York: Basic Books, 1991), 50-51을 따르면 다음의 12가지 요소를 좋은 유대인 품성으로 규정한다: 예의(courtesy), 정직(honesty), 성실(integrity), 진실(truthfulness), 침착(even-temperdedness), 말씨(clean speech), 용기(courage), 친절(kindness), 인내(patience), 극기(self-discipline), 겸손(modesty), 책임감(a sense of responsibility).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서울: 쉐마, 2005), 107에서 재인용.

는 성품과 선행을 지닌 불신자들이 많이 있으니 이는 성령님의 일반은총이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죄를 억제’하시며(사 63:10; 마 7:22, 23; 행 7:51; 살후 2:6,7; 딤페전 2:1-4; 히 6:4), 인간이 보기에 상대적인 선행으로 평가되는 ‘선을 장려’하시고(마 5:46-47; 27:19; 롬 2:14; 고전 9:8), 전문적 지식이나 예술 문화적인 ‘재능’을 주셔서(창 4:16-22; 딤페전 5:8; 왕상 5:9-18; 대상 14:1), 그 래도 이만큼 살 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보존하신다.

성경은 입에서 배로 내려가 뒤로 버려지는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와 입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들임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면서(렘 17:9; 마 15:17-20의 7악목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훼방”; 막 7:18-23의 12악목인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훼방, 교만, 광패”), 일반은총적 인성교육의 절대 필요성을 역설한다.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우상숭배)을 그 최대공약수로 하는 다음의 목록표를 보라: (1) 하나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15개 악목(갈 5:19-21,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과 10개 악목(고전 6:9-10, “음란,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람, 술 취함, 후욕, 토색”); (2)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땅의 지체 12개 악목(골 3:5-9,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분, 악의, 훼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3) 귀신 들려 사나운 자 같은 말세의 특징 19개 악목(딤페후 3:1-5,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궁, 교만, 훼방, 부모 기억, 감사치 않음, 기록하지 않음,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참소,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함, 배반하여 팜, 조급함, 자고함,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 (4) 불신자 삶의 12개 특성(딤페 3:2-3, “훼방, 다툼, 어리석음, 순종치 않음, 속임, 각색 정욕과 행락에 중 노릇함, 악독과 투기로 지냄, 가증스러움, 피차 미워함”); (5)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여 그 상실한 마음에 채우는 사형에 해당되는 21개 악목(롬 1:29-31,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

득,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심, 능욕, 교만, 자랑, 악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전에는(포테, then)...그러나 이제는(눈 데, but now)”으로 요약할 수 있다(롬 11:30; 엡 2:13; 5:8; 골 3:7-8; 몬 11; 딤후 3:3; 벧전 2:10). 이 근본적인 변화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골 1:13) 영단번의 신분 변화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던 마귀가 내 심령에서 쫓겨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이 변화(마 12:28-29)는 성령님 열매의 9가지 특성(갈 5:22-23,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나, 8가지 복스런 성품(마 5:3-10,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주리고 목마름,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의를 위한 핍박”)이나, 8가지 덕스런 성품(벧후 1:5-7,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나 7가지 관계적 성품(딤후 3:1-2; “정사와 권세자에게 복종, 순종, 모든 선행에의 예비, 아무도 훼방 앓음, 다투지 않음, 관용, 범사에 온유함을 시위)의 인성교육을 향해 성령님의 충만과 성화적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의 인성 문제(옛사람의 근성을 벗고 새사람의 특성을 시위해야 할)를 다루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14절은 곧바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는 최고의 명령과 연결되고 있다. 이 인성교육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자격론이다.⁴⁹ 목사, 장로의 자격 15개 항

⁴⁹ 참조. 목사, 장로의 자격 15개(딤후 3:1-7; ¹책망할 것이 없으며, ²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³절제하며, ⁴근신하며, ⁵아담하며, ⁶나그네를 대접하며, ⁷가르치기를 잘하며, ⁸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⁹구타하지 아니하며, ¹⁰오직 관용하며, ¹¹다투지 아니하며, ¹²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¹³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¹⁴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¹⁵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음모에 빠질까 염려하라), 혹은 17개(딤후 1:6-9; ¹책망할 것이 없고, ²한 아내의 남편이며, ³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⁴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⁵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⁶술을

목(딤후전 3:1-7) 내지 17개 항목(딤후 1:6-9)이나, 집사의 자격 10개(딤후전 3:8-13)는 모두 육신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정상성이 바로 영적 가족인 교회공동체에 직결되는 것이며, 그 모든 자격들은 한결같이 불신자들조차도 ‘개독교’를 ‘귀독교’로 바꾸게 할 만큼의 감동적인 인성의 요소들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 간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는 원천적 비결은 먼저 각자의 가정에서 3대(代)가 “말씀과 기도와 인성의 평생 학습”을 구현하는 것임을 필자는 확신하며, 총체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각 가정/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존한 것들과 함께 연구 계발하는 것이 요청된다.

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앞서 목록표에서 열거한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아래에 소개하는 전통적인 ‘일반은총적 인성교육’이 전수되어 왔기에, 한국인은 양반 수직문화의 ‘사고의 틀(mental frame) 속에서 소위 ‘동방예의지국’이란 칭송을 받아왔다.

① 자녀교육의 최상적 환경조성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 ② 부모-자녀, 남편-아내, 윗사람-아랫사람, 친구간의 올바른 관계를 권면하는 ‘삼강오륜’(三綱五倫); ③ 고려 충렬왕 31년(1305년)의 문신(文臣) 추적(秋適)이 어린이의 인성교육을 위해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으로

즐기지 아니하며, ⁷구타하지 아니하며, ⁸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⁹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¹⁰선을 좋아하며, ¹¹근신하며, ¹²의로우며, ¹³거룩하며, ¹⁴절제하며, ¹⁵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¹⁶교훈으로 권면하고, ¹⁷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혹은 6개(벧전 5:2-3;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¹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²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³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⁴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⁵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⁶오직 양 무리의 분이 되라).참조. 집사의 자격 10개(딤후전 3:8-13; 이와 같이 집사들도 ¹단정하고, ²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³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⁴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⁵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⁶참소하지 말며, ⁷절제하며, ⁸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⁹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¹⁰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공자 등의 성현의 말과 『소학』 등의 책에서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격언과 윤리 도덕 및 처세에 관한 예지와 자기 수양의 방도를 수록한 총 24편의 교양필독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⁵⁰; ④ 중국 당나라의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맵시, 말씨, 글씨, 맘씨, (숨씨)의 ‘신언서판기’(身言書判技); ⑤ 장군감(將材)으로서의 조건인 ‘지신인용엄’(智信仁勇嚴)을 논하는 ‘손자병법’; ⑥ 이태조가 짓고(1395-98년) 정도전이 작명한 서울 장안의 동서남북 출입 4대문인 흥인문(興仁門, ‘어진 마음을 일으키라’,) 돈의문(敦義門, ‘의리를 돈독하게 지키라’), 숭례문(崇禮門, ‘예의를 숭상하라’), 홍지문(弘智門, ‘지혜를 널리 닦으라’) = 숙청문(肅淸門, ‘평란하여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과 그 중심부인 보신각(普信閣, ‘두루 믿으라’)을 그 실례로, 유교 예절교육이 말하는 인간이 항상 고루 갖추어야 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강조하는 ‘오상’(五常) 등.

2009년 8·15 중앙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현대사를 “성공과 발전과 기적”의 역사로 평가했지만, 인성교육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대국 13위의 한국은 청소년 자살률이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자살공화국’이란 오명과 함께 매일 약 40여 명이, 그것도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는, 자살하므로, 돈과 쾌락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증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도한 소위 ‘진보 좌파교육’은 공교육의 한국사교육과 인성교육 부재를 낳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지도록 강요하는 청소년의 학습 하루 일과는 인성교육의 토양을 완전

50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의 명심보감은 원래 19편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 어떤 학자가 증보(增補), 팔반가(八反歌), 효행(孝行), 염의(廉義), 권학(勸學) 등 5편을 더하여 총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계선(繼善), (2) 천명(天命), (3) 순명(順命), (4) 효행(孝行), (5) 정기(正己), (6) 안분(安分), (7) 존심(存心), (8) 계성(戒性), (9) 권학(勸學), (10) 훈자(訓子), (11) 성심(省心), (12) 입교(立教), (13) 치정(治政), (14) 치가(治家), (15) 안의(安義), (16) 존례(遵禮), (17) 언어(言語), (18) 교우(交友), (19) 부행(婦行).

히 메말리는 참담한 현실을 낳고 있다.

가족 간의 불화와 살인, 스승이 훈육할 수 없는 제자,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이념적 혼돈 (6·25 북침인가?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장,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드러난 극심한 갈등), 모든 퇴폐 향락 문화의 온실이 되어버린 교육의 요람인 대학가(왜 의왕시가 가장 깨끗한 도시인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이혼, 자살, 저출산, 인터넷 게임, 위스키 소비량, 존칭어가 가장 민감한 한국어의 훼손과 언어 폭력 (이 현상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에게서 잘 드러난다), 잘못된 영재교육이 빚은 영·유아 비디오 증후군, 돈과 쾌락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문란한 성 문화, 동성애와 맘모니즘 등, 그 총체적인 위기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실패에서 한국교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만이 소금이며, 너희만이 빛이라”(마 5:13-14)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맛을 잃고 썩어가는 세상에 조미료와 방부제 역할을 하며,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세상을 참 빛과 생명 되신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딤후 3:5),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딤펴전 6:5), 그래서 사회로부터 ‘귀독교’는커녕 ‘개독교’라 비하되는 현실에 신음과 탄식을 안고 있다.

현용수 박사는 “양반이 예수님을 믿으면 양반 기독교인이 되고, 상놈이 예수님을 믿으면 상놈 기독교인이 된다”는 ‘보편적 인성교육’(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마음 토양)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한국인의 인성교육은 유행적 ‘수평문화’(물질, 명예, 권력, 외모, TV와 인터넷, 육적인 5감, 섹스, 청바지나 햄버거)와 차별된 한국인의 ‘수직문화’(종교, 역사, 철학, 사상, 고전, 예절, 효도, 고난)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 이후의 인성교육인 ‘성경적 기독교 선민교육’을 위하여 유대인의 가정 3대(代)가 전수하는 ‘쉐마교육’

을 그 대안으로 주창한다.⁵¹ 이제 한국의 58,000개의 교회, 목회자, 신학자, 복음사역자, 성도들이 혼연히 한국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인성교육을 계발하여 178개국의 7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함께 남북통일과 유대인을 중심한 세계선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먼저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적으로 새겨놓으신 수직적 양반문화를 재확인하여 가정에서부터 3대가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신앙인격’⁵² 운동과, 둘째, 약 4천 년 이상 전수되어 온 유대인 가정의 인성교육 현장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셋째, 신약성경과 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범사에 주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엡 4:15)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격 교육에 매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가는 말

다른 논고에서 이미 자세히 살폈거니와,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말씀·기도·인성 훈련의 완전한 이상이셨고,⁵³ 정통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3대(代)가 약 3,500년 동안 성령님도, 예수님도, 신약도 없이 구약의 ‘쉐마(신 6:4-9; 11:13-21; 민 15:37-41)와 구약(타나크)만 읽고, 여호와(일위일체)께만 기도하고, 조기 인성교육을 시켜도 복을 누리며 세계의 소금과 열

⁵¹ 유대인을 모델로 인성교육의 본질과 원리를 제시한 개척자적인 『현용수의 인성교육 노하우』 전4권 (서울: 동아일보사, 2008); 인성교육의 핵심인 효(孝)신학의 기초를 놓은 동일저자의 최신저서 『자녀의 효도교육 이렇게 시켜라』 전3권 (서울: 쉐마, 2010)을 보라.

⁵² 여기 우리가 논하는 인성교육의 지향점은 ‘신앙인격’이다. 인격이 좋아도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의 일반은총적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 조금 부족해도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열매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위하는 차별화된 인격을 신앙인격이라 부르기로 하자.

⁵³ 김진섭, “성령님과 쉐마교육-말씀·기도·인성의 3대(代) 평생학습” 『인성과 쉐마』 (논문집 제1권; 서울: 쉐마교육학회, 2010), 100-101; “유대인 예수님: ‘오직 성경대로[Sola Scriptural]의 삶’”, 113-118; “유대인 예수님: 오직 올바른 ‘기도-기적-기도’의 삶”, 126-127.

방의 빛의 역할로서 불가사의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 되었다면, 하물며 ‘제2의 유대인, 제2의 언약국가’로 불리며, 유대인 선교와 세계선교의 최후주자로 부름 받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신약의 쉼마(마 22:36-40; 요 13:34-35; 마 28:18-20; 행 1:8)와 함께 성경의 완전 숫자인 7개의 ‘쉼마’를 적어도 매일 2차례 3대가 함께 외우며 순종하며, 매일 3끼 식사와 새벽기도 및 저녁 가정예배의 5회 기도와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한 가족부흥사경회를 진행한다면,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비전과 사명을 완수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성경기독교, 기도기독교, 선교기독교”로 전 세계에 칭송받는 한국인들이 앞서 살핀 대로 엄청난 역사적 유산을 시위하는 유대인들에게 겸허하게 한 수 배우고 더 계발한다면, 전 세계 약 180개국의 7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그리고 174개국에 파송된 2만 7천 명의 한인선교사들과 그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매년 20만 명의 세례자를 목표로 하는 국내 군선교 현장을 비롯한 약 6만 개의 한국교회에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려는 기독교대학들과 신학교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말씀·기도·인성의 3대(代) 평생학습”이란 가치 아래 성령님이 충만한 가정/교회의 위상에 대한 상승효과는 물론이요, 국가와 세계가 요구하는 ‘사력’(체력, 실력, 매력, 영력)을 갖춘 ‘글로벌 파워’를 지닌 “기독교 글로벌 리더”의 인재 양성으로 위대한 공헌을 하리라 확신한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peruse the vital understanding the biblical

concepts concerning not only the “perpetuity in three successive generations with the same value system for the faith and culture” but also the “organic binding of ‘home like church’ and ‘church like home,’” so that the perpetuity of the strategic 2020 Movement for the military mission may be more firm-rooted and effective.

First, this paper confirms the truth that home is the first verifying place of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Eph 5:18, 22-6:4).

Second, the principle that biblical home, especially in the Old Testament, consists of three successive generations, as expressed in (1)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e.g. Ex 3:16; Act 3:13; cf. Ex 3:6; Mt 22:32); (2) “you, your sons and grandsons” (Dt 4:9); (3) “you, your seed, seed of your seed” (Isa 59:21); (4) “throughout their//your generations” (e.g. Gen 17:7, 9; Ex 12:42 // Gen 17:12; Ex 12:14, 17); (5) “to generation and generation” (e.g. 시 10:6; Joel 3:20).

Third, the promise of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n three successive generations of home and church is expounded in the texts of Isaiah 32:15-20; 44:1-5; 59:19-21; Ezekiel 37:11-14 and Joel 2:28-29.

Fourth, the idea of “home like church and church like hom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ree successive generations is explained according to the fourfold grounds; (1) interwound mystery of “marriage and church” (Gen 2:24-25; Eph 5:31-33) and “physical family and spiritual family” (Jn 19:26-27; 1 Tim 5:1-2); (2) “temple of the Holy Spirit” dwelling in both individual (1 Cor 6:19) and church (1 Cor 3:16; Eph 2:21-22); (3) “church(ekklesia)”, which only Matthew uses three times (16:18; 18:17[2회]) among four Gospels, normally starts with the church

planting couple and their families (Mt 18:18-20); (5) the Early Church demonstrates the founding existence of “house-churches” (Act 16:40; 1 Cor 16:19; Rom 16:3, 5; Col 4:15, 17; Plm 2).

Fif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n the earliest stages of bearing and rearing children is further introduced in connection with the Jewish ‘fetal education’ (Niddah) and ‘child education’ (Shema).

Sixth, the missional start-point of “home like church” is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Effective strategy for the military mission),

3대 잇기(Successive three generations),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Home like church and church like home),

성령충만(Fullness of the Holy Spirit), 태교(Niddah)와 유아교육(Shema),

교회 같은 가정의 선교적 사명(Missional calling of ‘home like church’)

개혁된 예배 Reformed Worship

■ 김성봉 Kim, Sung Bong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B. A.)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 Div.)
-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Th. M.)
- 독일 뮌스터 대학교 신학부(Th. D.)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예배에 있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 특히 개혁 신학을 표방하는 한국 장로교회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개혁된 예배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한 논의라 하겠다. 개혁된 예배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고 그 지침이 정착된 예배를 가리킨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의 개혁된 예배를 살펴보고, 그런 개혁이 있기까지 예배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뱅이가 했던 생각이나, 종교개혁 당시의 신앙고백서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배 의식에 대하여 카트라이트가 제시한 지침들을 살펴보면, 개혁

된 예배의 요점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1648)에서의 개혁된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개혁된 예배에 대한 고백이 아예 한 장으로 명기되어 있는데(“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¹ 그 1조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어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기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하여 그 기준을 성경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²

21장의 2조는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만”(“to him alone”)이라고 배타적이고 제한적으로 표현하였을 때에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 “천사들에게나 별세한 성도들에게나 그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예배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며, 예배에 있어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이다”라고 하여 그리스도 유일 중보를 고백한다.

21장의 3조는 기도에 관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¹ *The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with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London 1658), 77-84.

² 이 주제와 관련하여 코드레이의 “자의적 예배”에 대한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D. Cawdrey, *Diatribes Triplex or A Threefold Exercitation, Concerning Superstition, Will-Worship and Christmas Festival* (1654).

요구하심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그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깨닫는 마음과 경외와 겸손과 간절성과 신앙과 사랑과 인내로 실행되어야 하고, (대표로 기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고 고백한다. 기도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 하여 기도의 성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보통 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21장 4조 역시 기도에 관한 것인데, “기도자는 1) 합당한 것을 기구해야 되며,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3) 죽은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 것이며, 4)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여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다.

21장 5조에서는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실행된다”고 하며, 다음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되며, 2)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되며, 3)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4)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되고, 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되며,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한다. “위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라고 고백한다. 여기에 성경봉독, 설교, 찬송, 성례가 언급되어 있다. 그럼 예배의 구성 요소는 이것들뿐인가? 그럼 현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어 “이밖에 특수한 경우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감사 예배 등이 있다”고 하여 예배와 별도로 있을 수 있는 행사들을 열거해 놓고 있다. “이런 행사들은 때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

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그 지침을 말하고 있다.

21장 6조에서는 예배 장소에 대하여 지침을 말해 주고 있는데, “복음시대에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고 하여 “어떤 일정한 장소”에 매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어 설명하기를, “그 특정 장소에서 혹은 그곳을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다.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중 예배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중 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21장 7조에서는 공중 예배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고백은 이 일을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로 하여금 이레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한다. 공중 예배를 위한 날과 관련하여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레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레 중 첫날로 바뀌었다”고 하며, “이 날을 주일(主日)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 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고백한다.

21장 8조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바람직한 방식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

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1)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2)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3) 그 날의 모든 시간은 공 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주일을 지키는 바람직한 방도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이미 20장 “기독교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도 2조에 “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1)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는 벗어날 자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3) 그런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함은 양심 자유와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배의 기준,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기도의 기본원칙과 기도의 내용, 예배의 구성요소들과 특별 행사들, 예배의 장소와 공중 예배, 주일 성수, 예배 문제에 대한 양심의 자유 등이 고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에 근거한 교회정치 부분에서 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예배의 내용으로 추천한다. “한 지교회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도, 감사, 시편송, 말씀 봉독, 말씀 강론과 적용, 교육, 성례시행, 연보, 축도로 폐회함.”³ 이 단락에서 특별히 기도와 관계하여 디모테전서 2장 1절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말

³ “To the Right Honourable The Lords & Commons Assembled in Parliament: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now sitting by Ordinance of Parliament at Westminster, Concerning Church-Government” in: *The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with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London 1658), 322.

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4장 15, 16절을 인용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면 ‘아멘’ 할 수 없다고 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

3. 이런 개혁이 있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개혁이 있기까지 예배에 대하여 어떤 견해와 고백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먼저 제네바교회 신앙문답서를 통하여 칼뱅의 견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종교개혁 당시의 몇몇 신앙고백서들에 언급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배에 대한 칼뱅의 견해-제네바 교회 신앙문답서(1542)⁴

칼뱅의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서는 ‘예배’란 주제로 작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데⁵, 그 가운데서 예배와 관계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문에서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제2문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묻고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예배가 문답의 전면에서 나타난다. 제6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제7문에서는 질문을 바꾸어 예배 방법에 대하여 묻는다. “하

⁴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제1집)』 (서울: 컨콜디아사, 1982), 143-204.

⁵ 참고로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문 1-130(신앙에 관한 조항-사도신경), 문 131-232(율법에 관하여-십계명), 문 233-295(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문 296-373(성례전에 관하여).

나눔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에 따를 것인가?” 이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일체의 궁핍 가운데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며,/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에 근거하여 이하의 모든 질문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각 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문에서 “.....첫째 점이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일이다”라고 대답한다. 제129문에서 “이것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말한 둘째 점이다”라고 말하고는 그 대답으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올바른 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라고 말한다. 제233문에서 “하나님을 숭배/예배하는 일의 둘째 부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우리는 충분히 말하였으므로 셋째 부분에 관하여 말하도록 하자”라고 하고는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일이다”라고 대답한다. 마지막으로 제296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존경의 넷째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고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하여 그를 모든 선한 것의 창조주로서 마음에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밖에도 다음에 언급하는 몇몇 가지 문답들은 예배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9문에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일과 연관하여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묻고는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일이다”라고 대답하며, 이어 제10문에서 “그것으로 충분인가?”라고 묻고는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제11문에서 그 대답을 받아 “그 이유는?”이

라고 물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우리를 향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에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 결국 제12문에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묻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시고 구주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일이다”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구속주로 아는 일은 성도가 가질 하나님 지식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제네바 신앙문답서의 결론부에 이르러 제299문에서 “지금까지 말한 전부에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는 “그것은 진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인데, 맨 처음에 언급한 대로이다. 즉 영원한 생명은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그것은 즉 앞에서 말한 대로 그를 올바르게 경배하기 위하여 알 일이다……”라고 대답한다. 역시 예배가 그 주제이다. 제305문에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의 공통되는 교훈을 듣는 일을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듣는 성서를 읽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라고 묻고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회의 방도를 주셨다”라고 하여 공중예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다시 제306문에서 “그 이유는?”이라고 묻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 질서에 따라야 하며 우리의 주님보다 우리가 더 현명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공중예배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제네바 신앙문답서는 ‘예배’란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 공중예배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예배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배야말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라고 하며,⁶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⁷이라고 하며, 공중예배는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또한 그는 예배에서의 진정한 예절(Decency in worship)은 허식을 피하는 것(Decorum, not theatrical show, in worship)이라고 하였다.⁹ 칼뱅에 의하면, 공중예배는 단순하며, 예절에 합당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¹⁰ 이때 말하는 예절은 “거룩한 신비에 대해서 경외를 표시하는 데 적합한 것이며, 경건의 합당한 연습이고, 적어도 예배 행위에 합당한 장식이 될 것”¹¹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오늘날 사람들의 감성에 치중하여 급변해 가는 예배의 분위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예배 현실은 그 당시 칼뱅이 지적했던 혼란스러움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칼뱅은 “우리가 세우려는 질서는……너절한 허식이 아니라, 모든 혼란과 야만성과 불순종과 소란과 분쟁을 제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¹²고 하였다. 예배 의식과 관계한 그의 권고는 “준수해야 할 사항은 적어야 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라야 한다”¹³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칼뱅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하였는데, 그 하나는 “의식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더 좋은 예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¹⁴는 것이고, 다른 하

⁶ *Inst.*, I, iii, 3.

⁷ *Inst.*, III, xx, 13.

⁸ *Inst.*, IV, x, 29, n. 48.

⁹ *Inst.*, IV, x, 27-32.

¹⁰ *Inst.*, IV, x, 29, n. 48.

¹¹ *Inst.*, IV, x, 29.

¹² *Ibid.*

¹³ *Inst.*, IV, x, 32.

¹⁴ *Ibid.*

나는 “외형적인 규율의 차이로 교회끼리 서로 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¹⁵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식의 변경과 관계하여서는 아주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가지는데,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부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켜오던 규정의 폐기까지도 용인할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칼뱅에 의하여 감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The Genevan Book of Order』에서는 죄의 고백과 관계하여 다니엘 9장을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고백하는 내용이 특이하였다.¹⁷

2) 칼뱅 당시의 신앙고백서에서

칼뱅과 동시대의 고백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서들(HK, 2. Helvetic Conf.,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0장(1560), 영국교회 39신조 제34항(1562)……)에서는 제네바 신앙문답서에서와 같은 집중적인 논의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각 신앙고백서가 그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을 예배와 관련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⁸

(1) 제일 스위스 신앙고백(1536)¹⁹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는 제일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제24장에서 “신자의 거룩한 모임과 사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과 사귄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즉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장소나 또는 설교를 위하여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설

¹⁵ *Ibid.*

¹⁶ *Ibid.*

¹⁷ http://www.swrb.com/newslett/actualnls/GBO_ch04.htm#SEC07

¹⁸ *An Harmony of the Confessions of the Faith of the Christian and Reformed Churches*, Cambridge 1586(이하 *An Harmony of the Confessions*)의 Sect. 15에서 “Of Ecclesiastical Meetings”라는 제목하에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¹⁹ 1536년 스위스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바젤에서 작성된 것인데, 부처(Bucer)와 카피토(Capito)에 의해서 비텐베르크에 모인 의회에 제시되었다.

교하며, 성서에 있는 모든 신비한 뜻을 능숙한 교역자들이 날마다 해석하며,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과 거룩한 감사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모든 소원을 위하여 진지한 기도를 열심히 계속하여 가기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 설교, 성만찬, 기도 등이 그것들이다.

(2) 프랑스 신앙고백(1559)²⁰

전체 8장 40조로 되어 있는 프랑스 신앙고백에서는 제6장 “교회와 그 조직”이란 제목하에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구실 아래서 사람들이 도입하여 사람의 양심을 구속하려는 모든 인간의 발명들과 법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파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파문의 선행조건들과 결론들을 위하여 필요함을 증명하며 또 고백한다.

이 고백에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분명치 않으나, 전반부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요소가 강하게 배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스코틀랜드 제1 신앙고백(1560)

전체 25조로 구성되어 있는 스코틀랜드 제1 신앙고백에서는 제20조에서 “총회와 그 힘과 권위 및 총회의 소집의 이유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길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발췌

²⁰ 프랑스 내에 있던 모든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1559년에 작성되어 Amboise에 있던 Francis 2세 왕에게 드려진 것이다. 1561년에 Poisie에서 재판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프랑스에서 찰스 9세에게 제시되었다. 1566년에 프랑스 목회자들에 의해서 모든 다른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문과 함께 출판되었다.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와 질서도 그것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은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교회를 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신을 품게 하는 때는 그것을 변경해도 좋으며 또 변경시켜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고 사람들로 부터 기인한 것들에 대하여 변경의 가능성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다.

(4) 벨기에 신앙고백(1561)²¹

전체 37조로 구성되어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에서는 제32조에서 “교회의 질서와 기강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사람이 발명한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도입하여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는 법률들을 배격한다”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다.

(5) 영국 성공회 신조(1562)

전체 39조로 되어 있는 영국 성공회 신조에서는 제34조에서 “교회의 전통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전통과 예배 의식은 반드시 어디서나 한 가지이거나 같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종래의 예배와 전통은 늘 각양 잡다하였기 때문이다. 또 나라와 시대와 풍습의 차이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또 일반의 권위에 의하여 제정되고 시인된 교회의 전통과 예배의식을 사적 판

²¹ 모든 벨기에 교회의 이름으로 1566년에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는데, 1579년에는 벨지움에서 열린 공적인 노회(Synod)에서 재차 천명되고 벨기에어로 번역되었다.

단으로 고의로 또 계획적으로 공공연하게 파괴하는 이는 교회의 일반적 질서를 거역하며, 상사의 권세를 해치며, 또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이로서 공적으로 훈계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이가 같은 일을 할까 염려해서이다). 어떤 특정한 혹은 한 나라의 교회는 인간의 권위만으로 정한 교회의 예배의식 또는 예전을 명령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단 이 모든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예배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의 중요성, 나라와 시대와 풍습에 따른 다양성의 인정, 그러면서도 공인된 예배 관례의 사사로운 개정 에 대한 주의 등을 고백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은 예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개 교회적으로 진행되기 쉬운 여건에서 참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기도 에 관해서도 “우리는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한다”고 고백한다.

(6) 제2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1566)

전체 30장으로 되어 있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제5장이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숭배와 예배와 기원(invocation)”이란 제목으로 고백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만이 숭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2) 우리는 성자들을 숭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를 위해서 부르짖어도 안 된다. 3) 성자들에게 돌려야 할 존경. 4) 성자의 유해. 5)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맹세 등이다. 주로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고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2장에서는 사적인 성경공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며, 기도(prayers)와 간구(supplications)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례가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와 교회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지불하며, 부족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²²라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들은 교화를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²³고 결론을 맺는다. 제23장은 기도와 노래 부르는 것과 성무공과(聖務工課)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신이 이해하는 그 어떤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겠으나, “공기도(public prayers)는 반드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the vulgar tongue)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고백서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제인 예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배의 요소들, 예배와 관련하여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요소가 강하게 배제되는 것,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고 사람들로부터 기인한 것들에 대하여 변경의 가능성, 예배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의 중요성, 나라와 시대와 풍습에 따른 다양성의 인정, 그러면서도 공인된 예배 관례의 사사로운 개정에 대한 주의, 예배의 대상 등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카트라이트(Th. Cartwright, 1535-1603)의 견해

카트라이트는 트래버스(Walter Travers)와 함께 영국에서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²⁴ 『교회행정 지침』이라 번역될 수 있는 그의 작은 책 『A Directory of Church-government』(London, 1644)에서 아래와 같은 예배의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안하고 있다.²⁵

²² *An Harmony of the Confessions*, Sect. 15.

²³ *Ibid.*

²⁴ *RGG*, 3. Aufl., Bd. 1, Sp. 1624. 그는 1588년에 트래버스와 함께 영국교회 내에서 초대교회적이며 장로교회적인 캠브리지 노회를 조직한 바 있다.

²⁵ T. Cartwright, *A Directory of Church-government*, (London), 1644.

✿ 시편 찬송

짧은 권고(기도 준비를 위하여)

기도(일반적 고백 - 원죄와 자범죄, 율법에 의한 형벌/ 복음의 약속과 용서에 대한 기대/ 전생의 의무를 위한 약속하신 은혜를 간구/ 말씀을 경건하게 해석하고 받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침

설교

기도(전해진 교리에 의해서 유익이 되는 은혜를 위해/ 그것의 주된 요점을 기억하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 특히 우주적 교회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기도문과 시편 찬송으로 마침

축도로 마침(민 6:24; 고후 13:13)

이 같은 카트라이트의 의견은 “공중예배는 단순하며 예절에 합당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²⁶는 칼뱅의 견해를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공중예배에 대한 칼뱅의 근본 사상이다.

4. 개혁된 예배의 요점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개혁된 예배의 요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원칙적으로 “공중예배는 단순하며 예

²⁶ 칼뱅, *Inst.* IV. x. 29 각주 48.

절에 합당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칼뱅의 정신이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세 단락으로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1542년에 작성된 제네바 신앙문답서는 ‘예배’란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 공중예배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칼뱅과 동시대에 작성된 개혁파 고백서들(1536-1566)에서는 예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배의 요소들, 예배와 관련하여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요소가 강하게 배제되는 것,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고 사람들로부터 기인한 것들에 대하여 변경의 가능성, 예배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의 중요성, 나라와 시대와 풍습에 따른 다양성의 인정, 그러면서도 공인된 예배 관례의 사사로운 개정에 대한 주의, 예배의 대상 등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예배의 기준,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기도의 기본원칙과 기도의 내용, 예배의 구성요소들과 특별 행사들, 예배의 장소와 공중예배, 주일 성수, 예배 문제에 대한 양심의 자유 등이 고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요점적으로 정리해 보면, 예배의 기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핵심적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고백되고, 그 위에 예배의 다양성, 공중예배의 중요성, 주일 성수, 성경적 근거가 희박한 요소들의 개혁 가능성, 예배의 요소 중 기도에 대한 것들이 고백되고 있다.

5. 오늘날 우리로서는?

두 가지로 물음을 물을 수 있겠다. 하나는 우리 시대에 이런 개혁된 내용들이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내용들이 더 고백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물론 “성경이 예배의 기준”이란 표현 자체가 막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되어 왔다. 1) 직접적으로 명령되었거나, 2) 사도들에게서 그러한 권위 있는 증거가 있거나, 3)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한 것 등이다.²⁷ 예배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니 다른 모든 부차적인 내용들도 중심을 잃기 마련이다. 예배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에서 이미 고백한 내용들을 제대로 전수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이미 고백된 내용들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 시대에 그 내용이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되고 지켜지는지는 참으로 의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이슈가 되면서 주일성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표준문서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전자의 우려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고려라 할 수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집례자의 복장 문제, 자의적 예배,²⁸ 성찬의 방식과 횃수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하리라 기대한다. 최근 한국성경신학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의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6. 나가는 말

개혁된 예배라는 주제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의 고백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고백 내용을 중심으로 그런 고백이 있기까지 칼뱅으로부터 종교개혁 당시의 몇몇 고백서와 함께 후대의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견해까지 살펴보았다.

²⁷ Greg L. Price, “Foundation for Reformati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http://www.ecn.ab.ca/prce/books/foundref/foundref.pdf>

²⁸ 자의적 예배에 관하여는 17세기 개혁신학자 코드레이(D. Cawdrey)가 그의 책 *Diatribes Triplex: or A Threefold Exercitation*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고, 그 책을 바탕으로 최근에 나는 한국성경신학회에서 “자의적 예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2003.2.17).

개혁된 예배의 요점은 무엇보다 “공중예배는 단순하며 예절에 합당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칼뱅의 정신이다. 이 정신에 근거하여 다양한 내용들이 고백되었는데, 예배의 기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핵심적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고백되고, 그 위에 예배의 다양성, 공중예배의 중요성, 주일 성수, 성경적 근거가 희박한 요소들의 개혁 가능성, 예배의 요소 중 기도에 대한 것들이 고백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하나는 우리 시대에 이런 개혁된 내용들이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내용들이 더 고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배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에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에서 이미 고백한 내용들을 제대로 전수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집례자의 복장 문제, 자의적 예배, 성찬의 방식과 횃수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We have examined the subject of the reformed worship in the confessions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and based on that substance, we looked at the confessions of John Calvin, few confessions during the Reformation period, and that of Thomas Cartwright in the later period that lead to the confessions. Most of all, the essence of the reformed worship is Calvin's argument that “public worship is to be simple, according to standards/manner, and authoritative.”

Based on this foundation, various contents were further

confessed; the standard of worship, the object of worship, the method of worship, and the main elements of worship. Then, in addition to them, the diversity of worship, the importance of public worship, the keeping of the Lord's day, the possibility of reforming of the elements in the worship that lack biblical support, and the prayer among other elements of worship were confessed.

We addressed two issues today: how these contents of reformation are instructed properly in our days, and what new things can be added into our confession. Since the standard of worship became dim and vague these days, it is foremost priority to elucidate the standard and instruct the confessions properly. Moreover, we suggested that more detailed and realistic confessions regarding the clothing of the presider, voluntary worship, the practice of the Eucharist are necessary.

주제어(Key Words):

예배(Worship), 개혁된(Reformed),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Westminster standards document), 칼뱅(Calvin), 카트라이트(T. Cartwright)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 연구

-코메니우스(Comenius)의 『팜패디아』(Pampaedia)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hought of Educational Theology for the Korean
Military Mission : With a Focus on *Pampaedia* of John Amos
Comenius(1592-1670)

■ 최석환 Choi, Sok Hwan

- 총신대 신학과 졸업(B. A., M. DIV., Th, M.)
 -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B. A.)
 - 총신대 철학박사(Ph. D.)
 - 미국 자살예방센터(SPC) 수료
 - 육군리더십센터 상담교관 역임
- 육군 수방사 군종참모, 총성교회 담임목사
 - 한국군종목사단 선샤인캠페인 TF팀장
 -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 연구위원
- 한국군선교연구소 연구위원 및 협동총무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는 성경에 기초하여 교육과 신학의 상이한 학문영역을 하나의 종합된 시각으로 해

석한 17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교육사상가이며 신학자이다.¹ 코메니우스는 1622년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Labyrint Sveta a Ráj Srdce*)², 1631년 『열려 있는 언어의 문』(*Janua linguarum reserata*),³ 1633년 『초보자 언어학습을 위한 입문서』(*Januæ Linguarum Vestibulum*),⁴ 『어머니학교의 소식』(*Informatorum der Mutterschule*),⁵ 1658년 『세계도해(世界圖解)』

¹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사상 연구”, 『신학지남』 (1995), 193. 코메니우스(Comenius)는 1592년 3월 28일 보헤미아(체코)의 모라비아(Mähren) 남쪽 땅 니브니체(Nivnice)에서 출생했다. 코메니우스(Comenius)의 아버지는 그 당시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Jan Hus)의 후예들로 구성된 형제단(Böhmische Bűder) 교회의 회원이었다. 코메니우스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으며, 고모의 도움으로 자라게 된다. 1611년 코메니우스는 독일의 헤어보른(Herborn)에 세워진 최초의 칼빈의 신학 사상을 배경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스승으로 알스테드(F. Alsted)와 피셔(J. Fischer)를 만난다. 1614년 코메니우스는 프래라우(Prerau)에 있는 라틴학교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라틴어와 체코어의 언어교사로 일하게 된다. 1616년 코메니우스는 형제교회에서 목사로 봉직한다. 1618년 그는 모라비아(Mähren) 근교 자그마한 마을에 학교와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일하게 되었으며, 바로 같은 해에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그해 구라파의 비극적인 30년 종교전쟁(1618-1648)이 돌발했고, 1621년에는 스페인 군대가 보헤미아를 점령하였다. 이러한 카톨릭 교회의 박해로 코메니우스는 다른 개신교 신도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된다. 1622년 코메니우스는 그 당시 유행한 전염병으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잃게 된다. 1624년 코메니우스는 형제단 교회의 한 감독의 딸과 두 번째 결혼을 한다. 1627년 보헤미아 지역의 모든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무리들에게 고향을 떠나도록 강요되었을 때에, 이미 폴렌의 레스친스키(Leszynski) 감독의 배려로 마련된 망명처인 리사(Lissa)로 형제단을 피난시킨다. 코메니우스가 리사로 되돌아온 후 얼마 있지 않아 그의 두 번째 아내가 죽는다. 그리고 1650년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그 후 1670년 11월 15일에 세상을 떠나 암스테르담 근교 나덴(Naarden)에 있는 왈로니(Wallonie)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고 전한다.

² J. A. Comenius, *Labyrint Sveta a Ráj Srdce* (Book on Demand Ltd., 2014); J. A. Comenius,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 최진경 역 (서울: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3). 1622년 코메니우스는 당시 유행한 전염병으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쓴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에서 인간을 미로의 세계를 거쳐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영혼의 순례자로 묘사한다. 코메니우스 사망 후 8년이 지난 1678년 코메니우스의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을 모방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 나왔다.

³ J. A. Comenius, *Janua linguarum reserata, sive, Omnium scientiarum & linguarum seminarium id est compendiosa Latinam & Anglicam, aliásque linguas & artium etiam fundamenta addiscendi methodus, una cum Januae Latinitatis vestibulo* (1659) (ProQuest, 2010).

⁴ J. A. Comenii, *Januæ Linguarum Vestibulum Majus...* (Nabu Press, 2014).

⁵ J. A. Comenius, 『어머니학교의 소식』, 정일웅 역 (서울: 이레서원, 2001).

(*Orbis sensualium pictus*),⁶ 1668년 『빛의 길』(*via lucis*),⁷ 『오직 필요한 한가지』(*Unum necessarium*)⁸ 등의 책을 저술하였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미완성으로 남게 된 『인간 사물의 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이란 총 일곱 개 부분으로 구성된 책을 저술하고자 하였으며, 이 『콘줄타티오 카토리카』(*Consultatio Catholica*)의 네 번째 부분인 『팜패디아』(*Pampaedia*)는 코메니우스의 완벽한 교육사상을 담고 있다.⁹ 『팜패디아』는 기독교 관점에서 제시된 전인 교육론이며,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 세대의 교육과정을 제시한 최초의 기독교 교육학이다.¹⁰

『팜패디아』는 대한민국의 사회교육과 교회교육이 물질주의적, 도구주의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전인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동시에 군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들이 세례를 받은 장병을 양육하기에 효과적인 방법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내용, 『팜패디아』의 위치와 의의, 주제와 구성, 교육신학 사상을 살펴본 후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내용

코메니우스(Comenius)의 미완성 작품으로 남게 된 『인간 사물의 개

⁶ J. A. Comenii, *Orbis Sensualium Pictus : hoc est omnium principalium in mundo rerum, & in vita actionum, pictura & nomenclatura*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1777).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世界圖解)』는 학생들의 언어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림을 응용하여 언어를 배우게 한 책이다.

⁷ J. A. Comenius, 『빛의 길』, 이숙중 역 (서울: 여수론, 1999).

⁸ J. A. Comenius, *Unum Necessarium-Das einzig Notwendige*(ISBN-10: 9067322032)

⁹ J. A. Comenius, *Pampaedia: Lateinischer Text und deutsche Übersetzung* (Quelle & Meyer, 1960).

¹⁰ J. A. Comenius,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정일웅 역(서울: 여수론, 1996), 11.

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 즉 『콘줄타티오 카토리카』¹¹란 책은 1935년 ‘디미트리히 치첵브스키’(Dimitrij Tschizewskij)에 의하여 할레에 있는 프랑케 고아원 중앙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콘줄타티오 카토리카』는 총 일곱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 『판에게르시아(Panegersia)』(범각성론), 제 2부 『판아우기아(Panaugia)』(범광론), 제 3부 『판조피아(Pansophia)』(범지혜론), 제 4부 『팜패디아(Pampaedia)』(범교육론), 제 5부 『판글로티아(Panglottia)』(범언어론), 제 6부 『판오르도시아(Panorthosia)』(범개혁론), 제 7부 『판누데시아(Pannuthesia)』(범훈계론)이다.¹² 논자는 판 데어 린데(Jan Marinus van der Linde)의 책 *Die Welt hat Zukunft*를 중심으로 『콘줄타티오 카토리카』를 먼저 약술하고자 한다.¹³

1) 『판에게르시아(Panegersia)』(범각성론)¹⁴

코메니우스는 『판에게르시아』에서 “자신의 행복과 전체 인류의 안녕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오라.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언

¹¹ J. A. Comenius, *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 Ad Genus Humanum Ante Alios Vero Ad Eruditos, Religiosos, Potentes, Europae-Primary Source Edition*(Nabu Press, 2013); *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 ad genus humanum, ante alias vero ad eruditos, religiosos, potentes Europae* [General Consultation on an Improvement of All Things Human] (Halle, 1702); *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 ad genus humanum, ante alias vero ad eruditos, religiosos, potentes Europae*, 2 vols., ed. J. Červenka, et al., pref. Josef Váňa, afterw. Jan Patočka, Prague(Academia, 1966).

¹² 제1부 『판에게르시아(Panegersia)』(범각성론)는 1666년 암스테르담에서 제2부 『판아우기아(Panaugia)』(범광론)와 함께 출판되었다. 그 후 『판에게르시아(Panegersia)』는 부대우스(Baddeaus)에 의하여 1702년 할레에서, 그리고 쉐네바움(Schönebaum)에 의하여 1924년 라이프찌히에서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제4부 『팜패디아(Pampaedia)』(범교육론)와 제6부 『판오르도시아(Panorthosia)』(범개혁론)는 헨드리히(Hendrich)에 의하여 1948년과 1950년에 체코어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호프만(Hofmann)이 1956년 『판오르도시아(Panorthosia)』를 체코어판에 기초하여 독일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다음을 참조하라. 오인탁, “J. A. Comenius의 범교육(Pampaedia) 이론,” 『신학사상』(1980), 322-323.

¹³ Jan Marinus van der Linde, *Die Welt hat Zukunft, übersetzt und bearbeitet von Dr. Peter Meier*(Kassel,1992), 63-82. 번역본은 다음을 참조하라. Jan Marinus van der Linde,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세계』, 정일웅 역 (서울: 여수론, 1999).

¹⁴ J. A. Comenius, *Panegersia, or, Universal Awakening*, trans. A. M. O. Dobbie, Shipston-on-Stour (Drinkwater, 1990).

어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아오라. 사물의 개선을 원하는 모든 자들이 오라. 우리는 하나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부패를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탄에게 공포를 주고, 인간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목표이다”¹⁵라고 서술하며 전 세계적인 각성에 대하여 호소한다.

2) 『판아우기아(Panaugia)』(범광론)¹⁶

코메니우스는 『판아우기아(Panaugia)』에서 하나님께서 오성의 조명을 위해 제정해 놓으신 세 가지 빛의 원천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위한 작업장인 ‘세계’, 우리들의 오성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정서와 양심인 ‘인간의 정신’, 끊임없이 오류를 경고하고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Gefühl), ‘오성’(Verstand), ‘신앙’(Glaube)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세 가지 빛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감성과 오성과 신앙에 ‘분석’(analytisch), ‘통합’(synthetisch), ‘비교결합’(synkritisch)하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주적인 빛을 점화하고 사물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¹⁷

3) 『판조피아(Pansophia)』(범지혜론)¹⁸

코메니우스는 『판조피아(Pansophia)』에서 인간은 원천수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뿌리에 근원을 둔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임을 서술하며 ‘제자리에 있음’과 ‘벗어나 있음’과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세움’을 강조한다. 즉, ‘제자리에 있음’(in-stitutio)이란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¹⁵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64.

¹⁶ J. A. Comenius, *Panaugia, or, Universal Light: Being Part Two of His Consultation on the Reform of Human Affairs*, trans. A. M. O. Dobbie, Shipston-on-Stour (Drinkwater, 1987).

¹⁷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65-66.

¹⁸ 코메니우스는 판탁시아(Pantaxia), 즉 우주적인 질서(Universelle Weisheit)라고도 불리우는 『판조피아(Pansophia)』를 그의 후원자인 루이스 드기어(Louis de Geer)의 손자인 게하르트(Gerhaed)에게 헌정하였다.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다. ‘벗어나 있음’(de-stitutio)이란 인간은 죄를 통해서 제자리에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세움’(re-stitutio)이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다.¹⁹

4) 『팜패디아(Pampaedia)』(범교육론)²⁰

코메니우스는 『팜패디아(Pampaedia)』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물의 전체를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고, 쉽게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alle), ‘모든 것’(alles), ‘포괄적인’(umfassendes) 세계 사도직을 언급하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암흑으로부터 나와, 인류 전 세대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²¹

5) 『판글로티아(Panglottia)』(범언어론)²²

코메니우스는 『판글로티아(Panglottia)』를 통하여 신, 구약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한 입술과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미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한 언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 바벨의 언어 혼란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시온의 언어는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 등을 연구하며 오랫동안 언어학에 몰두했다. 결국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언

¹⁹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67-70.

²⁰ J. A. Comenius, *Pampaedia: Lateinischer Text und deutsche Übersetzung* (Quelle & Meyer, 1960); *Comenius's Pampaedia, or, Universal Education*, trans. A. M. O. Dobbie, Dover (Buckland, 1986).

²¹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71-73.

²² J. A. Comenius, *Panglottia, or, Universal Language: Being Part Five of His Consultation on the Reform of Human Affairs*, trans. A. M. O. Dobbie, Shipton-on-Stour(Drinkwater, 1989).

어 문제는 철학의 질문이며, 인간 교육에 대한 질문이며, 세계 사도성(Weltapostolat)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이다.²³

6) 『판오르도시아(Panorthosia)』(범개혁론)²⁴

코메니우스는 화해(Rekonzilation), 개혁(Reformation), 보충(Reparation), 재창출(Regeneration)을 그의 과제로 삼았다.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제는 자만(Arroganz)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순종하는 문제였으며, 회복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문제였다. 코메니우스는 참된 학문(Wissenschaft), 참된 종교(Religion), 참된 정치(Politik)라는 인간의 가장 중심적이며 최대의 사명들이 사물들과 하나님, 인간 상호간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⁵

7) 『판누데시아(Pannuthesia)』(범훈계론)

코메니우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필수적인 방법을 이미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용이성이 제시된 후에는 한 가지 경고가 따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고는 선행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모두에게 내려진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는 야고보서 4장 17절로 『판누데시아(Pannuthesia)』를 요약하고 있다.²⁶

3.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팜패디아』

1) 『팜패디아』의 위치

²³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73.

²⁴ J. A. Comenius, *Panorthosia or Universal Reform: Chapters 1-18 and 27*, trans. A. M. O. Dobbie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J. A. Comenius, *Panorthosia or Universal Reform: Chapters 19 to 26*, trans. A. M. O. Dobbie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²⁵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74.

²⁶ *Ibid.*, 75.

코메니우스의 『인간 사물의 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 즉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네 번째 부분인 『팜패디아』는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중심이다.²⁷ 제 1부 『판에게르시아(Panegersia)』(범각성론)와 제 7부 『판누데시아(Pannuthesia)』(범훈계론)가 전체 작품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으며, 제 2부는 인간과 세계의 개혁의 기초로서의 『판아우기아(Panaugia)』(범광론), 제 6부는 개선(emendatio)의 실천에 관한 『판오르도시아(Panorthosia)』(범개혁론)를 다룬다. 그리고 인간을 행위적 존재(manus)와 정신적 존재(mens) 그리고 언어적 존재(lingua)로 부를 수 있기에, 제 3부 『판조피아(Pansophia)』(범지혜론), 제 4부 『팜패디아(Pampaedia)』(범교육론), 제 5부 『판글로티아(Panglottia)』(범언어론)를 다룬다. 코메니우스의 『인간 사물의 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이라는 작품명처럼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인간 자체가 중심 연구대상이다. 그러므로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중심부분이 인간 범교육론인 『팜패디아(Pampaedia)』에 집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2) 『팜패디아』의 의의

『팜패디아』는 교육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완벽한 그리고 조직적인 기독교 교육철학이다.²⁹ 『팜패디아』는 코메니우스가 기독교의 창조신학과 그리스도의 구원신학 그리고 종말신학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준비로서 인간교육을 제시한 것이며, 기독교 관점에서 제시된 전인 교육론이며, 동시에 평생교육론이다.³⁰

27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사상 연구,” *op. cit.*, 217.

28 오인탁, “J. A. Comenius의 범교육(Pampaedia) 이론,” 『신학사상』 (1980), 323-324.

29 *Ibid.*, 312; Klaus Schaller, *Die Pädagogik des J. A. Comenius und die Anfänge des Pädagogischen Realismus Im 17. Jahrhundert* (Heidelberg: Quelle & Meyer, 1962).

30 J. A. Comenius,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11. 이하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은 Pamp.로 표기.

3) 『팜패디아』의 주제

‘반 데어 린데’(van der Linde)의 연구결과처럼, 코메니우스는 『팜패디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물의 전체를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고, 쉽게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함이 그 주제이다.³¹ 즉 이끌어냄(educatio)으로서의 교육과 위치 안에 둠(institutio)으로서의 교수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 요소이며, 팜패디아의 주제이다.³²

4) 『팜패디아』의 구성

『팜패디아』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진다. 서론에서는 『팜패디아』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본론에서는 『팜패디아』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친다(제 1장). 즉, 인간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며, 가능하며, 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더욱이 모두에게(제 2장), 모든 것을(제 3장), 포괄적으로(제 4장), 학교와(제 5장) 이 논문은 모든 책들과(제 6장) 교사들에 대한 요구를 밝혀준다(제 7장). 학교에 대하여 연령별로 나누거나 또는 여덟 단계의 학교로 구성하여 각각 그 모든 것의 관찰을 논하고 있다. 즉, 출생 전 학교(제 8장), 유아학교(제 9장), 소년학교(제 10장), 청소년학교(제 11장), 청년학교(제 12장), 장년학교(제 13장), 노년학교(제 14장), 죽음의 학교(제 15장)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범교육의 가장 의미가 깊은 유익성에 대하여 가르친다(제 16장).³³ 본 연구자는 『팜패디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³¹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71-73.

³² 오인탁, “J. A. Comenius의 범교육(Pampaedia) 이론,” 333-335.

³³ 오인탁은 코메니우스의 여덟 개의 학교를 장소와 연령과 열두 달과 비교하였다: 1. 출생전학교(가능세계, 탄생지, -, -), 2. 유아학교(원형세계, 집, 0-6세, 1월), 3. 소년학교(천사세계, 마을, 7-12세, 2-3월), 4. 청소년학교(자연세계, 도시, 13-18세, 4-5월), 5. 청년학교(문화세계, 국가, 19-24세, 6-7월), 6. 장년학교(윤리세계, 세계, 25세 이상, 7-11월), 7. 노년학교(정신세계, 노인이 사는 곳, -, 12월), 8. 죽음의 학교(영원세계, -, -, -). *Ibid.*, 343.

서론: 범교육의 정의

본론: 범교육의 의도	I
모두에게(Omnes)	II
모든 것을(Omnia)	III
포괄적으로(Omnino).....	IV
전체의 학교(Panscholia)	V
전체의 책들(Panbiblia)	VI
전체의 교사들(Pandidascalia)	VII
1. 출생전 학교(Schola Genitarae)	VIII
2. 유아학교(Schola Infantiae)	IX
3. 소년학교(Schola Pueritiae)	X
4. 청소년학교(Schola Adolescentiae)	X I
5. 청년학교(Schola Juventuis)	X II
6. 장년학교(Schola Virilitatis)	X III
7. 노인학교(Schola Senii)	X IV
8. 죽음의 학교(Schola Mortis)	X V
결론: 범교육의 가장 의미가 깊은 유익성 시사	X VI

4. 『팜패디아』의 교육신학 사상

코메니우스는 『팜패디아』 제 1장에서 그의 교육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범교육학은 전 인간 세대의 각 개인에 관련된 돌봄을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전체(universalis)를 표준으로 삼아, 인간을 그의 본질의 온전성으로 인도하는 (cultura) 이다. ...관(παν)이란 전체에 대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 인류에게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다(παντες, πα

ντα, παντως- Omnes, Omnia, Omnino).³⁴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골로새서 1장 28절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in aller Weisheit)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vollkommen machen)”

이런 점에서 논자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을 모든 사람(Omnes), 모든 사물(Omnia), 포괄적인 모든 것(Omnino)으로 설명하고자 한다.³⁵

1) 모든 사람(Omnes)

코메니우스는 『팜패디아』 제 2장을 요약하며 모든 사람이 기독교 교육에 참여해야 함을 다음 세 가지로 역설한다.

1.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배척되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소외되어서는

34 *Pamp.*, 1. 1. ‘판 데어 런데’에 의하면, 판(*παν*)은 ‘손상됨이 없는 온전한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의 완전하신 판(*παν*)이시며, 우리에게로 보낸 받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판(*παν*)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무(無, Nochts)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인간으로 만드신다. 다음을 참조하라.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64. 클라우스 샬러(Klaus Schaller)는 판(*παν*)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① 판(*παν*)은 판(*παν*)과 함께 연결된 명사의 의미를 심화해 주며, 이 말이 의미하는 경과의 종결 가능성과 완성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② 판(*παν*)은 인간의 지식과 행동 전체의 바탕에 놓여 있는 존재가 질서 없는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 있는 전체임을 기억게 해 준다. ③ 판(*παν*)은 모든 인간의 지식과 행위의 목적이 만물의 기원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해준다. ④ 판(*παν*)은 『팜패디아』의 길이 임의로 구성된 길이 아니라 전체 자체로부터 나온 길이어서 전체를 잃어내고 발견해내야 하는 길임을 지적해 주는 방법적인 개념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Klaus Schaller, *op. cit.*, 178, 225-226.

35 지혜(Weisheit, sophia),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포괄적인 모든 것(Omnes, Omnia, Omnino), 완전함(volokommen, teleios)이라는 세 가지 개념은 코메니우스의 보편적 제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포괄적인 모든 것(Omnes, Omnia, Omnino)만을 다루기로 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77-81.

안 된다. 2. 또한 이러한 단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3.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한 인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³⁶

코메니우스는 만약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불의를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며, 모든 사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자연 만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것이며, 또한 무지한 인간들이 무모하게 사용하여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몰고 가게 될 자연 자체에도 결국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⁷

2) 모든 사물(Omnia)

코메니우스는 인간을 돌본다는 것은 다음의 열두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한다. 이는 모든 사람(Omnes)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사물(Omnia)이 되는 것이다.

1. 존재하는 것 즉, 삶. 2. 건강. 3. 세상에 대해 깨어 있는 의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앎. 4. 명석함,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다. 5. 자유함, 즉 알고 있는 선을 행하고 선별하고 악행을 물리치고 행하는 것들이 재량에 맡겨진다면 자유롭게 한다. 6. 행할 수 있음, 즉 그가 잘 알고 선별한

³⁶ Pamp., 2. 28.

³⁷ Pamp., 2. 28.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한다. 7. 많이 소유함. 8. 소유한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함. 9. 입신출세하고 존경받음. 10. 자신의 지식과 의지를 타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있게 전달하도록 가능한 한 말을 잘함. 11.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함. 12. 가장 큰 기쁨이요 영생의 확신이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남.³⁸

코메니우스는 인간을 돌보는 열두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자신의 교육신학의 틀을 마련한다. 코메니우스는 첫 번째 요소인 존재하는 것 즉 삶에 대하여는 자신의 미래적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의 삶을 사랑하고 염려해야 한다. 현재의 삶 뒤에는 어떤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진지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즉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이 기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첫 번째 거주지인 어머니의 몸 안에서 있다가 하늘 아래 있는 두 번째 정거장인 이 세상에서는 미래적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안식처로 들어가야 한다.³⁹

코메니우스는 두 번째 요소인 건강에 대하여는 건강에 해로운 것과 건강 유지에 좋은 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언급한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매우 쉽다. 약해지기보다는 근면하고 경건하도록 몸에 해로운 것은 피하고 이로운 것만 취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³⁸ Pamp., 3. 11.

³⁹ Pamp., 3. 35.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어주실 것이다. 다음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다. 외부적으로는 상처, 명, 낙마 등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흑한, 무더위, 과도한 활동과 지나친 휴식(느릿느릿함과 게으름) 그리고 과식, 과음 또는 극도의 배고픔, 단식, 약물 등이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 공급, 운동, 수면 등을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함도 해롭다. 절제하는 것이 좋다. 먹을 때는 양분을 골고루 그리고 적당량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 운동과 휴식을 취하며, 건전하고 밝고 세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당연히 영광 돌려야 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기에 힘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인간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것이다.⁴⁰

코메니우스는 세 번째 요소부터 열한 번째 요소까지 설명한 후,⁴¹ 마지막 열두 번째 요소인 “가장 큰 기쁨이요 영생의 확신이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느”⁴² 신앙에 대하여 논한다. 코메니우스는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Omnes)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신앙이란 가르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니라 가르침의 일반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끌어진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을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다(창 18:9).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아이들을 기르며,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일을 위임시키지 않았을 것이다(신

⁴⁰ *Pamp.*, 3. 37.

⁴¹ *Pamp.*, 3. 38-46.

⁴² *Pamp.*, 3. 11.

6:20; 엡 6:4 등)⁴³

3) 포괄적인 모든 것(Omnino)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포괄적인 모든 것’(Omnino)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물을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하며, 가능하고, 쉽게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류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범학교와 범서와 범교사를 요구한다.

1. 모든 인류는 개인별로 개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학교로서 전 인류를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돌봄의 장인 학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명칭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범학교(凡學校, Panschoa)라 명한다. 2. 오로지 전체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체에 도달하려면 그것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우주(universalis) 전체를 담고 있는 책들이 생각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루는 책인 하나의 범서(凡書, Panbiblia)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를 조망하며, 자신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를 열어줄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분야의 선생을 지칭하는 범교사(凡教師, Pandidascalia)라는 명칭을 생각하게 된다.⁴⁴

5.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

‘클라우스 샬러’(Klaus Schaller)가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이야말로 일반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신학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한 것처럼,⁴⁵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코메니우스의 『팜패디아』를 중심으로 코메니우스

⁴³ Pamp., 3. 47.

⁴⁴ Pamp., 4. 19.

⁴⁵ Klaus Schaller, *op. cit.*, 162.

의 교육신학 사상을 논했다. 이에 논자는 『팜패디아』를 중심으로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모든 장병들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은 모든 사람(Omnes)에게 모든 사물(Omnia)을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Omnino)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암흑으로부터 나와, 인류 전 세대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⁴⁶

본 연구자는 황금어장에서 군선교를 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는 ‘모든 장병들에 대한 교육신학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병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제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에는 “모든 족속”,⁴⁷ “모든 민족”⁴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군선교교역자는 ‘모든 장병들에 대한 신학사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태복음 28:19)

2) 모든 성경말씀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Omnes)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사물(Omnia)로서 인간을 돌보는 열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였다.⁴⁹ 본 연구자는 그

⁴⁶ Jan Marinus van der Linde, *op. cit.*, 71-73.

⁴⁷ 창 12: 3; 28: 14; 시편 22: 27; 마24: 30; 눅 24: 47; 행3 25; 17: 26; 계 1: 7.

⁴⁸ 출 19: 5; 신 7: 7; 신 26 :19; 28: 1; 삼하 22: 50; 대상 16 :24; 시 67: 3, 5.

⁴⁹ *Pamp.*, 3. 11.

열두 가지 요소들은 모든 성경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선교교역자는 ‘모든 성경말씀’에 대한 교육신학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선교교역자는 성경을 스크랩하듯이 어느 한 부분만 편중되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직접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내용이며,⁵⁰ 모든 장병들에게 1004군인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알파와 오메가이다. 동시에 성경을 압축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군선교교역자가 모든 장병들에게 가르쳐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3) 완전성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포괄적인 모든 것’(Omnino)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물을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이며,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 인류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범학교(凡學校, Panschoa)와 범서(凡書, Panbiblia)와 범교사(凡教師, Pandidascalia)를 요구하였다.⁵¹ 따라서 군선교교역자는 ‘완전성’에 대한 교육신학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이미 군선교현장에는 1004동의 군인교회와 성경말씀과 650여 명의 군선교교역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골로새서 1장 28절처럼, 군선교교역자가 ‘모든 장병들’에게 ‘모든 성경말씀’을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침’으로 모든 장병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할 것이다.

⁵⁰ J. A. Comenius, 『대교수학』, 정확실 역 (서울 : 교육과학사, 1897), 238-246.

⁵¹ Pamp., 4, 19.

6. 나가는 말

코메니우스의 『인간 사물의 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 즉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네 번째 부분인 『팜패디아』는 『콘줄타티오 카토리카』의 중심이다. 『팜패디아』는 기독교 관점에서 제시된 전인 교육론이며,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 세대의 교육과정을 제시한 최초의 기독교 교육학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사상은 모든 사람(Omnes), 모든 사물(Omnia), 포괄적인 모든 것(Omnino)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물을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고,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팜패디아』를 중심으로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으로 ‘모든 장병들’과 ‘모든 성경말씀’과 ‘완전성’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군선교교역자는 장병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장병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듣게 하여야 한다. 둘째, 군선교교역자는 성경을 스크랩하듯이 어느 한 부분만 편중되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성경을 압축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군선교교역자가 모든 장병들에게 가르쳐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셋째, 군선교교역자는 ‘완전성’에 대한 교육신학사상이 있어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8절처럼, 군선교교역자는 ‘모든 장병들에게’ ‘모든 성경말씀’을 아주 철저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침으로, 모든 장병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군선교교역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군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를 소망한다.

Abstract

John Amos Comenius(1592-1670) was a 17th-century Czech-speaking Moravian teacher, educator, writer and theologian. He served as the last bishop of Unity of the Brethren and became a religious refugee and one of the earliest champions of universal education, a concept eventually set forth in his book *Didactica magna*. He introduced pictorial textbooks, written in multiple native languages; promoted biblical teaching methods based on the natural gradual growth from simple to more comprehensive concepts. He lived and worked in several countries in Europe, including Sweden,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Transylvania, the Holy Roman Empire, England, the Netherlands and Royal Hungary.

John Amos Comenius gained international fame for his innovative biblical teaching methods and proposals for comprehensive educational reform. He advocated a holistic approach to knowledge and ethics called Pansophy (universal wisdom), which was rooted in the conviction that people should work with nature rather than against it. During his lifetime, Comenius published more than 150 works in Czech, Latin, and German on such diverse topics as linguistics, pacifism, social justice, human development, cartography, and spirituality.

John Amos Comenius's writings may have had as much impact in the 20th century as they did in his lifetime as his works were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Comenius was known primarily as a pedagogue, but the

rediscovery of his pansophic writings, most notably *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CC.)*, launched a new appreciation for Comenius as a philosopher, social reformer, and theologian.

CC. is composed of seven parts. They are Panegersia, Panaugia, Pansophia, Pampaedia, Panglottia, Panorthosia, and Pannuthesia. Pampaedia is the fourth part of *CC.* I think *Pampaedia* is the center of *CC.* I think the thoughts of educational theology in Pampaedia are Omnes, Omnia, and Omnino.

I suggested three ideas through a study on the thought of educational theology for the Korean military mission with a focus on Pampaedia. They are all of the Korean soldiers, all the words in the Bible, and perfection in Christ. All of Korea military mission ministers should proclaim Jesus Christ, admonishing and teaching all of soldiers with all wisdom, so that all of Korea military mission ministers may present all of soldiers perfect in Christ(Colossians 1: 28). I hope that my study will contribute to coming the green and blue season of Jesus Christ in the Korean military by affording the mission of all of Korea military mission ministers.

주제어(key words):

군선교(Military Mission), 군선교교역자(Military Mission Minister),
교육신학(Educational Theology), 코메니우스(Comenius), 팜패디아(Pampaedia)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PTSD and Narrative Therapy

■ 김동연 Kim, Dong Yeon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Th. 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M. A.)
 - 미 육군 군종학교 OAC 수료
 - 리더십 센터 상담교관
- 육군제30사단 군종참모, 필승교회 담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 등과 관련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해 오고 있다. PTSD는 ‘post-traumatic stress’의 약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인간은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적인 외상을 겪고 난 이후 정상인과는 다른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한다. 즉 외상을 겪게 되면 인간은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인 반응은 마비되면서 각성 상

태가 증가하는 지속적인 증상을 가진다.

젊은 장병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장병들은 입대 경험을 하나의 고난이자 고통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우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장병 스스로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꾸준히 저항하며 단련하여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에게는 그만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이야기 치료기법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장병들에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성서를 통해 제시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는 외상 후에 스트레스의 지속기간이 길고 스트레스의 증상이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우 이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쓰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의학이나 심리학 분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¹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분리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PTSD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² 넓은 의미의 PTSD는 낮은 단계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측면이 있으나, 좁은 의미의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증상의 종류와 지속기간이 특별히 긴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수 있

¹ 김순진, 김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 학지사, 2000), 13-14.

² *Ibid.*, 182-185.

다.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으로, 넓은 의미로는 외상 후에 나타나는 높고 낮은 정도의 모든 스트레스 증상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외상 후에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침투·재경험이나 회피, 과각성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날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불안장애이다. 전쟁이나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개인적인 피해를 주는 폭행, 강간, 테러 및 폭동, 때로는 홍수, 폭풍, 지진, 화산 폭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을 통해 받은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정신장애이다.³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은 외상의 재경험, 외상 잔재의 회피 및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지속적인 과각성 상태로 구성되고, 흔히 동반되는 증상으로 우울, 불안, 인지 기능의 어려움(집중 곤란) 등이 있다.⁴

외상의 재경험이란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런 회상(영상이나 생각, 지각을 포함),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마치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나 느낌(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지각, 착각, 환각, 해리적인 환각 재현의 삽화들, 이런 경험은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중독 상태에서의 경험을 포함한다.),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어 있을 때의 생리적 반응 등과 같은 5가지 방식 중에서 1가지(또는 그 이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경험되어야 한다. 외상과 연관되는 자

³ Kirtland C. Peterson,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신웅섭, 채정민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6), 107-118.

⁴ *Ibid.*, 147-151.

극회피 및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는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한다;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한다;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미래가 단축된 느낌(예: 직업, 결혼, 자녀, 정상적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중에서 3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가된 각성 반응은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자극에 과민한 상태 또는 분노의 폭발; 집중의 어려움; 지나친 경계; 악화된 놀람 반응 등 그중에서 2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각 증상군 별로 증상항목들이 충족되면서 증상의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해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

3. 이야기 치료의 등장

이야기 치료는 탈근대주의 혁명의 영향을 수용하고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적용하는 접근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개인의 삶을 정확히 묘사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이야기로 할 수 없으며, 항상 이야기는 재창조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치료자는 치료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부정적이고 피해적인 견해를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찾아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이야기 치료(narrative therapy)는 구성주의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형성되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 모델로서 이야기를 통해 개인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치료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야기 치료는 해석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야기를 도구적으로 사용하였던 기존의 상담과는 달리 이야기가 가지는 치료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상담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야기 치료에서 ‘이야

기'(narrative)는 음조, 설화, 담화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국내의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가장 친근한 표현인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story'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객관화된 사실적 내용을 다룬다. 이에 비해 'narrative'는 개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집합체로서 문화적 전통과 개인적인 역사의 영향으로 인해 추출된 것이며, 한 개인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징적 내용을 의미한다.

4. 이야기 치료의 사상적 배경

이야기 치료는 최근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치료 모델로 가족치료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⁵.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 치료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하는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와 뉴질랜드에 있는 데이비드 엡스톤(David Epston)의 공동 노력으로 198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새로운 치료이며,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여 심리치료의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이론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회구성주의 이론과 탈근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치료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과 이야기, 의미 등의 관계를 탐색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 치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다.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과학성,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식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사상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생산된 치료 이론들은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문제의 성격을 밝혀 내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문제의 원인을 밝히면 그 문제를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각 이론은 진리와 본질을 대변하는 거

⁵ Glenn Roberts and Jeremy Holmes, *Healing Sto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5-19.

대한 보편적 지식이 되었던 것이다.⁶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거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거부하고 세부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추구한다. 또한 거대한 이론이나 보편적인 지식을 뒷받침하는 논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있다. 절대적 진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어떤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문제의 성격은 내담자가 경험한 자신의 주관에 근거한 이야기의 중요성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이야기 치료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상담 치료에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에서 현실을 사회적 구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지는 것이며,⁷ 또한 이 현실은 우리 이야기들을 통해 확장되고 우리가 만들어 낸 모든 견해는 언어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 체계는 단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수의 현실이 존재하며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보지만, 모든 현실이 다 바람직하다거나 아니면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현실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반면 다른 현실들을 삭제해 버리는 기능을 한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는 거대한 담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한 부류의 지식이 다른 지식보다 더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각본(life script)과 같아서 우리가 자신을

⁶ 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가족치료” (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10-11.

⁷ McAdams, Dan P.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Homewood: Dorsey Press, 1985), 120-127.

바라보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규정해 준다. 그러나 이 각본은 한 사람이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사회, 문화, 관습, 신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상담 치료에서는 내담자들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진전시켜 온 이야기의 공동 저자로 본다.

5. 이야기 치료의 목표 및 원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동시에 그 이야기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로 자신을 구성해 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이야기를 통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고, 또한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한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이야기와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은 우리의 삶과 같다는 인식을 주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게 된다. 이야기 치료의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야기적 존재로 태어나며,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의 주체가 되고, 또 그 이야기는 주제가 있는 우리 삶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야기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구성해 준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을 만날 때, 이야기를 사용하여 경험을 조직하고 이해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경험들은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보관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사건에서 의미를 연결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 믿음, 욕구나 필요 등을 표현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경험하며,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계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보려고 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붙일 때도 이야기를 통해 접근해 나간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도 “만약……라면”이라는 상상 속에서 이야기 방식을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계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서 관계성의 틀과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다. 이야기는 인류역사의 시초부터 있었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있었다.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의 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영화와 TV 드라마 속에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속에서, 그림과 만화와 벽화 등의 예술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이처럼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간략한 형태로 정리해 본다면, 먼저 클럭혼(Kluckhohn)과 머레이(Murray)가 오래 전 제기한 대로 어떤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이야기와 공통된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다른 일부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와도 같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⁸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the universal story), 어떤 이야기는 어떤 문화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고(the cultural story), 또 어떤 이야기는 오직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의 고유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the individual story). 이야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구성해 주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믿음을 공유하며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의 형식은 거의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수용하고 이끌어 낸

⁸ *Ibid.*, 53.

다. 이야기의 기본적인 종류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분류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먼저 로버트 솔즈(Robert Scholes)는 이야기 형식에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플롯은 전기적 플롯(탄생에서 죽음까지)과 낭만적 플롯(사랑의 완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면서, 이중 로맨스의 플롯은 이별, 위험, 그리고 재회라는 고대 그리스 로맨스의 플롯으로부터 유래됐음에 틀림없다고 본다.⁹ 또한 ‘노스롭 프라이’ (Northrop Frye)는 주인공의 특징과 다른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희극(Comedy), 로맨스(Romance) - 모험담, 무용담, 연애소설, 공상소설 등을 통칭 비극(Tragedy), 풍자극(Irony)의 네 가지 원형으로 압축시켰다. 여기서 희극은 새벽, 봄, 출생기의 원형으로, 로맨스는 정오, 여름, 승리와 성공의 시기의 원형으로, 비극은 일몰, 가을, 죽음의 시기의 상징으로, 풍자극은 어둠, 겨울, 분리와 소멸단계의 원형으로 보았다.¹⁰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주제와 동기가 있고, 등장인물이 나오고,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해소가 있다. 이런 문학적 요소로 인해 우리는 영화나 TV 연속극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의 줄거리나 전개방식에 친숙해져 있다. 상담에서 발견되는 내담자의 행동과 증상도 어떤 주제와 동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주제와 동기는 각 개인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이야기는 플롯이나 스토리, 인물과 성격과 같은 요소들로 잘 짜여진 구성물일 뿐 아니라, 광범위하고도 은밀하게 관여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 이야기는 이데올로기의 목소리와 힘을 빌려서 내용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야기가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이유는 새로움이나 독창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에서 원하는 지배적인 신념의 체계, 즉 이데올로기에 부합되기도 하는

⁹ Robert Scholes and Robert Kellogg, 『서사의 본질』, 임병권 역 (서울: 예림기획, 2001), 277-299.

¹⁰ Dan P. McAdams,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ies* (Guilford Press, 1998), 53-55.

반면 그것에 저항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적 세계관, 혹은 이야기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이야기 치료가 출발하고 있다¹¹. 이야기 치료의 목표와 원리를 소개하자면 첫째,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 있는 이야기를 버리고 보다 자신에게 힘과 만족을 주는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가지게 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이야기 치료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은 성공적인 이야기의 대체, 새로운 이야기의 형성과 의미의 창출로 옮겨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문제의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문제 이야기’(problem saturated story)라고 부르며, 많은 지배적 이야기들이 문제 이야기로 표현된다. 이 문제 이야기에 대항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alternative story)라고 부른다. 넷째, 문제 이야기의 해체에서 탐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따라 떠나는 여정과 같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체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외재화 대화는 문제를 내담자로부터 떼어내어 서로 대립적 관계로 재정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¹². 마이클 화이트와 고미영은 외재화 대화를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를 상징적인 비유로 객관화하거나 때로는 의인화시킴으로써 문제를 그 문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가령 아동이 거짓말을 하는 문제 행동을 보였을 경우, 문제 행동 즉 거짓말을 ‘분모 괴물’(temper monster)로 규정하고 이 괴물을 퇴치하는 작전을 짜봄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문제 행동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모면하게 된다.

¹¹ 고미영, *op. cit.*, 7-9.

¹² Michael White, *Literate Means to Therapeutic Ends* (Adelaide: Dulwich Centre Publications, 1989), 95-99.

이야기 치료에서 외재화 대화는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향한 비난을 감소시키고 문제를 문제로 본다. 또한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문제를 조사해 보고,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섯째, 외재화 대화를 전개하면서 상담자는 유능함의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특한 결과를 과거나 현재에 지배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난 이야기, 즉 이야기 밖의 이야기를 찾아내어 지배적인 이야기의 모순과 허위를 증명해 내고 이야기 속에서 강점과 탄력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때가 바로 독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독특한 결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을 표출시킨 후,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의 계획이 좌절된 때나 사건을 찾아보면 바로 독특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해 온 청소년이 있다면, 마약 이외에도 그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독특한 결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¹³ 일곱째, 재저작 대화(re-authoring conversation)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점차 살아 있고 참된 것이 되게 한다. 상담자는 독특한 결과를 찾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담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출발점을 찾으면 상담자는 그것을 대안적인 이야기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기법으로 재저작 대화란 재진술을 통한 이야기의 풍부화이다. 진술과 재진술, 재진술에 대한 재진술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 사람이 현재 자신과 정체성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가 곧 그 사람이다.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내담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며 그

¹³ *Ibid.*, 72-77.

를 압박해 오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잊어버렸거나 간과해 온 사건들-독특한 결과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되면, 내담자는 빈약한 결론을 벗어나 새로운 서술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현재 겪는 문제의 이야기와 모순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지니게 되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찾게 된다. 이 안목은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갖춰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점차 살아 있고 참된 것이 되게 한다. 예를 들어 5명의 가족이 있다면, 상담자는 그 중 세 명과 면담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은 대화의 청중이 된다. 그리고 나서 청중이었던 두 명의 가족과 면담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진술이다. 다시 청중이었던 세 명의 가족과 면담을 통해 재진술하는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질문하는데, 이것이 재진술에 대한 재진술이다. 이와 같은 진술과 재진술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묘사가 점점 풍부해져 간다.¹⁴ 같은 사건이라도 매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이런 방식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다르게 만든다. 만일 성공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더 풍요로운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정의식’(definitional ceremony)은 이야기 치료를 말하고 연출하는 데 의식의 형식을 빌려 진행하는 상담이다. 이것은 이야기를 실제로 말하고 남에게 들려줌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구성을 완성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청중들과 그 이야기가 퍼지고 실현되는 지역 공동체이다. 마이클 화이트¹⁵는 인정의식

¹⁴ *Ibid.*, 222.

¹⁵ Michael White, *Re-Authoring Lives: Interviews and Essays* (Adelaide, South

은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를 성찰하여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선언하는 상황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인정의 식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청중이며, 이 청중들은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현장에 참여하여 이를 목격하고, 그 진실성 여부를 인증하는데 기여한다. 청중으로 인해 내담자의 재저작 대화는 공식화되며, 그 이야기를 삶에서 실현해 가도록 내담자를 지지해 준다. 또한 이야기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변화를 인정해 주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스토리를 담은 치료적 편지기법과 칭찬을 하기 위해 때로는 인증서를 주거나 실제 축하파티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인정의식 속에 포함된다.

6. 이야기 치료의 특성

첫째, 새로운 제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 치료는 진퇴양난 가족 체계로부터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게 해주며 가족의 문제를 외현화시켜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의미를 넓히는 새로운 제안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이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마치 지도가 어떤 땅 자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담론은 어떤 이야기의 자료가 없이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사실과 의미 있는 허구라는 두 가지 불만스런 가능성 사이에 놓여 있다.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분야에서의 주관성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은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이끌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삶의 과정과 단계에서 또는

마음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선택된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달려 있는데, 우리의 기억조차도 내면적인 동기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¹⁶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는다.¹⁷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마음으로부터 병들게 된다. 실존적 공백은 인간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실패하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잃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난다.¹⁸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보았다. 하나는 자신의 창조적이고 생산적 행위로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공헌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 두 번째는 만남과 가치의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면서 의미를 찾는다. 이것은 자연이나 문화의 소산물과 같은 그 무엇을 체험하거나, 또는 그 누구를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고난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 싸워 나가면서 의미를 찾는다.¹⁹

둘째, 동반자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힘을 보다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힘의 균형에서 보다 동등한 관계로 협력적인 동반자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상담에서 내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하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오게 된다. 대부분

¹⁶ Glenn Roberts and Jeremy Holmes, *Healing Sto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7.

¹⁷ Alan Parry and Robert E. Doan, *Story Re-Visions* (New York: Guilford Press, 1994), 2.

¹⁸ Irvin D. Yalom,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1980), 440.

¹⁹ *Ibid.*, 445.

의 경우 여러 가지 주제들과 즐거리, 또한 서로 얽혀진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복잡하기가 예사이다. 물론 그 이야기 자체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해석이 고통스러워지거나 그 해석에 의해 감정이 지나치게 격화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그들은 해석에 노련한 상담자를 찾는 것이다. 그 상담자는 그들을 위협해 온 것들이 별것 아님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격양된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해석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종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해석과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의 해석을 확고하게 해줄 협력자를 원하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게 되기도 한다. 이외의 다른 복잡한 이유들로 상담자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일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는 것이다.²⁰

셋째,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질문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의 영역을 탐구하게 하느냐를 결정짓게 만들며 질문의 가정과 유형, 질문의 방식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이클 화이트는 삶의 경험은 우리의 이야기보다 풍부하다고 주장한다. 이야기는 그 경험들을 조직하고 의미를 주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담고 있지는 않다. 가장 우세하게 드러난 이야기는 많은 세밀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지배적인 이야기'(dominant story)를 갖고 있으며, 또한 종종 숨겨져 있는 대안적인 이야기도 갖고 있다. 상담자는 질문을 통해 그렇게 숨겨진 빠뜨린 조각을 찾아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정확

²⁰ *Ibid.*, 28-29.

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가 문제 이야기의 대안에 관한 단서를 줄 수 있는 경험, 희미한 기억들, 사소한 생각들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의 예를 찾아보면 “당신은 문제가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어떤 짧은 순간을 생각해 낼 수 있겠습니까?”, “대화 중 문제가 전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던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문제에 의해 지배받지 않았던 삶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까?”를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최근의 삶 속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지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자원과 능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믿음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이야기에 대한 대안적 이야기와 보다 나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넷째, 일정한 방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하나의 일방적인 틀은 없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기존의 상담방법과는 달리 정교하게 짜인 대화의 구조나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서 유도성 질문을 거부한다. 상담가의 처방적인 결론을 내리지도 않는다.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진행하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야기 치료에서는 정말로 치유의 틀이 없다는 것인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리고 분석도 없이 정말로 상담적인 치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 치료의 성공은 어떤 틀이나 방법에 있지 않고 접근의 자세에 있는 것이다. 틀이나 기법이란 기술적인 방법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접근하는 자세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패러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섯째, 치료의 주체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야기 치료 중에 때로는 우울한 이야기를 만난다. 이야기 치료자는 상담실에서 우울증을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경험을 혹은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주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상담가는 사람을 만나고 있고, 치유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닌 우울한 이야기의 변경인 것이다. 즉 상담가는 내담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한 경험에 쌓이게 만든 이야기를 치유하는 것이며 그 우울한 이야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내담자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7. 이야기 치료의 방식

첫째, 해체적 경청의 방법이다. 이것은 내담자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해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한다. 마이클 화이트는 이 해체를 “우리가 당연시하는 현실과 그 관습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즉 지배적 이야기의 제한적인 영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아직 그 지배적 이야기가 닿지 못한 어떤 다른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의 외부화 과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구성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가 해체될 때에 과거의 문제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이야기와 분리되기 위해서 내담자는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지를 찾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독특한 성과 찾기’ 라는 과거 이야기 속에 빠진 사건과 행위와 사고방식을 찾아내므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작업을 가능케 해준다. 치료 상황에서 말해지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배치되고 모순되는 많은 세밀한 내용들을 빠뜨리게 된다. 이야기적 접근을 원하는 상담자는 문제의 이야기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한다. 상담 중에 들을 때는 문제의 이야기에서 빠져 있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이 있다. 또한 문제의 이야기와 모순되는 이야기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오직 문제에 점철된 이야기들만 들려지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빠진 사

소한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 질문을 통해 오래된 이야기 속에 있는 여백을 메꿀 수 있는 자료들을 끄집어내야 한다. 내담자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도록 초청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독특한 결과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 독특한 결과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다.²¹ 이같이 예외적인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최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독특한 성과를 찾아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공적인 사건을 강조하면 내담자나 가족들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독특한 성과나 특이한 사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내에 대한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²² 상담자는 치료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견해를 반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찾아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야기 치료는 사람들이 과거를 다시 살펴보고 미래를 다시 내다보는, 즉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억이라는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의식의 시간적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어디에 중점을 두고 더욱 부각시킨다. 이와 같은 작업 속에서 어떤 것은 언급이 되고, 어떤 것은 버려지게 된다. 즉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경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등이 결정되고, 그 이야기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³

²¹ 고미영, *op. cit.*, 15-16.

²² 김유숙,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2002), 219-220.

²³ *Ibid.*, 214-215.

둘째, 문제를 ‘외재화’시키는 방식이다. 이야기 치료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는 것은 문제의 정의를 해체시키는 작업이다. 외재화는 문제를 내담자로부터 떼어내어 서로 대립적 관계로 재정의하는 것으로 이야기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내담자가 문제인 것처럼 혹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루는 기존의 사고를 해체시키고 문제를 내담자와의 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이야기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기 치료 학파의 주요 이론가인 마이클 화이트가 문제를 외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람들보다는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대화로 구성된다. 이것은 문제에 의해 지배되는 이야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문제를 외부로 표출시키는 의인화 기법이다. 문제 표출 또는 외부화는 문제를 내담자의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언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자신의 모두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즉 문제 표출은 내담자를 문제 증상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길을 제시해 준다.²⁴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면 문제를 표출하기 위한 질문을 시작한다. 문제는 사람들과 분리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리고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 소유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들을 소유하려 한다고 암시한다. 예를 들면, “남편의 거짓말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보다는 “거짓말이 남편으로 하여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나 보군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문제를 외재화한다는 것은 내면화된 증상을 인격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재화의 질문을 진지하게

²⁴ Bruce Litchfield and Nelie Liechfield,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정동섭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129.

한다면 내담자들은 문제가 자신들 밖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외재화되면 내담자나 가족은 문제가 사라진 건강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 즉 우울증 환자는 자신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싫어하는 우울한 기분에 의해 정복된 사람일 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치료자가 계속하여 어떻게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으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질문해 나갈 때, 내담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롭고 보다 좋은 이야기를 위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²⁵

셋째, 문제의 내력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사람들과의 상담에서 문제의 외재화를 시작하면, 치료자는 그 사람의 삶에 있는 문제의 내력을 찾기 위한 질문을 시작한다. 이런 질문들은 치료자가 과거의 어느 때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종류의 다양한 상대적 영향력 질문들이 사용될 수 있다. 넷째, 문제의 영향력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지배적 문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러한 영향력을 넓게 그려보고 주의 깊게 탐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 과정은 흔히 그 사람의 삶의 선호에 대한 여러 국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준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와 의견들에 재결합 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재저작 대화의 주요한 일 부분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독특한 결과에 주목해 보는 것이다. 독특한 결과란 문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 즉 지배적인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성취하기 어려운 사건이거나 경우이다. 독특한 결과들이 지배적인 이야기와 현저히 다르고 대조적으로 튀어나오는 사건이므로 이것을 ‘섬광같이 번쩍이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독특한 결과는 계획, 행동, 감정, 진술, 자질, 욕망, 꿈, 생각, 신념, 능력 혹은 헌신 등이다. 독특한 결과란 일종의 질문 양식으로

²⁵ 김유숙, *op. cit.*, 219.

해체적 질문에 속한 질문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해체적 질문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드러나게 하여 어느 한 이야기의 제한점과 그 이야기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해체적 질문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기를 발굴하는 데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빠진 부분을 찾아내거나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

여섯째, 재저작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야기 치료는 재저작 대화를 위한 탐구와 대안적 이야기를 연출해 가는 과정이다. 재저작 대화는 이야기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표방하며 내담자들은 처음 표출대화를 통해 문제에 찌든 삶의 형태에서 보다 활력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힘을 갖는다. 이야기 치료의 핵심은 내담자의 삶에서 문제를 조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을 다르게 경험하고 다른 의미들을 불러오는 이야기를 찾는 작업이다. 일곱째, 회원 재구성 대화방식이 있다. ‘회원 재구성’(re-membering conversation) 대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의 삶을 여러 회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클럽(club)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이 삶이라는 한 ‘클럽’의 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초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의 선택 여지가 거의 없이 끼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회원 재구성 대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라는 클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결정하는 것과 회원자격을 개정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할 때 중요한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지배적 문제 이야기는 그 사람의 동반자 관계나 삶의 전력을 매우 잘 축소하거나 감출 수 있다. 회원 재구성 대화는 이러한 것을 수정하고 내담자들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의 기여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여

덤페, 인정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정의식은 내담자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거나 다시 정의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식의 하나로 고안되었다. 인정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담자나 가족들, 치료자 외에 ‘외부 증인집단’(outside-witness group)이라고 불린다. 외부 증인들은 둘 이상이 모인 집단으로 구성되며, 내담자와 안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담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외부 증인은 내담자가 의뢰해 온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로,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내담자와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외부증인 집단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반영팀’(reflecting team)이란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8. 성경에서 나의 이야기 발견하기

성경 속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 및 목표를 심어주는 방법으로 성서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만들고, 성경의 구절을 공유함으로써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군선교 교역자가 성경에 익숙하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에게 용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함으로써 트라우마가 생기기 이전에 마음의 상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기 전의 인생 경험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깊이 있게 경청한다면 군선교 교역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알아차려서 기록할 수 있고 성경 구절을 보편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군선교 교역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적절하게 치료적 관점에서 다룰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군선교 교역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경전 및 교리를 접촉함으로써 이야기의 보편성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장병에게 적절한 성경구절을 제시하여 위로하거나 혹은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경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의미적으로는 희망찬 인생을 그려 나가도록 도움을 주며 과거로부터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준다. 군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거나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신앙심을 통해 어려움과 고난을 일상의 군생활에 재결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병들에게 무엇을 할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성경의 적절한 구절들을 이용함으로써 군선교 교역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편 55편에는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 잘 기술되어 있다. 육체의 불안감(2절), 정신적 압박(3절), 정신적 공포와 두려움(4, 5절) 등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유사한 이야기 속 성경구절을 가르치고,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신적, 영적으로 중재할 것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그러한 형편에 놓인 장병들에게 들려 줄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이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몇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우리 장병들에게도 이러한 증세가 없는가를 진단해 봐야 한다. 첫째는 불안이다. 그런데 이 불안은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다. 특별히 걱정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 걱정이 쌓이는 것이다. 기우(杞憂)라는 말이 있다. 중국 기(杞)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나무 밑에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자네는 매일 그렇게 앉아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기인우천’(杞人憂天), 즉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함’이라 해서 ‘기우’(杞憂)라고 한다.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것이 우리 병영의 현실이다. 우리 장병들 가운데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서 공연히 생활관 잠 자리에 들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면 불안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좌절이다.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해가 날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다. 그런데 언제나 부정적인 면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세탁소를 하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세탁소 하는 아들 걱정, 해가 나면 우산장사 하는 아들 걱정, 평생을 걱정하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장병들 중에도 어떤 일을 항상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장병이 있다면 이러한 좌절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셋째는 갈등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옛날 어느 가전 제품 회사의 광고처럼,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던가?’ 이렇게 살면 평생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나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장병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마다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러한 갈등의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시편 55편을 보니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4년 동안 준비

를 했다. 우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 계락을 꾸몄다. 누군가가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면 도중에 자기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가보아야 소용없다. 왕은 너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 대신 압살롬에게 가보아라. 압살롬은 네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꼬여서 압살롬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면 압살롬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다. 왕자가 자기를 붙들고 입을 맞추니 이런 황송할 데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은 ‘압살롬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를 존중해 주고 우리의 억울한 일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었다. 압살롬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라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4년 동안 애를 써서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압살롬은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있던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달려왔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히 일어나 도망쳤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맨손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던 다윗, 더욱이 그가 왕이 되어서는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해 목숨을 건지지 위해 머리를 가우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다고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던 부하들마저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 한번은 다윗이 중한 병에 들어서 누워 있는데 다윗의 가까운 부하 하나가 병문안을 왔다. 시편 41편은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했다. 병문안을 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언제 죽는

가를 보러 왔다는 것이다. “이제 다윗은 악한 병이 들었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20-21절에서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였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시편 55편 13-14절에도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지내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 목숨을 같이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언제 어디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나타나 목에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좌절과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5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여전히 다윗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지만 다윗은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과거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55편 16절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시편 55편 17절에서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마가 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들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군생활을 힘차게 해나가라는 이야기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사로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당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제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다.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쫓기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물리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시 55:16)라는 기도

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워낙에 교통이 불편하던 시기라 미국에서 지프차를 한 대 들여왔다. 그래서 차를 타고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한번은 시골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한 분 만나게 되었다. 허리가 꾸부러진 할머니가 머리 위에 잔뜩 짐을 이고 걸어가고 있어서 선교사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타시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몇 번을 사양했지만 선교사가 하도 권하는 바람에 고맙다고 하고는 차에 올라탔다. 한참을 가다가 선교사가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짐 보따리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는 “할머니, 무거운데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 보따리까지 올려놓을 수 있나요”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의 염려도, 근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군생활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네 짐을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신다. 인생 길을 걷다가 내 등에 얹혀져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짐도 맡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군생활이 되길 바란다. 위와 같이 군선교 교역자는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경의 이야기의 관점을 통해 재조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장병들에게 성경의 적절한 구절을 적용하여 희망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급해 줄 수가 있다.

9. 마치며

최근까지 우리는 ‘GOP 총기사고’ 및 ‘윤일병 사건’과 같은 군 관련 악성사고를 접하면서 과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 가야 될 숙제라고 본다. 나는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장병들이 군이라는 조직으로 들어와서 1년 9개월간 생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PTSD와 같은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줘야 할 책임이 그들을 맞이하는 군 관련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장병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데 있다.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병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군대 내 사건과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병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대안으로 나는 이야기 치료방법을 제안한다. 이야기 치료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자 이야기의 창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 치료의 핵심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 치료는 시간적 연속성의 흐름 위에 펼쳐지는 인간 이야기의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며, 시간의 틀 속에

펼쳐진 인간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묻는다.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위에 펼쳐지는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장병 한 영혼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경험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에 장병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제한된 구성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의 세계관으로 자유롭게 탐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담을 하는 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이야기를 장병들의 이야기 위에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 장병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 독자가 되어 의미 있는 해석으로 함께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야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속에서 되어져 간다.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다. 장병들이 흔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마음으로부터 병들게 된다. 장병들의 이러한 실존적 공백은 인간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실패하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잃고, 인생의 목적과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장병들을 돕는 이야기로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 다른 아닌 성경이다. 나는 성경을 통해 특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대한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장병들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하고 재해석과 재의미 부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병 한 사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장병들에게 성경이야기를 통한 이야기 치료방식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

고의 주인공 내지 주변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s a mental health condition that's triggered by a terrifying event like war experiences - either experiencing it or witnessing it. Symptoms may include flashbacks, nightmares and severe anxiety, as well as uncontrollable thoughts about the event. Getting effective treatment after PTSD symptoms develop can be critical to reduce symptoms and improve function. And narrative therapy is a respectful and collaborative approach to counselling and community work. It focuses on the stories of people's lives and is based on the idea that problems are manufactured in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s. Each person produces the meaning of their life from the stories that are available in these contexts.

In these days, our army has been difficult times like GOP shooting and First private Yoon case. So, I want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studies on PTSD and Narrative Therapy.

주제어(key word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야기 치료(narrative therapy),
문제 이야기(problem saturated story), 대안적 이야기(alternative story),
지배적인 이야기(dominant story)

목회 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 연구

A Study of Biblical Methods in Pastoral Leadership Success

■ 이용락 Lee, Yong Rak

■ 군종 51기

■ 총신대학교 신교학(Ph.D.)

■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 센터장

■ 열매맺는교회 담임



1. 서론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의 특징은 신권(神權)이라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에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 리더로 군림할 수는 없다.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훈련과 공적 인증을 거쳐 리더십을 계승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조직도 조직의 필요에 적합한 리더를 바로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리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지만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

리더십 계승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현대의 상황에서 유능한 리더를 발굴하고 리더십을 계승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유능한 차세대 리더를 확보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리더십 계승 계획은 이미 국가나 기업의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교회가 처한 환경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이제 교회도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담임목사를 선정할 때 몇몇 당회원의 의견이나 단순히 전임목사의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담임목사를 계승하는 것을 더 이상 교인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오스월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도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울 때 그의 영적 자질에 대한 고려 없이 리더를 선택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이지 못한 경영체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며, 교회 리더십 계승 과정의 투명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매우 비판적이고 이제 성도들도 몇몇 사람에게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반대한다. 안타까운 것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인간관계가 점차 업무 지향적인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형교회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간관계의 취약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리더십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때 쉽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신학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리더들 간의 경쟁심과 훈련받지 못한 리더들의 자질 부족에 기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이 되어 전령질주를 해도 부족한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의 분열은 외부인들에게도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신앙은 유산(遺産)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

¹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Chicago: Moody Press, 1980), 78.

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신 최초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 후대에 전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세대 영적 리더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리더십을 계승하는 것도 성경적 사역이다. 왜냐하면 리더와 추종자는 리더십 계승을 통해 많은 신앙적 유산과 지혜, 전통을 전대(前代)에서 후대(後代)로 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경과 리더십 계승

리더십에 관한 학술 용어에서 리더십 격차(Leadership Gap)란 말이 있다. 이는 현재의 리더십과 향후 예상되는 미래 리더십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현재의 리더십이 80이고 미래 예상되는 리더십이 100일 때 차이가 나는 20의 부족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조직의 생존에 치명적 현상이 발생한다.² 미국의 리더십 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케니스 클로크(Kenneth Cloke)와 조안 골드스미스(Joan Goldsmith)는 이러한 리더십 차이가 보충되지 않고 리더십 부재가 지속될 때를 가리켜 좀비상태(zombification)와 위축상태(atrophication)라고 설명했다.³ 따라서 리더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십 계승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리더십 계승이란 단순히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리더십 역량이 단절되지 않고 후임자가 이를 더 개발하여 리더십 역량을 상승시켜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이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재 발굴과 리더십 개발 그리고 가치 공유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더십 계승은 상당히

² David S. Weiss & Vince Molinaro, 『리더십 갭』, 김정일 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9), 24.

³ Warren Bennis, *The Art of Waking People Up* (San Francisco: Jossey-Bass, 2001), xi.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지만, 성경은 모범적인 리더십 계승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 구약성경의 리더십 계승 사례

구약성경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리더들이 출현한다. 그리고 리더들의 출현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리더들이 타고난 능력과 남다른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신들의 역할이 사사나 선지자 그리고 왕이든지 간에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리더는 언약 성취의 유능한 인물로 끝까지 쓰임받고 리더십 계승에 성공했다. 반면 리더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는데 익숙했던 리더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했고 리더십 계승에도 실패했다.

(1)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리더였다. 그러나 그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기사를 읽을 때 큰 당혹감을 느낀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성인이 된 모세가 핏김에 애굽 사람을 죽인다. 또 3장에서는 소명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변명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모세의 모습은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공식적 리더가 되기까지 비록 인생 초반에 치명적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들과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40년의 광야생활이 모세를 매우 성숙한 리더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 준비시킬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후원자나 격려자같이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음 세

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이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27회나 등장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모범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여호수아는 야망을 갖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성공을 결코 추구하지도 않았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았다. 그가 모세를 섬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임무 때문이었다.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멘토로 삼아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준비시키셨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몸소 실천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 시내산 등으로 데리고 갔고(출 24:9-18; 33:7-11),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쳤으며(출 17:14; 수 1:8), 때로는 개인적인 지도를 했다(민 11:28-30).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를 자신의 사역 모델로 삼아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배웠다(출 32:15-35). 그 결과 여호수아와 모세는 유사점이 많았다. 이러한 유사점은 여호수아에게 끼친 모세의 리더십 계승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리더였다. 성경의 다른 리더와 달리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다. 그만큼 사무엘은 신실한 영적 리더였다. 그의 노년기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사무엘은 크게 실망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무엘은 거둬들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가 될 것을 확인한 이후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사울이 사무엘에

⁴ Henry & Richard Blackaby, 『감동의 리더십』, 전의우 역 (서울: 요단, 2007), 46.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울은 리더로서 훈련과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미성숙함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다.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순종과 거짓된 태도에 대해서 질책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충고를 외면했다. 인격과 지위의 불균형은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리더와 추종자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단순히 지위 때문에 영향력을 갖는 데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지위로 인한 영향력은 항상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위에 합당한 인격이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다. 사울의 리더십 계승 실패는 전임 리더가 아무리 훌륭해도 후임 리더의 불성실함과 오만함이 개선되지 않거나 전후임 간에 신뢰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리더십은 파국으로 끝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아울러 리더가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올바른 리더십을 구현하려면 훈련 단계에서 인격과 영적 성숙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3)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오래 전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사울은 리더로서 성실함과 순종의 모범을 유지하지 못해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인생 말로는 너무 비참했다. 사울의 타락이 깊어가던 무렵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 할 새로운 리더로 준비시켰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

투가 있었지만 다윗은 슬기롭게 그 위기를 잘 헤쳐 나갔다. 다윗은 전적으로 사무엘을 신뢰했으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기독교 리더십 학자이자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종교적 신앙과 행위를 연구했던 조지 바나(George Barna) 교수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리더가 추종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리더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도덕적이어야 하며, 셋째는 리더가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은 언행이 일치되는 리더의 모습을 통해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다. 다윗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사울보다 사무엘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은 짧았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한 번뿐이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과 결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한 사무엘을 찾아 라마 나웃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삼상 19:18).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Ramah)이다. 정확히 말해 라마라는 지명은 있지만 라마 나웃이란 지명은 없다. 그렇다면 라마 나웃으로 기록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히브리어로 '나웃(נַוּט)'은 집단적인 '거처'나 '처소'를 뜻하는 말로써 이는 흔히 배움의 집이나 학생들이 머무는 숙소로 번역된다. 따라서 라마 나웃이란 표현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려는 학생들을 위해 라마에 세운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무엘은 젊은이들을 모아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미래의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다.⁶ 그러던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라마로 찾아왔고 그곳에

⁵ George Barna, *Master Leaders* (Ventura: Tyndale House Publishers, 2009), 86.

⁶ H. D. Spence & Joseph S. Exell ed., *The Pulpit Commentary: I & II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361-362.

머무는 동안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에서 차기 이스라엘 리더로서 영적 인, 인격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무엘의 영향 아래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과 목민(牧民)에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사무엘과 다윗이 사울의 견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기란 환경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했던 라마 나옏에서의 경험이 다윗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인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강력한 인격적 관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4)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리더십 계승의 사례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다. 갈멜 산의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 시내 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탈진했고 낙망한 상태였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 19:14).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굴하지 않은 칠천 명의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이들 중 한 사람 엘리사의 이름을 언급하셨다(왕상 19:16).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무대에서 떠난 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 선지자는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리더에게 후계자가 없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던 엘리사를 발견하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였다. 그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사역에 동행시켜 리더십 개발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로 불러 갈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을 받게 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차세대 리더로 지명함으로써 선지자의 직임을 위임하였다.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정된 이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리더십 계승 작업을 진행했다.

첫째는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왕상 19:19). 리더십 계승을 위해서는 선임 리더가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야 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선제 행동을 취했다. 그는 엘리사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차세대 리더를 발견하는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는 엘리야 자신이 엘리사에게 모범이 되었다. 멘토링 연구가 알버트 벤두라(Albert Bandura)는 말하기를 “본받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⁷라고 했다. 엘리사가 부름받은 것과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떠나는 사건 사이가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와 꾸준히 함께했다. 더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길갈, 벳엘, 여리고 등 끝까지 동행하여 엘리야의 능력을 감절이나 연기를 소원하였고 그 결과 전임자의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3. 신약성경의 리더십 계승 사례

다원화된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리더들은 변화의 능력과 겸손과 정직 그리고 성실과 기록

⁷ Howard Hendricks, *Standing Together Sisters*: Multnomah Books, 1995; 박경범 역, 『사람을 세우는 사람』(서울: 디모데, 1996), 128.

한 가치들을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고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신약시대 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은 매우 다양했고 격변의 시기였다. 또한 핍박과 박해라는 환경을 견뎌 내야 했다. 그러나 영적 리더들은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고 개방성과 포용성을 잃지 않았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심리적 갈등을 표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인재 발굴과 리더십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적절한 리더십 계승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발전과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착실히 돌파해 나갔다.

1)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바나바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요셉이라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지를 팔아 그 값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쳐 가난한 형제들의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는 그가 회심 이후 교회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수고와 헌신을 몸으로 보여주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뒤바뀌 놓을 만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변화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이다. 리더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안내하는 것이다. 바울의 회심 이후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다 바울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의 회

심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대변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 사역에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 이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보살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신앙의 선배로서 바나바는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과 친분을 맺고,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도록 지지하고 후원함과 동시에 바울이 사도로서 이방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민족적 적대감 그리고 우상 숭배와 싸웠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적극 변호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앞장섰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은 리더십 개발과 계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바울과 사역하는 동안 바울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실질적인 리더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리더십을 구현하는 데 자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울의 권위를 자기보다 앞세웠다. 이때부터 바나바는 더 이상 바울과 선후배의 관계를 벗어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전환점이 왔음을 인식하고 바울에게 리더십의 주도권을 넘겨 주기 시작한다. 사실 바나바처럼 리더십의 역할을 바꾸려면 인격적 성숙이 필요하다.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자신보다 더 역량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가 새로운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과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리더십 전환은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팀 사역이 진행되는 수평적 구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결국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리더십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바나바가 팀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상황에 맞는 리더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그가 상황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리더는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을 독점하는 리더는 시대적 변

화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리더십 계승을 함으로써 초대교회와 세계의 여러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모습은 영적 리더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바나바와 마가 요한

바나바는 이전의 핍박자였던 바울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을 동료로 받아줄 것을 처음으로 설득한 장본인이었다.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의미답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이었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바나바의 이러한 사역은 마가 요한에게도 적용되었다. 비록 제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갑자기 귀국하여 선교팀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지라도 바나바는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 초기에 마가를 의심하는 바울 앞에서 마가를 강하게 변호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성취되지 않았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역량 있는 선교사로서 바나바보다 더 역량을 발휘하지만 덕망 있는 바나바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직 바울의 리더십은 불완전해 보였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진 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훈련시켰다(행 15:39).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고 구브로에 바나바 기념교회와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구브로가 바나바의 중심 사역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후 구브로를 떠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 동역하는데, 이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베드로 사도는 마가 요한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그의 신앙을 인정했다. 주후 50년경 바울과 헤어진 마가가 성경에 다시 등장한 것은 바울서신을 통해서이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골 4:10). 골로새서의 기록 연대가 주후 62년 무렵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12년 사이에 말 그대로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마가 요한에게 영적인 면에서나 사역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배경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3)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볼로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제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를 방문한 직후였다(행 18:1). 고린도는 빈부의 격차가 심한 도시로서 대부분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온 한 유대인 부부를 만났다. 바울은 이들의 도움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했으며, 안식일에는 공회에서도 가르쳤다. 그 결과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한 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한다. 성경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선교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고 또 그들을 훈련시킨 결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했다. 바울이 두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한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 행한 일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이곳은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 작업이 진행된 곳이고, 당시 지식의 중심지였다. 성경은 아볼로를 가리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행 18:24)고 말한다. 또한 아볼로는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 아볼로가 열정이 있었다 할 지라도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열정만을 가지고는 리더가 될 수 없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러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쳐주었다(행 8:26).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볼로에게 영적 교사로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일은 아볼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을 새롭게 보게 하는 패러다임을 선사한 것이었다. 종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을 연관시킨 패러다임은 아볼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 후 아볼로는 아가야에서 교회를 섬기며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는 성경을 힘 있게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복음 사역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행 18장). 리더십 개발은 개인 성장과 관계가 있다.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커지면 그가 이끄는 조직도 성장한다. 그러므로 리더가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다.⁹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볼로의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4)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바로 리더를 세우지 않고,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여 리더로 임명받을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보고 리더로 세웠다. 특별히 바울은 사람을 세울 때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했다. 실례로 디모데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때 개종을 했지만 바로 부름받지 못하고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⁸ Paul Stanley & J. Robert Clinton, *Connecting* (Colorado Springs: Navpress, 2003), 42.

⁹ Henry & Richard.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 2001), 51.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여 그를 복음 사역자로 임명했다. 바울은 디모데와 선교여행을 같이 하며 복음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리더에게는 유능함도 필요하지만 그 유능함을 뒷받침할 전략도 필요하다.¹⁰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이어지는 리더십 계승 과정을 보면 저(低) 책무에서 고(高) 책무로 역할이 상승되고, 모방 모델에서 자기 역할 모델로 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멘토링을 통해 디모데의 잠재력을 서서히 개발시켜 디모데가 유능한 리더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유능한 영적 리더로 만들기 위한 리더십 계승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사도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여러 특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자신의 사역을 적응시켰다. 리더십을 계승하려는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교회를 위한 복음의 전수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게 했으며, 바울의 사역에 나타났던 어려운 위기들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디모데를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3-14).

결국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리더십 계승은 위임과 동기부여가 잘 나타난 임파워먼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대교회에 훌륭한 리더가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요 계승자인 디모데

¹⁰ 이재기, 『거장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서울: 요단, 2010), 244.

를 직접 훈련시켰지만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당시에 유일한 통신 수단인 편지를 통해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 리더십 계승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멘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사실 이러한 역할들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는 평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배려, 사랑, 의사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¹¹

4. 성경의 리더십 계승 원리와 방법

특출한 조직이나 사업이 창업자의 죽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거나 해체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창업자를 계승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 원인이다. 그래서 많은 리더십 학자들은 리더십 계승이야말로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주장한다. 리더십 계승은 객관적인 기술임과 동시에 통찰력과 식견을 필요로 한다. 차세대 리더에 대해 아무리 많은 정보와 자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적인 리더십 계승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임 리더의 사명이다.¹²

몇 년 전 미국의 한 여론 조사 기관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냐고 물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특성	솔선수범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	지식과 능력	인정과 격려
비율	26%	19%	17%	14%	13%	10%

〈도표 1〉 리더의 특성 설문 결과¹³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리더는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¹¹ 류재석, 『성경 그리고 멘토링』 (서울: 이담북스, 2010), 130.

¹² 박진석, 『리더십 바톤터치』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8), 172.

¹³ John C. Maxwell,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Nashville: Thomas Nelson, Inc., 1998), 163.

다. 그리고 리더십의 유효성을 생각할 때 리더는 시대의 변화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여기서 시대의 변화란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사회적 상황, 조직 내부의 인적 구성, 조직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요소 등을 가리킨다.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계승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리더들은 항상 시대의 변화를 읽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발굴된 리더로 하여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켰다. 그 결과 그들이 진행했던 리더십 계승 과정에 부작용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리더의 능력이 교회나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교훈과 아울러 리더십 계승 과정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원리와 적절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성경의 리더십 계승 원리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계승의 중요한 원리는 리더십 계승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의 목적이란 가치와 비전이다. 가치와 비전의 공유는 리더십 계승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계승이란 단지 지위를 물려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비전이 계승되지 않는 리더십 교체는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나 므낫세가 신앙이 매우 훌륭했던 부친으로부터 왕권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조들이 추구하던 신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은 아무런 계승 절차 없이 갑자기 왕이 된 인물들이다.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들은 검증받지 못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솔로몬이나 므낫세의 잘못보다도 리더십 계승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윗과 히스기야의 치명적 실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성공적 리더십 계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급작스러운 리더십 전환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순차적인 전환은 차세대 리더십을 개발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다.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계승했던 성경의 리더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더십을 계승했다. 아울러 성경의 리더십 계승에는 공적 인증이 있었다.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계승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사역을 수행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또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피터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여 일정한 지위에 오르고 나면 그 뒤에는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나 삼손, 솔로몬 같은 인물이 대표적 본보기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퇴보뿐이다. 그래서 펩시코(PepsiCO)의 폴 러셀(Paul Russel)은 “리더는 그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상징적인 인물이어야 한다”¹⁴라고 주장한다.

리더는 능력과 지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리 윤리적이거나 할지라도 무능력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결국에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성경의 리더십 계승 방법

사람이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영적, 도덕적 혹은 지적이든지 자신들보다 어떠한 면에서라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르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¹⁴ Woolfe, *The Bible on the Leadership*, 202에서 재인용.

를 가리켜 리더십 수준이라 한다. 예를 들어, 리더십 수준을 1에서 10까지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리더십 수준이 8이라고 한다면 리더십 수준이 6인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다.¹⁵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리더십 계승이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리더십 계승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에서 책무와 계승 모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저책무 →	→ 중책무 →	→ 고책무
리더십 계승 초반기	리더십 계승 중반기	리더십 계승 후반기
모방 모델 →	→ 개인 성장 모델 →	→ 자기 역할 모델
낮음 ←	리더십 수준	→ 높음

〈도표 2〉 리더십 계승 단계별 책무와 역할 모델

리더십 계승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새로운 리더 한 사람에 의해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계적 구조의 특성이 강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는 조직의 경우 리더십 전환에 따른 영향력은 지대하다. 따라서 큰 조직일수록 리더십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더십 계승 작업은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리더십 계승이 실패하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조직의 생존 자체가 위협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리더들은 리더십 계승의 중요성을 잘 인식했고 준비했다. 그들이 리더십 계승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멘토링과 위임이다.

¹⁵ Maxwell,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76.

(1) 멘토링

사실 멘토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직접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발견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경험을 나누고, 또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멘토링이다. 멘토링은 그 출발점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멘토링은 어떤 계약이나 거래, 협정이 아니다. 멘토링에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는 보호와 뒷받침과 격려와 보증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멘토링 관계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멘토리에게 멘토가 갖고 있는 능력 자원을 전달해 줌으로 멘토리의 성장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능력 자원이란 지혜, 권면, 정보, 정서적 지원, 보호, 자원들에 연결, 인도, 지위, 사역철학, 통찰력, 리더십 기술, 사역 기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 등을 가리킨다.¹⁶

이와 같이 멘토링은 관계적 특성이 강하고 장기적이며, 삶의 일면이 아닌 개인의 삶 전체를 다룸으로써 성장과 개발을 이룬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멘토링의 효과가 보증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멘토와 멘토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동시에 멘토가 멘토리의 인격 형성과 능력 개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멘토링은 멘토가 시간과 노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삶의 자원들을 멘토리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헌신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사역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멘토리가 성숙해지면 결국 멘토가 될 것이며, 그는 또 다른 멘토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⁷

¹⁶ Bobb Biehl, *Mentoring: Confidence in Finding a Mentor and Becoming One*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 1996), 22.

¹⁷ 주상지, 『리더십 개발의 12가지 열쇠』(서울: 서로사랑, 2000), 366.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멘토링 과정을 통해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러한 멘토링 기능은 오늘날같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교회 조직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조직 특히 교역자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는 점차 업무 지향적인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대형교회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취약성은 쉽게 드러난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을 키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멘토링의 기능이 사역의 현장에 적용된다면 교회 조직의 발전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2) 위임

위임은 리더가 조직의 한 개인에게 권력의 일부분을 이양하거나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권력을 공유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리더십 학자인 개리 유클(Gary Yukl)은 리더가 위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위임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위임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기술과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고, 둘째는 과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며, 셋째는 리더의 업무 부담을 줄여 시간을 더 잘 관리하게 만들고, 넷째는 리더가 하고 싶지 않은 지루한 과업을 없애 리더의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흔히 리더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리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지 않도록 리더십 기회를 독차지하거나 자신의 일에 파묻혀 조직 내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고의든 자의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실수이고, 리더 혼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것도 조직의 발

¹⁸ Gary Yukl, "Determinants of delegation and consultation by manag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0 (1999), 219-232.

전을 방해하는 치명적 독소이다.¹⁹

리더십은 본래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리더십 분석가인 린 조이 맥팔랜드(Lynne Joy McFarland)는 “리더십에서 위임은 지위의 힘(Position power)에서 사람의 힘(People power)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이것이 조직에 공헌하는 좋은 리더십이다”²⁰라고 했다. 이 말은 리더의 권한이 위임되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위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 인물이 있다. 흔히 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나폴레옹과 칭기즈칸이다. 나폴레옹의 전기 작가 펠릭스 마크햄(Felix Markham)은 나폴레옹에 대해 평가하기를 “나폴레옹은 유능한 인물이었지만 평소 그는 부하들의 실수를 자주 책망하고 지적하면서도 전술을 가르치거나 참모학교를 세우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휘하 장군들에게 독립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지 못했다. 그 결과 중요한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1815년) 초기 상대보다 병력 34,000명과 총포 108정의 전투력 우위 속에서도 패배했는데, 그 이유는 평소 독립적 작전 능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오로지 나폴레옹의 문자적 개입 명령만을 무작정 기다려 지원군 책임자로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엠마뉴엘 그라우치(Emmanuel de Grouchy) 장군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대패한 중요한 요인이다”²¹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세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제국의 칭기즈칸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리더십 위임 때문이었다. 칭기즈칸 주변에는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몽골군의 지휘관 선발

¹⁹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33.

²⁰ Lynne Joy McFarland, Larry Senn & John R. Childress, *21st Century Leadership: Dialogue with 100 Top Leaders* (LA: Leadership Press, 1993), 64.

²¹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34.

방식에 기인한다. 칭기즈칸은 통치 기간 내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귀족이든 평민이든 할 것 없이 장수로 선발하여 훈련시킨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삼았다. 실제로 칭기즈칸의 부하 가운데는 병사에서 지휘관까지 오른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칭기즈칸은 사령관을 선발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했다. 첫 번째 방법은 ‘케시크’라고 하는데, 이는 칸의 호위병 가운데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사관학교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칸의 호위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칸과 맺어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장수가 된 이후에도 칭기즈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으며, 칭기즈칸도 이들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인 신뢰를 보였다. 두 번째 방법은 견습병 제도로서 이는 선발된 병사를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와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칭기즈칸도 젊은 시절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 마침내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에 그는 이 방법을 선호했다. 칭기즈칸은 리더의 권한 이양과 리더십 계승을 적절히 활용하여 리더로 양성된 부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다양한 전쟁터에서 칭기즈칸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리더십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²²

이와 같이 위임은 구성원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 아울러 위임은 리더가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를 속박하고 있는 제약들을 제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넓게 보면 이것이 리더십 개발 훈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임은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때 리더십 계승 효과가 상승하고 조직과 구성원들에게도 안정감을 준다.

²² Timothy May, 『몽골병법』, 신우철 역 (서울: 대성출판사, 2009), 167-168.

5. 성경적 리더십 계승과 교회 세습

한국에서 기독교가 단시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것은 초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초창기 선교사와 목사들은 교회 건물을 세우기 전에 학교와 병원, 고아원 같은 복지시설부터 세웠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전심 전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가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존경과 신뢰의 기초가 됐다. 그러나 신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형교회가 등장했고, 이와 더불어 어느덧 담임목사란 직분에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일부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담임목사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것으로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특히 담임목사 한 사람의 절대적 카리스마에 의해 성장한 교회는 위계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교인들의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교회 운영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의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매클랜드(David C. McClelland)는 “리더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그 욕구를 통제하고 자신의 내적 역량을 개발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²³라고 했다.

담임목사에게 아무리 권력이 집중되는 교회 구조라 할지라도 목사는 영적 리더로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담임목사직이 세습되면 단순히 목사직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권한(재산권, 인사권 등)을 물려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 문제는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세습 문제는 단순히 종교

²³ David C. McClelland & David H. Burnham, “Power is the Great Motivator”, *Harvard Business Review*(54) (February 2000), 110.

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²⁴ 최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대형교단인 감리교와 예장 통합, 합동 교단이 총회에서 위법이라는 논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 불가를 결의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1) 교회 세습 정의

흔히 세습이란 말은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아버지가 가졌던 일정한 권한, 재산, 명예 등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농촌교회나 개척교회 담임목사직을 자녀가 세습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그 이유는 특권의 세습이 아니라 복음사역을 위한 고난과 역경의 대물림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사람들이 세습을 문제 삼는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특권의 대물림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세습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데, 하물며 교회 세습이 긍정적일 수는 없다. 교회 세습 문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회 세습과 교회 세습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 세습이란 목회자의 자녀가 대를 이어 목회를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여 목사가 되는 것이다. 반면 교회 세습이란 담임목사가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다. 목회 세습은 재산권과 관련이 없고 신앙과 소명을 물려받는 것이기에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으나 교회 세습은 재산과 지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의 탐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경제적 이익

²⁴ 김영한, “교회 세습 금지의 신학적 근거,” 『크리스찬 투데이』(10)(2012).

²⁵ 나이영, “교회 세습 문제 상식에서 생각하자,” 『기독교 사상』(10)(2013), 276.

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성막 제사와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신 10:8-9).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고, 대대로 세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땅이나 재산을 갖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에서나 나올 수 있고, 소명받기 전의 직업도 다양하다. 그리고 선지자가 세습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가문의 세습으로 이루어졌다. 그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 장애인인 아니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없었다.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세습의 근거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세습에서 찾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목사는 세습이 아니고 소명직(召命職)이다. 주님이 목사로 불러서 목양을 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물론 목사직에 제사장의 기능도 있지만 선지자의 기능도 있다.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그 아들이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세습직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 세습을 구약의 제사장직에서 찾으려는 발상은 전혀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 아니다.²⁶

2) 교회 세습 원인

교회 세습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 중세 교회를 살펴보면 주교좌성당 세습(Cathedral Transmission)이란 제도가 있었다. 주교좌성당은 교구장 주교가 상주하는 교구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 당시 교회는 수도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직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고, 권력과 명예와 돈이 모이는 주교좌성당의 주교는 중세 교회에

²⁶ 김영한, *op. cit.*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제들이 주교좌성당 주교 자리를 자녀에게 세습했던 것이다. 주교좌성당을 두고 이루어지는 세습으로 인해 중세 교회는 성직 매매와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교회를 사교회화(私敎會化)하여 공교회성(公敎會性)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중세 기독교를 타락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클루니(Cluny) 수도원 출신으로 수도회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수도사 힐데브란트(Hildebrand)가 1073년 교황으로 선출된다. 그가 바로 왕권을 교황권에 복종시켰던 그레고리 7세(Pop Gregorius VII, 1073-1085)이다. 그는 교황에 즉위한 이후 1074년 교회 개혁 청사진을 담은 27개의 법령을 반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성직 매매 금지, 속인의 주교 서임(敍任)권 금지, 사제의 결혼 금지였다. 특히 이러한 개혁안 가운데 성직자 독신주의 선언은 교회 세습 행위를 막으려는 특단의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⁷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세습을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담임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힘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지 못하고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교회 세습 문제가 교회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는 자체가 한국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다. 비록 담임목사가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교회를 성장시켰다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통합적 식견이 부족하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이는 위험한 성장이다. 사실 교회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습이 진행되는 이유는 담임목사의 무능함 때문이다. 여기서 무능함이란 차세대 리더를 개발하고 훈련시킬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

²⁷ 김영한, *Ibid.*

을 의미한다.²⁸ 소위 탁월한 영적 리더라 여겨졌던 목회자들이 차세대 리더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결국 차세대 리더를 세우지 못한 리더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혈연 중심의 교회 세습이 진행된다. 그리고 세습이라는 풍토는 새로운 리더가 출현하는 것을 막고 복음전파 사역의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영원한 담임목사는 없다. 리더십 계승을 통해 유산의 법칙(The Law of Legacy)을 만들어 내는 목사가 영적 리더십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²⁹

3) 성경적 리더십 계승의 적용

성경은 리더십 계승의 실천 사례를 보여주는 훌륭한 교과서이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리더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배자가 될 만큼 강력할 수는 없다. 다음 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 실패하는 조직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더십 계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잭 웰치(Jack Welch)는 “모든 성공은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리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³⁰라고 하며 리더십 개발과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토로라의 최고 경영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버트 갤빈(Robert W. Galvin)도 리더십 계승의 투명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유능한 최고 경영자들은 리더십의 연속성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경영자들에게 주어질 중요한 책임이다. 언제나 우리는 예비 리더 후보자들을 키워야 하고 유능한 후보자들에게 리더십 계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²⁸ Aubrey Malphurs & William Mancini, *Building Leader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4.), 31.

²⁹ Maxwell,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401.

³⁰ Jack Welch & John A. Byrne, 『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 이동현 역 (서울: 청림출판사, 2002), 7-18.

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³¹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리더십 계승에 있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입장 차이 때문이다. 하나는 담임목사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성도들이 앞서서 후임자 선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담임목사가 주도적으로 후임자 선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 이를 교인들이 담임목사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풍토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십 계승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담임목사가 은퇴하는 시점을 앞두고 급박하게 진행되거나 심지어는 담임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후임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조직의 운영이 복잡해지는 만큼 리더십 계승도 어려운 일이다. 리더에게 요청되는 자질과 능력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도 이러한 리더십 흐름을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의 리더십 계승 원리를 목회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의 발굴과 차세대 리더십 개발 그리고 적법한 리더십 계승의 시행이라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검증된 리더의 선발(Home Grown Leader)

리더십 계승에 있어 무엇보다도 검증된 리더 선발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리더십 학자는 플러신학교와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의 학장을 역임했던 에드가 엘리스톤(Edgar J. Eliston)이다. 그는 검증된 인물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적 리더가 될 사람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적 리더가 될 사람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

³¹ Robert W. Galvin, *The Leader of Ideas* (Illinois: Motorola University Press, 1991), 51.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도록 돕는 역할과 현재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리더의 업적을 인정하고 리더를 꾸준히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본인이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의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리더가 출현하지 않고 좋은 리더는 서서히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사람들 가운데 출현한다는 확신 때문이다.³²

이와 같은 엘리스톤의 주장은 성경의 리더십 계승 사례를 통해 입증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세우는 대부분의 방법이 외부의 인사를 공개 모집하여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담임목사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반 기업의 입사 제도와 전혀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계승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도 부적절한 방법이다. 더욱이 현재 많은 교단에서는 부목사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있어도 그들이 바로 담임목사직을 계승하는 것을 교단 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조항은 교회 내의 리더십 개발과 계승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일부 교회에서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단 헌법과는 상관없이 부목사를 바로 담임목사로 선정하거나 과거 부목사였던 인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교회 세습 문제를 무조건 합리화시키는 입장과 무조건 반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도 수정되어야 한다. 교회 세습을 언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임목사 리더십이 친족에게 세습된 것이 성경적이다 혹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 되어서는

³² Edgar J. Elliston, *Home Grown Leader*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Publishers, 1992), 170-172.

안 된다. 문제는 과연 새로운 리더가 누가 되었는지 성경이 제시한 절차에 의해 차세대 리더로 선발되었고, 발굴된 인물이 리더십 개발 훈련과 계승 절차를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인격과 비전을 겸비한 리더로 인정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2) 차세대 리더십 개발

그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세습과 성적 타락 그리고 교회의 예산 유용과 횡령 등으로 인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목회자들이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의 부재와 영적 권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한국교회가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³³

가장 심각한 요인은 많은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리더십을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권력에 집착하는 리더십은 반드시 권력투쟁을 일으킨다. 영적 리더십이 지위와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에 의존하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를 지나치게 구분하여 마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 부류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 신학적으로 새롭게 정립된 문제이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리더십의 영향력이 리더의 존재에서 시작되지만 리더의 행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리더의 자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

³³ 배종석 외 2인,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F, 2008), 121.

분된다. 하나는 존재 지향성과 또 하나는 사역 지향성이다. 이 말은 리더의 존재 방식도 중요하지만 리더에게 주어진 책무를 어떻게 진수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수준이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영적 리더는 존재와 사역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리더십은 단시간에 개발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영적 리더십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역과 경험, 인격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외부적 환경보다는 내적 자질과 훈련 그리고 조직의 역사와 특성을 잘 아는 인물이 차세대 리더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영적 리더는 초기에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도 점차 조직 구성원이 자기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 스스로가 리더가 되는 것을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이라 하고 이렇게 조직 구성원을 리더로 만드는 것을 슈퍼 리더십(super-leadership)이라고 정의한다.³⁴

(3) 리더십 계승의 적절한 시행

리더의 능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계승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실행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본문 말씀의 ‘세우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도메’(οικοδομῆ)는

³⁴ C. Manz & H. P. Sims,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9), 102.

‘준비시키다(to equip)’라는 말과 ‘덕을 세우다(to edify)’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먼저 ‘준비시키다’의 의미는 신약시대에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하나는 의학 분야에서 사용된 것으로 부러진 뼈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가지런히 정돈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한 어부는 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정리하여 다음에도 그물을 통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³⁵ 그리고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행위로 묘사된다(롬 14:19; 고전 14:26; 고후 12:19; 엡 4:29). 여기에 리더의 역할이 함축되어 있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만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을 쌓아야 한다. 리더의 이러한 역할이 바로 리더십 계승이다.

리더십 계승이 리더의 핵심 역할이기에 리더는 조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반드시 다른 리더들에게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 위임은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를 제한하고 있는 제약들을 제거하고 기회를 주는 행위이다. 리더십 학자로서 미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20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The Leadership Challenge』의 공동 저자인 제임스 쿠제스(James M. Kouzes)와 배리 포스너(Barry Posner)는 “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그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공동의 목적과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위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³⁶라고 리더십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³⁵ C. Gene Wilkes, *Jesus On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220.

³⁶ James Kouzes & Barry Posner, *Credibility*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157.

성경의 리더십 계승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리더십 계승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선임 리더가 차세대 리더에게 리더십을 계승할 때 그가 담당해야 할 사역에 따른 책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승에 대한 기대와 결과를 설명하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결정 권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된 이후에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차세대 리더의 능력을 고양시킨다. 둘째, 교회 구성원들에게 리더십 계승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차세대 리더에게 리더십이 계승될 때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많은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협력과 지원이 성공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구성원들이 계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세대 리더는 큰 혼란과 저항을 받아 낙마할 수밖에 없다. 셋째, 리더십 계승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선임 리더가 리더십을 계승하면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후임 리더는 위임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여기서 지원되는 자원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물론 후임자가 위임된 과업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실패 또한 학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심리적 지원이다.³⁷

6. 결론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람, 즉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교회가 복음 사역의 영속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인적 자원의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사역이란 사람들

³⁷ Gary Yukl, *Leadership in Organization* (Upper Saddle River: Pearson Education, 2006), 148-153.

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서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믿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사역이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날 교회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리더십 개발과 계승이 필요하다.

성경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리더가 교체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무능하고 타락한 왕조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의 리더가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곧 퇴락의 길에 들어섰고 나중에는 부패하여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남유다 왕국은 철저히 혈연 중심의 세습 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왕들 가운데는 좋은 리더도 간혹 있었지만 악하고 무능한 리더가 더 많아 왕국의 패망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좋은 리더십의 출현은 무조건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혈연 중심의 세습을 고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리더가 임명되고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 리더십 개발과 계승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리더십 계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실천해야 한다. 더 이상 소수의 제왕적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추구하는 몇몇 목회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이들에 의해 교회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차세대 리더가 없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리더는 태어날 수 있어도 위대한 리더는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리더는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리더십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며, 그 노력의 정점이 바로 리더십 계승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교회는 어느덧 다원화된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뒤쳐진 후진 그룹이 되었으나 교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과거 교회가 누렸던 권위와 특권을 꿈꾸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성경적이지도 않다. 영적 리더는 두려움이나 헛된 열망을 버리고 성경에 기초한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영적 리더가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가질 때 교회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생존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흥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초대 교회가 다신교 환경과 핍박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겨났지만 믿음의 가치와 선교적 비전을 가진 영적 리더들의 지속적인 활동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궈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를 이끌어 갈 교회는 여전히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고 개발시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했던 성경의 영적 리더들은 끝까지 조직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리더십이 결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 속에 역동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교회가 인재를 발굴하고 발굴한 사람을 훈련시켜 이 사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 사역인 것과 동시에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성경적 리더십 계승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Abstract

The Bible provides us with the appropriate lessons of leadership succession and the guidelines to find emerging leaders and

leadership development, the role of spiritual leader. Today, the Korean church faced the situation is more complex missions than ever before. The estimation of the society to the church is very critical. Even if the Christians oppose that the church is operated by minority. In addition, they want strongly their desire to be reflected in the church operation. The reason why I have to study about biblical leadership succession in the two background.

The first is that the father transfer the position of senior pastor to his son. And these phenomena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Korean church. I have a structural problems of the church to encounter in the pastoral ministry which is the absence of pastoral leadership. The churches of the world envy about the quantitative growth of Korean church. But, in recent Korean church are being condemned by the opaque financial execution of the church, sex scandal of pastors, church transmission, excessive growth supremacy, conflicts with other religions. In particular, the church transmission which focus on the mega church has many problems which become a stumbling block of the mission, the loss of the church image.

The second is to present the model of the biblical leadership succession to be conducted in the church. No matter how exceptional leader who is a permanent being in the world. So, a good leader have to plan for the next generation leadership. If the leaders retire his position, the ministry and vision is to be continue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best business organization in society should invest much more to discover a man of ability and talent. A pastor leadership is important the reason why

church is the major institution dealing with the soul of men. It is also more important that leadership succession not to be interrupted. And we should have more attention than business organization of society and have to research the most desirable leadership development, the methodology of how to establish a leadership succession system.

Also, I presented three methods for successful leadership succession. First, it is to elect home grown leader. One day it is fantasy to expect the great leader will emerge suddenly. A good leader is a person who gradually develop self-competence in the group to which he belong. Good followers can be a good leader. In addition, I pointed out that the two extreme views that oppose the current church problems which transmit to the son of pastor. It must be modified to rationalize of church succession or to protest unconditionally of it. Above all, it should not be the core of the debate that church succession is a biblical or not. The problem is indeed a new leader who was selected by biblical procedure and developing training, finally he was recognized as a leader who have vision and personality.

Second, it is the development of the emerging leader. It is very dangerous the church's leaders to recognize leadership as a tool to exercise the power. It is also too separate the pastor and the laity in the church. But it must improve to distinguish two classes of the church. Now, it should be have a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 to build a new leader in the church. The problem isn't there is no human in the church but there is no strategy for discovering and developing the emerging leader. Without training the core of

leadership and sacrificing for finding the emerging leader, we never expect church growth and development. We should consider all members of organization to develop self-leadership. This is mature culture of leadership. Throughout this process, we can build the members of organization as a competent leader. Now the church can't ignore the flow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development is a problem that is recognized throughout our society. Thus, the urgency and the necessity for leadership development among the church members, we have hop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Third, it is the proper enforcement of leadership succession. A true leader adopt to build an another person as a leader. This role of the leader is a prerequisite for leadership succession. And the essential process in order to achieve a leadership succession is commission. The leader who is the exclusive leadership is folly depreciation of his achievements himself and it show obviously the non-biblical attitude. On the other hand the implementation of commission for leadership succession is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growth of church organization and continuity of gospel. Therefore, the leader do his best the commission will consequently implement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urch. This is the biblical principles in leadership succession.

The most basic essence of the church is people, human resources.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constantly the gospel ministry of the church we have to invest in the human resources. The ministry to the Christian make people lead to Jesus Christ closely. The people

without belief are attracted into Jesus Christ but only those who are far from faith become to close Jesus Christ. And the people who close the Jesus Christ become a mature Christian. This is a Christian ministry in the true sense. And today in order to deal with this ministry, Korean church needs a clear leadership development and succession.

주제어(key words):

리더십 격차(Leadership Gap), 리더십 계승(Leadership succession),
리더십 개발(Leadership development), 사람의 힘(People power),
차세대 리더(Emerging leader)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통신교육을 중심으로-

A Practical Method of Nurture for Battalion Baptists:
centering around a Correspondence Education Course

■ 전요섭 Jeon, Joseph

- 군종 43기
-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
- 성결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기독교 선교의 두 축은 복음 전도와 양육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말씀의 실천이다. 전도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여 새신자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양육은 새신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 제자로 성장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명제는 군선교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도의 방편으로써 진중세례의 선교적 역할과 영향은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했으나, 획득된 새신자에게 적절한 신앙교육과 양

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희준은 진중세례의 문제와 아울러 대대급 부대의 군선교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¹ 최석환도 군인교회는 세례자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이종윤도 진중세례는 질적으로 퇴보해 가고 있으며, 군인교회의 체계적인 양육체계가 미흡한 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³ 일각에서는 진중세례를 일컬어 '세례의 남발', '부실신자의 양산', '세례받은 이방인 양산' 등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일부 군종 목사들은 양육 없이 진중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갖고 스스로 가책하는 경우도 있다.

진중세례와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양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진중세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례에 앞서 철저한 교육과 양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느라 '전도의 황금어장' 또는 이른바 '가두리 어장'이라는 군에서 새신자 확보의 가장 효과적 방편인 진중세례의 선교적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군은 가장 요연한 선교의 보고(寶庫) 및 획기적인 장(field)이며, 진중세례는 군에만 주어진 유일한 집단 개종운동(people movement)의 특별한 기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시행되는 진중세례를 군선교의 특수상황으로 이해하고 선(先) 세례, 후(後) 양육의 성경적, 신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후, 그 후속적, 보충적 사역으로서 통신교육(correspondence education)을 통한 양육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라

¹ 오희준, "군인교회에서의 장병양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 77-89.

²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7), 283.

³ 이종윤, "비전 2020 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군선교신학」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45.

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진중세례가 양육 없는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난들을 불식시키고, 군종목사들의 신학적 갈등을 해소시키며 중반기에 접어든 ‘비전2020’의 목표달성을 독려하는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대급 부대라 함은 편제상 군종장교가 배치되지 않는 부대를 통칭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2. 진중세례의 실태와 전망

대한민국 군은 1951년 2월 한국전쟁 중에 군종병과를 창설했다. 군이 군종병과를 창설하고 각 종파 군종장교를 편제에 둔 것은 각개 종교의 신화화, 즉 선교(포교) 활동의 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군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근본 이유는 신앙을 통한 장병의 정서순화 및 사고 예방으로 비전투 손실을 막고, 전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철한 사생관 확립 등 무형의 전력화를 의도하는 것이다.⁴ 하지만 기독교 선교의 입장에서는 단지 국가관 확립, 정서순화, 사고예방, 비전투 손실방지, 사생관 확립 및 정신 전력화 등 군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을 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명령(마 28:18-20)에 따라 복음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방편으로 지금까지 진중세례가 거행되어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세례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입문(initiation) 예식이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과 아울러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고백(마 3:6; 행 2:38)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교육과 양육이 있어야만 하는데, 민간교회에서는 교회 출석 6개월 이상된 자에게 학습을, 학습 받은 지 6개월 이상된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⁴ 육군본부, 「군종업무시행지침/운영계획」(미간행: 육군본부, 2004).

된다.⁵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신학생은 입대 전 군종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소속교단의 목사고시를 대비하면서 헌법(헌장, 장정)의 세례규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입대 후 진중세례가 소속교단의 그것과 상이한 것을 목격하게 된다.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진중세례’라는 이름으로 마치 무분별하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남발하는 것 같은 모습에서 신학적 갈등과 거부감이 발생될 수도 있다.

군에서 시행된 최초의 진중세례는 1971년 9월 13일 제21보병사단에서 있었고, 1997년 4월 19일 육군훈련소에서 교회 역사상 최다 인원으로 꼽히는 7,200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연인원 집계로 1999년에 최대로 216,080명에게 세례를 준 바 있다.⁶ 육·해·공군에서 1년 동안 진중세례를 받는 인원은 평균 16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의 진중세례는 군선교와 동일시할 만큼 핵심사역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군선교연합회라 함)의 중점사업이기도 하다. 한 해에 군에 입대하는 장병을 20만 명으로 보았을

⁵ 이를테면 대한예수교장로교(합동) <헌법>제5장 제5조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될 때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제6조(성례)에는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경우에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제10조(제도) 제1항(회원)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구도한 지 6개월이 넘고, 회개한 이를 학습인으로 세우고, 학습 받은 지 6개월이 넘고, 확실히 중생한 증거가 있는 이에게 세례를 베풀고……”라고 규정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헌장>(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2006). 천주교회도 사목지침 제54조 1항에 따르면,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진석,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5), p. 106.

⁶ 오희준, *op. cit.*, 38.

⁷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2년 동안 육·해·공군에서 진중세례를 통해 세례를 받은 군인은 2,032,146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13회 군종목사 양성훈련 세미나 자료집” (미간행: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31.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1,159,845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연평균 인원은 165,69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보고서” (미간행: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1), 65.

때 육군훈련소에서 10만 명,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10만 명 가량이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다. 군에서 세례받는 병사의 90%는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2-3주 차에 세례를 받는다. 이때 훈련병들에게 민간교회의 학습에 준하는 세례 전 교육이나 양육을 충분히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 남송현은, 세례받은 병사 중 세례 전 충분한 양육을 받고 자발적인 신앙고백 후, 세례받았다는 병사는 자대에서 세례받은 병사의 4%, 육군훈련소 세례병사의 8%, 신병교육대 세례병사의 3%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⁸ 어떤 동기에서 진중세례를 받았든지 이들에게 기독교 입문교육과 양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진중세례가 향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정의 감소, 군 현대화, 기계화 및 기술집약형 계획 등에 따른 장병인원 감축, 인권확립 및 절대성에 대한 해체주의, 평등주의 등을 비롯하여 다양성의 보장 및 개인 선택의 존중, 개인주의 만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병사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합리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명령, 강요, 간섭, 지시에 저항하는 의식성향과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다.⁹ 이로 인해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형태의 진중세례가 하등의 문제없이 보존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윤병국도 앞으로 집단세례운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군선교의 미래 환경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해질 것이며 ‘비전2020’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¹⁰ 이처럼 진중세례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 획득

⁸ 민간교회에서 세례받은 병사들 가운데 간식을 먹기 위해 세례받았다는 인원이 0% 인 반면, 자대에서 세례받은 병사의 33%, 육군훈련소에서 세례받은 병사들은 53%나 이에 해당되었으며, 신병교육대는 27%로 나타났다. 남송현, “군선교전략으로서 훈련소 진중세례식에 대한 연구,” 89.

⁹ 이재운, 『군사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지문당, 2014), 153.

¹⁰ 윤병국,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된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처럼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이스턴(Southeastern) 침례신학대학원 상담학과 교수를 역임한 도널드 해들리(Donald W. Hadley)와 제랄드 리처드(Gerald T. Richards)는 군선교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군종목사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엄청난 선교적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긍정적 인식을 갖고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다.¹¹

3. 세례자 양육방안으로서의 통신교육

1) 통신교육의 필요성

군은 우리사회에서 거대한 사회교육기관이다.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한 병사들에게 군 복무기간 중 1개 학기에 준하는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교육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국방교육정책의 발표는 군을 사회교육기관이며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것이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례자를 위한 통신교육은 군 정책에도 부응하고 군선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황성준은 군 세례자 또는 새신자 양육방안으로 ‘군 장병 사역자 양성’, ‘일대일을 통한 사역’, ‘군인 가족을 통한 군 장병 사역’, ‘생활관을 통한 군 장병 사역’ 등을 제시한 바 있다.¹³ 그러나 통신교육을 통한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군 세례신자에게 일관적이고 연계성이 있으며

2006), 1-4.

¹¹ Hadley & Richards, *Ministry with the Military: A Guide for Churches and Chaplains*, 김영철 역, 『21세기를 위한 군종교역론』 (서울: 아침, 2001), 155-156.

¹² <연합뉴스>2015년 2월 15일자.

¹³ 황성준, “건강한 군인교회를 위한 군 장병 사역자 훈련의 실천적 방안연구” (박사학위논문: 종신대학교, 2006), 214- 215.

안정적인 양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육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군선교연합회에서 담당해야 한다. 군선교연합회 후원으로 2001년 12월에 군종목사단에서 군인신자 양육교재 『좋은 군사』를 발간하여 양육을 시도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군 세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신자 양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이다.¹⁴ 또한 군인교회가 검증되지도 않은 다양한 교재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관적이지 못한 교육내용으로 혼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검증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이며, 통일성 있고 활용도가 높은 교재를 개발하여 통신교육 방법으로 새신자로서 세례 병사를 양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를 가르쳐 양육하는 것은 성경의 요구이며, 필수사역이다. 이는 군인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전도만 하는 교회나 전도는 하지 않고 양육만 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는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 또는 세례를 준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신자들을 양육 없이 방치해서도 안 된다. 군인교회가 장병들을 전도하여 사회로 내보내면 민간교회에서 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전도와 양육은 신앙의 두 축이며 동시에 한 짝이 되는 사역이다.

진중세례는 군중심리학에서 말하는 ‘군중의 심리적 통일법칙’¹⁵, 선교학에서 말하는 집단개종 시 ‘공유 결심’(shared decision)이 나타난다

¹⁴ 2013년 10월 29일 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 비전2020사역의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 세례 이후의 양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기독공보> 2013년 10월 24일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70026_8&cp=du(2015.6.30).

¹⁵ 이재윤, *op. cit.*, 153.

고 본다.¹⁶ 즉 각개 병사들이 개인적인 신앙고백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권이 약한 상태에서 집단적인 영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병훈련 과정 중 병사들은 심리적 불안도가 높아 명령이나 지침에 복종적이 되고, 감성의 영향을 받고 무비판적인 상황에서 집합적 행동으로 진중세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는 서둘러 양육이 제공되어야만 신자화될 수 있다. 획득된 새신자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은 ‘명목적 신자’로 남게 되거나, 관리가 안 되어 중국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¹⁷

2) 원격학습으로서 통신교육

작금에 정보통신공학이 발달하여 최첨단 디지털 환경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원격 통신교육 매체가 개발된 시대이다. 원격 통신교육의 시초는 1833년 스웨덴에서 서신을 통한 작곡 학습을 효시로 보기도 한다.¹⁸ 그 후 대규모 통신교육으로 1886년에 미국 무디성경연구소(Moody Bible Institute)에서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편학습을 실시하여 신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1920년대부터는 미국 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도권에서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1세대 원격교육’이라고 한다.¹⁹ 국내에서도 새신자 양육을 위한 통신교육을 일부 교단에서 실시해 본 경험이 있으나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

¹⁶ 전호진,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본 군진신학,” 『군선교신학』, *op. cit.*, 109.

¹⁷ 기독교의 진리를 모른 채 겉모양만 신자나 명목상 신자를 일컬어 Hanegraaff는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고 표현했다. Hank Hanegraaff, *Christianity in Crisis*, 김성웅 역, 『바벨탑에 갇힌 복음』(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339.

¹⁸ 남정권, 김종욱, 『원격교육 및 교수매체론』(서울: 강현출판사, 2013), 18.

¹⁹ *Ibid.*, 20. 원격교육의 제1세대는 우편을 통한 교육, 제2세대는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제3세대는 정보통신공학을 이용한 교육, 제4세대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육, 제5세대는 웹과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으로 나눈다.

되어 곧 과거의 방법들은 실효성을 잃어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우편에서 다양한 통신전자 매체로, 통신전자 매체에서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에서 웹과 인공지능을 통한 방법 등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교육은 우편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자매체(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 전화, 위성통신 등)를 활용하는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 근래 통신교육은 ‘방송교육’, ‘평생교육’, ‘E-learning’, ‘개방학교’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들은 원격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세부적 개념이다. 이에 원격교육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다. 신세대 병사들은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로서 메시지가 영상으로 처리되어야 전달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설득과 감동을 받게 된다. 이들은 입대 전 이미 사회에서 상당 수준의 영상매체를 접해 보았고, 그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은 통신보안 및 기타 특수성으로 인해 컴퓨터 활용의 제약이 있고,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신앙교육이라 할지라도 통신전자 매체의 활용이 제한되어 매체의 이기(利器)와 그에 따른 유익을 얻기는 어렵다.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으로서 통신교육은 교수자-학습자 간 비접촉성 커뮤니케이션으로 교육자료(양육교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일반교육은 교수자의 통제에 의한 교육이지만, 원격교육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교재에 접근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며, 교수자-학습자 간 비실시간의 교육형태이다.

3) 세례자 양육방안으로서 통신교육의 이점

인쇄매체를 활용한 우편통신 교육은 다양한 방법의 원격교육 중 하위개념인 ‘통신교육’이라고 해야 한다.²⁰ 서신이나 인쇄매체 교환형식의 1세대 통신교육은 교수자-학습자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속도가 느린

²⁰ *Ibid.*, 19, 35. 이 교육방법이 실시되던 초기에 군대, 전쟁터, 잠수함, 등대, 광산, 형무소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근대적인 방법이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군 세례자 양육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통신교육은 비용 대비 교육효과가 크고, 학습자의 집중도가 높고, 교육기회와 대상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동이 통제된 집단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소집교육의 부담을 해소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²¹ 이런 장점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물리적 사유가 있는 이들에게 방송통신 교육을 통해 중등 및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²² 통신교육은 군종목사가 배치되지 않은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새신자 양육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서신을 통해 바른 신앙교육을 시도했던 것은 분명히 원격교육으로서 우편매체를 통한 통신교육이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통신교육을 통한 세례자 교육은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세례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진중세례를 받았거나, 비신자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거나, 세례를 받고자 하는 병사들에게 교재를 통한 양육개념이다. 입대 전, 유아세례를 받은 병사들은 군인교회에서 입교식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앙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며, 이것에 대한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²¹ Donald W. Hadley & Gerald T. Richards는 군생활의 불규칙성 때문에 소집형태의 신앙교육과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미군이나 한국군 선교에서 동일한 문제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Hadley & Richards, *op. cit.*, 163.

²² 북한에서도 2010년부터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노동자들에게 원격교육을 시키고 있다.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은 이미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2015년 4월부터 원격교육대학을 시작한다. 연합뉴스TV 2015년 2월 27일, 연합뉴스 2014년 12월 4일자.

비가 없다.²³ 통신교육이 새롭거나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군선교에서 양육방안으로 논의되었거나 활용해 본 적은 없었다. 통신교육은 통제사회에 거하는 병사들로 하여금 외부와 소통함으로써 통제구조를 심리적으로 탈피해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들은 ‘집단생활 양식’이라는 심리적 특징으로 인해 생활관에서 다수의 병사들이 통신교육에 참여할 때 참여자들 간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통신교육이 보편화되면 그러한 학습분위기를 통해 전도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4. 통신교육 교재의 내용과 구조

미국 George Barna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새신자들이 교회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볼 때 가장 높은 기대치는 1위가 기독교 교리이며, 2위가 양육과 돌봄이었다.²⁴ 이러한 조사결과가 미국의 상황이고 민간교회 새신자의 인식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또는 군인교회, 신세대 병사라 하여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는 군 상황에서 교리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군인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는 교파연합적인 의미에서 주요 공통교리만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상수는 세례교인이 알아야 할 기본교리로서 (1)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2)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죄 (3) 예수의 사역과 구원 (4)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5) 지상교회와 성도의 교회생활 (6)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

²³ Martin Luther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새 힘을 얻고자 했다. Laurence H. Stookey, *Baptism: Christ's Act in the Church*, 김운용 역. 『하늘이 주신 선물, 세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108. 재인용.

²⁴ Gerge Barna, “More than Twenty Million Churched Adults Actively Involved in Spiritual Growth Efforts,” *Barna Research Online*, www.barna.org (May, 9, 2000): 1.

림 (7) 세례와 성찬예식 (8) 성경교육과 선교사업 등을 제시했다.²⁵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서 발간한〈세례문답집〉에 의하면, (1) 교회와 예배 (2) 인간과 죄 (3) 복음과 신앙 (4) 가정과 사회 등을 세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제시했다.²⁶ 최석환은 군 세례자 교육내용으로 (1) 성경 (2) 인간 (3) 기도 (4) 믿음(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포함) (5) 입교(세례자의 행동지침 포함) (6) 성례 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⁷ 팩커(Packer)는 복음전도의 핵심 메시지에는 (1) 하나님 (2) 죄 (3) 예수 그리스도 (4) 믿음과 회개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⁸ 여기서 네 가지 주제라 하여 이것이 4주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선교연합회에서 군인신자 양육교재로 발간한 『좋은 군사』는 제1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 제2편 사도와 우리의 고백, 제3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제4편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제5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제6편 그리스도인의 병영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52개 세부주제를 다루었다.²⁹ 종합해 볼 때 군에서 새신자 양육을 위한 통신교육 내용은 (1) 하나님 (2) 인간 (3) 예수님 (4) 성령 (5) 성경 (6) 기도 (7) 교회 (8) 예배 (9) 교회생활 (10) 크리스천의 군생활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내용은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무난하나, 1편을 교리편, 2편을 생활편으로 하여 각각 10가지 주제를 다루어 확장할 수도 있다. 이는 예산과 맞물려 있으므로 군선교연합회에서 집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²⁵ 한상수, 『세례교인이 알아야 할 기독교의 기본진리』 (서울: 쿰란출판사, 2003), 28-211.

²⁶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 『세례문답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9-15.

²⁷ 최석환, *op. cit.*, 247-258.

²⁸ James I. Packer,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조계광 역,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86-103.

²⁹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좋은 군사』 (서울: 쿰란출판사, 2004), 12-401.

병사들은 성경을 소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교재에 주제 관련 성경구절을 수록하여 문답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생각하며 답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선다형이나 논문형보다 서답형(supply type)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서답형 문항은 응답자로 하여금 답을 스스로 생성하도록 요구하는 점에서 '회상형 문항'이라고도 한다.³⁰ 통신교육을 통한 성경교육은 병사들에게 고차원적인 분석력, 추리력, 조직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쉬워야 하며 핵심내용만을 다루기 위해 서답형 문항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새신자는 성경 지식이 없고, 신앙연조가 짧아 성경을 여러 차례 읽는다고 해도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주제 관련 성경의 핵심내용에 반드시 설명 또는 주석이 첨부된 문답구조로 교재를 제작해야만 한다. 통상 시판되는 양육교재들은 이러한 구조의 책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신교육에서는 교재내용을 설명할 교사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학습자가 인쇄매체로써만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석적 설명이 없다면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이행했다 하여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습자로 하여금 답만 기록했을 뿐, 의미를 모르는 채 무지상태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

³⁰ 김진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동문사, 2006), 202.

예문

1.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 ‘공경’이라는 히브리어의 본래적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배우지 못했다고, 늙었다고, 소득이 없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항상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의 삶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를 형편없이 생각하는 것은 비신앙적 태도이며 불효로서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A4 용지를 4등분한 크기의 포켓용 소책자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는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량은 제작비용과 맞물려 있는데 대략 40페이지 정도면 적합하다. 1면에 1문제와 설명을 기재한다면 한 과정에 35문제 정도를 다루면서 내용을 숙지하게 된다. 교재에는 반드시 핵심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요절을 제시해야 한다. 암송은 성경말씀이 세례자의 인지에 강한 영향을 주고, 기억에 착상되어 핵심신념의 변화를 통해 말씀의 생활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교육심리학에서 효과적인 암송으로 제시되는 방법은 ‘음성화(visualization)’를 수반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성구를 소리내어 암송하도록 해야 하며, 음성적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치 크게 소리내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읽도록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³¹ 답지는 교재 뒷면에 두어 답안 및 질문사항, 자신의 결심을

³¹ 김희수, 『교육심리학』 (서울: 신정, 2010), 308.

기록한 후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답안에 대한 평가는 ‘최소 필수평가’(minimal essential test)로서 최소의 필수적인 학습목표가 성취된 정도만을 확인하는 방법의 평가가 좋다. 학습자의 학습목표 성취가 확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답이나 질문에 대해서 관리자가 친절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교재에는 교육목표, 해당 주제의 핵심내용 요약, 요절, 문답과 주석적 설명, 모범 기도문, 답지, 질문지 및 결심 기록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책자로 제작된 통신교육 교재는 이수 시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5. 통신교육의 관리

통신교육 관리자는 교재 수령, 보관, 배포를 비롯하여 교육, 답장, 독려, 평가, 시상 등을 관리해야 하며, 대대급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군 민간 성직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² 국방부 법령에 따라 군 민간 성직자를 선발, 교육하는 기관인 군선교연합회 부설 군선교교육원은 교육과정 중 “군선교학”, “군목회학” 과목에서 통신교육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군중조직을 활용하여 문서 수발 및 동료봉사 간 권면, 독려, 지지해 줄 수 있는 체제 형성이 필요하다. 제출된 답안에 대해서는 군 민간 성직자뿐 아니라 MCF 간부 등이 긍정적 평가와 아울러 수고에 대한 격려서신(또는 기도문)을 답장으로 보내주어야 한다.³³ 학습자의 인식에 통신교육이 일방적, 기계적,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갖

³² 국방부 훈령 제1338호(2011. 7. 22)에 따라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민간 성직자가 ‘군 민간 성직자’(교회 호칭으로 ‘군선교 교역자’)라는 명칭으로 군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 중 전담자는 약 380명에 이르며 군중장교 편제가 없는 부대(대대급)를 중심으로 활동하나 군중장교와 동일한 지위를 갖거나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훈령에 따르면, 이들은 원칙적으로 야전 중심이라기보다 시설 중심의 종교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³³ 새신자 양육이 목회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군중장교로서 군중목사는 병과 고유 업무인 종교활동, 교육 및 선도활동, 대민활동, 전시업무 등을 담당해야 하며, 세례자 양육에만 불균형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군 민간 성직자는 취시상 종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쌍방향 소통이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 민간 성직자나 MCF 간부의 격려서신을 자필로 송환(feedback)하면 병사들에게는 커다란 지지와 위로가 될 수 있다. 어느 집단에서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군대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연결망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폐쇄집단인 군에서 병사들이 외로움을 쉽게 극복하고 좌절이나 자살 등 대형사고는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입대와 동시에 사회적 지지관계가 차단되기 때문에 통신교육을 통해 이것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³⁴ 성공적인 학습결과를 창출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종교행사를 마친 후 주기적으로 간단한 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시상은 행동주의심리학의 주요기법인 보상과 강화를 활용한 방법이다.³⁵ 통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학습자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장차 행동확률을 증가시키는 강화방법으로서 시상은 중도탈락(dropout)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상은 대대급 교회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지역 군종목사단, 군선교연합회 지회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수료자가 발생하면 매월 1회, 늦어도 분기 1회 수료식을 갖고 시상하는 것이 좋다. 교육 중반기에 1차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수료 시에 수료증과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품을 수여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습자들에 대하여 유인(incentive)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상실되면 중도포기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상은 필요한 사항이다.

³⁴ Amy B. Adler, *Development Psychology*, 이정원 외, 『군 스트레스 심리학』(서울: 교문사, 2014), 74-75. cf. 김원대, “병 복무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효과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30(4)(2014): 29-55.

³⁵ James E. Mazur, *Learning & Behavior*, 이영애 외, 『학습심리학』(서울: 시그마프레스, 2013), 225.

근래 매체 발달로 인해 인터넷 또는 사이버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교육 콘텐츠 접속 여부, 접속시간을 점검할 수 있고 실시간 채점도 가능하지만 문서매체를 활용한 통신교육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통신교육은 당초부터 시간 제약 없이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때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화할 필요는 없다. 한 과정을 마치는 기간을 촉박하게 정할 필요는 없으나 전입 후 1-2개월 내 교재 1권을 실시해 본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거나 군생활에 적응이 되어버렸을 경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폐쇄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대에 적응할수록 병사들은 심리적 불안도가 낮아지고, 감성적 영향이 줄어들며, 비판 의식도 생기면서 양육을 위한 교육에 무관심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입 1-2개월 내에 군중조직을 통해 교재를 배포하며, 나태를 막기 위해 교재 수령 후, 1개월 내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재는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에서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선교연합회 명의로 발행하며, 군선교 파송교단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을 교재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교육의 공신력과 권위를 확립하고, 병사들의 심리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군인 교회의 세례자 교육 부재에 대한 민간교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세례자에게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발행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³⁶

³⁶ 수료증 수여자의 격이 높다고 인식되거나 남발이 우려된다면 지역군종목사단장 또는 군선교연합회 지회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6. 나가는 말

이 연구는 그간 제기되어 왔던 양육과정이 없는 진중세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진중세례를 통해 신자화된 병사에 대하여 대대급 부대에서 통신교육을 통해 세례신자를 양육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였다. 군선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양육 없는 진중세례를 일컬어 '세례의 남발', '값싼 은혜', '부실 신자의 양산', '세례받은 이방인 양산' 등 그것을 폄하하거나 비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연한 선교의 보고이며, 진중세례는 민족복음화의 토대로서 포기할 수 없는 선교적 가치가 있다.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시행되는 진중세례를 긴박한 특수상황 및 응급상황으로 이해하고 이 연구에서는 선 세례, 후 양육에 대한 성격적, 신학적 타당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그것을 근거로 후속적, 보충적, 양육적 사역으로 원격교육의 일환인 통신교육이 현실적으로 군 상황에서 적절한 양육방안임을 제안하였다. 이는 진중세례가 양육 없는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군종목사들의 신학적 갈등을 해소시키며 중반기에 접어든 '비전2020'의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세례자들의 신앙적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제안이었다.

원격교육으로서 통신교육은 군선교의 현실과 군의 보안성 유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세례신자 양육방안이 될 수 있다. 통신교육은 비용 대비 교육효과가 크고, 학습자의 집중도가 높고, 교육 기회와 대상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동이 통제된 집단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소집교육의 부담을 해소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통신교육 관리자는 대대급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군 민간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민간 성직자는 군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으므로 관리책임을 맡아 군종조직과 MCF 조직을 활용하여 통신교육 학습자인 세례신자들을 권면, 독려,

지지해 줄 수 있는 체제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지지 연결망 형성은 병사들로 하여금 좌절을 쉽게 극복하게 하고, 자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이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시,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와 내용, 집필 방향 및 제작과 관련된 예산 등은 군선교연합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창출해 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통신교육을 실시하면서 중도탈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는 추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문헌연구였으나,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실무자로서 사역하는 군종목사와 군 민간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세례자 양육방안으로서 통신교육에 대한 인식분석, 활용방안 등은 과제로 남겨둔다. 향후 그러한 주제의 질적, 양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그 분석결과와 이 연구가 어우러지면 세례신자 양육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al method of nurture for battalion baptists centering around a correspondence education course

This research is to clarify a practical method of nurture for battalion soldiers centering around a correspondence education program. A corner of military theology criticizes that military baptism without nurture is non-biblical and non-theological. The reason for this critique is that it is too over-issued. Most of military chaplains agree that baptizing soldiers is a shortcut to evangelize

them in Korean military. The main arguing point is not the baptism but the baptism without spiritual nurture. Accordingly, MEAK(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should offer an appropriate nurtural program about the baptism education to military chaplains. It is difficult for military chaplains to give the baptism through systematic spiritual nurture in battalion. Thus,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correspondence education course’ as a method of spiritual nurture in military. The researcher focuses on the necessity and merits of the ‘correspondence education course’ in this paper.

Also, the researcher presents the contents, structures,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correspondence education program’. In conclusion, because of a particular military atmosphere military chaplains should educate nurture battalion soldiers through the ‘correspondence education program.’

주제어(key words):

세례(Baptism), 양육(Nurture), 대대(Battalion), 통신교육(Correspondence education), 군목(Military chaplains)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 문화정책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Macroscopic Improvement Plans for the Invigoration of
Youth Vision Camps

- Centered on the Methodology of Cultural Policies -

■ 신중훈 Shin, Jong Hoon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역학 졸업
- 전주 전성교회 청소년부 전임전도사



1.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적과 동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전군의 복음화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실용적 정책노선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교회는 특수 목적 선교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연합회의 정책적 성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군선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거듭하도록 총회, 노회, 지교회, 가족, 개인 차원에서 인적·물질적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국방정책 및 시책이 바뀔 때마다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대외 공신력을 축적시켜 나갔다. 이러한 연합회의 일관된 군선교정책 운영은 전국 단위의 커뮤니케이션 역할 및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군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연합회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비전캠프(이하, 캠프)에 지속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참가자의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혹은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론적 현상은 군선교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사회 위기에 관한 원인 분석 결과와 연동되어 있다. 이를테면 청년실업, 가정불화, 저출산, 종교불신, 소득·교육 양극화, 남북한 대결국면 등 복합적인 독립변수의 내·외부효과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방법론적 차원에 ‘문화정책’(cultural policy) 이론을 도입하여 캠프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활성화’시켜 최적의 군복음화 및 무형전략화 강화를 모색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동향을 프로그램·정책적 측면에서 두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심리(김동연, 2010), 자살방지(박기영, 2006), 양육 프로그램(오희준, 2010), 세례자 양육(최석환, 2011), 장병 적성검사(김현택, 2007), 군목 후보생 인권교육(신종훈, 2013), 진중세례식·성찬식(강찬영, 2013), 군종정책(김정우, 2004), 여성군목제도(이광순, 2009), 선샤인캠페인(이종운, 2012), 비전캠프¹(유현, 2012), 돌봄프로그램(안남기, 2005), 군인교회 목회상담(김상만,

¹ 유사한 명칭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민간 단체인 연합회가 주관하는 ‘청년비전캠프’와 육군본부 군종감실에서 실시하는 ‘비전캠프’는 그 주체와 대상, 그리고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다. 예컨대 전자는 군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신앙관, 국가관을 지도하는 캠프인 반면, 후자는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이다.

2004) 등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인 대상으로 진행했던 캠프에 대한 정책적 연구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²

2)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먼저, 초창기부터 작년 2014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캠프에 관련된 교육자료 및 정책적 로드맵, 홍보 등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참석자의 인터뷰를 통해 기대효과 및 개선점을 진단하고 동시에 행사 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캠프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 향후 비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캠프의 한계점과 협조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였다. 끝으로 군대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어떻게 군선교 '문화정책'으로 접목시켜 미시적 논의까지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 방향성 및 전략적 정책모드를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전근대적 군대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창의적인 공감대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낮은 단계부터 촘촘히 자극시킬 수 있다. 둘째, 주최 측과 참가자가 함께 어울림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비영리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발현할 수 있다. 셋째, 이론학습과 체험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을 살려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차원에서 연합회, 국방부, 지교회, 문화재청, 대학사회를 연결하여 전방위적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군복음화의 중요성을 남녀 청년들이 미리 답습하여 자대 배치 후, 각 부대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² 제11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논문을 공모한 신중훈의 <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 과제>에서 2004-2013년까지 총 12편의 군선교신학 연구논문 주제를 정리한 결과, 장병교육-6건, 비전2020실천운동-12건, 상담/자살-11건, 군중제도-6건, 진중세례-11건이 있을 뿐 정작 '청년비전캠프'에 관한 정책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12) (서울: 콤파스출판사, 2014), 393.

2. 청년비전캠프의 종합적인 현주소

1) 참석률 및 관계자 인터뷰

이 캠프의 태동은 1998년 2월 23일 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 개설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캠프의 첫 행사는 “민족복음화의 비전과 전략, 올바른 신앙관 및 국가관 확립, 기독교청년들을 통한 60만 군복음화 실현”이란 목적으로 1999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제4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2015. 2. 26)>의 “일반 업무사항”에 관한 “청년비전캠프 실시현황”을 보면, 1999년 7월(1기생)부터 2014년 12월(64기생)까지 대략 1,233명 정도가 수료하였다. 참석률 변동에 있어 첫 기수생부터 31기생까지는 대략 40-50명의 평균치에 머물러 있었지만, 2009년 9월 32기생부터 2011년 10월 45기생까지 평균 6-9명 사이의 급감소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46기생부터 2014년 12월 64기생까지는 평균 2-3명 정도로까지 감소했다. 물론 2005년 2월 22기생 참석인원이 역대 최고인 115명까지 기록한 적도 있다. 캠프 일정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26기생까지는 거의 2박 3일 코스로 진행했지만, 이후부터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1박 2일 혹은 1일 코스로 긴축하였다. 이러한 통계상의 변동 폭과 스케줄 단축에 주목하면서 연합회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³

88서울올림픽과 한일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사로잡혔다. 그렇다 보니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청년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대치된 분단 국가이기에 국방의 의무와 기독교청년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를테면 군선교 차원에서 이들이 군 입대를 했을 경우,

³ 심충 인터뷰 대상은 김대덕 목사, 2015. 6. 24(수),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군선교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참고로 지면 관계상 인터뷰 핵심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원활한 전달과 기록을 위해 다소 간추려서 작성했음을 밝힌다.

지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각 부대에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인 민족복음화를 성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에 바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이러한 기독교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청년비전캠프는 연합회의 정책적 차원에서 기독교청년들을 훈련시킨다. 하지만 전략적인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 ‘대중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과거에는 2박 3일 동안 캠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적은 인원 수가 참석하다 보니 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오후 2-5시(180분)에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신학대학교, 지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 역시 청년비전캠프에 지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다.……이전에 청년비전캠프에 관한 연구논문이 없었다.……끝으로 ‘홈커밍데이’를 기획하여 서로 친교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이하 생략).

2) 프로그램 및 참석자 인터뷰

캠프가 2박 3일 코스로 진행될 때, 강의·영성훈련·특별간증·찬양 콘서트·기도회·투데이 투게더·파송예배 등 다양한 장르별로 참석자의 사명감과 영성 회복을 지원했다. 그리고 1일 코스(매월 둘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오후 2-5시)는 강의·군종목사 만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의 내용은 비전2020 교육영상·GOP 3일간의 기록·실제적인 군사역에 대한 부분·군 하나님의 사람과 군선교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 군종목사의 교육 갈무리 및 파송으로 최종 마무리가 된다. 추가로 현재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모델>에 있어 프로그램 사역은 * 군선교사 파송-본교회 청년 중 군 입대자 청년비전캠프/파송, * 군인신자 결연양육-출석교인이 되도록 양육, * 군세례(침례)신자 가족전도-VIP 가

족전도(관계전도), * 문화사역-찬양, 공연, 영상물, 간행물 배포 등이 있다.⁴

또한 2015년 2월, 캠프에 참석했던 남성 청년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⁵ 구술 내용은 본인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캠프의 강점과 미흡했던 점을 두루 설명해 주고 있다. 참고로 연합회 홈페이지를 보면 참가했던 청년들의 소감문이 있어 캠프의 강점을 엿볼 수 있다.

전도사님의 소개로 연합회의 청년비전캠프를 알게 되었다. 마침 군 입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군 입영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군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단체와 캠프는 처음 접해 본다.....많은 금급증과 기대감을 갖고 참석을 했다. 비록 하루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서울까지 상경하니 더 호기심이 발동되었다.....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했던 만큼의 기대감을 찾지 못했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딱 2명만이 참석을 했고,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니 캠프라기보다 일대일 상담 분위기였다. 또한 짧은 시간에 많은 교육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올라왔는데 교육받기에는 너무 거리상으로 멀었다. 그래도 현직 군대 목사님과 신경 써 주시는 간사님이 계셔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군복음화의 중요성과 왜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새롭게 알 수 있어 많은 은혜가 되었다.....2박 3일을 체계적으로 흥미있게 이끌어 주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참석해 돕고 싶다. 그리고 주변 후배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수 있겠다.....홍보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

⁴ 아주 특별한 선교 비전2020 홍보지를 참고.

⁵ 인터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무기명으로 작성됨을 알린다. 2015. 6. 25(목), 오후 9시경, 전주시내에서 인터뷰함.

다. 지방도시는 정보력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제 주변 자매들이 ROTC 부사관에 지원하여 직업군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에게도 청년비전캠프에서 큰 도전을 받고 군선교 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3) 한계점 및 협력강화

캠프 운영에 있어 한계점 및 협력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홍보 및 마케팅 부문의 '전문적 인력' 수급 확보
- 협력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
-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및 '부정적 선입견' 지배
-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 결여
- 대학사회, 지교회의 유기적인 홍보와 '업무협약'(MOU)체결 강화
- 연합회의 전략적 홍보 및 이미지 마케팅으로 청년캠프의 '대중화' 선언 강화
- 기수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 정착 강화
- 국내 16개 '지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군선교 회원 'ARS 후원' 적극 동참 강화

3. 문화정책의 기초

1) 문화정책의 특징

문화정책은 문화와 정책이 결합된 용어이다. '문화'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이란 수단과 방법으로 보편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도모하고 있다.⁶ 즉 문화의 가치를 획득·유지·부가·증대시키기 위해 정책의 주체

⁶ 정책(Policy)이란 첫째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둘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

가 의도하는 종합적인 생각·행동 대안을 문화정책이라고 한다.⁷ 문화 정책과 일반정책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문화·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여 부가가치, 소통가치, 고유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족·국가·지방·단체·집단·개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연결해 주는 기능적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소통가치는 정책 주체와 객체 간의 유화적 협력관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환경적 기반 조성을 실현한다. 이를테면 교육, 복지,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포용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내기도 한다.⁸ 물론 무형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위대한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란 도구를 빌려 그 가치가 더욱 상승되었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한편, 문화정책은 다양성과 융합적인 속성이 있기에 마치 오색 비빔밥처럼 광범위한 연관성으로 특수목적을 실현한다. 예컨대, 먹거리 문화 로컬 푸드, 미디어아트, 과학문화 프로그램, 과학박물관, 한지문화모던 등이 있으며, 재정적 결합까지도 '통섭'(通涉)이 가능하다. 전공 및 인적 자원도 문화인류학·사회학·건축학·미학·언론학·역사학·경영학·군사학·교육학·경제학 등을 상호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개발, 셋째는 공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넷째는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책학의 최종목표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분하게 실현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결정, 바람직한 정책집행, 바람직한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기현, 『정책분석론』(서울: 박영사, 2010), 4.

⁷ 이흥재, 『문화정책론』(서울: 박영사, 2014), 3.

⁸ 문화정책의 특징과 사회적 영성을 상호 교차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부상한다. 사회성·소통·변화·개인·공동체·삶의 질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영성을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한 개인과 함께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연대와 상호변화에 강조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영성이란 한 개인의 경험을 신앙 안에서 해석해냄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동시에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의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변화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질을 변화케 하는 상호적인 두 가지 축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했다. 김진호 외 13명, 『사회적 영성』(서울: 현암사, 2014), 176.

정책은 정책적 기반을 두고 있기에 상세한 정책적 논의에 앞서 우선 문화적 가치와 사회상을 동시에 주목하여 실효성 여부 및 기대효과를 폭넓게 가늠하지만, 문화행정⁹과는 달리 예측 가능한 미래지향적 측면이 농후하기에 중장기적 안목과 전문성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경영 기능’을 갖는다.

2) 문화정책의 기능과 역할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순기능은 인문학적 물음과 정책의지,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과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현안을 진단하고 검토하여 사회적 기여로 귀결된다. 이를테면 ①국위선양(National glory) ②지역개발 차원의 유도과 보상(Inducement and reward) ③욕구나 불만을 발산시키기 위한 위약(Placebo) ④국민의 계몽과 교육(Education) ⑤보상(Compensation) ⑥질서유지와 통제(order and control)가 있다.¹⁰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능은 사회변동의 주체인 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생명력·역동성을 제고(提高)하여 고품격 문화강국으로 진일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기도 한다.¹¹

⁹ 행정은 국가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민간 부분의 활동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목적은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 즉 행정이란 정부가 사회의 공공문제에 개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행정은 공공행정의 하나의 하위 영역이다. 따라서 행정의 개념정의를 이용하여 문화행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할 수 있다. 김정수, 『문화행정론』(서울: 집문당, 2006), 95.

¹⁰ 김광식, 『문화와 정책: 지난 시대를 회고하다』(서울: 시간의 물레, 2013), 177-179.

¹¹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사회복지(社會福祉):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시책을 말함. 현암사 법률팀, 『소법전』(서울: 현암사, 2009), 3-5.

아울러 역할론을 보면 첫째, 문화 관련 시설·단체나 기구들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공식적인 표준치를 만들어 보급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문화 지원 및 투자의 틈새를 보조하여 문화 향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자극시켜 거시적 맥락에서 사회발전 정책에 보조적 전략화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 등의 영향을 받는데, 문화정책은 문화적 접근기회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분배정책으로 문화적 복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¹² 셋째, 국방 분야에서는 혁신적 군대문화로 재도약하기 위한 신세대 병영생활 문화 연착륙, 군 장병 인권 및 복지보장, 평화론·통일관 교육,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확립, 군선교적 차원의 무형전력화¹³ 시너지 생산 등 종합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캠프의 성격·역할과 문화정책의 기능·역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대략 3가지 측면인 국민계몽, 질서유지, 욕구나 불안을 발산시키는 유약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국민계몽은 시민교육·기독교 교육을 통합시킨 이론학습으로 접근하여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국교회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의식화 교육을 도모한다. 둘째, 질서유지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국방의 의무 및 군복음화의 적극적 홍보, 왜곡·편향된 군선교 반론보도, 알권리 보장 확대, 중대형 이벤트, 맞춤형 상담서비스 홍보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욕구나 불안을 발산시키는 유약은 현장탐

¹² 이흥재, *op. cit.*, 13. 참고로 문화정책은 문화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국이 예술 부문을 정책의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 우수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국민들에게 고루 제공해야 하는데도 비영리 문화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¹³ 무형전력화는 통합전력으로 묶어 주는 특성을 가진다. 첫째, 정신전력은 조직화된 의지력이다. 둘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전력이다. 셋째, 군 전투력 강약의 좌우이다. 특히 종교적 신념은 민족주의적 내재성이 함의되어 있어 정신 전력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김창주 외 3명, 『병영문화와 인권친화 리더십』(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161.

방 실시, 특정 인물과의 만남 성사로 일정 부분 극복이 가능하다. 즉 욕구와 불안 해소는 밀폐된 공간보다 다양한 현장과의 마주침으로 시작된다.

결국 위와 같은 군선교적 문화정책의 ‘긍정적’(복음의 생명력·역동성은 한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음) 영향력 및 실효성 여부는 영국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가 1920년에 출간한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처음 사용한 외부효과(external effect),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 제3자효과(third-party effect)로 발현된다.¹⁴ 즉 어떤 행동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혜택 혹은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그 어떤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3) 문화정책의 접근방법

본고는 향후 전략적 캠프운영을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차원에서 문화교육(시민/기독교 교육), 문화탐방(방문/인터뷰), 문화언론(홍보), 문화경영(TF팀·마케팅)을 결합한 ‘융합적’ 접근법으로 적용한다. 캠프의 최종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대상과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또한 이 캠프를 책임·지원·관리하는 연합회는 캠프 주최 측과의 갈등과 혼선을 최대한 좁혀 나가는 선순환적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각 영역 간의 이견차이로 갈등·분쟁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상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군복음화를 위한 연합회의 유기적인 접근 기본체계이다. 캠프는 연합회의 전적인 지원하에 총 4개의 각 문화영역별로 2박 3일간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문화언론(홍보)·문화경영

¹⁴ 최병모·이수진, 『코즈가 들려주는 외부효과 이야기』 (서울: 자음과모음, 2011), 20-24.

(TF/마케팅) 영역은 연합회와 캠프 측의 실무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및 지속적인 투자로써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비 전	“비전2020운동” 【전군의 군복음화】
------------	------------------------------

↑↑(선언문 낭독·파송)

<p>【참가 대상자】 : 군 입대 전 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음화 사명감(자발성) • 남성 청년(병사/장교/부사관) • 소수정예 인원 • 여성 참여 확대(장교/부사관 후보생)

↑↑(교육·양육지원)

<p>문화교육 (시민·기독교 교육)</p>	<p>문화탐방 (현지 방문)</p>	<p>문화여론 (홍보)</p>	<p>문화경영 (TF/마케팅)</p>
--	--------------------------------	-----------------------------	---------------------------------

주진전략	【청년비전캠프(2박 3일)】 : 기획/담당
-------------	--------------------------------

↑↑(인적자원·재정지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 책임/지원/관리자
--

〈표-1〉 접근기본체계

4. 문화정책으로써 활성화 개선방안

1) 군복을 입은 시민·기독교 교육의 문화교육

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결정권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습득 및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실천적 행위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시민의 '문제의식 함양'이란 이론적 학습과 현장 중심의 직접 참여로써 사회·정치적 현안의 문제 해법을 찾는 데 바로미터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 탁상공론에 함몰되지 않고 거시적·미시적 '실천'가능성의 여부를 촘촘히 따져 변혁적 준거의 원칙에 집중한다.¹⁵ 물론 헌법의 기본권, 군대윤리, 분단시대의 안보관, 평화통일론,¹⁶ 현장방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은 크게 공공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로 구분되어 있다. 공공교육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지만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직체는 보수주의, 중도노선, 진보주의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근간으로 자신들만의 가치지향성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연합회의 설립목적¹⁷과 취지,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을 반추할 때 후자의 요건에 따라 전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논의하기보다 특정 종교적 색채를 띤 특수성을 우선 고려한다.¹⁸ 즉 합법적 비영리조직(Non-Profit-Organization: NPO)으로써

¹⁵ '시민교육'의 정의, 특히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해석도 다양한데, 크게 6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에의 충성 2. 모범적 행동 3. 꼬마 사회과학자 4. 사회비판 5. 사회재건 6. 사회실천이 제시된다. 하지만 시민성을 개념화 혹은 정의할 때, 사회과학 비판자들의 일관된 입장은 '애국심'이나 '모범적 행동' 범위에 관해 상당히 회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전유물로 인식한다. 허영식·신두철, 『민주시민 교육 핸드북』(서울: 오름, 2007), 25-27.

¹⁶ 연합회 차원에서 통일부, 통일연구소, 대학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는 2014년 한 해 송실대(3.28), 동아대(5.29), 방송대(5.29), 공군사관학교(7.29), 서울대(11.24)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에서의 통일강좌 개설 등 다양한 통일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통일부, 『2015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편찬, 2015), 199.

¹⁷ 교회, 단체, 가족, 개인을 대상으로 정기 후원과 진중교회당 건축, 진중세례, 장병 위문 등 목적사업 후원회의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한국군종목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교정책을 선명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12)의 커버스토리에서 참고.

¹⁸ 종교적 특수성은 개인구원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일부 공헌할 수도 있지만, 반면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한 민족복음화를 지향한다.

한편 기독교 세계관(성서학, 기독교 사회윤리학 측면)을 근간으로 조명한 미·소 냉전체제 이후 분단시대의 상흔, 남남갈등, 반공주의, 국가보안법, 색깔논쟁, 전쟁론, 평화주의, 체제비용, 안보의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예컨대 과연 성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쟁론이란 무엇이며,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평화주의 혹은 반공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계신다면 어떤 최적의 선택과 솔루션을 제시했을까? 등의 심층토론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공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 강사를 섭외한 후 『군선교신학 1-12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정착시킬 수도 있다. 또한 신학대학교 내 군선교의 확산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예장통합), 총신대학교(예장합동),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기장), 서울신학대학교(기성), 감리교신학대학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독립), 한세대학교(기하), 침례신학대학교, 이화여대 연합신학대학원(독립) 등 업무협약(MOU)을 맺어 지원·확대를 구축한다.

2) 문화탐방 네트워크 구축

위의 언급처럼 문화정책은 한 사회가 스스로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그 목적을 찾아 스스로 탈바꿈해 가는 힘(self-guiding capacity)이다.¹⁹ 즉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면 그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변화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반 사회문화와 군대 문화의 특수성을 비교 검토한다. 만약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중적 양면성을 갖고 있다. 김종서는 『종교사회학』(2010)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결국 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통합된 사회의 상징적 표현, 즉 결과이다. 다만 결과로서의 종교는 다시 순환적으로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다.

¹⁹ 이홍재, 『문화정책론』 *op. cit.*, 32.

가능한 정책이 안착된다면, 폐쇄적이고 고립된 군대문화를 새롭게 알리는 첫 단추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보공유와 현지탐방을 통해 기대 이상의 병영생활의 강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처럼 변화의 군선교적 개념은 성서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형상 곧 ‘인간 존엄성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친다.²⁰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 방법론을 구사해야 할 것인가? 우선 수도권 지역의 군부대를 직접 내방하여 충분한 상황보고를 경청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각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코스이다. 이를 위해 군종목사, 군종행정관, 군종병 인솔하에 군복음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목하도록 길동무의 역할을 한다. 또한 문화탐방지로 국립대전현충원, 천안독립기념관, 용산전쟁 박물관,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현지 가이드를 통해 전쟁관,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혹시 여성 부사관 후보생 내지 장교 후보생이 있다면 이젠 여성 군종목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군복음화의 역할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²¹ 그리고 문화탐방 후속 프로그램으로 각자가 생각했던 견해와 소감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여 자신만의 기독교 세계관을 사유하도록 지원한다.

20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인간의 보편적 평등과 존엄성은 생각했던 만큼 이행되지 않았다. 노예제도, 십자군 원정, 식민주의, 가부장적 여성 억압에 대한 인권차별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웃관계는 예수의 가르침 이후 후대를 거쳐 이제야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종은, 『평등, 자유, 권리: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묻다』(서울: 책세상, 2011), 69.

21 국방부는 “기독교는 2015년 획득인원이 적어 여성 군종장교간 선발할 예정이다”라며 “우수한 군종장교 충원 및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군에 진입한 11개 기독교 교단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성적순으로 2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년 7월 1일 임관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1개 교단에 공문을 발송해 2015년도 초입 군종장교로 기독교 2명, 천주교 15명, 불교 11명 등 총 28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기독교 2명, 불교 1명은 여성으로 선발한다. <기독교공보>, “국방부, 2015년 여성 군종목사 2명 선발”, 2014. 12. 22일자, (검색일: 2015. 6. 9).

다음으로 군중목사가 아니더라도 예편한 원로급 장교, 부사관, 병사 중에서 군복음화에 큰 공헌을 했던 생존자가 있다면 직접 내방하여 그 당시의 시대상과 복음의 열정을 인터뷰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마치 인간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라도 주목할 대목이며, 특히 생존자 육성 녹음과 영상은 향후 '구술사 연구'²²에 큰 보탬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역사적 인물을 찾아 한국 교회사 발자취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즉 기술적 가치와 순수 의미 가치가 결합된 창의적 부가가치로써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3) 홍보·마케팅 전략 차원의 문화언론(경영)

홍보 전략을 보면 그 조직의 거시적 맥락과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 그렇다고 허위나 과장도 아니라고 본다. “홍보는 정치, 경영, 행정으로 쉽게 풀지 못하는 조직의 거시적 표상을 만들어 주고 있다. 동시에 통합적, 포괄적,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홍보는 조직의 생존권과 경쟁력에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다.”²³ 홍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만족 욕구와 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수렴해야 하며, 또한 그 대상과 방법론, 목표가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홍보는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로 하기에 유리한 정보만을 여과 없이 전승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수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알 권리(right to access: 액세스권)가 보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⁴

²² 구술사 연구사업단은 2009-2019년 10년 프로젝트로 해방 후 한국의 변화를 구술로 담아내 체계화하고 있다. 정당정치, 군, 경제외교, 내면 동력(종교)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종교는 한신대가 맡고 있다. 사업단은 2단계로 안재웅·임명진 목사 등 9명을, 3단계로 기독교인 12명을 인터뷰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구술사로 본 기독교인들의 민주화운동”, 2011. 10. 10일자, (검색일: 2015. 6.9).

²³ 박진용, 『언론과 홍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72-173. 저자는 홍보는 조직이나 개인의 성격, 주변환경, 목표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다. 대략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조직 안보, 둘째는 호의와 호감의 획득, 셋째는 정책과 주장의 관철이라고 했다.

²⁴ ‘액세스권’이란 접근하는 권리인데,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예컨대 재판청구권

한편 미국 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AMA)는 마케팅을 “개인과 조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의 개념화, 가격, 촉진, 유통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²⁵ 특히 해당 부분에 있어 ‘사회적 마케팅’은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책임 있는 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적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문제의 해결책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영리 사회 마케팅은 사회 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인 것이다.

물론 연합회에도 전략적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전군의 군복음화’란 거대담론을 내세워 방송미디어, 교계신문, 전단지 배포, 위문공연, 전방부대 방문 등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단총회, 지역별 노회, 지교회, 가족, 개인 후원금으로 사회적 마케팅을 책임성 있게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의 수요 공급선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혹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과학적 통계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캠프 실시 전후 관계를 따져 참석자의 만족도, 기대효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MEAK 드림콘서트·군선교 한마당·UCC·웹툰 공모전(온라인 이벤트) 등의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비중을 확대하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한다. 따라서 구태의연한 주입식 정보 공유 내지 비공감적인 프로그램 제시보다 고객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창의적 문화정책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래의 내용은 연합회가 향후 캠프의 중장기적 혁신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논의해 볼만한 제안이다.

은 법원에 대한 액세스권을 말하고, 정부정보 액세스권이란 정부정보의 공개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알 권리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액세스권이란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알 권리, 동시에 정보 수용자인 일반국민이 정보 발신자인 매스미디어에 대한 알 권리, 동시에 자기의 의견 발표의 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서울: 남출판사, 2009), 87.

²⁵ 김영옥, 『비영리 커뮤니케이션』(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84.

- ‘브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이름’으로 캠프 명칭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²⁶
- 행사를 몇 개월 두고 포스터, 영상 홍보 전략보다 고 3 겨울방학 부터 이미지 광고 전략을 전개한다.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연합회’라는 브랜드 이름을 유지하도록 한다. 즉 증장기적 차별화된 관심 마케팅의 일환이다.²⁷
- 홍보 전단지 디자인 역시 변화를 추구하여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풍성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삽입한다. 원론적 군복무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킨 나머지 뜻밖의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 중심주의’ 차원에서 캠프 접수자 한 해 각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구사한다.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취한다.

4) 현장밀착형 TF팀 구상의 문화경영

지역별 각 노회, 지교회, 대학교 기독교동아리, 신학대학교 등을 향후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로 삼아 연합회가 추진 중에 있는 캠프를 적극 홍보한다. 기존의 홍보 방식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소속된 책임자, 실무자를 접촉하여 항구적인 협력관계를 도출해 낸다. 이러한 접근법의 가능성 여부는 서울을 정점으로 7대 광역시, 시도별로 각 지회가 이미

²⁶ 광고 문구는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지지만 그 내용은 무한 반복되기에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짧더라도 광고 문구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뛰어난 슬로건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이키-Just do it, 소니-Think one and only, 삼성-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합니다, 두산-전통 100년, 도전 100년, 애플-Think different 등이 있다. 김종배, 『경영법칙』 (서울: 마인드랩, 2014), 383.

²⁷ 미국 시카고 대학 입시 홍보 전략을 참고하더라도 학교 측은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친근감 있게 홍보한다. 그 결과 최종 대학 선택을 시카고 대학으로 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2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치 대학에 간 친구가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캠퍼스 생활에 대해 허물 없고 정이 넘치는 한 통의 엽서를 보낸 것과 같다. 데이비드 커프 지음, 전재아 역, 『대학 혁신,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미국 일류대학의 숨겨진 경영 전략』 (서울: 지식의 날개, 2007), 34.

설치되어 있어 서울 경기지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타 지방도시에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던 먼저 찾아가는 홍보 TF팀을 구성한다.

본격적인 구상과 추진에 있어 참고할 사안은 우선 연중행사로 볼 때, 노회 차원의 행사와 지교회의 청년주일, 그리고 대학축제(대동제) 혹은 기독교동아리 자체 모임이나 신학대학교 임원수련회 일정이 잡혀 있다. 과거의 행사 규모나 성격을 반추해 보더라도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와는 거의 무관한 의제만을 펼쳐놓고 외부 특강으로 끝나는 게 다반사였다. 다시 말해, 복잡하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현장 속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슈 선점 및 방법론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군 입대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대학교 2-3학년이 되어 국방의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과연 기독교청년들이 군대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수긍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과 군대문화의 특유성을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경청할 기회가 거의 없다.²⁸ 설령 정보가 있더라도 군 경험자의 영웅담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편향된 인식만을 제공할 뿐이다.²⁹ 따라서 연합회 및 각 지역별 지회는 이젠 과거의 행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획기적이고 현장밀

28 오히려 2014년 4월 7일 발생한 27사단 윤 모 일병 사망사건을 필두로 6월 21일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및 같은 부대에서 한 달 후에 발생한 신 모 일병의 자살사건 등은 그동안 내연하고 있던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활화산처럼 사회의 표면으로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사고는 곧 군입대자 및 그 부모들에게도 군에 대한 불신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국방부는 민·관·군을 망라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 3개년 계획안을 마련,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문제 개선과 군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위철환, 『2014 인권보고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5), 383.

29 그럼에도 제도적 폭력이나 피해에 반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 주의조치를 취하거나 위협을 피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야간 외출을 삼가거나 자신의 자유와 이동성을 현격하게 줄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대신 범죄의 공포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윤호, 『피해자학』(서울: 박영사, 2007), 176-177.

착형 접근방법으로 기독교청년을 주목해야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TF 팀 인적 구성의 자격 및 역할을 제시한다.

- 청년사역의 경험 및 군중병(4311)으로 지원했던 자로 군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역자.
- 프리젠테이션(PT)을 디자인하고 동시에 능숙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사역자.
- 학원복음화협의회 및 기독교 동아리연합회의 실무자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역자.
- 군인교회 민간인 교역자와 연대하여 청년비전캠프, 군선교적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민간인 신분이기엔 지역교회 협력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리감 없이 수월하게 다가설 수 있다.
- 각 지역에는 과거 군선교 사역을 했던 군중목사, 군중병 교역자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공조를 통해 홍보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여성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군 입대를 준비하는 기독교여성들에게 군복음화에 있어 여성의 역할 및 동기부여를 꾀한다. 이를테면 ‘군대+복음=군복음화’라는 문법이 결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거나 성역이 아님을 계몽적 차원에서 접근한다.³⁰ 현재 2015년 기준으로 여성군인(장교, 부사관)은 1만 명을 돌파한 상태이다.³¹

³⁰ 군사문화의 특수성을 한상희 교수는 “반공주의의 이념과 애국주의의 정서가 복합된 형태의 징병체제는 전 사회적으로 반봉건적 ‘가부장제’와 힘의 논리에 입각한 권위주의가 상승적으로 복합된 군사문화가 통용되는 현실”이라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였다. 아울러 “군의 특수성은 군사법체계의 특수성뿐 아니라 군법의 입법과정의 특수성까지 비약될 수 있고 심지어 군과 민의 입법을 달리하자는 이원론적 법권(法圈)의 논의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는 비아냥까지 가능할 지경이다. 결국 이들의 논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허사의 연속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다. 위철환, *Ibid.*, 385, 재인용.

³¹ 2010년 6,598명이던 여군은 2012년 8,354여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4년 6월까지 9,228명이 복무 중이다. 3년 6개월 만에 39.8%(2,630명)나 증가했다. 전체 병력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15%), 프랑스(13%), 영국(9%), 네덜란드(8.5%), 독일(5.4%)에 비해 여군의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2020년이면 전체 인력

5. 나가는 말

청년들의 정서적 문화적 코드를 맞추기 위해 도입된 문화정책은 인간의 내면적인 성격과 기질, 특성을 인문학적 시·공간에서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도록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물음을 제시한다. 이는 관념적 이거나 추상적인 수사학이 아닌 자신의 실존과 더불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할 것인가에 심층적인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란?”, “국가와 종교는 무엇인가?”, “전쟁과 평화란?”, “진정한 행복과 희망 찾기란?”, “전통과 현대의 미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문화정책의 강점은 실제적이고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최적의 군선교적 공감대하에서 조성된다.

연합회는 전군의 복음화 정착을 위해 내부 결속력 강화 및 협력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개선과 혁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앞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에 상응한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든지 투입하겠다는 연합회의 일관된 정책기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는 전방지역 부대 위문공연, 군종목사·군종부사관·군종병 입체교육, 군인교회 및 부속시설 보수공사·신축, 자살방지·상담 프로그램, 청년비전캠프, 군인자녀캠프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로 정책수립의 평가 및 성과물에 있어 전군의 ‘복음화 확산’과 ‘무형전력화 강화’에 두루 일조하였다.

하지만 만약 연합회가 과거의 행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시적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거시적 맥락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민하게 읽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발전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러한 연합회의 구태의연한 군선교 마

대비 여군 비율이 장교의 7%, 부사관의 5%를 넘어서는 1만 2,10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이태일리, “여군 1만 시대의 그늘, 출산·육아·성차별로 고통”, 2014. 9. 15일자, (검색일: 2015. 6. 12).

인드와 정책결정에 흔쾌히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정책구상 및 의사소통구조 재편, 그리고 획기적인 군선교 마인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상기한다.

나는 이 캠프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정책’(cultural policy)이란 인문·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소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탄력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다. 즉 군 입대 전 전국단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홍보·마케팅 전략 그리고 문화탐방, 문화교육을 도입시켜 기대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합회·캠프 관계자는 행사 이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출구전략을 구사하여 보다 내실 있는 커리큘럼 정착화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Abstract

Korean society entered into democratic society through rapid industrial society in division which has intrinsic scar and tension, Korean churches which experienced rough changed period directly and indirectly also achieved quantitative revival growth. Above all, MEAK is called ‘special missionary work’ and its appearance, role and function affected as a big help in a military missionary work which is a rich fishing ground, Now, it plans sustainable military missionary work strategies as a new paradigm idea. Among them, it notices ‘Youth Vision Camp’ which is proceeding for youths.

Its character is that christian youths learn a view of faith and nation harmoniously, then it provides motivation to be a foundation

for military evangelization. Although it is an one-day program, it is useful education to remind specificity of army and missionary calling of gospel. Meanwhile, many youths who went through this program struggled to build the kingdom of God. For this, MEAK established spiritual base camp to support christian youths.

But korean military didn't win confidence from people because of suicide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assault accidents, defence industry corruption, etc. These overall crisis m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Youth Vision Camps decrease. In this situation, MEAK doesn't seems to find active and effective exit strategies and seems to be at a standstill. In other words, it seems to recur past successful cases neither innovation nor improvement. Like someone's opinion, if innovation and improvement are not a choice but survival, MEAK should set prompt communication relationship and take the bull by the horns smoothly.

Thus this manuscript wants to solve a clue to the problem applying 'cultural policy' which is human-social-scientific policy discourse with empirical tradition. First, it is 'cultural education' of civil and christian world view. second, it is 'culture visit' of museums, memorial halls, universities, centers. Third, it is 'culture media' of anticipative custom-made promotion. Fourth, it is 'culture management' of field closely TF team and creative marketing strategy.

주제어(Key words):

문화정책(Cultural policy),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알 권리(Right to access),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 view), 청년비전캠프(Youth Vision Camp),
군복음화(Military evangelization)

외상 상황(Traumatic Situation) 하에서의 군중상담 연구¹

- 의무사령부 CPE(임상목회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석원 Jeon, Seok Weon

- 군중 70기
- 삼척근덕교회 부목사

■ 류호준 Ryu, Ho Jun

- 군중 72기
- 국군대구병원 군중목사

■ 한민영 Han, Min Young

- 군중 72기
- 국군홍천병원 군중목사



¹ 이 논문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진행된 의무사령부 군중목사 임상목회교육, 즉 CPE(Clinical Pastoral Educaiton) 1st UNIT에서 다뤄진 경우와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며, 2015년 3월 31일 의무사령부에서 발표한 군중분야 PTSD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투고한 논문임을 밝힘. 본 연구에서 인용문으로 소개되는 모든 대화 및 사례는 의무사령부 임상목회교육에서 다뤄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비밀보장과 연구 분석을 위해 대화의 일부는 생략 및 익명 처리되었음.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폭력적 상황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에 노출된다.² 특히나 한국은 대만과 이스라엘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로 남아있으며, 더구나 한반도의 지역적 긴장도와 군사적 상황의 잠재성은 세계 어느 지역의 상황과도 비교가 불가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20대 청년의 대다수는 자신의 의지나 이전의 사회 경험, 정신-심리적 상태를 불문하고 자신이 익숙하던 공간과는 이질적인 전투 현장의 환경에 처해진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 중 장병들은 전투와 같은 극한 경험과, 그것은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와는 다른 통제적이고, 수직적이며, 고립된 복무환경 속에서 위협적 이거나 공포를 느끼는 외상(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입대 후에 적지 않은 군인들이 예기치 않은 동료의 자살이나 사고(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후에 강력한 기억으로 남은 신체적 손상을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따라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외상 상황’(Traumatic Situation),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에 대한 연구 역시 군대라는 공간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상 상황 및 외상 상황의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사를 보면, 신체적인 상해가 없었음에도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제1,2차 세계대전, 그리고 월남전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 PTSD 연구의 효

² Emily J. Ozer,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2003), 52-71.

시가 되었으며,³ 현재 한국에서는 월남전 파병 용사와 천안함 사건, 기타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정신과적 연구가 몇 차례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⁴ 점차적으로 전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발전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외상 상황 연구의 발전상과는 달리, 실제 부대 혹은 군 의료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과 장병 안정을 담당하는 군중상담자-군종목사 및 군 민간 성직자-들이 외상 상황을 이해하는 토대와 그 접근법은 연구된 바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군대 안에서 마주치는 현재, 미래의 삶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해의 상황을 외상 상황(Traumatic Situation)이라고 정의하였고,⁵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종 분야에서 외상 상황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PTSD를 상담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실제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각 병원 군종목사들이 약 6개월간 외상 상황 혹은 그것에 근접하는 상황을 경험한 장병 환자들과 진행한 상담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한 의무사령부 임상목회교육, CPE 세미나 1st Unit에

³ Helweg-Larsen, Per, et al. "Famine disease in German concentration camps; complications and sequels, with special reference to tuberculosis, mental disorders and social consequences." *Acta psychiatrica et neurologica Scandinavica, Supplementum* (83)(1952), 1; John O. Lipkin, "Vietnam veteran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ic Services* 33(11)(1982), 908-912; Bessel Van der Kolk, "Inescapable shock, neurotransmitters, and addiction to trauma: toward a psychobiology of post traumatic stress." *Biological Psychiatry* 20(3)(1985), 314-325.

⁴ 김민경,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자 연구: 정신적 후유 실태 및 스트레스 대처와 통제소재". 『한국심리학회지』 30 (2) (2011), 571-585; 김선현 외, "군 외상 후 스트레스 의료지원 사례 연구" 『제7회 국방기술 학술대회(상) 발표자료』 (3-1) (2011), 192; 우덕구 외, "월남전 참전 재향군인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기억기능에 미치는 영향" 『정신신체의학』 6(2)(1998), 136-146; 장재현, 이기학, "외상 경험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과 회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2013), 1145-1164.

⁵ 김선현 외, *op. cit.*, 192; 최수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핵심심념 붕괴, 대처방식, 리질리언스의 구조적 관계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5 (2) (2014), 302-303.

서 다뤄진 수백 개의 실제 사례들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특히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 적용 가능성'의 대과제를 설정하여, 실제 상담 사례 중 외상 상황에 근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내담자에게서는 감정의 문제와 반응 분석, 그리고 변화상에 집중하였고, 이를 이끌어내는 목사, 즉 상담자의 역할과의 관계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우선 일반상담과 외상 상황에서의 상담의 차이를 선제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외상 상황 상담의 본론에 들어가서는 상담의 단계를 사전 준비, 도입, 전개, 발전, 종결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유의할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종합하며, 외상 상담에 있어서의 군중상담의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언을 함으로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6개월간 병원 군중목사들이 진행한 상담, 특히 의무사령부 CPE에서 다룬 모든 경우들이 기술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외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 상해로 인해 개인의 안녕이 저해되고 정상적인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외상 상황으로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로 본 연구의 의의와 근거를 폭넓게 유지하려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는 외상 상황의 환자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군 병원 군중목사들의 상담 전문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넓게는 야전 전 부대의 군중목사와 군 민간 성직자 등의 군중상담자들의 외상 상황 인식과 상담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외상 상황과 외상 상황하의 상담의 특성

협소하게는 이 연구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외상 상황에서의 원만한 상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담 상황과 외상 상황에서 이뤄지는 상담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래 외상 상황

(traumatic situation)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준 상황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트라우마(trauma)를 뜻한다.⁶ 트라우마는 전쟁, 사고, 부상, 폭행 등의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반응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일회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인 폭행이나 왕따같이 반복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복합적인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⁷

트라우마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외상 상황의 잔상이 떠오르면서 그 당시 겪었던 감정(공포심,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의 재경험, 외상 상황을 자극할 수 있는 이미지나 상황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면서 경험하는 고립감, 정신적 마비상태 등이 있다. 외상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지나친 경계심, 초조함,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충동 조절 장애, 공격적 성향, 우울증,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을 경험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리 현상⁸이나 공황발작, 환청, 지각 이상 증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⁹

결국 이와 같은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외상 상황하의 상담과 일반 상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실사례들을 볼 때, 외상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내담자는 일반적인 내담자에 비하여 예민하고, 우울감이 크며, 죄책감, 충동 조절 장애, 공격적 성향 등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일반상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만

⁶ 장재현, *이기학*, *op. cit.*, 1146-1148.

⁷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다양한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Carolyn M. Aldwin,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Guilford Press: New York, 2007)을 참고

⁸ 해리성 장애(Dissociative disorders): 통합적인 기능(의식, 기억, 정체감, 환경에 대한 지각 등)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상태, 해리성 기억상실, 해리성 둔주,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인성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SM-IV)』, 이근후 외 14명 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5), 625.

⁹ *Ibid.*, 617-635 참조.

으로도 외상 상황을 경험한 내담자는 극도의 초조함, 죄책감, 우울감 등의 감정을 보이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따라서 외상 상황에서의 상담 시에는 상처입은 내담자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며, 특히 외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이미지, 느낌 등에 대한 매우 신중한 고려가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외상 상황을 경험한 내담자는 조그만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리나 상담자의 제스처 등 역시 내담자에게는 안정감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한다던가, 상담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하는 자극에 내담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내담자의 마음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비언어적 요소와 상담 외적 요소 역시도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외상 상황을 경험한 내담자는 타인을 경계하는 모습을 대체적으로 높게 보인다는 점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¹⁰ 따라서 내담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상처를 꺼내기느라 냉정한 말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등 대화를 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실제 군 병원 사례에서는 내담자가 상담 이전에 외상 상황과 관련되어 조사 또는 취조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상 상황하의 상담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라포를 기반으로 한 상담적, 영적 접근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감정의 직면을 도우며, 상황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상 상황하의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철저히 내담자가 경험했던 외상 상황과 현 상태를 고려한, 상담

¹⁰ 김태열, 장문선, “한국전쟁 참전 재향군인의 심리적 특성”, 『인문학논총』 14 (2) (2009), 201.

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보다 세심한 준비로 내담자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3. 외상 상황에서의 군중상담을 위한 준비과정(Setting)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외상 상황을 경험한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극과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를 보인다.¹¹ 따라서 내담자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그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외상 상황하의 상담은 세심한 준비과정을 통해 상담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담자의 상황과 정서, 상담 환경, 상담자로서의 준비 등의 전반적인 영역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군중상담자가 외상 상담을 앞두고 앞서 준비하고 구비할 부분을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내담자가 겪은 외상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내담자는 외상 사건을 겪었거나 특정사건을 목격한 후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내담자들이다. 따라서 내담자가 겪었던 외상 사건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을 경우, 상담 중 내담자에게 그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말을 언급하거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내담자가 상담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경우라면, 이것이 상담자를 극도로 불안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

다음은 CPE 중 상담을 진행하기 전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다.

¹¹ 예컨대, 총기사고에 의한 외상사건을 겪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 장소에 총기가 보인다거나, 무언가 폭발 또는 발포를 연상시키는 소리가 났을 때 극도로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의 경우 상담자의 언어나 제스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드러난다.

“○○○은 ……손가락 골절 외에도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엔 소화불량의 증세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트라우마 증상인데, 심리적인 긴장상태가 발생할 때, 과거의 충격적 사건이 심리 내부에서 재생되면서 극도의 긴장과 공황 상태로 발전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퇴원 후에도 긴급하게 행정보급관과 병원(과 교회)에도 두어 차례 방문했었다.”

위 사례의 상담자가 준비한 것과 같이 상담자는 상담 전 내담자가 경험한 외상 상황의 내용과 내담자의 건강 및 심리상태 등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하여 숙지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이미 내담자가 겪은 과거 치료 및 조사 과정에 대한 것이다.

2) 내담자는 지금까지 어떤 조사와 치료 과정을 겪었는가?

군중상담자가 인지할 것은, 특정한 외상 사건이 발생한 후 내담자가 외상 상황에 대해 처음 말하는 순간이 군중장교와의 상담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상 상황하에서의 군중상담을 위해 군중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사실상 이미 내담자가 사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목격자로서 지휘 계통에 따라 조사를 받고, 군 병원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내담자는 이전과 같은 중복된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 진행된 조사와 상담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 그리고 이로 인한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군중상담자의 언행이나 상담 방식에 따라, 자칫하면 조사를 받을 때의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상하도록 하는 사례 역시 존재하였다.

따라서 내담자와 상담하기 전, 그가 어떤 조사와 치료 과정을 겪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혹은

정보 파악 위주의 상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상담의 장소와 환경은 적절한가?

상담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내담자에게 주는 지대한 영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상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² 상담 장소는 내담자에게 편안함, 무엇보다 안전한 느낌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사무적인 분위기를 주는 곳이나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집무실보다는 아늑하고 정적인 분위기의 상담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아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개인 목회공간이 좋다. 상담 상황과 장소에 따라 초콜릿, 사탕 등의 간식과 따뜻한 차를 제공함으로써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것도 좋다. 또 내담자의 스트레스나 내상이 극심한 경우나 해당 외상 사건의 특수성 혹은 내담자의 선호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군복만이 아닌 편한 복장이나 양복을 입는 등의 상담자의 복장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격리된 공간에서 4명의 환자가 있다. 넓은 공간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한다. 책을 보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한다. 예배를 마친 후 이 환자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자, 옆에 있는 다른 환자 와 의무병에게 자리를 비켜주도록 요청하였다.”

위의 상담은 정신과 병동에 격리되어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장소를 확보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상담 상황에서도 많은 경우는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는 위의 사례처럼 조건 안에서 최대한으로 내담자와의 깊은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여 내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¹² 이광자, 『건강 상담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127

4) 내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한가? 아니면 1회적 만남인가?

일반적인 의료적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외상 상황에서의 상담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때에 더욱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군상담의 특성상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한 경우와 1회적 만남으로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 상담의 출발부터 종결까지의 상담 전반의 진행속도나 과정, 상담목표 등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의사여부와는 별도로 현 상황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가?

외상 상황하의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를 지지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외상 상황 자체와 그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직면 및 수용하도록 돕는 것에 전반적인 목적이 있다. 때문에 상담의 진행 전반은 내담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은 이와 동시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지니기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지의 자기 이해에 따라 상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상담자가 지나치게 주도하는 형태의 상담은 지양해야 하나, 반대로 목표가 결여된 상담은 때로 형식적이 되기 마련이며, 핵심적 문제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기 쉽다.¹³ 따라서 상담 전에, 상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상담자로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상담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¹⁴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던 ○○○이 퇴원하고 ○○부대에서 생활

¹³ *Ibid.*, 157.

¹⁴ 상담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담 전 설정한 목표는 상담이 진행되면서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

을 한다는 소식을 12월에 전해 들었다.……목표는 내담자의 문제와 감정을 읽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길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 지속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전략은 비밀보장에 대해서 언급, 언급하는 단어들, 내담자에게 갖는 의미 묻기, 목회자적 제언, 앞으로 해결되기 원하는 방법과 방향, 기도로 정했다.”

위의 인용문처럼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을 인식하며 상담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상담자로서의 목표와 이를 이루도록 하는 전략들을 미리 상기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상담자가 과도하게 내담자의 상황에 개입하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중상담자는 내담자가 정서적, 영적으로 안정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이지 결코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6) 내담자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군중상담의 핵심은 내담자에게 다른 상담의 영역이 제공할 수 없는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내담자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와 종교에 대한 내담자의 신앙심을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담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PTSD 기존 연구 사례들을 볼 때, 내담자가 겪는 스트레스는 단지 신체적, 정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깊숙이 침범한다.¹⁵ 실제로 군 병원뿐 아니라, 일반 야전부대에서조차 자신이 겪은 외상 상황이 개인의 일상적 생활 뿐 아니라, 종교 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익숙하게 관찰되는 부분이다. 따라

¹⁵ Brian J. Zinnbauer, “Working with the sacred: Four approaches to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2)(2000), 162.

서 내담자가 과거 기억, 현재의 상황, 그리고 자기 이해를 종교적·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수준은 군중상담자가 외상 상담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의 수준 등의 전략 역시도 상이해진다. 예를 들어, 교회나 목회자, 군중상담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영적인 언어나 복음의 내용, 성경말씀의 인용 등이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내담자가 매우 독실하며, 영적인 갈구가 있는 상태라면 좀 더 발전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담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7) 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가 군중상담을 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6가지의 요소가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상담의 방향이 쉽게 흔들리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점에서 상담자가 쉽게 무시하는 것 중 하나는, 상담자는 자기 에너지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중상담자는 때로 바쁜 일정 속에서 형식적이고, 일상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내담자와 만나는 모든 시간은 신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담자 개인이 내담자의 고통과 이야기를 들어주며, 또 내담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속도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상담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군중상담자는 상담에 임하는데 있어서 영적인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스스로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상담에 앞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함으로써 영적 돌봄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일반상담과 군중상담의 차별성은 일반상담이 내담자의 정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군중상담은 내담자의 정신적, 영적 상태에까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정신적, 영적 관심에서 세운 목표와 전략들은 군중상담의 고유한 강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중상담자는 상담 목표와 전략을 세울 시에 일반적인 상담적 목표뿐 아니라, 영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보다 세심한 상담을 도모해야 한다. 만약 군중상담자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군중 상담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4. 외상 상황 군중상담의 단계별 이해

위의 준비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서 상담에 들어갔을 때, 상담에서 보편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단계는 크게 4가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담을 시작하는 ‘도입’, 문제 상황으로 개입하는 ‘전개’, 문제 상황의 핵심에 도달하고, 그것을 다루며 내담자의 직면과 수용을 돕는 ‘발전, 제시 및 완화’, 그리고 상담을 마무리하고 안정화하여 상담을 마치는 ‘종결’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장에서는 각 단계의 핵심적 요소를 파악한 후 이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요소들과 상담의 진행에서의 유의점을 몇 가지의 키워드와 실제 상담에서 이뤄진 축어록의 인용문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1) 상담 도입

일반적 상담에서는 (지엽적 차원에서의) 상담의 성패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시작하는 초반 몇 분의 대화에 크게 좌우된다고 폭넓게

받아들여진다.¹⁶ 이는 크게는 군상담과 작게는 군중상담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적 상담이 아닌 극단적 고통, 안도, 자책, 그 밖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외상 상황에서의 상담의 특수성을 생각하면,¹⁷ 상담으로 도입하는 초반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죽음이나 정당한 살인의 문제, 공동생활과 위계질서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결부되는 군 안에서의 외상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담 초반의 분위기 조성과 라포 형성을 통해 내담자가 적절한 정신적·영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담 전체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상 상황하의 군상담을 무엇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상 상황에서의 군상담은 일반상담이나, 나아가 일반적 군상담에 비해 내담자가 가진 감정의 골이 깊고, 공동생활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며, 때로 강압·폭력적 구조에 노출되어 있기에, 내담자의 진솔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시기적절한 반응과 전략으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애도하며,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외상상담의 목표를 이루는 데 군중상담 도입의 단계에서 몇 가지 요소를 지키는 것은 큰 중요성을 지닌다.

(1)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축하라

상담자인 군중장교가 병원의 병실 혹은 목양실 등의 목회공간에서 내담자를 만난 상황을 돌아보라. 보통의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바로 같은 공간에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있긴

¹⁶ 이승욱, 「상처 떠나 보내기」(고양: 위즈덤하우스, 2011), 40-45; 권경인 외, “상담 성과가 낮은 내담자들의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상담학 연구』12(6)(2011), 1979-1986.

¹⁷ Dave Grossman, 『전투의 심리학』, 박수민 역 (파주: 열린책들, 2013), 441-528.

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군상담에서 상담을 시작하면서 맞닥뜨리는 이 문제는 이 상담이 내담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Client(고객, 의뢰인)와 Counselor(상담자)의 관계가 설정되는 일반상담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인 군중상담뿐 아니라, 외상 상황에서의 상담은 (군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내담자의 시각으로는 ‘부대에서 시켜서’ 혹은 ‘해야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담자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단답식의 혹은 대화를 회피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C1 : ○○아, 어서 와……응 거기 앉아.

P1 : 안녕하세요십니까, 목사님!(땅을 보고 말한다)

C2 : (중략) TV 뭐 재밌는 거 하고 있었어?

P2 : (눈은 마주치지 않고 과거를 응시한다) 그냥 뭐……한국영화 나오고 있었습시다. 재밌지는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계속 TV를 응시한다).

C3 : (영화에 대한 이야기. 중략)……너는 계속 병동에 있어서 심심했겠다.

P3 : (무미건조하게) 뭐 그냥……그랬습시다.¹⁸

이때 상담자가 기억할 것은 내담자가 대화나 상담을 거부하거나 머

¹⁸ 각 인용문에서 C는 Chaplain의 약자로 군중장교(군중상담자)를 의미하며, P는 Patient의 약자로 내담자를 일컫는다. C 혹은 P 뒤의 숫자는 해당 대화가 몇 번째 발화인지를 일컫는 것이다. 또 괄호 안의 내용은 비언어적 표현이나 P의 의도 등을 제시하는 지시문이다.

못거리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존중'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존중하는 것은 내담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담자의 당연한 역할이다. 더불어 이는 아래에서도 설명되는 내담자의 '비언어적 반응'의 일종으로,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을 불편하게 느끼거나 대화를 진행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라포가 형성되기까지는 일상적인 대화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공통점 혹은 '교집합'이 좋은 매개가 된다. 부대 이야기나 군생활 이야기뿐만 아니라(때로 이것은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게 느끼는 복무의 문제로 다시 들어옴으로써 상담의 진행을 막기도 한다), 영화, 음악, 스포츠, 건강, 연예인 등의 주제들도 좋은 계기를 줄 수 있다.¹⁹ 많은 경우 사소한 둘의 공통점이나 공동의 관심사, 경험 등이 대화의 깊이를 한 순간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

특히 여건과 조건이 충족될 때, 가장 좋은 고리가 되면서도 내담자를 상담에 깊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과 '복음'이다. 이는 군중목사 혹은 군중상담자만이 가지는 강점이다.

(2) 성직자로서의 상담자의 모습을 전달하라

앞서 소개한 대화의 좋은 매개체로서의 '공동의 관심사', '교집합'을 생각할 때, 내담자가 군중상담자에게 기대하고, 반대로 군중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만의 고유한 특성과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도움'이자 '성직자로서의 구별된 자리'이다. 군인은 태생적으로 수직적이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제한된 구조에서 존재하기

¹⁹ 손강숙, “분과 심포지엄 8. 상담: 상담동기와 비자발적 내담자를 위한 상담접근;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Dr. Brodsky의 접근방식”,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2013), 161-163.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치료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는 군종상담자에게 오기까지 이미 수많은 ‘군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적게는 몇 차례, 많게는 몇 십 차례까지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종장교는 군인이면서도 동시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위치 자체로 장병들에게 줄 수 있는 안정감과 신뢰도의 크기,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방향성’ 자체가 상이하다. 이미 군종제도가 정착된 미국 등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일반적인 상담이나 임상분야의 의료인들이 주는 효과와 별도의 영역으로 군종상담자(Chaplain)가 주는 긍정적 역할을 폭넓게 설정하며,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²⁰ 외부적인 도움을 제공받기가 크게 제한되는 군상담에서 군종상담자의 역할은 하나의 차별성 있는 접근으로 내담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을 도입하면서 다른 이들과 동일한 ‘간부’가 아니라 ‘성직자인 군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인지시키는 것은 상담의 진행에 강력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내담자가 종교가 있고, 또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내담자와 상담자는 이미 강력한 영적인 관계(spiritual connection)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에 대화의 시작에서부터 신뢰,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변화와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정도와 영향의 지속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²¹

²⁰ Karen Besterman-Dahan, “The role of military chaplains in mental health care of the deployed service member,” *Military Medicine* 177(9)(2012), 1028-1033; Frank C. Budd, “An Air Force model of psychologist-chaplain collabor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6)(1999), 552; Judith A. Sigmund, “Spirituality and trauma: The role of clergy in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2(3)(2003), 221-229.

²¹ Karen Besterman-Dahan, *op. cit.*, 224.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종교적인 관계 형성은 상대방의 종교적 혹은 영적인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거부감 없이, 효

이것은 단지 군중상담자의 성직자의 역할만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면서도 (혹은 군대를 잘 알고 있는) 성직자라는 ‘이중 신분’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군의 특성과 내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며, 또 내담자가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세밀히 알고 있는 ‘군인’이지만, 부대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며,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성직자’의 신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중장교가 상담을 도입하고, 대화를 하면서 군인이면서도 성직자인 이러한 상담자의 이미지를 초반에 내담자와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면 상담 진행 전반에 실제적이고, 대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내담자를 문제 상황으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전까지 가족이나 개인사에 대해서 내담자가 활발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C17 :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앞의 이야기들은 A일병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일반적 대화였다. 이제 정기순회상담담게 군문제를 꺼내 들었다.) A도 알다시피 요즘 부대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나고 있잖아? 그래서 B(지휘관)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 군중장교로서, 목사님으로서 장병들과 상담해 달라고. 혹시 먼저 상담한 병사들이 무슨 이야기 없었니?

P17 : (잠시 생각하다가)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C18 : 음, 그랬구나. A는 입대하고 자대생활에서 힘든 것은 없었니?

P18 :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정들은 소위 '시간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군 안에서의 행위들은 '기대되는 시행시간'이 있다는 의미이다. 자연스레 이것은 군상담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자와 부대의 병력관리자에게서 이해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가 된다. 즉 부대에서는 상담이 기대되는 시행시간 내에서 미리 계산된 수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상담이 이렇게 계량화된 계획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외상 상담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 내담자는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가 아직 낫진 상담자에게 언제, 어떤 단계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을지는 알 수 없다. 실제 사례 중에서는 5-6회기에 걸쳐서야 내담자가 진솔한 반응을 보였던 사례도 존재했다. 결국 상담 전반의 진행은 내담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군 안에서는 상담자가 '시간계획' 안에서 상담을 하기에 상담이 일정 시간단계에서는 어떤 정도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결국 자연스레 도입부에서의 일상적이고 편안한, 즉 라포가 형성되는 대화를 하다가 급하게 '본론' 및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소 부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겠지만, 내담자의 고통의 범주와 깊이가 강력한 외상 상황에서의 상담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이다. 자칫하면 이전에 애써 형성한 라포와 편안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내담자가 방어적인 모습을 다시 발동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4) 경청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되 상담의 목표와 목적은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상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되는 상담의 절대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경청’일 것이다.²² 외상 상황의 군중상담에 있어서도 이 경청의 힘은 절대적이다. 상담자의 언어가 아니라, 내담자의 언어를 통해 상황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스스로 상황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외상 상황 상담의 목표라고 했을 때, 경청과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의 전개는 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하다. 경청과 이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통해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전개 및 개입, 발전 및 마무리 상황으로 상담이 자연스레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된다.

하지만 도입 부분에서 동시에 유의할 것은 이런 경청과 자연스러운 반응, 내담자가 주도하는 상담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상담자가 미리 설정한 목표와 상담자가 내담자에 주기를 원하는 도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임상목회교육 초반의 병원 군중목사들의 일상적인 상담 패턴을 분석할 때, 다수의 경우는 소위 ‘신변잡기류’의 대화만 하다가 상담이 마무리되었던 사례가 상당수였다. 외상 상황에서의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의지가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자 존중할 가치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상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내담자가 적절한 영적인 개입과 문제 상황으로의 상담의 전개를 내심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략적인 경청’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 이전 혹은 초반에 미리 설정한 바, 상담의 목표와 목적, 도움의 방향성을 상담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경청과 공감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상담이 되면서도 상담자가 핵심 상황에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감정과 핵심 질문들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상담 전개문제 상황으로의 개입

²² 송동림. “‘경청’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신학전망』 (168) (2010), 60-93.

상담 전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 상황으로 개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상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계이자 민감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외상을 단순히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 경험 당시의 감정과 인지하지 못했던 고통스런 감정과 상처들까지도 인지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직면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목표가 ‘기억’과 ‘직면’이라고 해서 상담자는 선불리 내담자의 외상 경험을 기억하도록 강요한다거나 무리해서 직면시키려는 시도는 삼가야 한다. 상담을 전개할 때 내담자가 외상 경험을 상담자에게 털어놓으면서 고통과 상처를 인정하는 작업은 감정 방출로 인한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에게 선부른 개입과 부족한 감정의 종결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개 단계에서 상담자는 도입 과정에서 내담자와 형성한 정서적 공감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담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내담자가 외상 경험에 대한 회상이나 감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담자 내부의 감정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안에서 이뤄지는 상담의 경우 대부분이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상담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명령에 의한 상담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²³ 여기서 군중상담자는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담자가 외상 상황과 관련된 속마음을 표현하도록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을 관찰하라

상담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도입단계에서부터 내담자가 사용하는 단

²³ Judith Lewis, Herman,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 Basic books,1997). 57-85

어(언어적 요소)와 몸짓, 표정, 시선(비언어적 요소)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내담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다음의 사례는 도입단계에서 내담자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단어를 상담자가 놓치지 않고 다루면서 상담이 내담자의 문제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경우를 보여준다.

(면담 진행일이 명절 당일이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발전됨)

C7: 사람들 속에 있긴 한데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외로운 느낌을 좀 받을 거 같애. 요 몇 주 동안 평소보다 더 우울하진 않았는지 좀 염려도 되고 그러네?

P7: 뭐 사실 그런 느낌 좀 있었습니다. 살짝 좀 더 외로운 느낌? 명절도 명절이고, 저도 이려고 있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C8: 옛날? 옛날이라면 언제?

P8: 아 그냥……(살짝 머뭇)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C9: 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운 느낌 받은 적이 있단 말이지?

내담자는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무심결에 내뱉은 ‘옛날’과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그 단어의 의미를 물었고,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관찰함으로써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학교폭력’이라는 과거 외상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위의 사례처럼 언어적 요소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비언어적 표현까지 통합해서 살펴보는 것은 상담 전개에 있어 매우 큰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 자원은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는 상담에서 적절한 질문과 공감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 C9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언어,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관찰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외상 경험

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말에 적절히 공감하고, 반응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던짐으로 한층 더 발전되었다.

(2)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라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는 상담에서 상담자의 질문은 상담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담자는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닫힌 질문’(폐쇄형 질문)과 ‘열린 질문’(개방형 질문)이 있다.²⁴ 질문했을 때 상대방의 대답이 ‘예’ 또는 ‘아니오’로 나오는 것이 닫힌 질문이라면, 상대방이 다양하게 탐색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질문이다. 아래 대화록에서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연달아 나타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P가 낮은 자존감을 보이면서 포기 혹은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

C17 : 내려놓는다……혹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니?

P17 : 그냥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기대를 안 하려고요. 전에는 몸도 계속 여기저기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보직이나 그런 것도 다른 걸로 바꾸고 싶고, 아예 부대를 바꾸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신경 쓰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C18 : 일종의 포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 뭐든지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P18 :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²⁴ 이광자, *op. cit.*, 164.

인용문에서는 연속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한두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효과를 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화이다. 첫 번째 질문은 열린 질문에 해당하는 예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용한 개념의 의미를 열린 질문을 통해 되묻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내담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과 인식이 반영된 자신의 언어로 이를 자세하게 풀어내 풍성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은 닫힌 질문의 예로, 상담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담자는 간단하게 긍정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시기적절한 반응과 내담자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상담의 깊이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내담자의 감정에 공감하라

앞서 분석한 것처럼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상담자는 열린 질문과 같은 효과적인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질문과 반응의 근간에는 ‘공감’이 기본이다. 때로 공감을 동정이나 공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감은 무조건적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맞추어주는 수준이 아닌,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치 거울처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을 그 수준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²⁵ 칼 로저스는 일반적인 비숙련된 상담자들

²⁵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정의한 공감의 수준은 1-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상대방의 언어 및 행동 표현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이 표현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소통하는 수준-2단계: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반응은 하지만 상대방이 표현한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감정을 제외시키고 의사소통하는 수준-3단계: 상대방이 표현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정서와 의미를 표현하여 상호교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4단계: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수준, 4단계 수준부터는 의사소통이 촉진된다. 5단계: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었던 감정의 내면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상담자의 내면적 자기 탐색과 완전히 같은 몰입 수준에서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과 의미에 첨가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이해하여 표현한다. 추가적인 연구는 Carl R. Rogers,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 오제는 역 (서울: 학지사, 2007) 참조.

은 보통 2, 3단계로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내담자가 했던 말 이상으로 감춰져 있는 감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내면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4, 5단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함을 밝힌다.

다음의 사례는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해 폭력적인 상황에서 불안증세와 자살충동을 호소한 내담자와의 대화 일부이다.

(내담자의 핵심 감정으로 다가가면서 P가 과거 경험했던 가정폭력을 고백하게 된다.)

C10: 그럼 친구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 적은 없니?

P10: 친구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찰이 출동해서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C11: 아, 경찰에도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구나.

P11: 네. 그때는 정말 너무 심해서 거의 살인미수였습니다.

C12: ○○이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살인미수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폭력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저러다가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P12: 네,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C13: 어머니께서 죽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가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고 한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을 거 같아.

P13: 네, 정말 그랬습니다.

인용문을 보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심층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외상 경험에 대한 묘사만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다. 상담자는 이런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은 ‘무서움’, ‘불안’, ‘답답함’

등의 감정을 반영하는 언어들에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상담자의 높은 공감 수준과 다양한 감정 언어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9: 특기가 ××병이면, △△학교도 갔다 왔겠다. △△학교에서 생활은 어땠어? 동기들이 있고 그래서 재밌고, 그랬을 것 같아.

P10: (침묵) 네……뭐……별 다른 건 없었고, 동기들이랑 친밀하게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생활관이 바뀌면서 바뀐 생활관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가끔 전 생활관 사람이나 교관 뒷말을 했는데 저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담자와의 공감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다면, 높은 수준의 공감을 위해서, 상담자가 지나치게 내담자의 감정을 짐작하거나 오히려 감정과잉을 보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대화를 볼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과도하게 앞서가면서 내담자의 감정과 상반된 짐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해당 사례의 환자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처럼 때로 내담자가 중심이 되지 않은 공감은 자칫하면 어렵게 형성된 공감대와 라포를 한순간에 깨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4) 침묵을 활용하라!

상담 전개에서 질문과 공감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침묵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상담자들이 종종 내담자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범하는 실수 중의 한 가지는 대화 중 발생하는 침묵을 불편해하는 것이다. 침묵을 불편해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씩 공감한다거나 반대로 감정의 흐름을 깨뜨리는 말이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의 대화는 대화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침묵을 견디지

못한 상담자가 조급하게 공감하고 대화를 주도하면서 문제 상황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를 보여준다.

P31: 그때는 정말 죽을 생각도 매일 하고, 실제로 개네들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계획 같은 거 짠 적도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삶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됐습니다.(침묵)

C31: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나로서는 상담하는 입장이지만 생각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어릴 때 이걸 혼자서 겪었으니. (침묵…… 기다릴까 생각했지만, 말을 덧붙이기로 한다).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난 네가 그래도 그런 힘든 일들 속에서 이렇게 선하게 잘 자라줘서 참 기특하다. 물론 힘든 게 있으니 여기에 와 있겠지만. 나도 목사로서 사람 만나면 느끼는 이미지나 느낌 비슷한 게 있거든. ○○이는 참…….

P32: (살짝 당황한 듯, 혼자서 피식 웃고 테이블을 쳐다본다) 감, 감사합니다.

위의 대화에서 상담자는 P31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C31에서의 앞부분같이 공감으로 반응한 이후에 침묵을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조급하게 대화를 이끌고 나감으로 인해 내담자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발언을 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과거 트라우마를 경청하고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숙련되지 않은 상담자의 일반적인 이런 반응과는 달리 상담-심리적으로 볼 때, 침묵은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의 일부이며 오히려 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크다. 상담에서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 감정의 조절이 변이가 발생하며, 내담자 측면에서는 이 침묵을 통해 새

로운 자기 인식을 수용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상담자는 내담자가 침묵 중에 드러내는 비언어적 행동(눈 깜빡임, 손의 움직임, 자세나 호흡)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역시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²⁶

따라서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조급함을 버리고 경청과 침묵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내담자가 이끄는 상담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3) 상담 발전, 제시 및 완화

문제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이제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상 상담의 경우,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해결하는 것에 상담의 목적이 있지 않다. 대신 과거의 외상 경험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현재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감정과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²⁷ 상담발전-완화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상담이 외상 상황에 대한 핵심 감정에 도달하고, 이를 내담자가 거울과 같이 보도록 도우며, 다시 내담자 자신이 이를 수용, 직면 및 발전하도록 돕는 데 아래의 요소들이 좋은 기준이 된다.

(1)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점검하라

외상 상담의 핵심적 감정을 다루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내담자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내담자들은 자신이

²⁶ 신경진, “심리치료에서의 침묵: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1997), 227-257.

²⁷ Victor Landry는 이를 정리하면서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상담과 목회적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혼란 속에 빠진 내담자에게 친밀한 동료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Victor Landry, “Pastoral care in a trauma center,”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5(3)(1997), 211-214.

경험한 과거의 외상 상황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처 보지 못하고, 또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에 대한 정리는 현재 내담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의 답을 자신의 자원과 방법을 기반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래 사례는 상담자가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도운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내담자는 해당 부대에서 복무 부적응에 시달렸으며, 이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자살 충동에 사로잡혔다. 결국 야간 근무 중 자해 시도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 오게 되었다.)

C33 : 그랬구나. 그냥 선임들 보면 무섭니? 별 뜻 없이 하는 말도?

P33 : 네, 갑자기 몸이 굳습니다. 핏줄도 쩍 서고……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부대에서도 관심 병사 되고.

C34 : 혹시 왜 그런 것 같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

P34 :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있다) 음……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학교 다닐 때의 기억들이 제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따돌림당하고,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고, 자꾸 위축되고……. 뭐 그런 시간들이 3년이나 되니까 그냥 남자들이 가득한 이런 데가 싫고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C35 : 그래 그런 기억들을 떨쳐 내기가 쉽지 않겠지.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겪을 수 있는 아주 강렬한 좋지 않은 기억이

니까……많이 힘들었겠다. 계속 정서적으로 불안한 마음
이었을 텐데. 그치?

위 사례의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다루며 그에게 특정한 감정의 이유나 바탕, 감정의 실체를 묻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현재의 감정과 고통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담자 스스로가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내담자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외상 상황을 미처 정리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현재의 문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상담자는 이 단계에서 이전 세션을 통해 얻은 정보와 라포를 통해 내담자가 특정한 기억이나 감정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뤄진 과거 외상 경험과 현재 문제 상황의 연관성을 인지한 내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풀어나갈 단서가 과거 경험을 정리(managing)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해결 중심적 상담을 지양하라

군중목사는 종교시설이나 부대에서 예배 인도나 설교뿐 아니라 교육, 위문, 현장 중심 활동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상을 설득하는 성격의 활동을 대체적으로 맡고 있다. 이는 꼭 군중목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 성직자 역시도 사역의 정체성이나 오랜 사역 경험에서 이러한 성격을 대체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일반적인 종교활동과 교육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상담에 있어서 만큼은 주의해야 할 요소를 내재한다. 바로 내담자 스스로가 감정을 매듭짓고, 해결의 방법을 마련하도록 돕는 상담자 및 동료의 역할에서 벗어나 상담자가 스스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려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CPE 과정 중의 상담을 분석할 때, 특히 이 상담 전개 및 제시, 완화 단계에서 군중상담자들은 자신의 익숙한 습관대로 도덕적 판단이나 문제 해결에 강하게 집착하여 해결 중심적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내담자가 잠재적인 자원과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다음 대화록은 상담에서 해결 중심적 반응을 보인 군중상담자의 모습과 내담자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

(내담자는 운동을 그만뒀야 할 상황 속에서 막막함을 토로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

P16: 네. 저는 운동을 하고 싶고, 운동밖에 모르는데……어쩌면 운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대로 아버지 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C17: 그래도 목사님은 정말 네가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혹시 만약에 운동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아예 다른 ○○쪽일보다는 체육 교사라든지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P17: 일단 체육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공부로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것도 공부가 싫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선수 경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C18: (웃으면서) 아, 진짜 공부를 싫어하는구나. 그래도 조금씩 책은 읽는 게 좋을 거야. 꼭 공부를 하지는 않더라도 책을 읽으면 생각도 넓어지고 세상 보는 눈도 키울 수 있잖아. 그리고 혹시 아버지 일을 돕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같은 걸 따야 되지 않나?

P18: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무슨 ○○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C19: 아무리 체육을 하는 사람도 공부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평생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네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가벼운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네. 책을 읽다 보면 혹시 다른 쪽으로 길을 찾게 될 수도 있고.

P19: 네. 이제 집에 가면 회복하면서 책을 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래도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내담자는 전문 운동선수를 꿈꿨지만 훈련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계획이 좌절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인용문에서 보이듯, 상담자는 시종일관 해결 위주의 반응으로 내담자와의 상담에 임했고, 이런 반응은 C18, C19에서 드러나듯 내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결국 상담자가 내린 결론을 동의하는 것으로 대화가 종결된다. 해당 상황에서는 내담자가 외적으로 드러낸 고민인 진로문제뿐 아니라, 꿈이 좌절되고 신체적 고통이 발생한 상황과 그 감정에 대한 더욱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P19의 반응은 내담자가 대화로부터 받은 인상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위 대화록에서 발생한 상황은 일반적인 군중상담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군중상담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군중상담자는 외상 상황에 있어 자신이 해결사가 아니라 안내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변화를 모색하려 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먼

저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적절한 공감과 질문을 활용한 대화를 통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식과 자신이 찾은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특별히 대화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가 충분한 라포와 신뢰감이 형성되었다면, 군중상담자는 조심스레 성직자로서의 강력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내담자의 인식을 전환시켜라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반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보지 못하거나 현재보다 나은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악화된 상황을 염려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때-앞선 조건들이 충분히 만족되었다는 전제하에서-군중상담자는 흔계나 지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조언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다.²⁸ 이는 1차적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줌으로, 동일한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시켜 줄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C25 : 그래 그런 생각하겠지. 하지만 걱정하면서도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뭘 하면 행복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 결국에 너한테 답이 있을 거야.

P25: 근데 전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출한 재능도 없고, 학교 다닐 때부터 뭐하나 뛰어난 것 없이 그냥 남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C26 : 그래. 한번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가슴 뛰게 했던 게 뭐였는지. 혹시 내가 했었던 일 중에

²⁸ 임재호, 『트라우마 이해와 치료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2014), 345-359.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 이걸 쉬운 답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에 있으면서 〇〇이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답일 수도 있잖아. 진짜 군대에서 판 사람은 얻지 못하는 기회인데 네가 얻은 좋은 선물일 수도 있어.

P26: (계속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놀란 듯이 약간 입을 벌린다) 아, 그렇기도 하네요. 정말……진짜……한 번 조용하게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우와 신기하다.

이전부터 지속된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해당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관점과 자기효능감의 개선을 돕고자 하였다. 하지만 내담자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관점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이때 C26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집중하라는 전환적 인식을 제시하였다. 이에 내담자는 이와 같은 상담자의 제시에 스스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향을 모색하기로 결심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 성경을 활용하라

군중상담자가 상담을 할 때 일반상담자와 구별되게 가진 강점 중에 하나는 군중상담자는 성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권위를 기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풍부한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신건강뿐 아니라, 외상 상황 및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 성경말씀을 나누는 것의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규명한 바

있다.²⁹ 이들 연구결과만이 아니라, 실상담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군종상담자가 성경의 구절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용할 때, 다른 어떤 상담적 도구보다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대화록에 이어지는 아래의 대화에서는 군종상담자가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내담자에게 생각의 자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C27 : 난 목사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는데,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보면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만사에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 난 그 말씀을 믿어.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고 뒤쳐진 것도 아니야. 넌 군대에 늦게 온 대신 남들보다 더 얻은 것도 있잖아

P27: 아……목사님 혹시 그 말씀이 어딴니까? 저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딱 필요한 구절? 말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군종상담자는 내담자에게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그 자원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였고, P27에서 드러나듯, 내담자는 자신의 상황과 들어맞는 성경말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성경이 가지는 강점은 그 권위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받는 경전을 상담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

²⁹ Hart A. Clinton, *Caring for People God's Way: Personal and Emotional Issues, Addictions, Grief, and Trauma* (Nashville : Thomas Nelson Inc, 2009); Larry W. Ventis,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51(2)(1995), 33-48.

써 다른 대중적인 문구를 인용하거나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보다 때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군중상담자가 가진 고유한 영적 동반자, 영적 치유자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다만 성경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내담자의 성향과 상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다소 강압적이고 무리하게 경전을 인용하면 오히려 설교나 도덕적 교훈을 강압적으로 듣는 듯한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5) 감정 폭발에 적절히 대응하라

외상 상황 하에서 이뤄지는 상담, 특히 상담의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 상담에서도 눈물이나 강력한 분노, 강력한 제스처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반응은 PTSD를 겪는 집단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나 군과 연계된 외상 상황에서는 분노와 적대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³⁰ 하지만 상담 중 이러한 감정의 폭발이 발생할 시, 상담자 역시도 내담자의 감정적인 반응에 당황하여 이에 대한 반응이 미숙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감정을 터뜨린 내담자를 마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것이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심리-상담학적으로는 ‘정서적 지지’라고 칭하는데,³¹ 그것이 어떤 반응이던 간에 내담자의 심적 고통이나 심리적 반응을 1차적으로는 존중 및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동조를 통해 내담자는 일종의 카타르시스(해소)적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위 ‘애도과정’을 가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인위적으로 내담자의 감정의

³⁰ 김태열 외, *op. cit.*, 3.

³¹ 김민경, *op. cit.*, 581.

방향을 바꾸거나 감정의 폭발을 막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감정의 폭발을 마주할 때는 그것을 언어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손의 마주잡음, 포옹, 시선, 토닥임, 혹은 기다림 등 상담자의 시기적절한 비언어적 접근이 크게 요구된다.

(내담자는 군내 자살사건의 목격자이며, 이후 정서적 불안이 심각해져 상담을 가지게 되었다.)

P19 : 잘 모르겠어요……그냥 계속 무섭고……그때 느꼈던 공포감이 들어요……. (운다)

C19 : 에휴, 그렇구나……(잠시 우는 것을 기다리다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는다.) 지금도 계속 많이 무섭고 그러니?

(중략)

C20 : 그럼 목사님이 잠깐 함께 기도해도 될까?

P20 : 네.

C21 : (잡고 있던 손을 조금 더 꼭 잡는다.) 하나님……우리 아버지……(생략)

위의 대화록은 기다림, 다가감, 손잡음 등의 다양한 스킨십을 활용한 접근방법을 보이는데, 외상 상황에 직면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내담자를 다른 언어적 접근보다는 적절한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내담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 상황에서 비언어적인 요소로 소극적으로 표정이나 자세 등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킨십 등을 (윤리적, 상황적으로 허용되는 정도 안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상담을 전개 및 발전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법들은 일반상담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군중상담자라면, 일반

상담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군중으로서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특별히 외상 상황 하에서 군중장교가 상담자로서 일반상담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서론과 상담 도입에서 언급한 바 군중상담자는 이 단계에서 내담자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주어야 한다. 군 임상목회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점은 상담 혹은 환자와의 마주함 중에 '영적인 자리를 찾는 것'이다. 군 병원 현장에서 마주한 많은 외상 상담에서도 상담의 일반적 도구는 다양한 상담기법이다. 하지만 임상목회 및 군중상담에서의 보다 중요한 근간은 상담과 면담 중에 '상담 중에 영적인 자리가 있었는가?' 혹은 '영적 상태를 먼저 주었는가?'의 문제이다. 상담을 전개하고 발전, 완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군중상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상담자가 영적인 자리를 의식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다. 이는 상담 종결의 단계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

4) 상담 종결

군 병원에서 군중상담자에 의해 이뤄지는 외상 상담의 경우 상담이 오랜 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제이다. 하지만 야전의 전투부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담이 불가능하며, 단 1-2회기 안에 상담이 종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더욱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담의 지속 여부를 떠나 한 번의 상담에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담자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며, 특별히 외상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떠올리기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외상 상담은 상담자에게도 힘든 과정이지만, 무엇보다 내담자에게 매우 큰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정의 표출, 직면, 반응 및 수용, 휴식 및 안정의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배

려해야 한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도움은 내담자가 외상 사건을 언급하고 직면하도록 하는 그 자체에 상담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면했을 때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이 종결될 때는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서적, 영적 환기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지지를 확인시켜라(구체적인 약속 정하기)

일반적인 경우, 상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상담자와의 상담 시간이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었다면, 내담자는 다음 상담 시간을 기대할 것이며,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은 내담자에게 일종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지지자가 있어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가피한 제한으로 인해 내담자와의 상담을 한 회기로 끝내야 할 때에는 내담자에게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함께하는 정서적 지지자가 있음을 인지시켜줌으로 상담을 종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담자는 극도의 고립감, 죄책감, 수치심을 겪는다. 한 번의 상담으로 내담자가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함께하는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내담자의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

(2) 미래 계획을 점검하라

내담자에게 기대하는 미래의 상태를 질문할 때에 내담자는 문제를 극복한 미래의 상태를 상상하고, 직접 언급하고, 그 미래 상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외상과 그 이후의 트라우마는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은 이 외상 경험을 넘어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외상 후 성장’³²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를 꼭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외상 경험 이후에 발전되고 더욱 성장한 ‘기대 이미지’를 내담자에게 묻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에게는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성장하고, 극복한 자신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문제의 극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잠재적으로 심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 외상 상황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은 대개 과거의 사건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내담자의 관점을 보다 넓게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이처럼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것을 하고 싶니?’, ‘이런 기억들을 극복한 네 모습은 어떤 것 같니?’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 자아상을 기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상담 이후에도 지속될 내담자의 삶을 위해 미래 계획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3) 영적 환기를 도모하라

군중상담자는 상담을 마무리할 때에 내담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를 통한 영적 환기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군중상담자의 특권이 차별점이 된다. 기도를 함으로써 군중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리하도록 돕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또한 내담자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이때 기도와 같은 영적 환기는 내담자에게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더욱 높은 차원의 힘이 될 수 있다.³³ 따라서 기도의 내용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용서하시는 하나

³² 최수미, *op. cit.*, 302.

³³ Karen Besterman-Dahan, *op. cit.*, 1030.

님의 이미지,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언급하면, 내담자의 종교를 떠나 기도 자체로 내담자에게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는 상담자의 언어와 논리가 아니라, 내담자가 상담 중에 직접 사용한 언어의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이다. 예컨대,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답답함’, ‘불안함’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면, 군중상담자는 기도를 통해 내담자가 고백한 해당 언어와 내담자 자신이 발견한 장애를 직접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자 역시도 내담자의 감정의 핵심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다.

다만 기도를 할 때에는 내담자의 종교적 성향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 중에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기도 전에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내담자가 기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종교가 일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4) 상담 후 상담을 복기하라

상담이 종결되고 내담자가 떠났다고 해서 상담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 아니다. 군중상담자는 상담이 끝난 후에 반드시 상담의 내용을 복기하며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CPE 과정에서는 목표의 달성 여부, 상담 후 내담자의 상태(사회·정서적/심리적/영적),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끼친 영향력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상담 전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찾고,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상태와 외상 상황을 바라보

는 관점의 전환이 있었는지를 찾음으로써 내담자의 내면 상태의 개선 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상담자의 질문과 반응이 내담자가 마음을 열고 말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복기함으로써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상담을 복기함으로써 상담 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담자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군중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사회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상담의 의미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내담자들이 경험한 문제 상황 자체는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지만, 외상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을 좀 더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군중상담자는 목회활동과 예배를 통해 이런 문제 상황의 근본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또한 이를 듣는 성도 혹은 청중들로 하여금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요청하고, 개선된 관점을 도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 후 이뤄지는 자가적인 분석은 내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상담/치료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내담자와 유사한 경험을 한 또 다른 내담자를 치료하고 만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나가는 말

이 연구는 의무사령부 예하 8개 병원 군중목사들이 군 병원에서 6개월간에 걸쳐 군 환자들과 관찰하고 면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외상 상황에서의 군중상담의 성격과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특별히 야전부대에서의 현장 경험과 임상목회 현장, 즉 군 병원에서의 경

힘을 비교분석하여 외상 상황에서의 군중상담이 가지는 고유한 역할과 필요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군중상담자들이 외상 상담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과 도구들을 제시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외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외상 상황에서의 군중상담을 준비에서부터, 도입, 전개, 발전-제시-완화, 그리고 종결의 다섯 가지 단계로 임의로 범주화하였고, 각 단계마다 고유한 이해요소와 유의점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외상 상황과 일반적인 상담 상황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외상 상담의 특수적인 성격을 제시하였으며, 한발 나아가 군중상담자들이 이런 특수성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이어지는 준비과정에서 논의하였다. 이 준비과정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 숙지 및 상담 환경, 그리고 상담자의 상담적-영적 준비를 강조하였다.

중심적인 논의를 통해서는 군중상담자들이 상담 도입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영적 동반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제 상황으로 개입하는 상담 전개에서는 내담자의 의미 있는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언어/비언어적 도구, 적절한 질문, 공감, 침묵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상담의 정점에 해당하는 발전과 제시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외상 상황을 직면할 때 군중상담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반응과 방향성을 점검하였으며, 인식의 전환과 성경 활용 등의 실제적인 도구의 적절한 사용을 유의점과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영적 환기를 도모하는 특수한 방법들을 실제적인 의미와 함께 분석하였고, 상담 복기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외상 상황하에서의 군중상담에 대해

선행연구 및 기존 군중상담과 관련지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상 상황 및 PTSD에 대한 군 내외적인 증대된 인식과 요구와는 반대로, 이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군중 조직의 자원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군중병과는 최근의 복무환경 급변과 입대장병의 가치관 변화 등의 상황을 마주하며, 활동내용과 방향성에 관한 한 증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반적인 야전부대의 경우에 한정시킨다면) 현재 군중장교의 역할에서 상담이나 면대면의 활동을 통한 심층적이고 심도 깊은 병력관리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각 군중장교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장 중심적 군중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을 상담 혹은 장병 개인과의 만남의 차원으로 가지고 온다면, 현재 야전부대에서 내담자와의 심층적,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나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빈도나 내용 등은 모두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가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군 병원의 군중장교는 군 병원에 존재하는 군중장교와 입원장병의 특수한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 병원에서는 군중활동의 모든 면이 상담 혹은 심층적인 병력관리의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야전부대와와의 차이로, 환자들이 있는 곳이 이른바 '작전 지역'이며, 그곳이 '주둔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그리고 심도 깊은 면대면의 관리가 가능하다. 이 연구논문의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역시 일반적인 야전부대에서와는 상이하게 한 내담자 당 평균적으로 3회를 전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군 병원의 군중상담, 특히 외상 상황에서의 군중상담은 군 병원에서의 군중상담이 가지는 특수한 강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군중상담에서 ‘영적인 자리’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이자 동시에 한계인 측면은 이것이 일반적인 상담 차원의 연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경청, 침묵, 적절한 반응의 차원은 일반상담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중상담자에게서 이루어지는 상담, 특히 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내담자 즉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측면을 ‘영적인 해답’을 얻음으로써 근본적인 답을 구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많은 외상 상황에서의 군중상담은 자신의 질병의 원인이나 고통의 의미, 나아가 해결 방법 등을 영적인 도움과 연계지어 전개되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군 병원의 군중상담자뿐 아니라 군중상담자 모두가 군중상담의 구별되는 성격과 나아가 군중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spiritual impact of trauma, as well as the spiritual aspects of general illness has recently led to a growing need for a fundamental research with the basic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actual application.

The study was performed to conceptualize the role of military chaplain in the traumatic situation, including treatment of PTSD occurred afterward, in the army, and to investigate the general,

actual strategies of military chaplains' approach-counseling. This research utilized an actual counseling data, collected and analysed in the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of the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from the military hospitals which include actual cases of various traumatic situation and PTSD patients appeared out of the actual d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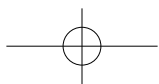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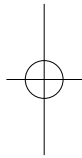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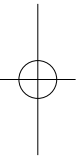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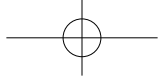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Given the spiritual challenges of the traumatic experience, specially comes from the military confrontational situations uniquely exist in Korea, the study validates patients with PTSD could benefit from spiritual assessment and counseling as part of their overall treatment procedure, and chaplain can be utilized to perform this.

Specifically, the study identified the basic difference of chaplain's approach strategy for the traumatic situation with general military scenes. Also, the study illustrated the ground rules and methods for counseling(assessment) using real data and actual consultative records with an assortment of counseling phases: setting, introduction, development, reaching a core emotion, closure of session.

Both the investigation for the role and strategy of the military chaplain suggest that their unique approaches specialized in spiritual stabilization and change of spiritual recognition are imperative.

주제어(Key words):

군종목사(Military Chaplain), 외상 상황(Traumatic Situation),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담(Counseling), 영성(Spirituality)



군선교신학 13

1판 1쇄 인쇄 _ 2015년 10월 20일

1판 1쇄 발행 _ 2015년 10월 27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부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v2020.or.kr>

E-mail _ meak@v2020.co.kr

제작처 _ 쿤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gmail.com /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_ 쿤란, 쿤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책임교정교열 _ 이규철 목사·김대덕 목사·심미숙 팀장·박종민 간사

값 15,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